

#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글로벌 분업관계 변화: 우회수출기지로서 인도 및 아세안 역할을 중심으로

이순철 · 김완중 · 노영진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글로벌 분업관계 변화:  
우회수출기지로서 인도 및  
아세안 역할을 중심으로**

이순철 · 김완중 · 노영진

세계지역전략연구 25-02

##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글로벌 분업관계 변화: 우회수출기지로써 인도 및 아세안 역할을 중심으로

인쇄 2025년 12월 26일  
발행 2026년 1월 13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9066-9 94320  
978-89-322-9000-3(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GVC 변화에 따라 인도 및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이 간접수출 및 생산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ADB의 2015~23년에 다자간 세계투입산출표(MRI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 자료를 포함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 전후의 GVC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미중 무역전쟁 이전, △트럼프 1기 정부 시기, △바이든 집권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이 인도 및 주요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한 GVC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부가가치에 기반한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 변화요인을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간접수출의 경유지별·최종 목적지별 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별·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GVC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GVC 구조 전반에 충격을 주었으나, 한국·중국·일본·대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들은 회복력 있는 대응을 보인 반면,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대만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최종재 중심의 FVA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방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베트남은 FVA 의존도가 높아지는 수출 구조로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중간재 및 재수출 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트럼프 시기의 고관세 정책은 산업 구조의 외부 의존성과 국내 부가가치 수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에서는 수직특화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인도는 트럼프 시기에 참여도가 하락하였다가 단기 반등 후 2021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과 대만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베트남은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고관세정책으로 나타난 수출 변동 요인을 부가가치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산업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수출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은 최종수요 확대가 부가가치 수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진국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GVC에 참여하는 반면, 신흥국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GVC 후방 참여를 통해 수요 기

반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5장에서는 GVC 변화에 따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간접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선진 산업국들은 대(對)미 수출을 위한 경유 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국가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와 높은 GVC 참여도를 바탕으로 경유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서 정교한 복수 경로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인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은 새로운 경유 및 간접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경유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중간재가 경유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20~3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우회수출 비중이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를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우회수출 거점을 넘어 GVC의 주요 생산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제6장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GVC 변화에 따른 인도,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GVC 대응 전략으로는 기술적 무역 다각화, 한국의 GVC 포지셔닝 전략 수립, 관세 격차 조사 및 GVC 재편 방안 마련, 특혜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및 확대 등을 제안

하였다. 아울러 인도와 아세안의 우회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 전략 구축, 기업의 품목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가. 연구의 필요성 ..... 20

        나.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 ..... 21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25

    3. 연구의 접근 전략 ..... 26

**제2장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 분석** ..... 31

    1. 분석방법 ..... 32

    2. 국가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분해 ..... 36

        가. 중국 ..... 37

        나. 한국 ..... 45

        다. 일본 ..... 54

        라. 대만 ..... 61

        마. 인도 ..... 68

        바. 베트남 ..... 74

        사. 인도네시아 ..... 80

    3. 소결 ..... 85

**제3장 부가가치 기반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관계** ..... 89

    1.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의존도 변화 ..... 90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위치 변화 ..... 104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변화 .....	104
나.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 변화 .....	114
3. 소결 .....	118

#### **제4장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 121

1. 수출변화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22
2.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	126
가. 중국 .....	126
나. 한국 .....	130
다. 일본 .....	134
라. 대만 .....	138
마. 인도 .....	141
바. 베트남 .....	145
사. 인도네시아 .....	148
3. 소결 .....	152

#### **제5장 주요국의 간접 및 우회수출 구조 변화 .....** 155

1. 주요국의 간접수출 경유지별 구조 변화 .....	156
가. 분석 방법 .....	156
나. 중국 .....	156
다. 한국 .....	161
라. 일본 .....	165
마. 대만 .....	168
바. 인도 .....	171
사. 베트남 .....	174

아. 인도네시아 .....	177
2. 주요국의 간접수출 목적지별 구조 변화 .....	179
가. 중국 .....	179
나. 한국 .....	185
다. 일본 .....	190
라. 대만 .....	196
마. 인도 .....	201
바. 베트남 .....	206
사. 인도네시아 .....	210
3. 국가별 및 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 .....	215
가. 연구 방법 .....	215
나. 우회수출 연계성 .....	218
4. 주요국 간접 및 우회 수출구조 비교 분석 .....	229

## **제6장 GVC 대응 전략 및 제언 ..... 239**

1. 정책적 제언 .....	240
가. 기술협력 기반 무역다각화 .....	240
나. 한국의 GVC 포지셔닝 전략 수립 필요성 .....	242
다. 관세 및 탄력성 기반 GVC 대응 방안 마련 .....	243
라. 특혜무역협정 지속 활용 및 확대 추진 .....	247
마.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제언 .....	248
바. 인도 및 아세안 수출 및 생산기지 역할 변화 .....	251
2. 기업의 대응 전략 .....	257
가. 글로벌 생산 및 수출 기지 전략 구축 .....	257
나. 기업의 품목별 대응 전략 수립 .....	259

3. 향후 연구 방향 .....	260
참고문헌 .....	263
부록 .....	267
Executive Summary .....	303



## 표 차례

표 2-1.	중국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	38
표 2-2.	한국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	45
표 2-3.	일본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	55
표 2-4.	대만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	62
표 2-5.	인도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	69
표 2-6.	베트남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	75
표 2-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	81
표 3-1.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	91
표 3-2.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	93
표 3-3.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	95
표 3-4.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	97
표 3-5.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	99
표 3-6.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	101
표 3-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	103
표 3-8.	수직특화구조 항목별 국가 비교 .....	114
표 4-1.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	128
표 4-2.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	133
표 4-3.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	137
표 4-4.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	140
표 4-5.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	144
표 4-6.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	147
표 4-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	151
표 4-8.	7개국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의 주요 요인 및 국가별 유발규모 ..	153
표 5-1.	중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	183
표 5-2.	한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	188

표 5-3. 일본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	194
표 5-4. 대만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	200
표 5-5. 인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	205
표 5-6. 베트남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	209
표 5-7. 인도네시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	214
표 5-8. 산업분류표 .....	218
표 5-9. 분석대상 국가들의 간접수출 경유, 최종 목적지 및 대미국 수출 경유국 요약 .....	230
표 5-10. 중국 제품의 분석대상국 경유 대미국 수출 현황 및 주요 수출 산업 .....	236



## 그림 차례

그림 2-1. 총수출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도 .....	36
그림 2-2. 중국의 주요 부가가치 유형별 수출 변화 추이 .....	39
그림 2-3. 중국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	42
그림 2-4. 중국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43
그림 2-5. 중국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44
그림 2-6. 한국 수출의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	47
그림 2-7. 한국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	49
그림 2-8. 한국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51
그림 2-9. 한국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52
그림 2-10. 일본의 3대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 변화 추이 .....	56
그림 2-11. 일본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	58
그림 2-12. 일본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59
그림 2-13. 일본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61
그림 2-14. 대만의 3대 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63
그림 2-15. 대만의 VAX 유형별 변화 추이 .....	64
그림 2-16. 대만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66
그림 2-17. 대만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67
그림 2-18. 인도의 수출 중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변화 추이 .....	70
그림 2-19. 인도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	71
그림 2-20. 인도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72
그림 2-21. 인도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73
그림 2-22. 베트남의 3대 부가가치 유형별 수출 추이 변화 .....	76
그림 2-23.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 유형별 변화 추이 .....	77
그림 2-24. 베트남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78
그림 2-25. 베트남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79

그림 2-26. 인도네시아의 3대 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82
그림 2-2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 유형별 변화 추이 .....	83
그림 2-28. 인도네시아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83
그림 2-29. 인도네시아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	84
그림 3-1. 미중 무역갈등 이후 미국 및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 변화 추이 .....	104
그림 3-2.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06
그림 3-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07
그림 3-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08
그림 3-5.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09
그림 3-6.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10
그림 3-7.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11
그림 3-8.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12
그림 3-9. 국가별 수직특화구조 비교 .....	113
그림 3-10. 국가별 GVC 포지션 지수 추이 .....	116
그림 3-11. 국가별 GVC 참여도와 위치 간의 관계 .....	117
그림 4-1. 중국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	127
그림 4-2. 한국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	131
그림 4-3. 일본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	134
그림 4-4. 대만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	138
그림 4-5. 인도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	142
그림 4-6. 베트남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	145
그림 4-7. 인도네시아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	149
그림 5-1. 중국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	158
그림 5-2. 중국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	159

그림 5-3. 한국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	162
그림 5-4. 한국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	164
그림 5-5. 일본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	166
그림 5-6. 일본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	167
그림 5-7. 대만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	169
그림 5-8. 대만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	171
그림 5-9. 인도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	172
그림 5-10. 인도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	174
그림 5-11.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	175
그림 5-12. 베트남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	176
그림 5-13.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	178
그림 5-14. 인도네시아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	179
그림 5-15. 중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180
그림 5-16. 중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	181
그림 5-17. 한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수출액 변화 추이 .....	186
그림 5-18. 한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	187
그림 5-19. 일본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191
그림 5-20. 일본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	193
그림 5-21. 대만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197
그림 5-22. 대만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	198
그림 5-23. 인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01
그림 5-24. 인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	203
그림 5-25.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07
그림 5-26. 베트남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	208
그림 5-27.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11

그림 5-28. 인도네시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	212
그림 5-29. 중국의 주요국 우회 대미 수출 연계성 변화 추이 .....	220
그림 5-30. 중국의 한국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	222
그림 5-31. 중국의 일본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	223
그림 5-32. 중국의 대만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	224
그림 5-33. 중국의 인도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	225
그림 5-34.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	227
그림 5-35. 중국의 인도네시아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	228
그림 5-36. 중국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	231
그림 5-37. 인도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	232
그림 5-38. 베트남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	233
그림 6-1. 미국의 국가별 관세 부과 현황 .....	245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5-1. 중국의 간접수출 중 주요 경유 국가별 수출액 .....	271
부록 표 5-2. 중국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	272
부록 표 5-3. 한국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	273
부록 표 5-4. 한국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	274
부록 표 5-5. 일본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	275
부록 표 5-6. 일본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	276
부록 표 5-7. 대만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	277
부록 표 5-8. 대만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	278
부록 표 5-9. 인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	279
부록 표 5-10. 인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	280
부록 표 5-11.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	281
부록 표 5-12.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	282
부록 표 5-13.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	283
부록 표 5-14.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	284
부록 표 5-15. 중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85
부록 표 5-16. 중국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	286
부록 표 5-17. 한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87
부록 표 5-18. 한국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	288
부록 표 5-19. 일본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89
부록 표 5-20. 일본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	290
부록 표 5-21. 대만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91
부록 표 5-22. 대만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	292
부록 표 5-23. 인도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93
부록 표 5-24. 인도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	294
부록 표 5-25.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95

부록 표 5-26. 베트남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	296
부록 표 5-27.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	297
부록 표 5-28. 인도네시아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	298



## 부록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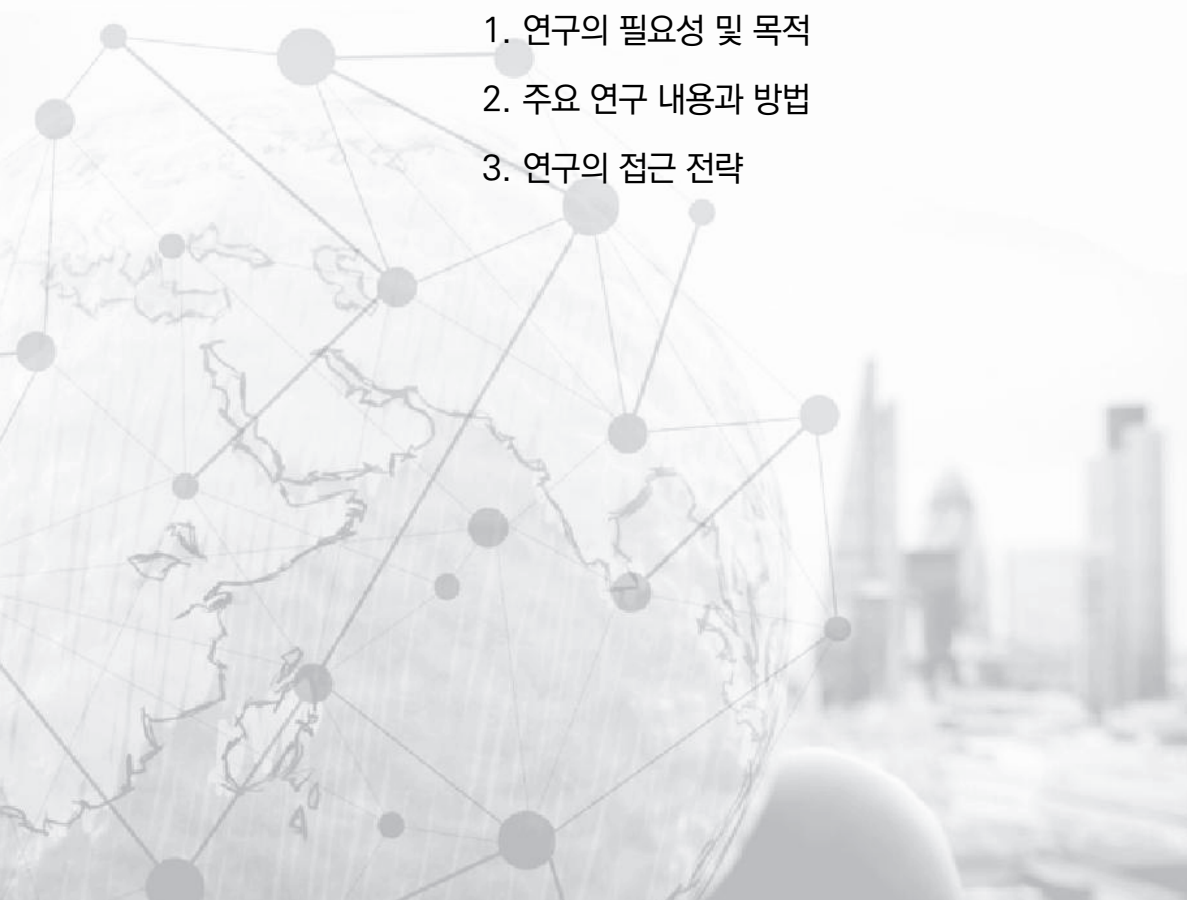
부록 그림 5-1. 한국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	299
부록 그림 5-2. 일본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	300
부록 그림 5-3. 대만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	301
부록 그림 5-4.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	302

# 제1장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접근 전략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중국 중심 생산 및 무역 체계는 중국경제 또는 비동조화 및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 분업 체계와 무역 흐름도 중국을 벗어나 인도 및 아세안과 같은 새로운 직·간접수출 기지 및 생산 허브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및 수입 규제 강화는 중국을 통한 직·간접적인 수출의 감소와 동시에 인도 및 아세안을 경유한 중간재의 간접 및 우회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 경로의 변화는 역내 협력 체계와 글로벌 분업 구조의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GVC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인도와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인도는 IT 및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GVC의 핵심 참여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인도 및 아세안의 글로벌 및 역내 가치사슬 내 역할 변화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 다각화와 GVC 재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중심의 무역 구조를 보다 다각화하고 인도 및 아세안과의 무역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밀한 데이터와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나.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급속한 GVC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 및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GVC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국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무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7개 국가를 선택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주요 산업국과 신흥 시장인 인도 및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특히 최근 글로벌 수출 및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GVC 내 역할 변화 여부를 규명한다. 수출입에서 주요국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대신에,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우회 및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에서는 실제로 동 국가들이 GVC의 참여 정도 및 위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주요 GVC 국가로서 부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동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비해 인도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GVC 참여도 및 위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 수출 분해 등을 통하여 파악한다.

넷째, 분석 대상 국가들의 수출에 있어 대미 수출의 역할 변화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분석 대상 국가들의 간접 및 우회수출 경로와 이들 국가의 간접수출에 있어 최종 목적지(특히 미국)를 추적한다. 동 분석을 통하여 분석 대상 국가는 물론 인도 및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미중 무역갈등 구조에서 대미 수출

에 대한 간접 및 우회 수출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도 및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분업 구조 내에서 새로운 간접 및 우회 생산 또는 수출기지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다섯째, 한국의 무역 다각화 및 GVC 재편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 및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산업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인도 및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GVC 내에서 한국의 GVC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갈등 전후의 GVC 변화를 아시아의 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특히 인도와 주요 아세안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GVC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양국 간 수출에서 부가가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거나,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GVC 참여와 R&D 간의 보완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GVC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os and Timmer (2018)이 있다. 이 논문은 GVC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Exports in Value Added Terms)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기존의 무역 분석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가치 측정 방법을 통합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옴프(2017)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와 R&D 투자 간의 보완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GVC 참여와 R&D 투자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으로 결정되고, GVC 참여 수준과 R&D 투자 수준 간에도 보완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GVC 참여와 R&D 투자 간 보완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통해 미중 갈등이 중국의 산업경쟁

력 변화(김부용 2024) 또는 GVC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김완중 2024; 유진만, 곽지훈 2023; 유진만, 성봉석 2023).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GVC의 변화 및 영향(이상훈, 박누리 2020; 허정, 김동현 2021; 한형민 외 2021; Park 2023). GVC 분석 방법(윤문연 2018; Dietzenbacher and Los 2000) 및 생산성과의 연계성(최용재 2023), 신남방지역의 GVC 변화와 교역 고도화 방안 연구(정영식 외 2019) 등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GVC 재편 속에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산단계별(최종재, 중간재)로 분석한다. 특히 산업화 수준이 높은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에 비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산업국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아울러 GVC 재편 과정에서 중국이 이들 국가를 간접 및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고, 동시에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고도 산업국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고찰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ADB의 다지역 투입산출표(MRIO)를 활용하여, 주요국 간접 및 우회 수출의 정량적 규모를 측정하며, 이로부터 분석대상 국가들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목적 면에서 2023년까지의 ADB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며, GVC의 변화에 대하여 주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요소이다.

둘째, 연구의 방법론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확대 및 강화로 인해 미중 간 GVC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역 다각화를 통한 GVC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전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GVC 변화가 한국의 부가가치와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무역 다각화 관점에서 주요 아시

아 국가들의 GVC 전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차별성은 인도와 아세안 지역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져, GVC 변화에 대한 두 지역을 동시에 파악 및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학문적 기대효과 측면에서 GVC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국의 GVC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 흐름을 국가 및 산업 수준에서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GVC 연구의 폭을 확대한다. 특히 2023년까지의 ADB MRIO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VC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반영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한국의 GVC 참여와 부가가치 창출에 국한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인도 및 아세안 국가의 무역 다각화 흐름에 중점을 두고, 주요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GVC 참여도와 간접 및 우회 수출 구조의 세부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차별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시작된 대중국 통상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었으며, 트럼프 2기에는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8년간의 미국 통상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의 GVC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생산 분업 변화에 대한 정책적 예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 및 통상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 다각화의 대상으로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의 새로운 협력 구도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통상 전략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국이 인도 및 아세안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간접 및 우회 수출 협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GVC 내 한국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 특히 인도 및 아세안을 중심으로 GVC 재편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간접 및 우회 수출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 구조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인도 및 아세안 국가의 새로운 간접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가능성과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분석을 수행한다.

제2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국의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고, 그 구조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설정하고, 각국의 수출을 최종재 및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 해외 부가가치, 중복 계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최종재와 중간재의 수출 비중 변화를 함께 고찰하여, 부가가치 기준 수출의 질적 변화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가 간 비교를 가능케 하고, 미중 관세분쟁 이후의 구조적 변화를 조명한다.

제3장에서는 GVC 참여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글로벌 생산분업 관계를 분석한다. 첫째, 주요국 간 생산분업 의존도 변화를 파악하며, 특히 분석대상 국가들이 GVC 내에서 생산분업 체계를 재편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수직적 특화도에 기반한 GVC 참여도 및 위치 변화, 수직적 특화 정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비중 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주요국 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분석을 위해서는 2장에

제시한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VAX) 변화요인을 구조 분해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구조 분해를 통해, 분석 대상 국가와 한국 간에 기술적 경쟁 관계 또는 보완적 관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GVC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간접 및 우회수출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주요국의 경유를 통한 간접 및 우회 수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역내(아시아)와 역외(미국 등)로 나누어 분석한다. 둘째, 주요국의 우회수출의 경유지 및 목적지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중국의 중간재가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경유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로를 국가 및 산업별로 정밀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국가별 비교 분석을 통해 각국의 전략적 위치를 재조명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 및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미중 무역갈등 이후 인도 및 아세안이 글로벌 및 역내 간접·우회수출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기업 전략 차원에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인도 및 아세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글로벌 생산 분업체계 재편 속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인도 및 아세안을 경유 및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3. 연구의 접근 전략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 접근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첫째, 국내외 문헌 조사 및 이론 분석을 통해 GVC 변화에 대한 현황과 이론적 기

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국내의 문헌을 바탕으로 글로벌 GVC 분석 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세계산업연관표(MRIO)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 인도 및 아세안 주요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세계산업연관표(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를 주요 분석 도구로 활용한다. MRIO는 국가 및 산업 간의 중간재·최종재 흐름과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현재 주요 국제산업연관표는 WIOD, ADB-MRIO, ICIO, Eora MRIO 등이 있다.

-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는 EU 지원을 받아 작성되며, 2000~14년간 43개국 56개 산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산업 분류가 매우 세밀하다는 장점이 있다.<sup>1)</sup>
- Eora MRIO(Multi-Regional Input-Output)는 시드니대학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1990~2022년간 190개국, 26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수는 가장 많지만, 산업 분류의 세분화는 상대적으로 낮다.<sup>2)</sup>
- ICIO(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는 OECD가 구축한 자료로, 1995~2020년간 76개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해 36개 산업으로 분류된다.<sup>3)</sup>
- ADB-MRIO는 2000~23년까지의 최신 자료를 포함하며, 62개국 35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sup>4)</sup> 이 자료는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높고, 최신 연도까지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셋째, ADB-MRIO를 기반으로 2010년을 기준연도(benchmark year)로

---

1) University of Groningen.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25. 9. 9.).

2) The 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검색일: 2025. 8. 12.).

3) OECD,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검색일: 2025. 8. 12.).

4) ADB, Key Indicators Database, Economic Globalization(검색일: 2025. 8. 12.).

설정하고, 2015~2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입산출 분석을 실시한다. 이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국가에 대한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해, 수출의존도, GVC 참여도 및 위치 변화, 간접 및 우회 수출 변화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을 한다.

넷째, 분석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간접 및 우회수출 변화에 따른 대미국 수출의 변화 구조를 파악한다. 특히 중국의 제품들이 분석대상 국가들을 통해 미국으로 간접 및 우회수출되는 추세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간접수출은 중간재를 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최종재를 수출하는 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형태가 있으나, 본고에서 간접수출이라 함은 중간재 직접수출에 반하여, 중간재를 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Wang, Wei, and Zhu 2018).<sup>5)</sup> 우회수출은 Iyoha *et. al.*(2024)에서 정의하듯이 관세 회피를 위해서 제3국으로 수출한 후 단순가공 또는 환적(relabeling)하여 동일한 제품을 무역경로 변경을 통한 재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따라서 간접수출에는 단순가공 및 환적 형태의 우회수출도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시기를 트럼프의 고관세정책 추진 시기인 2018년을 기점으로 ① 트럼프 고관세정책 추진 이전 시기(2015~17년, 1기), 고관세 추진 시기(2018~20년, 2기), 바이든 정권 시기(2021~23년, 3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트럼프 정권에 의해 추진한 관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관세정책 시기(2기)와 바이든 정권시기(3기)로 구분한 것은 비록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대체로 유지하였지

---

5) 가령 한국기업이 일본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일본기업이 최종재 생산에 한국 중간재를 활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의 간접수출은 김규원, 김우중(2024)에서 정의되는 '내수형 수출기업'과 같이 국내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형태의 간접수출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만약에 관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무역경로 변경없이 직접수출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경우이다. 가령 중국산 제품이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직접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나,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기업이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기업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베트남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없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우회수출이라고 정의한다.

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바이든 정권의 접근 방식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전지, 의료용품 등 국가 안보와 미래 경쟁력에 필수적인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트럼프 정책과는 약간의 차별화된다.<sup>7)</sup> 이러한 분류에는 여전히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권 시기의 정책적 차이, 가령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정도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인과관계 및 격차를 해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 및 실증 자료를 통해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인도(델리), 베트남의 현지 연구자와 협력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GVC 구조, 정부 정책, 기업 대응 전략 등을 조사한다. 특히 본고에서 분석 범위를 벗어난 관세율 변동에 대한 기업의 영향과 대응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석 기간은 2015~23년으로 설정하여 ① 1기 2015~17년 트럼프 고관세정책 이전 시기, ② 2기 2018~20년 트럼프 고관세정책 추진 시기, ③ 3기 2021~23년 바이든 정책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수에즈 운하 봉쇄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사건은 무역, 특히 GVC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GVC 분석에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는 해당 사건들이 초래한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 본고가 제시하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중 관세전쟁 이후의 GVC 변화를 3기로 구분하여 분석하

---

7) "President Biden Adds, Increases, and Maintains Tariffs on Chinese Goods Levied by President Trump"(검색일: 2025. 9. 30.).

였으나, 2기와 3기의 차이를 미국 내 정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였다. 따라서 1기에서 3기의 구분을 관세율의 변화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관세율 변화가 시기별로 GVC에 차별적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가 GVC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맞추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간접수출 최종 목적지 분석은 분석대상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 한정하였다. 이는 본고의 연구범위가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시기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국가들이 최종 목적지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간접수출이 어떠한 경유지를 거쳐 어느 정도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 역시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제2장



#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 분석

1. 분석방법
2. 국가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분해
3. 소결



# 1. 분석방법

Koopman, Wang and Wei(2012, 이하 KWW)에 따르면, 한 국가(예: s국)의 전 세계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여러 유형으로 분해할 수 있다.<sup>8)</sup> 하지만 KWW(2012)에 의한 수출 분해는 한 국가의 전 세계에 대한 수출액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고 있어 한 국가(s국, 예: 한국)의 여타 개별 국가들(r국, 예: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을 분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ang, Wei, Zhu(2018, 이하 WWZ)<sup>9)</sup>는 양자 간 수출(s국의 r국에 대한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식 2-1]을 제시하였다.

[식 2-1]에서  $V^s$ 는 s국의 부가가치계수,  $A$ 는 국제투입산출표(63개국, 35 산업)에서 산출한 투입계수행렬(이하 글로벌 투입계수행렬),  $B^{ss}$ 는  $A$ 를 통해 산출한 글로벌 레온티에프(global Leontief) 행렬( $B = (I - A)^{-1}$ )에서 s국에 해당되는 부분행렬(s국의 최종수요에 대응한 국내의 직간접 생산 연계에 의한 s국 국내 생산파급효과),  $L^{ss} = (I - A^{ss})^{-1}$ 는 s국의 로컬 레온티에프(local Leontief) 행렬(s국의 최종수요에 대응한 국내 직간접 생산 연계에 의한 s국 국내 생산파급효과)이다.  $A^{ss}$ 는 글로벌 투입계수행렬에서 s국에 해당되는 부분행렬,  $B^{rs}$ 는 글로벌 레온티에프 행렬의 부분행렬로 s국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s국 생산과정에 필요한 중간재를 r국에서 조달함(r국의 s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으로써 유발되는 r국의 생산효과(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Y^{sr}$ 은 s국의 r에 대한 최종재 수출 벡터,  $Y^{rr}$ 은 r국의 자국(r) 생산물에 대한 최종재 수요 벡터,  $A^{sr}$ 는 글로벌 투입계수행렬에서 r국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s국 중간재 투입(수출)에 해당되는 부분행렬,  $X^r$ 는 r국의 총산출액,  $E^{r*}$ 는 r국의

8) Koopman, Wang, and Wei(2012), "Estimating domestic content in exports when processing trade is pervasive," pp. 21-23.

9) Wang, Wei, and Zhu(2018),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전 세계 수출액을 나타낸다.  $\odot$ 는 한 행렬의 각 열 또는 한 열 벡터에 대한 또 다른 열 벡터의 요소간 곱(element-wise matrix multiplication)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begin{aligned}
 E^{sr} = & (V^s B^{ss})' \odot Y^{sr} \\
 & + (V^s L^{ss})' \odot (A^{sr} B^{rr} Y^{rr}) \\
 & + (V^s L^{ss})' \odot \left[ A^{sr} \sum_{t \neq s,r}^G B^{rt} Y^{tt} + A^{sr} B^{rr} \sum_{t \neq s,r}^G Y^{rt} + A^{sr} \sum_{t \neq s,r}^G B^{rt} \sum_{u \neq s,t}^G Y^{tu} \right] \\
 & + \left[ (V^s L^{ss})' \odot [A^{sr} B^{rr} Y^{rs}] + (V^s L^{ss})' \odot \left[ A^{sr} \sum_{t \neq s,r}^G B^{rt} Y^{ts} + A^{sr} B^{rs} Y^{ss} \right] \right] \\
 & + \left[ (V^s L^{ss})' \odot (A^{sr} B^{rs} \sum_{t \neq s}^G Y^{st}) + (V^s L^{ss} \sum_{t \neq s}^G A^{st} B^{ts})' \odot (A^{sr} X^r) \right] \\
 & + [(V^r B^{rs})' \odot Y^{sr} + (
 \end{aligned}$$

[식 2-1]

[식 2-1]에서 첫 번째 항은 s국(예:한국)이 다른 국가(r국)에 최종재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자국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액(이하 DVA\_FIN)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은 s국(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 r국(중국 또는 미국 등)이 자체 최종재 수요(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s국의 생산물을 수입하면서(즉 s국의 r국에 대한 중간재 직접 수출) 창출되는 s국의 국내부가가치액(이하 DVA\_INT)을 나타낸다. 세 번째 항은 r국(중국)이 다른 국가(예: t국; 미국)들에 최종재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s국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수입(s국의 r국에 대한 중간재 간접수출)하면서 창출되어지는 s국의 국내부가가치액(이하 DVA\_INTrex)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항은 s국(예: 한국)의 r국에 대한 수출(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 과정에 창출되어지는 s국의 부가가치 총액이다. 이는 s국의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이며, 달리 표현하면 s국의 (해외흡수)수출이 창출하는 s국의 국내 부가가치액이다. WWZ(2018)은 이를 최종적으로 해외에서 흡수되는 수출에 의해 창출되어지는 부가가치 중 수출국에 귀속되어지는 국내부가가치액으로 부가가치 수출액(이하 VAX\_G)으로 정의했다.<sup>10)</sup>

네 번째 항은 s국이 여타 국가(예: r국)에 중간재 형태로 수출한 것(그 과정에서 s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 중 최종재 형태와 중간재 형태로 r국가에 의해 s국으로 재수출되면서 다시 s국에 귀속된 부가가치액(이하 각각 RDV\_FIN, RDV\_INT)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출은 s국 입장에서 부가가치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수출 후 재수입되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수출은 아니다.

WWZ(2018)은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항목의 합(최종적으로 해외에서 흡수되는 수출과 수출 후 재수입되어 국내에서 흡수되는 수출 포함)을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액(DVA\_G)으로 정의했다.<sup>11)</sup> WWZ(2018)은 이러한 DVA 항들이 국가간 생산분업과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서의 특정 국가의 역할과 위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여섯 번째 항은 s국의 여타 국가(예: r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과정에서 r국이 나 또 다른 국가(예: t국)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함에 따라 창출되는 여타 국가들(r국, t국 등)의 부가가치액이다(이하 FVA\_FIN). 일곱 번째 항은 s국이 아닌 여타 국가(예: r국)가 r국의 자체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s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고 s국은 해당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r국이나 t국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타 국가들의 부가가치액을 나타낸다(이하 FVA\_INT).

한 국가(s국)의 최종재 수출 중 외국 부가가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최종재 수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외국의 부가가치 창출액(FVA\_FIN)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즉 s국이 주로 부품 등 수입 중간재를 조립하여 최종재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국가가 글로벌 생산분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하위에 위치해 있음을 가리킨다.

---

10) Johnson and Noguera(2012)는 이를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s)라 명명함. 이들 항목들은 수출에 따른 후방산업연관(backward industrial linkage)과 관련된다. Wang, Wei, and Zhu(2018), p. 14.

11) Koopman, Wang, and Wei(2012, p. 15)는 DVA\_G를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value-added in its exports)로 명명하여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s 또는 exports of value-added)과 구분하였다.

반면 한 국가(s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외국 부가가치(FVA\_INT) 비중이 상승한다는 것은 s국의 중간재 수출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확대되면서 외국 부가가치 창출액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국가가 여타국들을 위한 중간재 생산 및 수출을 위해 자국의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더 이상 그 국가가 GVC의 하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항(이하 DDC)과 여덟 번째 항(이하 FDC)은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할 때 포함되는 항목이기는 하나 각국의 GDP를 최종수요 기준으로 분해(최종재 수출 수요, 중간재 수출 수요, 최종재 국내수요)할 때에는 어떤 국가의 GDP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글로벌부가가치 측면에서 순수 중복 계산 항(pure double counted terms)으로 분류된다.<sup>12)</sup>

한편 지금까지 언급한 항들 중 DDC, FVA\_FIN, FVA\_INT, FDC의 합은 Hummels, Ishii, and Yi(2001, 이하 HIY)이 정의한 수직적특화(vertical specialization)<sup>13)</sup>의 확장된 개념으로 특정 국가의 수직적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sup>14)</sup> 특히 DDC와 FDC는 국가들 간의 중간재 교역 과정에서 국경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통과한 교역을 나타낸다.

한 국가(s국)의 수출에서 순수중복계산항(PDC=DDC+FDC)은 국가 간 중간재의 교역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점에서 KWW(2012)<sup>15)</sup>가 정의한 광의의 수직적 특화 지표인 VS<sup>16)</sup>에서 PDC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글로벌

12) Koopman, Wang, and Wei(2012, p. 13)는 이들 다섯 번째(DDC)와 여덟 번째 항(FDC)의 추가적 분해를 통해 해당 항들이 1~4번째 항에 일정 비율만큼을 중복 계산되어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중복 계산은 국가 간 여러 차례의 중간재 수출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가의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할 때 이들 항목은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을 과대평가(over-count) 될 수 있다.

13) HIY(2001)의 VS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VS로 한 국가(예: s국)의 수출 중 포함된 여타 국가(r국, t국 등)들로부터의 중간재 수입품으로 [식 2-1]에서 FVA\_FIN, FVA\_INT, FDC이 이와 관계가 있다. VS1은 한 국가(s국)의 수출 중 다른 국가들(예: r국)이 자신들의 수출품(t국 또는 s국 등에 대한 수출)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투입재(중간재)에 대한 s국의 수출액(VS1)으로 정의되나 HIY(2001)에 의해 수식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HIY(2001)의 VS1은 [식 2-1]에서 DVA\_INT<sub>rex</sub>, RDV\_FIN, RDV\_INT, DDC, FVA\_INT, FDC가 이와 관계된다. Koopman, Wang, and Wei(2012), p. 4, p. 26.

14) Wang, Wei, and Zhu(2018), p. 16.

15) Koopman, Wang, and Wei(2012),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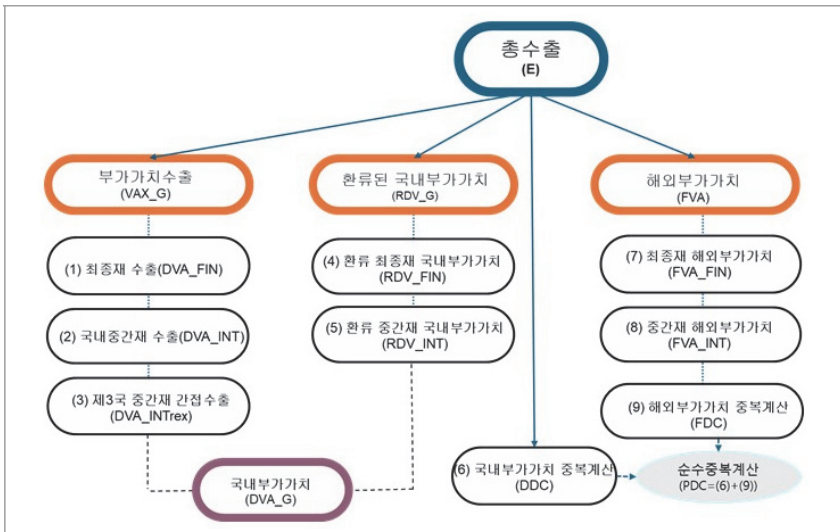
16) VS=RDV\_FIN+RDV\_INT+DDC+FVA\_FIN+FVA\_INT+FDC.

별 생산 분업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sup>17)</sup> 한편 한 국가(s국)의 전 세계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기준 수출 분해는 그 국가의 모든 수출대상국에 대한 부가가치 기준 수출 분해 결과값을 합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2. 국가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분해

본고는 [식 2-1]의 분류 기준으로 국가별로 분해하여 각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분석 기간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중국 관세 정책을 추진한 2018년을 기준으로 1기(미중 무역전쟁 이전시기, 2015~17년), 2기(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추진시기 2018~20년), 3기(바이든 행정부 시기, 2021~23년)로 구분한다. 국가별 분석 순서는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우선 분석하고, 그다음으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추정한다.

그림 2-1. 총수출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도



자료: Wang, Wei, and Zhu(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7) Wang, Wei, and Zhu(2018), pp. 28-29.

## 가. 중국

###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표 2-1]은 중국의 부가가치 총수출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총수출 규모를 보면, 2010년 1조 6,569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1,04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3조 2,1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94.3%, 2015년 대비 52.9% 증가한 수치로, 분석기간 동안 중국의 수출은 큰 변동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DVA\_G)와 해외부가가치(FVA)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VA\_G는 2010년 1조 3,045억 달러에서 2015년 1조 7,626억 달러, 2023년에는 2조 5,99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94.8%, 2015년 대비 47.5%의 증가율로, 전체 총수출 증가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2.8%까지 하락하였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소폭 반등하여 2023년 현재 3.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DVA\_G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수출은 대부분 직접적인 부가가치 수출(VAX)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미중 관세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VAX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외부가가치(FVA)는 같은 기간 동안 2010년 3,078억 달러, 2015년 3,274억 달러, 2023년에는 5,955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 2-1. 중국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VA_FIN(1)	723.8	924.6	922.8	1,068.6	1,151.3	1,228.5	1,333.9	1,420.6	1,472.6	1,402.5
DVA_INT(2)	375.7	529.6	523.8	523.4	519.1	520.3	534.3	589.0	613.3	694.6
DVA_INTrex(3)	205.1	261.8	283.5	297.4	319.1	307.3	297.7	342.4	396.8	427.1
VAX_G(A=(1)+(2)+(3))	1,304.5	1,716.1	1,730.1	1,889.3	1,989.5	2,056.0	2,166.0	2,352.0	2,482.7	2,524.3
RDV_FIN(4)	9.3	12.5	12.4	13.9	14.7	14.8	17.2	19.2	19.0	20.8
RDV_INT(5)	22.3	34.0	36.5	35.4	41.7	42.9	45.7	54.0	55.5	54.7
RDV_G(B=(4)+(5))	31.6	46.5	49.0	49.3	56.4	57.7	62.9	73.2	74.5	75.6
DVA_G(C=A+B)	1,336.2	1,762.6	1,779.1	1,938.7	2,045.9	2,113.8	2,228.8	2,425.2	2,557.2	2,599.8
DDC(6)	12.9	14.6	14.0	14.6	15.6	17.0	17.2	24.6	26.4	23.2
FVA_FIN(7)	168.2	167.6	148.5	184.2	272.2	270.4	257.4	360.2	356.6	317.0
FVA_INT(8)	80.1	96.0	86.9	88.9	115.1	111.6	103.7	145.0	140.4	151.2
FDC(9)	59.5	63.8	62.0	67.5	94.7	89.9	81.2	126.2	133.1	127.4
FVA(D=(7)+(8)+(9))	307.8	327.4	297.4	340.6	481.9	471.8	442.3	631.4	630.1	595.5
Esa(E=A+D)	1,656.9	2,104.6	2,090.4	2,293.9	2,543.4	2,602.6	2,688.3	3,081.3	3,213.7	3,2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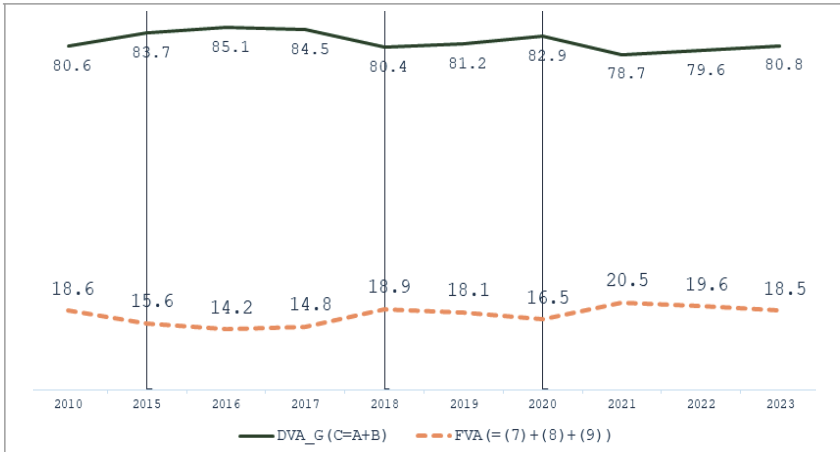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러한 추세를 총수출 대비 비중의 변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림 2-2]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2]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부가가치(DVA\_G) 비중은 총수출 대비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수출이 국내부가가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해당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해외부가가치(FVA)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14% 수준에 머물렀으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에는 18%대로 상승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20%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2023년에는 18.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2. 중국의 주요 부가가치 유형별 수출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수출 구조가 트럼프 고관세정책 추진 이후, 총수출 내에서 국내부가가치중심에서 일부 해외부가가치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국내부가가치 수출이 중국 수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남아 있다. 비록 최근에 FVA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구조는 국내부가가치 중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세부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VAX) 변화의 주요 요인은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AX의 변화는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DVA\_FIN은 2010년 7,238억 달러에서 2015년 9,24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1,472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2023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4,0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93.8%, 2015년 대비 51.7% 증가한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뚜렷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DVA\_FIN이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2020~21년)에도 큰 폭의 감소 없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중간재 부가가치 직접수출(DVA\_INT)은 2010년 3,757억 달러에서 2015년 5,296억 달러로 증가한 후,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는 6,13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 DVA\_INT는 2010년 대비 84.9%, 2015년 대비 31.1% 증가하였다.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은 2010년 2,051억 달러에서 2015년 2,618억 달러, 2023년에는 4,27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108.3%, 2015년 대비 63.2%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VAX)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시행 이후 일정 부분 하락한 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상의 변화만으로는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구성 요인들의 총수출 대비 비중 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3]에서는 VAX 구성 요소들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의 총수출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트

럼프 행정부 이전 시기에는 약 43%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후 트럼프의 고관세정책이 추진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49.6%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이 비중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43.6%까지 하락하였다.

DVA\_INT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총수출 대비 약 25%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9.9%로 약 5%p 감소하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이 추세는 크게 반전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21.6%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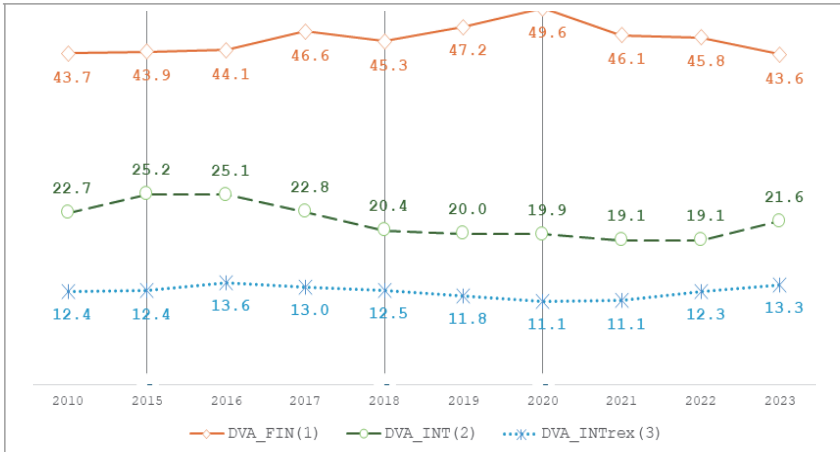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의 경우, 2017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11.1%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2023년에는 13.3%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VAX)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그 주된 요인은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 비중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간재 부가가치 직접수출(DVA\_INT)과 간접수출(DVA\_INTrex)의 비중은 같은 시기에 하락하여 전체 VAX의 상승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DVA\_INTrex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중국의 수출 구조를 중간재 중심에서 최종재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유도하였으며, 중간재 부가가치 직접수출 및 간접수출 부문의 위축이 주요 특징적 변화로 나타났다.

그림 2-3. 중국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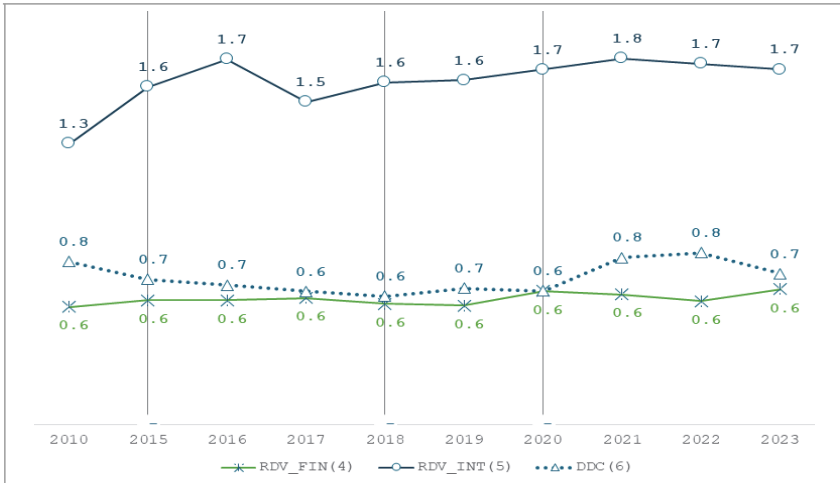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림 2-4]는 중국의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의 유형별 변화 추이를 총수출대비 비중으로 기간별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RDV 비중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세부 항목 중에서 RDV\_INT, 즉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종재 환류 부가가치(RDV\_FIN)와 중복계산(DDC)은 모두 1% 미만이다.

RDV\_FIN은 트럼프 집권 이전까지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1.5%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추진 시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RDV\_INT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기점으로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23년에는 다시 0.7%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 중복계산(DDC)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큰 변동 없이 0.6%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 2-4. 중국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다음으로, 해외부가가치(FVA)의 구성 요소별 변화를 [그림 2-5]를 통해 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VA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FVA\_FIN으로 7~11% 수준이고, 그 뒤를 이어 FVA\_INT로 4%대이며, FDC는 3~4%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최종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인다. FVA\_FIN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 시기에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7.1%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10%대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다시 상승하여 11.7%로 분석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며, 2023년에는 9.8%에 머물렀다.

FVA\_INT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 시기에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2018년에는 4.5%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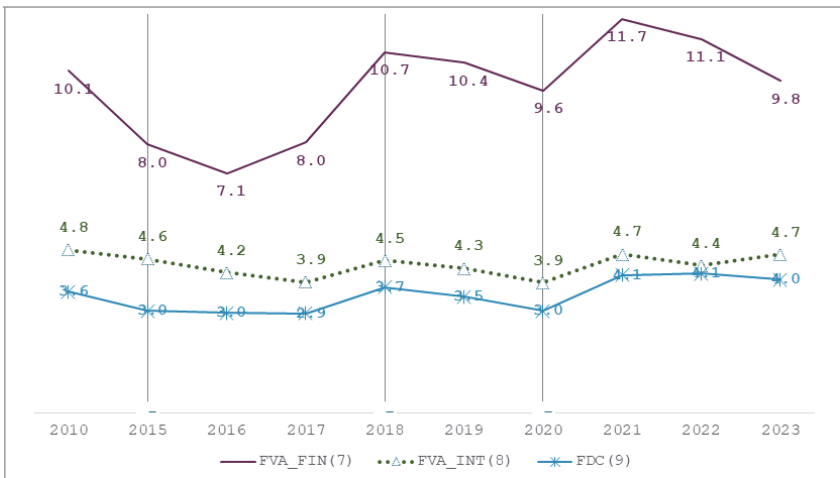
에는 4.7%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분(FDC) 역시 FVA\_INT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추진 이전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 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시점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반등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FDC의 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 FVA의 등락은 주로 FVA\_FIN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FVA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은 초기에는 FVA\_FIN의 증가에 기인하였지만, 이후 상승세를 유지한 핵심 요인은 FVA\_INT의 회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중국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나. 한국

###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표 2-2]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국의 총수출을 요인별로 분해한 수출 규모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의 부가가치 총수출은 2010년 4,829억 달러에서 2015년 6,07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7,2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50.2%, 2015년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수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2. 한국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VA_FIN(1)	138.5	143.7	137.4	124.0	109.2	126.0	126.0	113.5	133.7	148.7
DVA_INT(2)	97.7	136.8	134.4	115.4	155.5	152.9	147.7	174.7	186.8	185.8
DVA_INTrex(3)	68.9	81.1	84.2	83.1	104.6	100.5	95.0	119.9	130.9	117.3
VAX_G(A=(1)+(2)+(3))	305.1	361.6	356.1	322.6	369.3	379.4	368.7	408.1	451.5	451.8
RDV_FIN(4)	0.5	0.6	0.6	0.8	1.4	1.5	1.5	1.8	1.8	1.5
RDV_INT(5)	1.2	1.4	1.5	1.6	1.8	1.8	1.7	2.0	2.3	2.0
RDV_G(B=(4)+(5))	1.7	2.0	2.0	2.4	3.2	3.3	3.2	3.8	4.0	3.5
DVA_G(C=A+B)	306.8	363.6	358.1	325.0	372.6	382.6	371.9	411.9	455.5	455.3
DDC(6)	1.4	1.9	1.8	1.7	1.7	1.5	1.3	2.0	2.3	1.9
FVA_FIN(7)	70.8	86.7	77.0	77.8	62.1	63.2	53.8	60.7	87.1	85.0
FVA_INT(8)	62.5	97.7	89.6	86.0	91.7	83.3	68.5	102.8	121.0	115.2
FDC(9)	44.5	61.7	58.8	62.9	60.7	53.1	43.4	68.4	83.2	72.4
FVA(D=(7)+(8)+(9))	177.8	246.2	225.4	226.7	214.6	199.6	165.7	231.9	291.4	272.6
Esa(E=A+D)	482.9	607.8	581.5	549.3	583.9	579.0	534.4	640.0	742.9	724.4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총수출을 국내부가가치(DVA\_G), 해외부가가치(FVA), 그리고 국내 중복계산(DDC) 요인별로 분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DVA\_G는 2010년 3,068억 달러에서 2015년 3,636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4,55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DVA\_G는 2010년 대비 48.4%, 2015년 대비 25.2% 증가하였다. 이는 총수출 증가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수출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반면 해외부가가치(FVA)는 2010년 1,778억 달러, 2015년 2,462억 달러, 2023년에는 2,72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53.3%, 2015년 대비 10.7% 증가한 것이며, 그 증가 폭은 DVA\_G보다 다소 작지만 여전히 한국 수출에서 FVA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 중복계산(DDC)은 2010년 14억 달러, 2015년 19억 달러, 2023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는 DDC가 전체 수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변화 폭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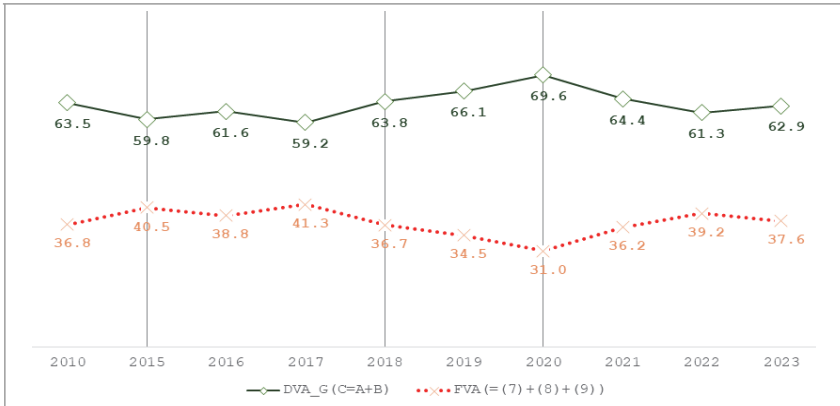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한국의 총수출에서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DVA\_G와 FVA)의 비중이 분석 기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중복계산(DDC)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며,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6]은 DVA\_G와 FVA의 총수출 대비 비중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두 지표는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므로, DVA\_G의 증감만으로도 FVA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부가가치(DVA\_G)는 한국의 총수출 가운데 자국 내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림 2-6]에 따르면, 총수출 중 DVA\_G의 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60%대의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2기(2017~20년)에는 63.8%(2010년)에서 69.6%(2020년)로 약 6%p 상승하며, 트럼프 정부 이전 시기와 비교해도 약 10%p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이는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2-6. 한국 수출의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3기)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반전되어, 2023년에는 62.9%로 하락하였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 또는 수입 의존도 상승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은 예상대로 국내부가가치(DVA\_G) 비중과는 반대 방향의 추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FVA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점진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 하락이 있었음에도, 전체적인 추세는 FVA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및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는 한국의 수출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은 감소하고, 국내부가가치(DVA\_G) 비중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외

부가가치 간 비중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점차 트럼프 행정부 이전 수준(1기)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구조가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FVA가 줄고 DVA\_G가 늘어난 것은 한국 내 생산 공정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세부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

여기에서는 부가가치 수출(VAX),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 해외부가가치(FVA)의 세 가지 대분류 항목을 세부 구성 요인별로 분해하여 각 요인별 변화를 분석한다. 각 부문별 구성 요소의 총수출 대비 비중 변동을 통해,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구조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기인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VAX의 구성 항목 중 하나인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의 변화는 [그림 2-7]에 나타나 있다. DVA\_FIN은 2010년 1,384억 달러, 2015년 1,437억 달러, 2023년에는 1,48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이후 수출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8년에는 분석 기간 중 최저치인 1,0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1년)를 거치며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2023년에는 2015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DVA\_INT)은 2010년 977.3억 달러, 2015년 1,368.2억 달러, 2023년에는 1,85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각각 약 90% 및 4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 기간에 중간재 중심의 부가가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간재 직접수출 추세를 살펴보면, 2015~17년에는 일시적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은 2010년 689.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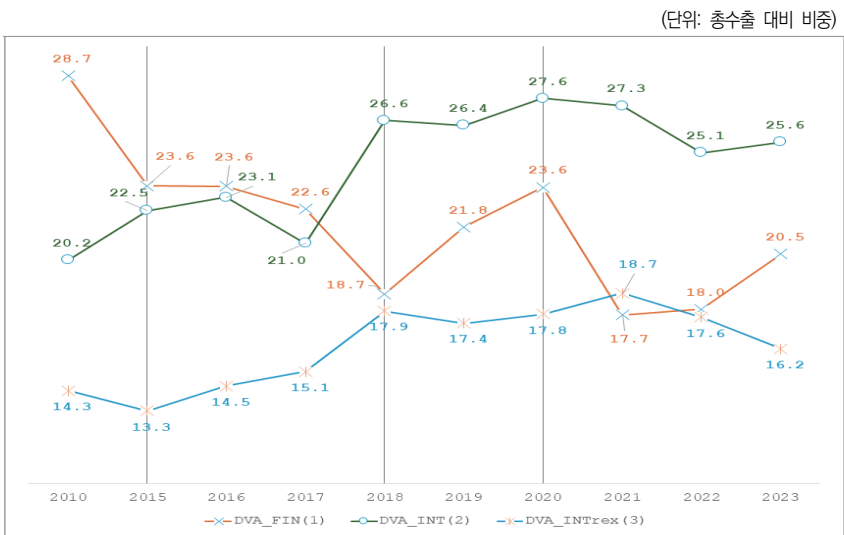
2015년 대비 약 48%, 2023년에는 1,1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48%, 2015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VAX 구성 항목들의 총수출 대비 비중이 분석 기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7]은 VAX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총수출 대비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AX는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2021~23년)에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 비중의 하락이 지목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DVA\_FIN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15~17년 사이 약 5%p 감소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8년에는 그 비중이 18.5%로

그림 2-7. 한국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떨어지며 분석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23.4%까지 상승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2021년에는 다시 17.6%로 급락하였다.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반등을 보이며 2023년에는 20.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관련 요인들의 비중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DVA\_FIN의 비중은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반해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DVA\_INT)은 2017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5~17년 동안 총수출 대비 DVA\_INT의 비중은 22~23%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6~27%로 상승하면서 중간재의 부가가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25.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직접수출(DVA\_INT)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는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년) 동안 부가가치 수출(VAX)의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은 중간재 직접수출(DVA\_INT)과 제3국을 통한 간접수출(DVA\_INTrex) 상승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뒤, 현재는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반면 최종재 수출(DVA\_FIN)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는 전체 VAX 비중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VAX 비중의 하락에는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의 감소 역시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에서 최종재 비중이 축소되고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는 등 수출의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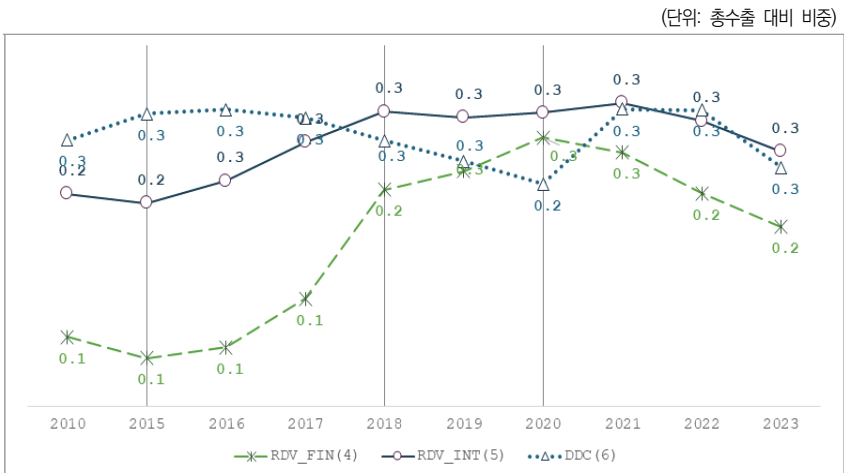
한편 [그림 2-8]은 한국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_G)의 구성 요소별 변화를 총수출 대비 비중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DV\_G는 전체

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최종재 환류 부가가치(RDV\_FIN)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2기(2017~20년)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이 상승세는 지속되지 못하고, 2023년에는 0.3%를 기록하며 2010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중간재 환류 부가가치(RDV\_INT)는 2017년까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트럼프 행정부부터 2021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국내 중복계산분(DDC)은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에 분석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8. 한국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다음으로, 해외부가가치(FVA)의 구성 요소별 변화 추이는 [그림 2-9]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FVA를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간재 해외부가가치(FVA\_INT)이며, 그 뒤를 이어 최종재 해외부가가치(FVA\_FIN)와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분(FDC)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FVA\_FIN은 2010년 총수출 대비 14.6%를 기록하였으며, 2015~17년 기간에는 13.2~14.2%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0.0%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2021년까지 이어졌으나, 이후에는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되어 최근에는 11%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VA\_INT는 FVA 구성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추진과 함께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보호무역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비중은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그림 2-9. 한국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의 여파로 12.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2022년에는 16.2%까지 상승하는 등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분(FDC)은 2010년 9.2% 수준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고관세정책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전환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8.1%로 분석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11.1%까지 상승하였으나, 2023년에는 9.9%로 소폭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국의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FVA\_FIN, FVA\_INT, FDC 세 요소 모두에서의 비중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FVA\_FIN의 약 4%p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FDC의 약 3%p 하락 역시 전체 FVA 비중 감소를 견인하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세 항목 모두 회복세를 보이며 FVA 비중의 전반적인 상승에 기여하였다. 다만 2023년 들어 다시 소폭 하락한 것은 FDC 항목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총수출은 분석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수출구조가 국내 부가가치 수출(VAX)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수출 증가와는 별개로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은 감소한 반면, 국내 부가가치 수출(VAX)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한국의 GVC 참여 정도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VAX)과 해외부가가치(FVA) 모두에서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두드러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하여, 한국이 최종재 수출보다 중간재 중심의 수출 전략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거치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중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FVA 중 최종재(FVA\_FIN) 비중이 높고, 한국은 중간재(FVA\_INT)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은 한국에는 국내부가가치(DVA) 증가, 중국에는 해외부가가치(FVA) 확대로 전환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팬데믹 이후 FVA\_INT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회복을 견인했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FVA 자체가 급격히 축소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도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대중국 최종재 수출의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관련 내용은 3장에서 자세하게 후술하고자 한다).

이는 미중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수출구조가 최종재 공급국에서 중간재 공급국으로의 기능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FVA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중간재 부문(DVA\_INT 및 FVA\_INT)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다. 일본

###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표 2-3]은 일본의 총수출을 요인별로 분해한 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총수출은 2010년 8,169억 달러에서 2015년 1조 451억 달러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1조 6,2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에 각각 98.7%와 28% 증가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9,360억 달러로 크게 하락했다.

일본의 국내부가가치(DVA\_G)는 2010년 6,908억 달러, 2015년 8,779억 달러, 2023년에는 1조 3,55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96.3%, 2015년 대비 27.1% 증가한 수치로,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다. 특히 DVA\_G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추진 시기(2기)에 일정 수준 상승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일시적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후 2020년부터는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국내 중복계산분(DDC)은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보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해외부가가치(FVA)는 2010년 1,234억 달러, 2015년 1,638억 달러, 2023년에는 2,59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110.7%, 2015년 대비 32.8% 상승한 수치이다. FVA 역시 분석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었다.

표 2-3. 일본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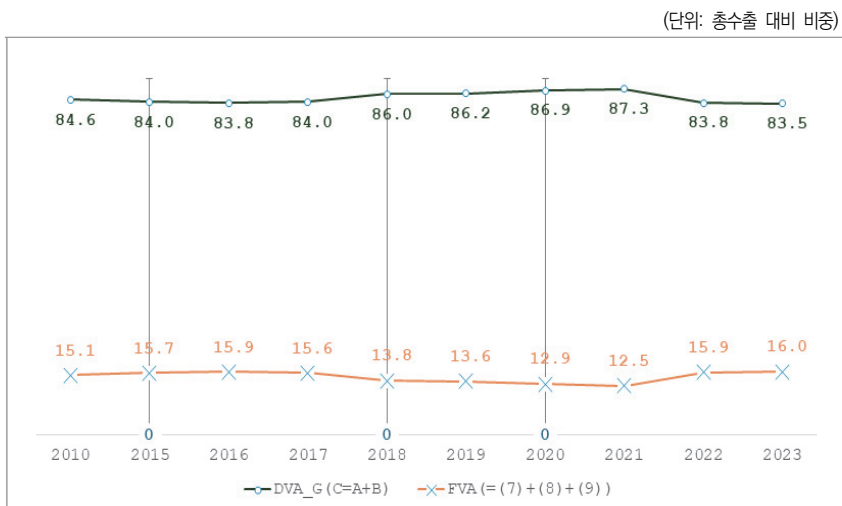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VA_FIN(1)	289.9	366.5	337.4	402.7	418.1	423.0	327.0	370.6	439.6	522.2
DVA_INT(2)	232.3	310.8	278.3	301.7	337.5	314.9	296.6	367.0	408.2	483.8
DVA_INTrex(3)	158.4	189.6	180.8	204.6	230.7	202.0	180.8	249.6	281.6	331.7
VAX_G(A=(1)+(2)+(3))	680.6	866.9	796.4	909.0	986.4	940.0	804.4	987.2	1,129.5	1,337.7
RDV_FIN(4)	3.4	3.6	3.2	3.5	4.8	4.7	4.1	5.4	5.5	5.6
RDV_INT(5)	6.8	7.3	7.0	7.4	6.8	5.9	4.9	6.5	7.8	12.7
RDV_G(B=(4)+(5))	10.2	10.9	10.2	10.9	11.6	10.5	9.0	11.9	13.3	18.2
DVA_G(C=A+B)	690.8	877.9	806.6	920.0	998.0	950.5	813.4	999.1	1,142.7	1,355.9
DDC(6)	2.7	3.5	3.0	3.5	3.0	2.4	1.9	2.9	4.3	7.4
FVA_FIN(7)	43.8	56.7	53.4	63.6	59.4	59.7	43.4	47.8	71.0	92.0
FVA_INT(8)	44.4	63.3	58.1	61.3	57.7	53.9	46.6	55.0	83.7	96.1
FDC(9)	35.2	43.7	41.8	46.1	42.5	36.3	30.6	40.0	61.9	71.7
FVA(D=(7)+(8)+(9))	123.4	163.8	153.3	171.1	159.7	150.0	120.6	142.8	216.5	259.9
Esa(E=A+D)	816.9	1,045.1	962.9	1,094.6	1,160.7	1,102.9	936.0	1,144.8	1,363.6	1,623.1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다음으로 [그림 2-10]은 총수출 대비 DVA\_G 및 FVA의 비중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83~87% 수준을 유지하며, 일본은 총수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국내로 귀속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부터 그 비중이 약 2%p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 이후에는 83%대에서 안정되고 있다.

반면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절대적 FVA 규모의 증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0. 일본의 3대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2) 세부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일본의 세 가지 항목(VAX, RDV, FVA)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가가치 수출(VAX)의 세부 구성 항목 중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은 2010년

2,899억 달러, 2015년 3,665억 달러, 2023년에는 5,22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각각 80% 및 26%의 증가율에 해당한다.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DVA\_INT)은 같은 기간 동안 2,323억 달러에서 3,108억 달러, 이후 4,83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2010년 대비 108%, 2015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은 2010년 1,584억 달러, 2015년 1,896억 달러, 2023년에는 3,3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대비 109%, 2015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이들 세 지표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추진기에는 일시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는 뚜렷한 회복 및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DVA\_FIN과 DVA\_INT, DVA\_INTrex 간 규모 차이가 크지 않으며,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간에 균형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규모의 변화는 총수출 대비 비중 변화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2-11]에 따르면, DVA\_FIN의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DVA\_INT와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까지 DVA\_FIN(최종재)은 총수출 대비 35~38% 수준이었고, DVA\_INT(중간재)는 28~29%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DVA\_FIN의 비중이 32%대로 하락한 반면, DVA\_INT는 32.1%로 상승하였다. 이후 DVA\_INT는 29.9%까지 소폭 하락하였으나, 두 항목 간의 비중 격차는 이전보다 상당히 좁혀졌다. 이러한 추세는 DVA\_FIN의 하락과 DVA\_INT의 상대적 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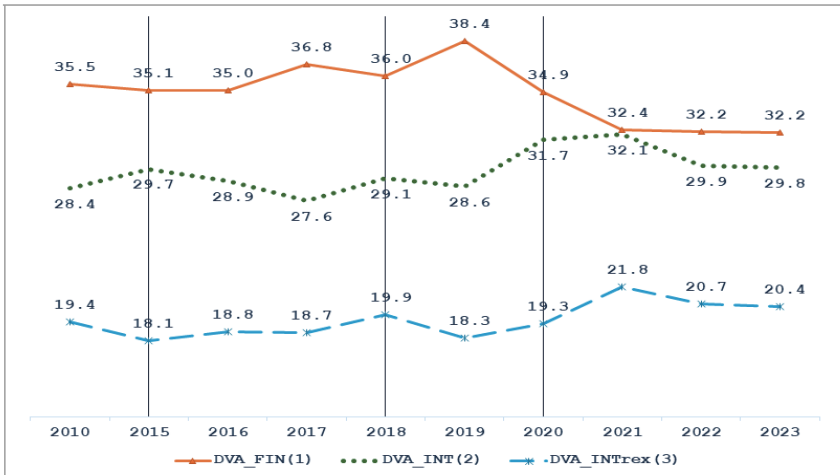
한편 DVA\_INTrex는 전체적으로 DVA\_INT와 유사한 비중 변화를 보인다. 2019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1.8%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20%대의 비중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 국내부가가치(DVA) 수출의 하락은 최종

재에 의한 것이며, 중간재 직접수출(DVA\_INT)과 제3국 간접수출(DVA\_INTrex)이 일본의 VAX 증가를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구조가 최종재보다는 고부가가치 중간재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1. 일본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림 2-12]는 일본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의 변화 추이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RDV는 일본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1.6% 수준으로,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

RDV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환류된 중간재 부가가치(RDV\_INT)이다. RDV\_INT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시기 동안 지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RDV\_INT가 0.8%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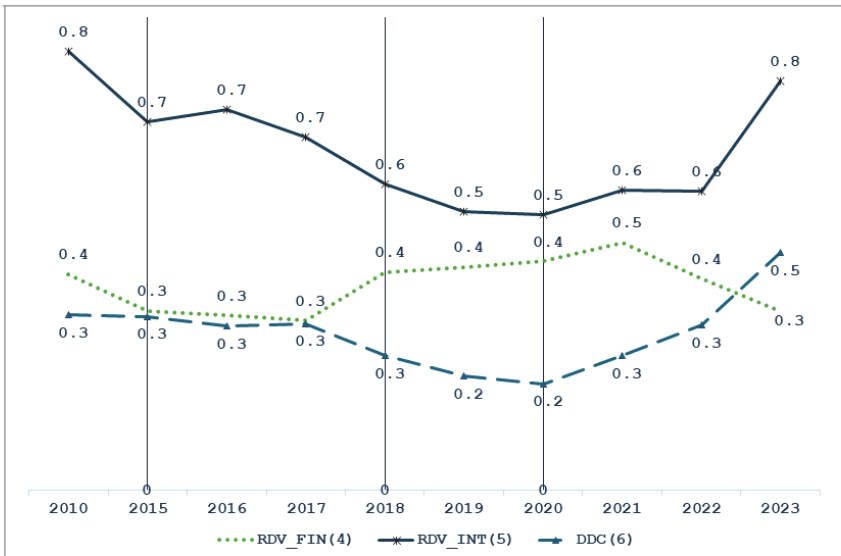
기록하면서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중간재 환류 구조가 일본의 수출 부가가치 구조에서 일정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환류된 최종재 부가가치(RDV\_FIN)는 중간재와는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추진 시기에는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회복과 수요 구조의 재편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중복계산분(DDC)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바이든 시기에 들어서면서 뚜렷한 증가세로 반등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0.5%에 도달하면서 RDV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구조에서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중심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간재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환류

그림 2-12. 일본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수출구조 또한 이 같은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13]은 일본의 해외부가가치(FVA) 구성 요소별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일본의 총수출 중 FV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16% 수준으로, 이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본의 수출구조에서 해외부가가치의 절대적 의존도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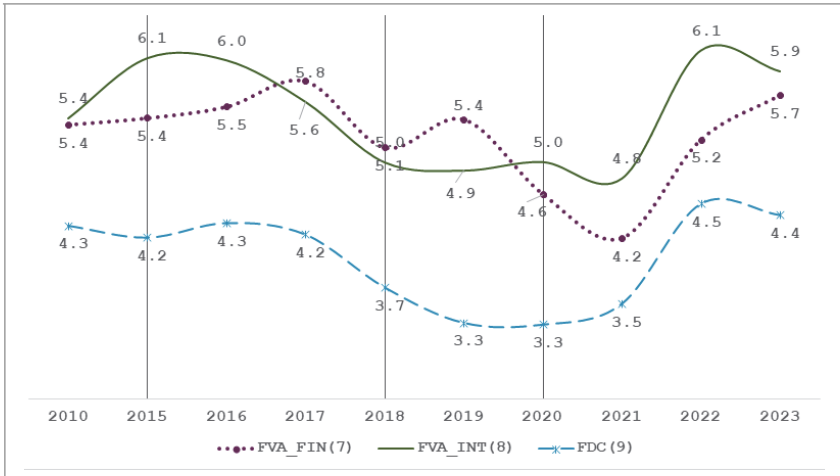
FVA의 구성 요소 중에서는 중간재 해외부가가치(FVA\_INT)의 비중이 최종재 해외부가가치(FVA\_FIN) 비중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FVA\_FIN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FVA\_INT를 상회한 시기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해외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중간재 중심의 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FVA 구성 요소인 최종재(FVA\_FIN), 중간재(FVA\_INT), 그리고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FDC)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는 하락세를 보였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반등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바이든 시기에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및 교역 확대의 영향을 받아 중간재(FVA\_INT)와 해외중복계산(FDC)이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비록 2023년에는 두 항목 모두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체 분석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일본의 수출구조가 해외 부가가치 활용 측면에서도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일본이 고부가가치 중간재 공급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GVC 내에서 부품 및 소재 중심의 수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영향보다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정책적 또는 GVC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3. 일본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라. 대만

###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대만은 2010년에 2,967억 달러를 수출하고, 2015년에는 3,327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4,505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각각 1.52배와 1.35배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국내부가가치 수출(VAX\_G)은 동 기간에 1,641억 달러, 2,046억 달러, 그리고 2,584억 달러로 1.6배와 1.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해외부가가치 수출(FVA)은 같은 기간 1,317억 달러와 1,270억 달러에서 1,912억 달러로 각각 1.5배 증가했다.

대만의 경우,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부가가치 (DVA\_G)는 약 55~65%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다. 특히 2015년에는 61.5%를 기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되던 시기인 2020년에는 65.5%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대만 내 생산 기반과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DVA\_G 비중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57.3%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만의 수출구조가 다시 해외 생산 요소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해외부가가치(FVA)의 경우에는 2015년 38.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34.1%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42.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해외부품 및 중간재 수입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가, 글로벌 공급망 회복 및 교역 안정화가 이루어진 바이든 시기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2-4. 대만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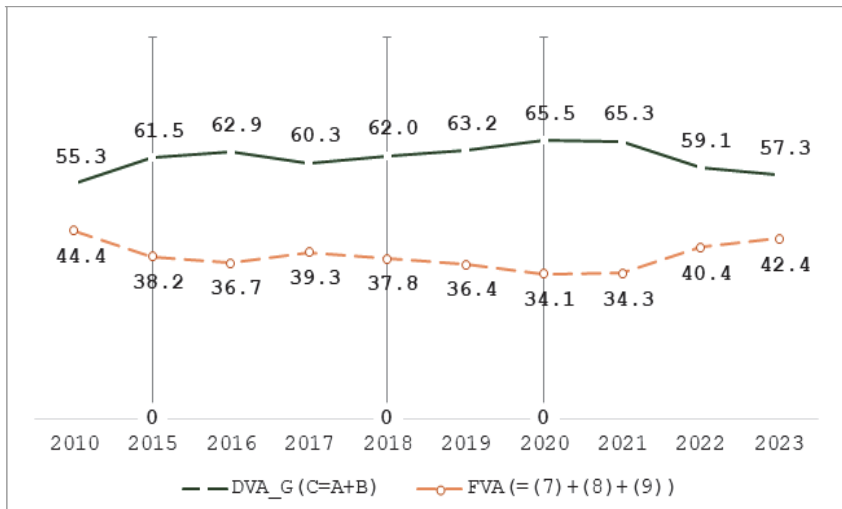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VA_FIN(1)	46.8	47.6	46.4	55.3	59.1	67.1	87.6	95.2	89.6	91.8
DVA_INT(2)	67.3	94.0	94.9	92.4	112.5	108.7	101.1	135.2	125.3	95.9
DVA_INTrex(3)	49.3	62.1	65.6	69.6	80.3	73.1	68.1	90.5	91.1	69.7
VAX_G(A=(1)+(2)+(3))	163.4	203.8	206.9	217.2	251.9	249.0	256.8	320.9	306.0	257.4
RDV_FIN(4)	0.3	0.3	0.3	0.4	0.5	0.6	0.6	1.1	1.0	0.6
RDV_INT(5)	0.4	0.5	0.5	0.6	0.5	0.5	0.5	0.7	0.7	0.4
RDV_G(B=(4)+(5))	0.7	0.8	0.8	0.9	1.0	1.1	1.1	1.8	1.7	1.0
DVA_G(C=A+B)	164.1	204.6	207.7	218.2	252.9	250.1	258.0	322.7	307.7	258.4
DCC(6)	1.0	1.1	1.2	1.4	1.2	1.3	1.3	2.1	2.2	1.0
FVA_FIN(7)	32.9	26.4	24.6	32.8	34.8	37.5	43.2	47.7	56.4	60.3
FVA_INT(8)	55.6	58.7	55.8	60.6	68.1	62.4	54.3	72.5	90.4	76.3
FDC(9)	43.1	41.9	41.0	48.7	51.3	44.2	37.0	49.1	63.6	54.6
FVA(D=(7)+(8)+(9))	131.7	127.0	121.4	142.1	154.2	144.1	134.4	169.3	210.4	191.2
Esa(E=A+D)	296.7	332.7	330.3	361.7	408.3	395.5	393.7	494.0	520.2	450.5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결론적으로,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는 국내 부가가치 중심의 수출구조로 일시적으로 전환되었으나, 바이든 시기에는 다시 해외 부가가치 의존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만이 고부가가치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편,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밀접한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4. 대만의 3대 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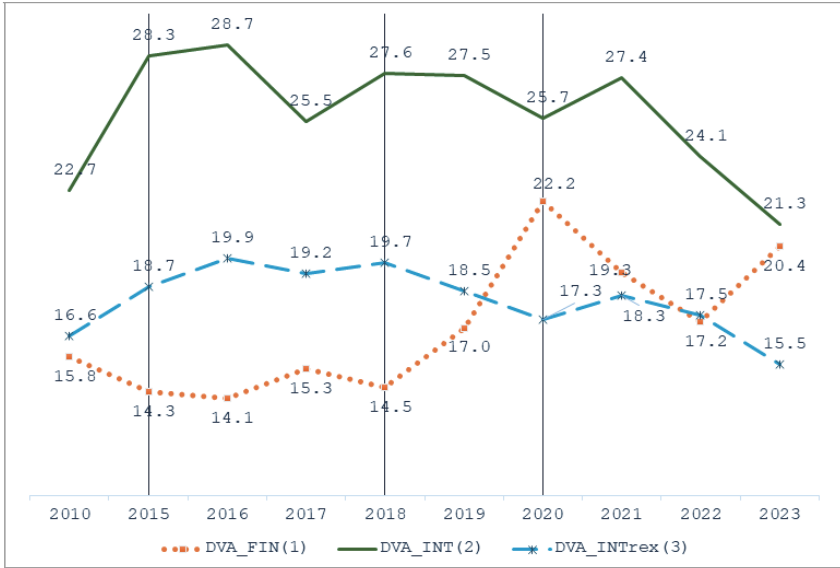
## 2) 세부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VAX) 구조를 세부 유형별로 분해한 [그림 2-15]에 따르면, 대만의 VAX는 전반적으로 최종재(DVA\_FIN) 수출보다는 중간재 직접 수출(DVA\_INT)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구조를 보여준다. 중간재 비중은 2015년에 28.3%를 기록하며 정점에 도달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25.5%로 일시적 감소가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간재 수출 비중은 반등하여 27%대를 회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잠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되며, 2023년에는 21.3%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2-15. 대만의 VAX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반면 최종재(DVA\_FIN)의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이전에는 14~1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고관세정책 시행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22.2%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중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이 최종재 수출을 강화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22년에는 17.2%까지 하락하였으며, 2023년에는 20.4%로 소폭 반등하였다.

또한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Trex)은 2010년대 중반 19.9%까지

상승하였으나, 트럼프의 고관세정책 기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17.3%를 기록하였다. 비록 2020년에는 그 비중은 하락하였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집권시기에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5.5%로 분석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부가가치 수출(VAX) 증가는 주로 최종재(DVA\_FIN)의 기여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후 VAX의 비중 감소는 중간재 직접수출(DVA\_INT)과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만의 수출구조 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 부가가치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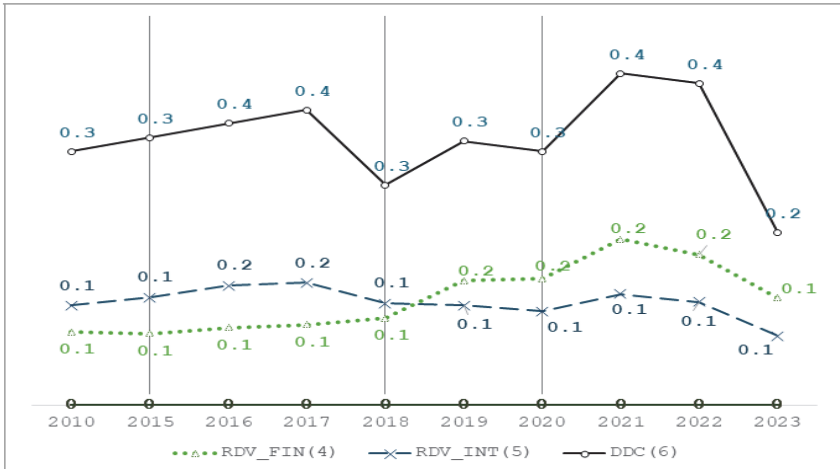
한편 대만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의 구성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2-16]에 따르면, 전체 RDV 중 국내 중복계산(DDC)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DDC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시행 기간에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접어들며 반등세를 보인 후, 2023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변동성을 나타냈다.

또한 RDV의 구성 항목인 최종재(RDV\_FIN)와 중간재(RDV\_INT)의 비중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다. 2019년까지는 RDV\_FIN의 비중이 RDV\_INT보다 높아 최종재 중심의 환류된 부가가치 구조가 우세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RDV\_INT가 RDV\_FIN을 추월하며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GVC 내에서 대만의 중간재 생산 및 수출 기능의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최종재 수출의 환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보호무역 조치는 RDV 구조에 일정 부분 위축을 초래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일시적 회복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중간재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2-16. 대만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대만의 해외부가가치(FVA)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17]에 따르면, 대만의 FVA 구성은 중간재(FVA\_INT)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해외중복계산(FDC), 최종재(FVA\_FIN)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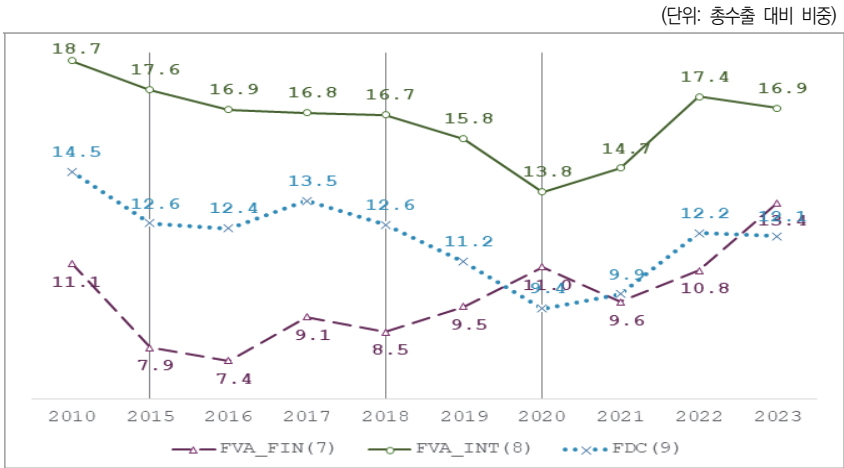
중간재(FVA\_INT)의 경우, 2015년 17.6%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13.8%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 정부시기에 반등하여 2022년 17.4%를 기록한 뒤, 2023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16.9%로 마감되었다. 이는 대만의 수출구조에서 중간재 부문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시사한다.

최종재(FVA\_FIN)는 2015년 7.9%에서 2020년 11.0%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 2023년 13.0%에 도달하였다. 이는 대만의 해외부가가치 창출 구조 내에서 최종재 부문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만은 해외중복계산(FDC)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

나이다. FDC는 2015년 12.6%에서 증가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행 이후 하락세로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 12.1%로 다시 상승하였다.

그림 2-17. 대만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종합적으로 볼 때, 대만의 해외부가가치 수출구조는 중간재 중심적이지만, 최근에는 최종재 부문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만이 단순한 중간재 공급국에서 탈피하여, 해외 가치사슬 내에서 최종재 생산 및 수출 기여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회복세는 대만의 수출구조 다변화와 GVC 내 위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대만이 전통적으로 보유해 온 고기술(high-tech) 기반의 반도체·전자 부품 중심 수출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된다. 해외 중간재 직접수출(FVA\_INT)은 여전히 대만 수출 내 FVA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는 대만이 글로벌 IT 제조업 가치사슬의 핵심 공급국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FVA\_FIN의 비중 증가는 대만이 일부 고부가가치 완제품 시장으로도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의 DVA도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지속 증가해왔으나, 총수출 대비 비중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고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부가가치(DVA) 비중을 유지 또는 증가시켰으나, 대만은 바이든 시기 이후 DVA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반해 대만의 FVA 비중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기에 FVA\_FIN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외부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 양측에서 균형 잡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만은 중간재 중심에서 점차 최종재 중심으로 이행 중인 과도기적 구조를 보여준다.

## 마. 인도

###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인도의 총수출과 관련 요인들을 분해하여, 그 결과를 [표 2-4]에 제시하고 있다. 인도의 총수출은 2010년 2,949억 달러, 2015년 3,566억 달러를 기록한 후 계속 증가하여 2023년에는 7,9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과 2015년 대비 2023년 총수출이 182%와 76.7%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총수출은 감소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의 총수출 중 국내부가가치(DVA\_G)는 2010년 2,369억 달러에서 2015년 2,933억 달러, 2023년에는 6,33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해외부가가치(FVA)는 각각 576억 달러, 630억 달러, 그리고 1,599억 달러를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DVA\_G는 약 167%의 증가, FVA는 177%에서 156%에 이르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치는 인도의 총수출 구조가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총수출 중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석 기간에 79%에서 8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에는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일시적으로 하락 후 상승하였다. 바이든 정부부 집권기에는 그 비중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79.7%로 마감되었다.

반면 해외부가가치(FVA)의 비중은 국내부가가치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부 출범 전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관세정책이 도입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정권 후반에는 다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바이든 정부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20% 초반대를 유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인도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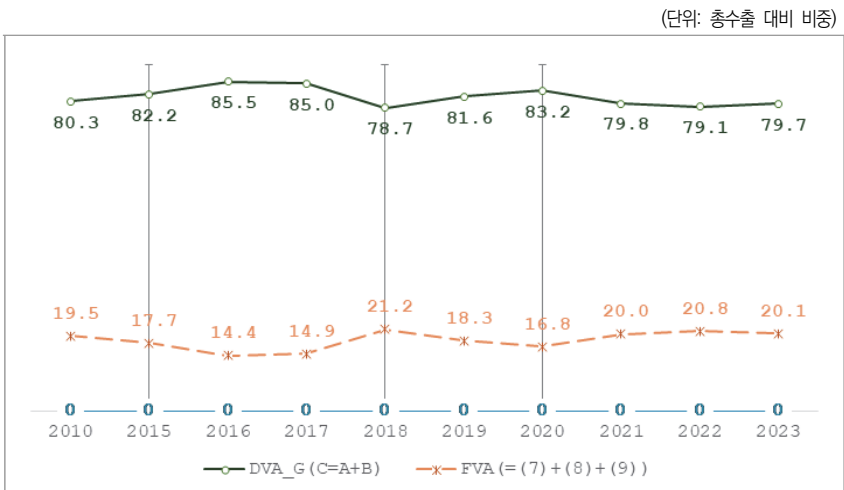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VA_FIN(1)	85.9	137.5	150.4	157.9	195.9	207.0	174.0	205.3	269.3	242.9
DVA_INT(2)	100.3	103.1	110.3	111.1	156.9	162.1	179.2	231.0	235.6	253.7
DVA_INTrex(3)	48.8	51.3	59.0	59.3	87.3	74.0	84.1	103.9	116.8	131.8
VAX_G(A=(1)+(2)+(3))	235.0	291.9	319.7	328.3	440.2	443.1	437.4	540.2	621.6	628.3
RDV_FIN(4)	0.6	0.2	0.2	0.2	0.6	0.5	0.6	0.7	0.9	0.9
RDV_INT(5)	1.3	1.2	1.4	1.4	2.4	2.1	2.0	3.6	3.8	3.8
RDV_G(B=(4)+(5))	1.9	1.4	1.6	1.7	3.0	2.6	2.6	4.3	4.7	4.7
DVA_G(C=A+B)	236.9	293.3	321.3	330.0	443.2	445.6	439.9	544.5	626.3	633.0
DCC(6)	0.4	0.3	0.3	0.3	0.7	0.5	0.5	1.1	1.2	1.3
FVA_FIN(7)	19.9	23.4	20.7	23.4	44.8	40.0	32.6	45.2	60.2	56.7
FVA_INT(8)	23.5	25.5	21.1	21.3	45.2	39.4	36.9	59.9	65.4	63.6
FDC(9)	14.2	14.1	12.2	13.1	29.5	20.7	19.1	31.6	39.2	39.6
FVA(D=(7)+(8)+(9))	57.6	63.0	54.1	57.8	119.5	100.1	88.6	136.7	164.8	159.9
Esa(E=A+D)	294.9	356.6	375.7	388.1	563.3	546.2	529.1	682.3	792.2	794.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종합적으로 볼 때, 인도는 분석 기간에 국내부가가치 중심의 수출구조를 유지해왔으며,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비중이 소폭 조정되는 모습은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인도는 여전히 국내부가가치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점진적으로 해외부가가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림 2-18. 인도의 수출 중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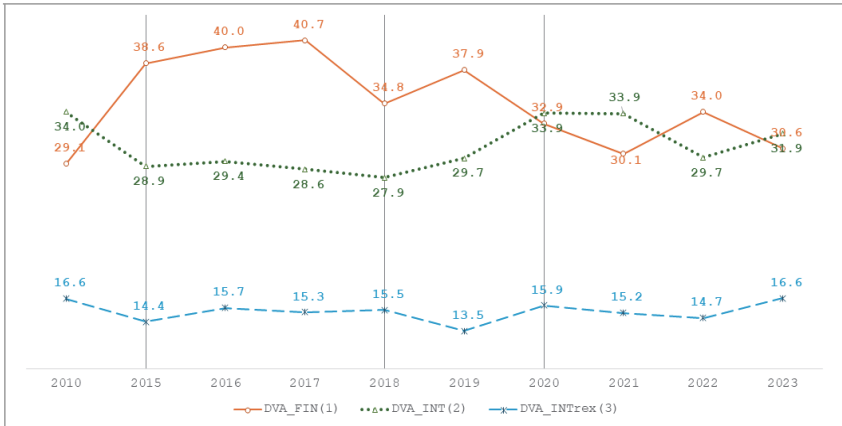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2) 세부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VAX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림 2-19]를 기반으로 세부 요인별 추이를 살펴보자.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간재 직접수출(DVA\_INT)의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랐기 때문에,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DVA\_INT가 DVA\_FIN의 규모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2022년에 일시적으로 DVA\_INT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두 요인이 역전되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그림 2-19. 인도의 VAX 유형별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중간재 직접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종재 수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Trex)은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간재를 통한 부가가치 수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가가치 수출(VAX)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VAX의 절대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총수출 증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VAX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최종재 부가가치 수출(DVA\_FIN)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이후부터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40.7%였던 DVA\_FIN의 비중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3년에 30.6%로 감소하며 약 10%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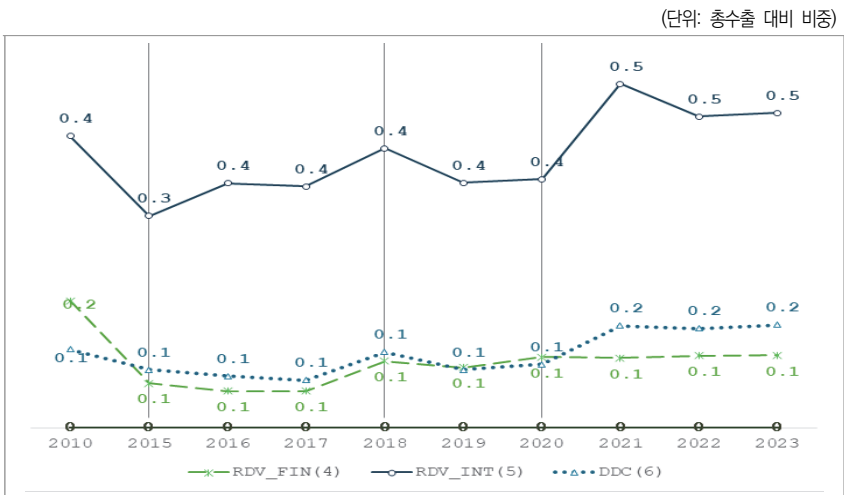
이에 반해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은 바이든 행정부 초반까지 약

28%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33.9%를 기록하며 분석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29.7%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23년에도 약 30% 수준을 유지하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인도의 부가가치 직접수출(VAX)은 과거에는 최종재 중심(DVA\_FIN)이었으나, 최근 중간재(DVA\_INT)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수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인도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조립·완제품 생산국에서 부품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가로 역할이 전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도는 최종재 수출에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 재수출(DVA\_INTrex)의 확대는 인도가 GVC에 더 깊숙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

[그림 2-20]은 인도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의 유형별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간재 부문(RDV\_INT)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분석 기간 동

그림 2-20. 인도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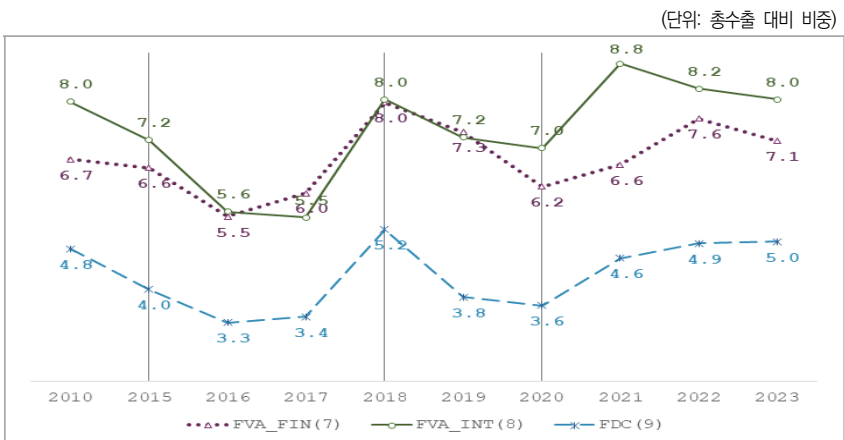
안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간재의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최종재 부문(RDV\_FIN)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 들어 상승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중복계산(DDC)은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1]은 인도의 해외부가가치(FVA)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인도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최종재(FVA\_FIN)와 중간재(FVA\_INT)의 변화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이전까지는 두 항목 모두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나, 고관세정책이 본격 추진된 이후에는 두 항목 모두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유지되었다. 다만 2021년부터는 두 항목 모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FDC)은 2018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하락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2-21. 인도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결과적으로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국내 부가가치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해외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부가가치의 하락은 주로 최종재 부가가치(DVA\_FIN) 비중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외부가가치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간재(FVA\_INT), 최종재(FVA\_FIN), 그리고 해외 중복계산분(FDC)을 포함한 모든 구성 요인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의 부가가치 창출 구조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역할이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간재 공급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는 국내부가가치 중심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는 FVA(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내 조립 및 가공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바. 베트남

###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베트남의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여 유형별로 변화 추이를 [표 2-6]에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출은 2010년 771억 달러, 2015년 1,137억 달러에서 2023년 2,442억 달러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3.1배와 2.1배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5년까지 베트남의 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DVA\_G)는 해외부가가치(FVA)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FVA가 DVA\_G를 역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다.

표 2-6. 베트남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VA_FIN(1)	20.9	30.9	34.8	46.1	49.3	56.2	51.6	50.2	53.9	56.5
DVA_INT(2)	13.9	18.4	23.7	18.1	22.2	25.5	27.3	24.1	27.7	30.2
DVA_INTrex(3)	7.3	10.9	12.9	11.5	13.3	14.0	13.7	13.8	16.6	17.4
VAX_G(A=(1)+(2)+(3))	42.1	60.2	71.4	75.6	84.8	95.8	92.6	88.1	98.2	104.1
RDV_FIN(4)	0.0	0.0	0.1	0.1	0.1	0.1	0.1	0.1	0.1	0.1
RDV_INT(5)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RDV_G(B=(4)+(5))	0.1	0.1	0.2	0.1	0.1	0.2	0.2	0.2	0.2	0.2
DVA_G(C=A+B)	42.2	60.3	71.5	75.7	85.0	96.0	92.8	88.3	98.5	104.3
DDC(6)	0.0	0.1	0.2	0.2	0.2	0.2	0.2	0.3	0.3	0.2
FVA_FIN(7)	18.8	24.9	42.2	54.0	60.6	64.7	67.3	90.1	93.3	81.8
FVA_INT(8)	9.9	16.7	29.1	19.1	22.4	23.8	30.7	35.4	37.2	35.1
FDC(9)	6.2	11.9	20.7	14.8	15.2	14.7	16.5	23.7	26.0	22.9
FVA(D=(7)+(8)+(9))	35.0	53.6	92.3	88.2	98.5	103.6	114.9	149.6	157.0	140.1
Esa(E=A+D)	77.2	113.8	163.7	163.8	183.4	199.3	207.5	237.7	255.3	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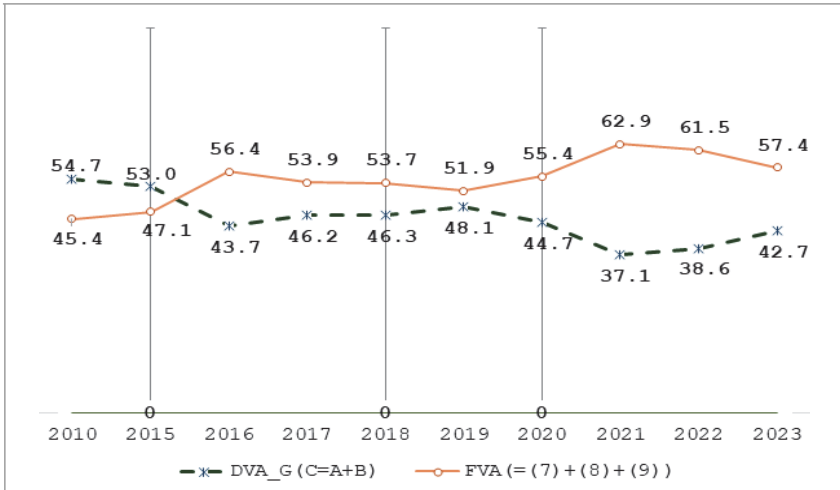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예를 들어 2015년에는 DVA\_G가 603억 달러, FVA가 536억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각각 715억 달러와 923억 달러로 역전되었다. 이후 2019년까지는 양자 간 격차가 소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다시 FVA가 빠르게 증가하며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편 환류된 부가가치(RDV)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2-22]에 따르면, DVA\_G는 30~40% 수준이며, 2016년 이후 FVA(50~60%)보다 낮은 비중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격차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총수출 중 DVA\_G는 42.7%, FVA는 57.4%를 차지하여, 해외부가가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2. 베트남의 3대 부가가치 유형별 수출 추이 변화

(단위: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2) 세부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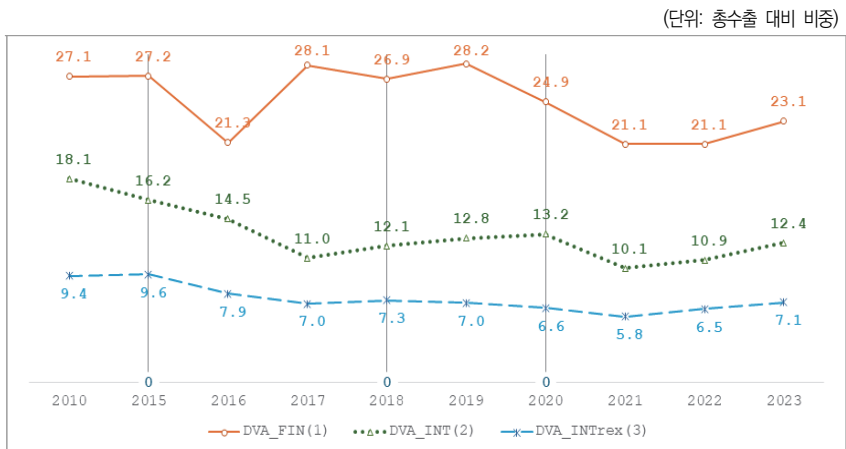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국내부가가치 수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VAX) 구성 요소별로 보면, 최종재(DVA\_FIN)와 중간재(DVA\_INT)는 각각 2015년 209억 달러와 183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563억 달러와 30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각각 약 1.8배 및 1.6배 증가한 수치이다.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 또한 같은 기간 109억 달러에서 173억 달러로 1.6배 확대되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 보면, [그림 2-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재 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상승세를 보이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뚜렷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 중간재는 2017년에 11%까지 하락한 이후 2020년에는 13.2%로 소폭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2023년에는 22.4%로 마감하였다.

중간재 중간 수출 부문(DVA\_INTrex)은 2015년에 9.6%로 정점을 찍은 이

후 꾸준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보면, 베트남의 부가가치수출 비중 감소는 주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2-23.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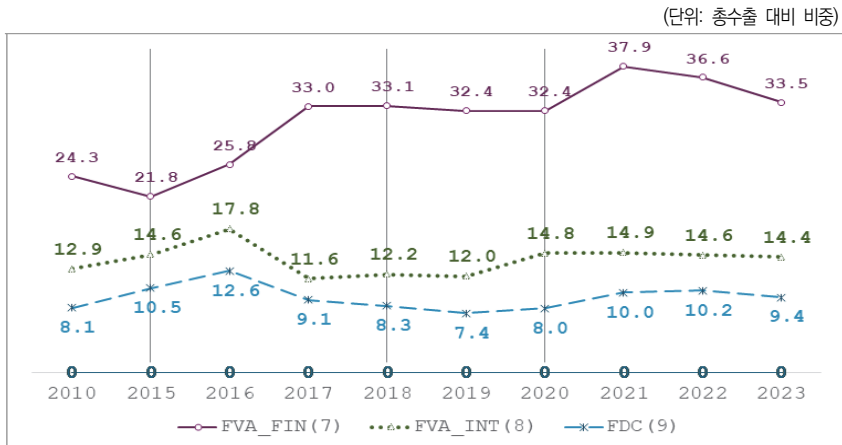
베트남의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이 매우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를 [그림 2-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4]에 따르면, FVA 구성 요소 중 최종재(FVA\_FIN)의 수출 비중이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기에는 이 비중이 32~34%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21년에는 37.9%를 기록하였다.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23년에는 33.5%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증가가 전체 해외부가가치 비중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해외 중간재(FVA\_INT)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하락세를

보여 12%대에서 정체되었으며,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현재는 1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FDC) 또한 FVA\_INT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하락하였고, 바이든 시기에는 반등 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베트남의 수출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최종재 형태의 해외부가가치 수출이 급증한 것이 전체 FVA 비중 확대를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2-24. 베트남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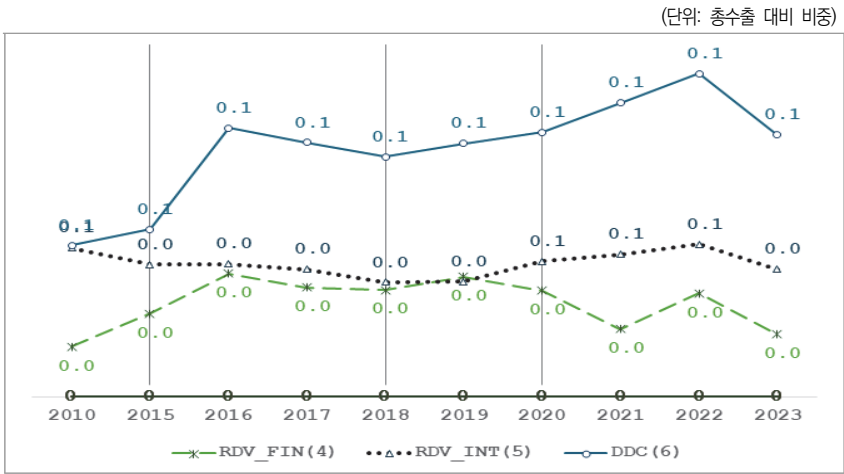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한편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국내 중복계산(DDC)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DDC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후 2023년에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중간재 환류 부가가치(RDV\_INT) 역시 DDC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2018년 이후 상승한 후 최근에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종재 환류 부가가치(RDV\_FIN)는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까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25. 베트남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베트남의 수출구조는 GVC 내 위치 변화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으로 촉발된 외부 충격에 적응하면서 부가가치 창출 구조의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부가가치(FVA)의 비중이 계속 확대된 점은 베트남 수출이 자국 내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투입재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우회하여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수혜국으로서 단기적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이 수출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보다는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최종재 형태로 조립 또는 재수출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최종재 부문에서의 해외부가가치(FVA\_FIN) 비중

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의 수출을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DVA)는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총 수출 대비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DVA\_FIN과 DVA\_INT의 비중은 FVA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베트남이 GVC 내에서 조립·완제품 생산에 집중되는 낮은 부가가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트럼프의 고관세정책이 베트남의 외형적 수출 확대를 견인한 반면, 동시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동반하지 못한 ‘외부 의존형 성장’ 구조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자국 산업의 질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베트남은 한국과 대조적인 경로를 보였다. 한국은 같은 시기에 보호무역주의 충격 속에서도 DVA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였으나, 베트남은 해외부가가치에 의존도를 높이면서 관세 회피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사. 인도네시아

###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인도네시아는 2010년 1,784억 달러, 2015년에는 2,120억 달러를 수출하고, 2023년에는 3,055억 달러를 수출하여, 같은 기간 각각 1.74배와 1.45배의 증가를 했다. 2020년 총수출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부가가치(DVA\_G)는 같은 기간 1,523억 달러와 1,819억 달러, 그리고 2,6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을 각각 1.71배와 1.44배에 달하였다. 해외부가가치(FVA)는 같은 기간 259억 달러와 300억 달러에서 398억 달러로 증가하여, 각각 1.5배와 1.3배의 성장을 보였다.

표 2-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총수출 분해 및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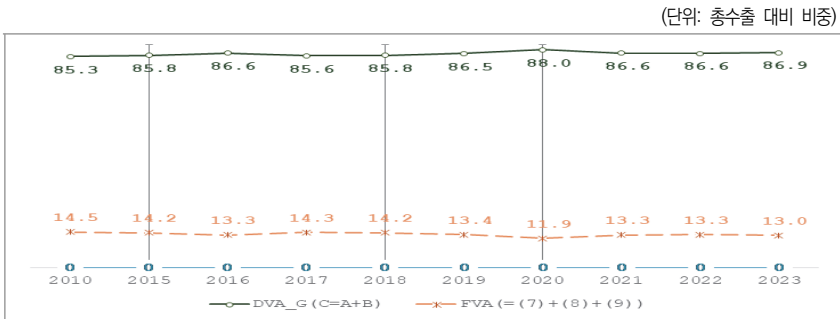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VA_FIN(1)	35.5	48.2	41.0	54.0	60.0	57.7	54.1	55.7	66.0	58.9
DVA_INT(2)	72.6	87.3	89.0	90.8	96.1	90.3	82.5	113.8	139.2	137.2
DVA_INTrex(3)	43.0	45.3	44.2	46.9	48.1	44.1	39.8	55.7	72.8	67.9
VAX_G(A=(1)+(2)+(3))	151.2	180.8	174.3	191.6	204.3	192.2	176.5	225.2	278.0	264.0
RDV_FIN(4)	0.3	0.3	0.3	0.3	0.4	0.3	0.2	0.3	0.4	0.5
RDV_INT(5)	0.9	0.8	0.7	0.7	0.7	0.6	0.5	0.8	1.0	1.0
RDV_G(B=(4)+(5))	1.2	1.0	1.0	1.0	1.1	0.9	0.7	1.0	1.4	1.5
DVA_G(C=A+B)	152.3	181.9	175.3	192.6	205.3	193.1	177.1	226.3	279.4	265.5
DDC(6)	0.2	0.2	0.2	0.2	0.2	0.2	0.1	0.2	0.3	0.3
FVA_FIN(7)	9.3	12.3	10.2	13.1	14.2	13.9	11.0	12.5	15.3	13.3
FVA_INT(8)	10.1	11.2	10.6	11.7	12.2	9.9	8.2	14.0	17.3	16.8
FDC(9)	6.5	6.6	6.1	7.4	7.5	6.2	4.7	8.3	10.5	9.7
FVA(D=(7)+(8)+(9))	25.9	30.0	26.9	32.2	33.9	29.9	23.9	34.8	43.0	39.8
Esa(E=A+D)	178.5	212.1	202.4	225.0	239.4	223.2	201.2	261.2	322.7	305.5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러한 변화를 총수출 대비 비중(그림 2-26)으로 살펴보면, 국내부가가치(DVA\_G)는 최고 88%에 달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국내부가가치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추진 시기에 DVA\_G 비중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에는 다소 완만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해외부가가치(FVA)는 전체 수출의 13~14%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며, DVA\_G와는 상반된 안정적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6. 인도네시아의 3대 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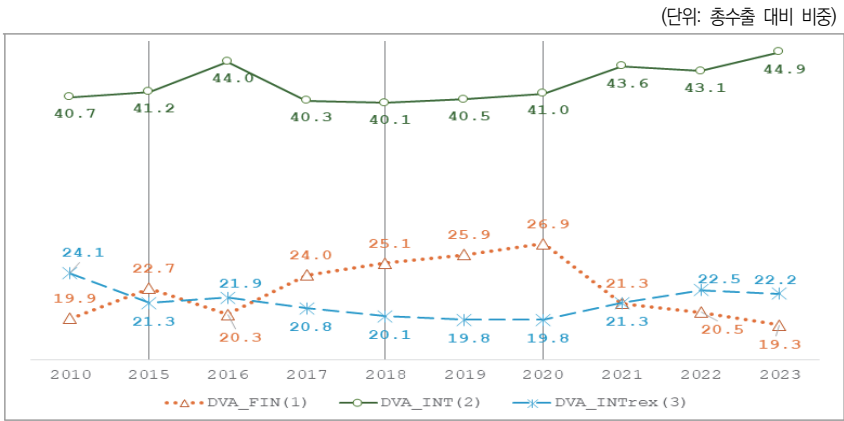
## 2) 세부 유형별 부가가치 분해

인도네시아의 수출에서 각 부가가치 유형별 세부 변화를 [그림 2-27]을 통해 살펴보면, 부가가치 수출(VAX)은 중간재(DVA\_INT)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중간재 비중은 41.2%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는 40% 초반까지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최종재 직접수출(DVA\_FIN)은 같은 기간 21.3%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후반인 2020년까지는 일시적으로 26.9%까지 상승하는 전환적 움직임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양상이 다시 변화하여, 중간재 비중은 2023년 44.9%까지 상승했지만, 최종재는 같은 해 19.3%로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의 경우, 2015년 21.7%에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 19.8%를 저점으로 반등하여, 2023년에는 22.2%로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VAX)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간재의 절대적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종재 비중의 하락과 재수출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구조는 완성재보다는 중간재 조달 및 재수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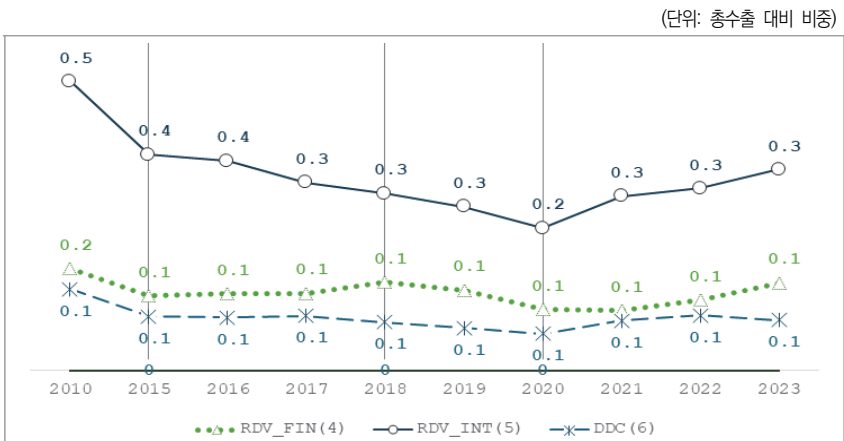
그림 2-2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다음으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의 변화를 [그림 2-28]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RDV는 0.5%의 비중으로 매우 미미한 가운데, 중간재(RDV\_INT)에 크게 의존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종재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상승한 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소하였으나,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2-28. 인도네시아의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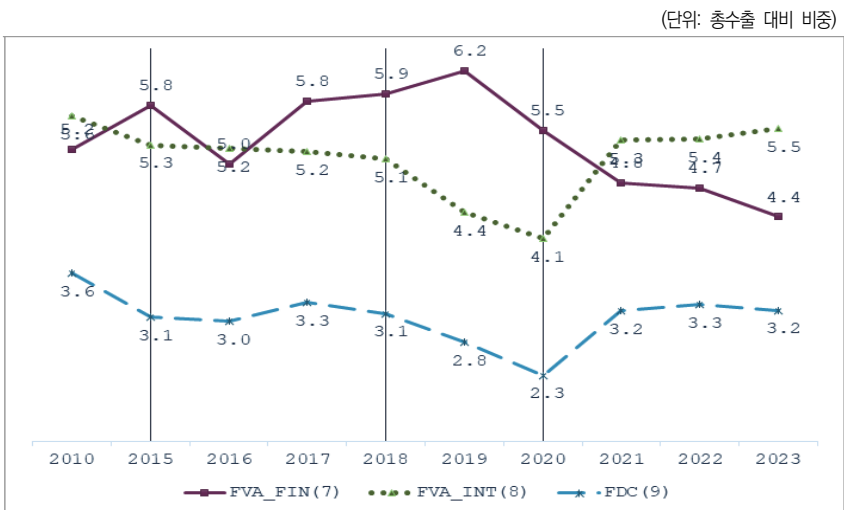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의 총수출은 절대적으로 부가가치수출(VAX)에 의존하며, VAX는 중간재(DVA\_INT)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재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는 FVA는 최종재(FVA\_FIN)와 중간재(FVA\_INT)의 비중에 의해 변화되고 있으나, 최근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중간재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부가가치(FVA)의 변화 추이는 [그림 2-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수출구조에서 해외 부문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FVA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종재(FVA\_FIN), 중간재(FVA\_INT),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FDC) 간에는 상반된 흐름이 관찰된다.

그림 2-29. 인도네시아의 해외부가가치 유형별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우선 FVA\_FIN은 2015년 5.8%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 상승하여 2019년 6.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4.4% 수준으로 마감되었다.

반면 FVA\_INT(중간재)는 같은 기간 5.3%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1%로 하락한 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5.5%에 도달하였다. FDC 또한 2015년 3.1%에서 2020년 2.3%까지 감소한 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3.2%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FDC는 중간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동조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의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는 최종재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중간재 및 해외부가가치 중복계 산(FDC)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가치사슬 (GVC) 내에서 최종재 조립보다는 중간재 조달 및 연계 간접수출 기능을 강화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2015~23년 기간 동안 7개국의 수출구조의 변화를 부가가치 분해를 통해 고찰하였다. 총수출을 국내부가가치(DVA\_G)와 해외부가가치 (FVA)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세 분류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보았다. 분석 기간을 트럼프 고관세정책 기간(2017~20년)을 중심으로 전후 비교를 수행 했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기준 7개국의 전체 수출 중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일본(21.8%), 인도(10.8%), 한국(9.9%)이 차지하였다. 2015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인도(2.2배), 베트남(2.1배), 일본(1.6배), 중국(1.5배) 순이며, 한국은 1.2배로 가장 낮았다. 분석 기간, 전체 수출 비중은 한국(-2.9%p), 대만 (-8.5%p), 일본(-0.34%p) 등에서 하락한 반면, 인도(+3.3%p)와 베트남

(+0.93%p)은 상승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부가가치에서는 국내부가가치(DVA\_G)가 높고, FVA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는 DVA\_G 비중이 70~80%로 높고, 한국과 대만은 50~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베트남은 특이하게 2016년 이후부터 FVA가 DVA\_G를 초과하며, FVA 중심의 수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수출에 필요한 최종재 및 중간재를 여타 국가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부가가치(DVA\_G) 비중이 상승하고,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은 하락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FVA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인도의 경우 회복 폭이 제한적이거나 정체되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미중 무역 전쟁과정에서 글로벌 분업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부가가치 수출(VAX) 기준으로 보면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는 중간재 중심형, 중국, 베트남은 최종재 중심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한국과 대만은 최종재 비중이 감소하다가 바이든 시기부터 반등하였으며, 중간재 간접수출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일본은 2020년 이후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면서 구조 변화가 뚜렷하며, 인도는 최종재 중심에서 중간재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든 시기에 최종재보다 중간재 간접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다섯째, 해외부가가치(FVA)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하락하고 바이든 시기에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FVA 구성상, 중국과 베트남은 최종재 중심, 한국과 대만은 중간재 중심, 일본과 인도는 최종재에서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 인도네시아는 바이든 시기에 중간재 중심으로 뚜렷하게 재편되는 특징을 보였다.

여섯째,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는 전체 부가가치 내 비중은 작지만, 중

간재 중심 구조는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최종재 중심 구조는 대만과 베트남에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일관된 추세 없이 혼조 양상을 보이며, RDV 전반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 중국, 일본을 기준으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2017~20년)은 GVC 구조에 전반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본 연구에서 벤치마킹 그룹으로 설정한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이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복력 있는 대응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바탕으로 국내부가가치(DVA\_G)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였으며, 대만은 안정적인 중간재 수출을 유지하였다. 중국은 고관세 충격으로 최종재 수출의 일부 둔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높은 최종재 중심의 FVA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방어하였다. 이들 국가는 고관세 환경에서도 GVC 내 포지션이 공고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분석대상국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고관세정책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았다. 인도는 정책 시행 초기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하였지만, 이후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하며 비교적 성공적인 적응을 보였다. 베트남은 반대로 고관세 회피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수혜를 받으면서, 해외부가가치(FVA) 의존도가 급증하는 수출구조로 전환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고관세정책 시기 중간재와 재수출 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고관세정책은 이들 3개국에 산업 구조의 외부의존성과 국내 부가가치 수출 역량의 한계를 노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된다.

## 제3장

K

# 부가가치 기반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관계

1.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의존도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위치 변화
3. 소결



# 1.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의존도 변화

본 절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7개 국가들의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가 어느 국가와의 교역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기간은 2015~23년이나, 비교를 위해 2010년의 수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북미의 USMCA 3개국, EU 내 주요 8개국, BRICS 내 3개국, 동북아의 한중일 3국과 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 중 6개국을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주요국 부가가치 수출 비중 변화를 살펴볼 때, ① 수출 비중이 높아진 권역 및 주요 국가, ② 수출 비중이 하락한 권역 및 주요 국가, ③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되었던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의 변화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표 3-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은 분석에 포함된 모든 권역에서 2015년 대비 상승하였다. 그로 인해 고려 대상 전역의 전체 수출 비중이 2015년 54.6%에서 2023년 68%로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권역은 북미인데, 2017년 26.2%까지 그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23년 21.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의 하락에 기인하는데, 동 기간 22.3%에서 16.1%로 5.2%p가 하락하였으며,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중국의 수출에서 BRICS3 중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3년 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 역시 2015년 6.4%에서 2023년 10.7%로 상승하였는데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이 확대되었다. 미중 무역갈등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멕시코와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

표 3-1.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9.3	19.2	20.4	26.2	22.8	25.0	22.3	23.8	22.7	21.8
캐나다	2.2	2.0	2.1	1.9	2.0	2.4	2.4	2.2	2.5	1.8
멕시코	1.5	1.4	1.8	2.0	3.4	3.2	2.8	3.1	3.7	3.8
미국	15.6	15.8	16.6	22.3	17.4	19.5	17.1	18.5	16.4	16.1
ER8	14.8	11.7	11.8	12.7	14.2	16.7	15.9	16.0	18.3	15.0
스페인	1.1	0.8	0.9	0.9	1.2	1.3	1.4	1.3	1.6	1.3
프랑스	2.2	1.6	1.6	1.7	2.0	2.4	2.0	1.6	1.8	1.5
영국	2.6	2.2	2.1	1.9	2.2	2.3	2.5	2.7	3.6	2.7
이탈리아	1.8	1.2	1.2	1.2	1.3	1.5	1.6	1.3	1.7	1.4
네덜란드	1.5	1.6	1.6	2.2	1.6	1.9	1.6	1.8	1.8	1.7
폴란드	0.6	0.6	0.6	0.6	1.1	1.3	1.5	1.4	1.6	1.2
벨기에	0.6	0.5	0.4	0.4	0.5	0.6	0.5	0.5	0.6	0.6
독일	4.3	3.2	3.3	3.8	4.4	5.4	4.7	5.4	5.6	4.5
BRICS3	6.4	5.4	5.4	6.1	5.7	5.9	5.7	6.3	6.1	7.8
브라질	1.5	1.2	1.0	1.0	1.2	1.3	1.4	1.4	1.5	1.6
러시아	2.9	2.3	2.2	2.9	1.9	2.3	1.9	2.4	2.1	3.0
인도	1.9	1.9	2.2	2.2	2.7	2.2	2.4	2.4	2.5	3.2
NEA4	12.3	12.0	12.1	11.7	10.3	12.7	13.0	11.5	11.6	12.7
한국	3.6	3.9	3.9	3.8	3.8	4.3	4.3	3.8	3.9	4.1
일본	7.5	6.8	6.8	6.5	5.8	6.3	6.3	5.4	5.4	6.5
대만	1.3	1.3	1.4	1.4	0.6	2.1	2.4	2.4	2.3	2.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SEAN6	5.9	6.4	6.4	7.3	9.3	10.3	8.9	9.0	9.4	10.7
인도네시아	1.3	1.4	1.1	1.2	1.7	1.8	1.6	1.5	1.8	1.9
말레이시아	1.1	1.3	1.4	1.4	1.6	1.7	1.2	1.2	1.0	1.3
태국	1.0	0.7	0.8	0.8	1.5	1.8	1.6	1.6	1.6	2.1
필리핀	0.3	0.4	0.5	0.5	0.9	0.9	0.7	0.9	0.9	1.5
싱가포르	1.2	1.0	1.0	1.1	1.1	1.2	0.9	1.1	1.2	1.4
베트남	0.9	1.3	1.3	2.0	2.1	2.6	2.6	2.5	2.6	2.3
합계	58.7	54.6	56.1	64.1	62.3	70.6	65.8	66.7	68.1	68.0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의 수출 비중 상승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중국의 무역 다변화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교역국으로 선정한 23개 국가들<sup>18)</sup>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5년 54.6%에서 2023년 68%로 상승하여,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의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수출대상국별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이 [표 3-2]에 나타나 있다. 우선 2023년 기준으로 북미(USMCA), 유럽지역 8개국(ER8), BRICS3, 그리고 아세안 권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비중이 상승한 권역 중에서 북미의 수출 비중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은 2015년 12.4%였으나, 2023년 17.5%까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미의 수출 비중 역시 동 기간 15.4%에서 21.2%로 상승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도 2015년 7.7%에서 2023년 12.1%까지 상승하였는데, 동 기간 2.1%에서 5.2%까지 수출 비중이 확대된 베트남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권역인 동북아 국가들(NEA4)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2018년 40.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였고, 특히 중국의 비중은 2021년 33%에서 2023년 20.2%까지 하락했지만, 일본의 비중은 2023년 6.4%까지 상승하였다.

셋째, 미중 무역갈등 시기동안 한국의 경우 수출 중 미국 비중은 상승한 반면, 중국의 수출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BRICS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의 수출 비중은 2021년 3.8%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한 반면, 인도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3년 3.0%까지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23개 교역국에 대한 부가가치의 수출 비중은 2015년 64.4%에서 2021년 86.1%에 달한 후 2023년 78.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해

---

18) 교역국으로 선정한 국가들은 5개 권역의 24개 국가들이며, 자국을 제외하면 23개국이다.

표 3-2.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4.1	15.4	15.7	14.8	15.6	17.8	18.9	17.1	18.1	21.2
캐나다	1.2	1.0	1.0	0.9	1.1	1.4	1.6	1.2	1.2	1.3
멕시코	2.5	1.9	2.4	2.8	2.5	2.7	2.7	2.8	2.9	2.5
미국	10.4	12.4	12.3	11.1	12.0	13.8	14.6	13.1	13.9	17.5
ER8	7.3	5.4	5.2	5.6	7.5	9.0	9.7	8.4	8.7	9.7
스페인	0.4	0.3	0.3	0.3	0.5	0.6	0.5	0.4	0.5	0.5
프랑스	0.8	0.6	0.6	0.6	1.0	1.0	1.0	1.1	1.2	1.3
영국	1.4	1.2	1.1	0.9	1.0	1.1	1.1	0.9	1.0	1.2
이탈리아	0.8	0.5	0.5	0.6	0.6	0.8	0.6	0.6	0.7	0.8
네덜란드	0.3	0.4	0.4	0.6	0.8	0.8	0.9	0.8	0.8	0.8
폴란드	1.0	0.7	0.7	0.8	0.9	1.0	1.4	1.1	1.3	1.3
벨기에	0.2	0.2	0.2	0.2	0.3	0.3	0.3	0.4	0.3	0.5
독일	2.3	1.4	1.3	1.5	2.5	3.3	3.8	3.1	3.0	3.1
BRICS3	6.1	4.7	4.7	5.0	6.1	6.0	6.1	7.2	6.1	5.9
브라질	1.7	1.4	1.1	1.2	0.8	0.7	0.8	0.8	0.7	0.7
러시아	2.1	1.7	1.5	1.7	2.1	2.7	2.8	3.8	2.5	2.2
인도	2.3	1.6	2.0	2.1	3.2	2.5	2.5	2.6	2.9	3.0
NEA4	32.3	31.2	32.2	34.5	40.1	39.7	32.7	40.0	34.9	29.3
한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본	6.3	5.4	5.4	5.4	4.5	4.8	4.4	4.2	4.7	6.4
대만	2.9	2.5	2.6	3.0	3.2	3.3	2.6	2.9	3.1	2.7
중국	23.1	23.2	24.2	26.1	32.4	31.6	25.6	33.0	27.1	20.2
ASEAN6	8.6	7.7	8.9	11.8	12.2	11.5	13.5	13.3	13.8	12.1
인도네시아	1.6	1.5	1.1	1.4	1.4	1.3	1.2	1.2	1.4	1.5
말레이시아	1.5	1.0	1.2	1.3	1.3	1.2	1.5	0.9	1.0	0.9
태국	1.3	0.7	0.7	0.7	1.3	1.1	1.3	1.3	1.2	1.1
필리핀	0.8	0.7	1.0	1.0	1.1	1.2	1.3	1.5	1.8	1.4
싱가포르	1.8	1.6	1.7	1.8	1.8	1.2	1.7	2.0	2.0	1.9
베트남	1.6	2.1	3.0	5.5	5.2	5.3	6.5	6.5	6.4	5.2
합계	68.4	64.4	66.6	71.7	81.4	84.0	80.9	86.1	81.5	78.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당 국가들, 특히 4대 교역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에 대한 수출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 추이가 [표 3-3]에 나타나 있다. 2015년에 비해 2023년 모든 권역에서 수출 비중이 높아져 고려대상 전역의 전체 수출 비중이 83.4%에 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동 기간 25.9%에서 34.7%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으로의 부가가치의 수출 비중이 동 기간 14.6%에서 23.2%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18~20년 최저를 기록한 후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일본의 추이는 동 기간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하락한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미 국가 중 미국과 멕시코의 수출 비중이 2015년에 비해 2023년 각각 2.2%p와 1.2%p 상승하였고,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1.2%p 상승하였다. BRICS 3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인도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러시아는 2015년 1.4%에서 2023년 0.5%로 하락했지만, 인도는 동 기간 0.9%에서 2.5%로 상승하였다. 그 외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태국으로, 동 기간 2.4%에서 3.9%로 1.5%p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 이후에도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1년까지 확대한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일본의 23개의 교역 대상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2015년 64.3%에서 2023년 83.4%로 19.1%p 증가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분석 대상 7개 국가 중 23개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3-3.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4.8	19.1	19.3	19.6	19.6	23.4	19.1	20.2	21.8	22.6
캐나다	1.5	1.4	1.3	1.3	1.4	1.7	1.5	1.6	1.5	1.6
멕시코	1.4	1.6	2.0	2.3	1.9	2.1	1.8	2.5	2.9	2.7
미국	11.9	16.2	16.0	16.1	16.3	19.7	15.8	16.2	17.3	18.4
ER8	7.5	6.7	6.3	6.9	9.2	12.4	9.8	10.5	10.7	9.8
스페인	0.4	0.3	0.3	0.3	0.5	0.7	0.5	0.4	0.4	0.4
프랑스	0.8	0.8	0.8	0.9	1.4	1.6	0.9	1.0	0.9	1.1
영국	1.7	1.2	1.1	1.0	1.6	1.8	1.5	1.2	1.3	1.7
이탈리아	0.6	0.4	0.4	0.4	0.5	0.5	0.5	0.6	0.6	0.8
네덜란드	0.9	0.9	0.9	1.2	0.9	1.0	1.0	1.2	1.3	1.1
폴란드	0.3	0.2	0.2	0.2	0.4	0.5	0.5	0.5	0.5	0.6
벨기에	0.6	0.5	0.4	0.4	0.8	1.0	1.1	0.9	0.7	0.7
독일	2.4	2.3	2.2	2.5	3.0	5.2	3.9	4.8	4.9	3.4
BRICS3	2.9	2.9	2.9	3.4	3.7	3.9	3.4	3.8	3.3	3.6
브라질	0.6	0.5	0.4	0.4	0.5	0.7	0.6	0.7	0.6	0.6
러시아	1.5	1.4	1.3	1.8	1.4	1.7	1.4	1.3	0.9	0.5
인도	0.8	0.9	1.2	1.2	1.8	1.5	1.4	1.7	1.8	2.5
NEA4	27.9	25.9	26.0	26.3	31.4	33.2	37.3	40.0	38.5	34.7
한국	6.4	6.7	6.5	6.5	5.9	6.2	5.1	6.3	6.6	6.6
일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만	5.7	4.6	4.6	4.8	5.0	5.6	5.3	5.4	5.1	4.9
중국	15.7	14.6	14.9	15.1	20.5	21.5	26.8	28.3	26.9	23.2
ASEAN6	10.4	9.7	9.9	10.2	12.4	12.5	11.4	12.3	11.9	12.7
인도네시아	1.7	1.9	1.2	1.4	1.8	1.7	1.3	1.6	1.9	1.9
말레이시아	2.2	1.7	1.7	1.6	1.9	1.8	1.5	1.3	1.3	1.2
태국	3.1	2.4	2.6	2.6	3.7	3.9	4.0	3.9	3.4	3.9
필리핀	0.7	0.7	0.9	0.9	0.8	1.0	0.9	1.0	1.2	1.3
싱가포르	1.9	1.9	2.2	2.2	2.4	2.3	1.7	2.3	2.0	2.5
베트남	0.8	1.0	1.3	1.5	1.8	1.7	1.9	2.1	2.1	1.9
합계	63.5	64.3	64.3	66.5	76.4	85.4	81.0	86.8	86.2	83.4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표 3-4]에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권역별로 살펴볼 때, 모든 지역에서 분석 국가들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권역은 북미(USMCA)로 2015년 11.9%에서 2023년 25.1%로 상승하였다. 이는 특히 미국의 수출 비중의 상승에 기인하는데, 동 기간 9.2%에서 20.3%로 11.1%p 증가하였으며, 멕시코로의 수출 비중 역시 동 기간 1.4%에서 3.6%로 2.2%p 상승하였다. 유럽지역의 수출 비중 역시 5.6%에서 8.5%로 상승하였다.

반면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아 국가의 경우, 2015년 40.5%의 수출 비중에서 2018년 5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3년 41.9%의 비중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2023년 32.2%로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국가의 수출 비중 역시 2015년 10.6%에서 2023년 12.1%로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역대상국으로 선정한 23개 국가에 대한 대만의 부가가치의 수출 비중은 2015년 70.6%에서 2023년 89.9%로 증가하여, 분석대상인 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4.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2.8	11.9	11.7	13.4	14.5	16.7	19.4	20.1	21.6	25.1
캐나다	1.6	1.3	1.3	1.2	1.0	1.4	1.2	1.4	1.3	1.3
멕시코	1.8	1.4	1.7	2.0	1.7	2.0	2.6	2.4	2.8	3.6
미국	9.4	9.2	8.8	10.1	11.8	13.3	15.6	16.4	17.4	20.3
ER8	7.7	5.6	5.1	5.7	6.6	7.2	8.2	7.1	7.9	8.5
스페인	0.5	0.3	0.3	0.3	0.3	0.3	0.4	0.4	0.5	0.4
프랑스	1.1	0.6	0.6	0.7	1.0	1.0	0.6	0.7	0.8	0.9
영국	1.6	1.2	1.0	1.0	0.9	1.0	1.1	1.0	1.2	1.0
이탈리아	0.9	0.5	0.5	0.6	0.5	0.6	0.5	0.5	0.6	0.5
네덜란드	0.5	0.5	0.5	0.6	0.8	1.0	1.3	1.2	1.4	2.2
폴란드	0.4	0.3	0.3	0.3	0.3	0.4	0.4	0.4	0.4	0.3
벨기에	0.2	0.2	0.2	0.2	0.2	0.3	0.3	0.3	0.3	0.4
독일	2.4	1.9	1.8	2.1	2.5	2.5	3.7	2.6	2.7	2.8
BRICS3	2.9	2.0	1.8	1.9	1.9	2.0	2.0	2.1	2.3	2.3
브라질	1.4	0.9	0.7	0.8	0.4	0.4	0.4	0.5	0.4	0.4
러시아	0.4	0.2	0.2	0.3	0.4	0.6	0.4	0.4	0.4	0.4
인도	1.0	0.9	0.9	0.9	1.1	1.0	1.2	1.2	1.5	1.4
NEA4	39.3	40.5	40.6	42.0	53.0	53.6	47.3	50.6	47.0	41.9
한국	3.6	3.5	3.2	3.3	3.3	2.8	5.2	2.8	2.8	3.1
일본	6.7	6.0	5.9	5.6	5.8	6.4	4.6	4.2	4.7	6.7
대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29.0	31.0	31.5	33.1	43.8	44.4	37.5	43.6	39.5	32.2
ASEAN6	9.3	10.6	11.4	12.3	13.2	11.3	11.9	10.5	11.9	12.1
인도네시아	0.9	0.9	0.6	0.7	0.8	0.8	1.1	0.9	0.8	0.7
말레이시아	1.9	2.3	2.4	2.7	2.3	2.2	3.1	2.0	2.7	1.9
태국	1.3	1.0	1.1	1.1	2.1	2.0	1.6	1.1	1.3	2.6
필리핀	1.0	1.0	1.2	1.2	0.8	1.0	0.8	0.7	0.7	0.6
싱가포르	2.8	3.9	4.3	4.2	5.1	2.9	2.9	3.1	3.6	3.9
베트남	1.4	1.5	1.7	2.4	2.1	2.3	2.3	2.7	2.6	2.2
합계	72.0	70.6	70.6	75.3	89.1	90.8	88.8	90.4	90.6	89.9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표 3-5]에 제시된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액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수출 비중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부가가치 수출액의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북미 지역과 유럽지역으로, 2015년 각각 12.2%와 11.6%에서 2023년 21.3%와 16.8%로 증가하였다. 북미지역에서 세 국가의 수출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특히 미국은 동 기간 10.7%에서 19.0%로 인도의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유럽의 수출 비중 역시 동 기간 11.6%에서 16.8%로 5.2%p 상승하였는데, 특히 영국의 수출 비중이 3.6%에서 5.8%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BRICS 중 러시아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미중 무역갈등 당시 그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동북아 국가의 경우 2015년 7.9%에서 2023년 9.9%로 2%p 수출 비중이 상승하였는데,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21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0~21년 소폭 하락한 후 다시 크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0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우 교역대상국으로 선정한 23개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5년 39.4%에서 2023년 56.2%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7개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5.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9.4	12.2	12.4	19.1	16.9	22.8	21.5	16.3	22.3	21.3
캐나다	0.5	0.7	0.7	0.7	1.0	1.0	1.3	1.2	1.2	1.2
멕시코	0.3	0.8	0.9	1.1	1.1	1.8	1.5	0.7	0.9	1.1
미국	8.5	10.7	10.8	17.4	14.8	20.0	18.7	14.3	20.2	19.0
ER8	11.8	11.6	11.0	11.9	13.3	17.0	14.4	13.1	14.7	16.8
스페인	0.7	0.8	0.8	0.8	1.1	1.2	1.0	0.9	1.0	1.1
프랑스	1.5	1.7	1.7	1.9	2.0	2.9	1.8	1.7	1.6	1.5
영국	4.0	3.6	3.3	3.1	3.5	2.9	3.9	2.5	3.7	5.8
이탈리아	1.3	1.2	1.2	1.3	1.2	1.5	1.3	1.5	1.8	1.9
네덜란드	0.9	0.9	0.9	1.2	1.5	2.3	1.4	1.9	1.4	1.9
폴란드	0.3	0.3	0.3	0.3	0.4	0.5	0.5	0.5	0.6	0.5
벨기에	0.8	0.8	0.6	0.7	0.7	1.3	0.7	0.9	1.1	1.1
독일	2.3	2.3	2.1	2.5	3.0	4.4	3.8	3.3	3.6	3.0
BRICS3	2.0	1.7	1.7	2.0	1.9	2.0	2.4	2.3	2.3	2.0
브라질	1.5	1.3	1.3	1.5	1.0	1.0	1.5	1.5	1.6	1.4
러시아	0.5	0.5	0.4	0.5	0.9	1.0	1.0	0.8	0.7	0.6
인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NEA4	11.0	7.9	8.1	8.2	9.4	10.3	11.5	11.1	9.1	9.9
한국	1.2	1.2	1.3	1.3	1.6	1.8	2.1	2.2	1.8	1.3
일본	1.4	1.3	1.4	1.3	1.2	1.8	1.5	1.5	1.7	2.2
대만	0.5	0.6	0.6	0.7	0.9	0.8	0.7	0.7	0.7	0.7
중국	7.9	4.8	4.7	4.9	5.8	5.9	7.3	6.7	4.9	5.6
ASEAN6	5.9	6.0	5.4	6.3	6.1	6.6	8.0	6.5	6.4	6.2
인도네시아	0.9	1.1	0.8	0.9	1.1	1.2	1.1	1.5	1.6	1.5
말레이시아	1.0	1.2	1.2	1.5	1.2	1.2	1.3	0.6	0.9	0.8
태국	0.5	0.5	0.5	0.5	1.0	1.2	1.0	0.8	1.1	0.7
필리핀	0.1	0.3	0.3	0.3	0.3	0.4	0.4	0.5	0.5	0.5
싱가포르	2.8	2.2	1.8	2.1	1.6	1.5	3.3	1.9	1.4	1.8
베트남	0.5	0.6	0.7	0.9	0.9	0.9	0.9	1.1	0.9	0.9
합계	40.1	39.4	38.6	47.5	47.6	58.7	57.9	49.3	54.8	56.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표 3-6]에 나타난 베트남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북미의 경우 2015년 17.2%에서 2023년 24.3%로 7.1%p만큼 수출 비중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동 기간 15.5%에서 21.9%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멕시코에 대한 수출 비중 역시 동 기간 0.4%에서 1.0%로 상승하였다.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동북아 국가들(NEA4)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 증가도 눈에 띄는데, 한국과 중국은 동 기간 각각 5.2%와 10.7%에서 6.3%와 17.8%로 수출 비중이 상승했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은 10.2%에서 8.1%로 하락하였다.

BRICS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9년 1.8%까지 상승한 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수출 비중이 하락한 권역인 아세안 지역의 경우, 2015년 10%의 수출 비중이 2023년 7.9%로 하락하는데, 태국의 수출 비중은 소폭 상승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소폭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 이후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5.4%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중국의 경우 2020년 20.6%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두 국가 모두 수출 비중이 상승한 후에 최근 들어 조정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3개 교역대상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 비중은 2015년 69.5%에서 2023년 83.2%로 13.7%p 상승하여, 7개 분석 대상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3-6.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6.0	17.2	15.4	19.4	19.5	23.3	24.9	28.8	28.1	24.3
캐나다	0.8	1.2	1.2	1.2	1.2	1.4	1.4	1.8	2.3	1.4
멕시코	0.4	0.4	0.5	0.9	0.8	0.9	0.8	1.6	0.8	1.0
미국	14.7	15.5	13.6	17.3	17.6	21.0	22.8	25.4	25.0	21.9
ER8	13.8	12.8	10.9	17.0	16.8	15.1	14.8	14.2	14.7	13.9
스페인	1.5	1.2	1.1	1.2	1.2	1.1	0.9	0.9	0.9	1.1
프랑스	1.5	1.2	1.0	2.4	2.8	2.4	2.3	1.7	1.7	1.5
영국	2.7	2.5	1.9	2.8	2.9	2.9	2.2	2.2	2.2	2.1
이탈리아	1.5	1.3	1.1	1.4	1.2	1.4	1.0	1.0	1.1	1.1
네덜란드	1.8	1.8	1.8	3.1	2.6	2.4	2.1	2.1	2.5	2.3
폴란드	0.3	0.4	0.3	0.4	0.5	0.5	0.5	0.7	0.6	0.7
벨기에	1.1	1.4	1.2	0.9	1.0	0.9	0.8	1.1	1.1	0.9
독일	3.4	2.9	2.5	4.8	4.5	3.5	5.0	4.6	4.7	4.1
BRICS3	2.4	2.3	2.1	3.8	4.8	4.9	3.7	3.5	3.4	3.4
브라질	0.5	0.9	0.7	0.8	0.7	0.7	0.6	0.7	0.6	0.7
러시아	0.8	0.5	0.6	1.5	1.6	1.8	1.2	1.0	0.6	0.6
인도	1.1	0.9	0.9	1.6	2.5	2.4	1.9	1.8	2.2	2.1
NEA4	28.0	27.2	24.3	30.4	30.9	29.7	34.3	29.8	30.2	33.6
한국	3.6	5.2	5.5	5.9	6.5	6.6	6.0	5.9	5.9	6.3
일본	14.8	10.2	8.6	7.6	7.6	7.6	6.4	6.4	7.4	8.1
대만	1.7	1.2	1.0	1.2	1.2	1.3	1.4	1.4	1.4	1.4
중국	8.0	10.7	9.2	15.7	15.6	14.2	20.6	16.2	15.4	17.8
ASEAN6	12.0	10.0	8.1	10.0	9.5	8.9	8.3	9.2	9.9	7.9
인도네시아	2.5	1.1	0.8	1.0	1.4	1.0	0.9	1.2	1.2	1.3
말레이시아	3.7	3.6	1.9	1.9	1.7	1.5	1.4	1.4	1.5	1.4
태국	1.3	1.2	1.5	1.9	1.9	1.7	1.6	1.8	1.9	1.7
필리핀	2.2	1.3	1.8	1.8	1.4	1.6	1.0	1.7	1.7	1.3
싱가포르	1.5	1.4	1.0	2.3	2.0	2.0	2.4	2.2	2.2	1.5
베트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72.2	69.5	60.8	80.6	81.5	82.0	86.0	85.7	86.4	83.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의 국가별 비중이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권역별 수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BRICS 3개 국가와 동북아 국가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북미와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보합상태이거나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ICS 3개국 중 인도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는데, 2015년 5.0%에서 2018년 1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23년 7.9%를 기록하였다. 권역 중 가장 큰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아의 경우 2015년 30.3%에서 2023년 38.7%로 수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5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1.2%에서 20.8%로 9.6%p 상승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동 기간 15.2%에서 16.2%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베트남과 태국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였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북미의 경우 미국의 수출 비중이 2020년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으나 멕시코의 수출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고, 유럽의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수출 비중이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모두 확대된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0년 12.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부터 수출 비중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23년 7.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역시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21년 23.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23개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5년 71.6%에서 2023년 79.3%로 증가하였다.

표 3-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액 중 수출대상국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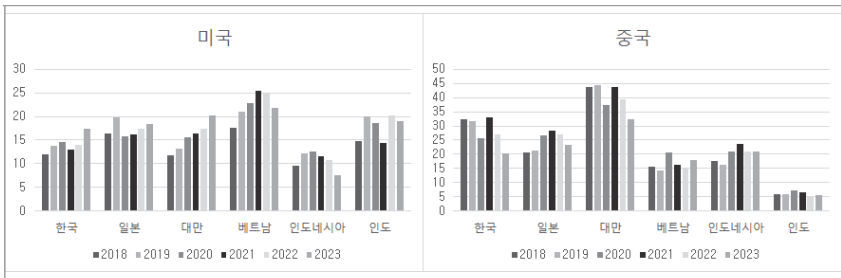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9.2	10.7	10.5	11.7	10.6	13.6	14.2	12.9	12.1	9.0
캐나다	0.6	0.7	0.7	0.6	0.5	0.7	0.7	0.6	0.7	0.6
멕시코	0.5	0.5	0.6	0.8	0.5	0.7	0.9	0.6	0.7	0.9
미국	8.1	9.5	9.2	10.3	9.6	12.1	12.7	11.7	10.7	7.5
ER8	7.8	8.8	7.2	8.5	7.7	8.8	7.9	7.4	7.9	6.4
스페인	1.0	1.3	0.9	1.0	1.0	1.0	0.9	0.9	0.8	0.7
프랑스	0.7	0.6	0.7	0.7	0.8	1.0	0.7	0.7	0.8	0.6
영국	1.0	0.9	0.8	0.8	0.9	1.0	0.9	0.8	1.1	0.7
이탈리아	1.0	1.6	1.0	1.4	1.1	1.1	1.1	1.1	1.1	0.9
네덜란드	1.8	2.1	1.5	2.1	1.6	1.7	1.5	1.3	1.3	1.1
폴란드	0.2	0.2	0.2	0.2	0.3	0.3	0.3	0.3	0.5	0.3
벨기에	0.4	0.3	0.2	0.3	0.4	0.6	0.4	0.4	0.5	0.4
독일	1.7	1.7	1.7	1.9	1.7	2.1	2.0	1.8	1.9	1.6
BRICS3	5.7	6.7	7.2	8.3	13.5	12.0	9.0	10.1	11.5	9.1
브라질	1.3	1.2	0.8	0.8	0.7	0.7	0.8	1.0	0.9	0.6
러시아	0.6	0.5	0.3	0.3	0.8	0.9	1.1	1.0	0.7	0.5
인도	3.9	5.0	6.2	7.1	12.0	10.3	7.1	8.2	9.9	7.9
NEA4	34.7	30.3	26.5	30.5	32.4	33.7	35.5	37.7	38.7	38.7
한국	6.6	5.2	5.0	5.8	4.0	4.7	4.4	3.9	5.3	4.1
일본	13.0	11.5	10.9	12.2	8.7	10.6	7.9	7.2	9.2	11.2
대만	4.2	2.4	1.8	2.7	2.1	2.2	2.3	3.0	3.2	2.6
중국	10.8	11.2	8.8	9.9	17.6	16.1	20.9	23.6	21.0	20.8
ASEAN6	13.7	15.2	13.5	15.4	18.8	20.6	19.8	18.0	15.7	16.2
인도네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말레이시아	5.8	5.7	4.3	4.6	5.4	5.4	5.1	3.8	3.8	3.5
태국	2.0	2.1	1.8	2.5	3.7	4.1	3.8	3.4	3.0	2.5
필리핀	1.1	1.6	2.0	2.1	2.9	3.6	3.3	3.5	3.2	3.7
싱가포르	3.9	4.7	3.8	4.3	4.7	4.9	4.8	4.6	3.1	3.6
베트남	0.8	0.8	1.3	1.7	2.0	2.3	2.4	2.4	2.4	2.7
합계	71.2	71.6	64.9	74.4	83.1	88.6	86.4	86.2	85.9	79.3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발생한 이후 우리가 살펴본, 중국을 제외한 6개 국가의 미국과 중국으로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자료가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우선 2018년 이후 미국으로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 국가들은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이다.

중국으로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 국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일본은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이 상승하였다는 점이며, 이는 미국 수출 비중은 상승하나 중국 수출 비중은 하락한 한국의 경우와 대비 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 미중 무역갈등 이후 미국 및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 변화 추이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위치 변화

###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변화

본 절에서는 수직특화 구조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국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 (FVA\_INT, FVA\_FIN)와 반복된 중간재의 이동으로 글로벌 분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해외부가가치 중복계산(FDC)의 두 항목을 사용하여, 이에 기반을 두어 다음과 같이 수직특화구조를 측정한다.<sup>19)</sup>

$$\text{수직특화구조(HIY)} = \frac{\text{해외 부가가치(FVA)} + \text{중복계산(FDC)}}{\text{총 부가가치(E)}}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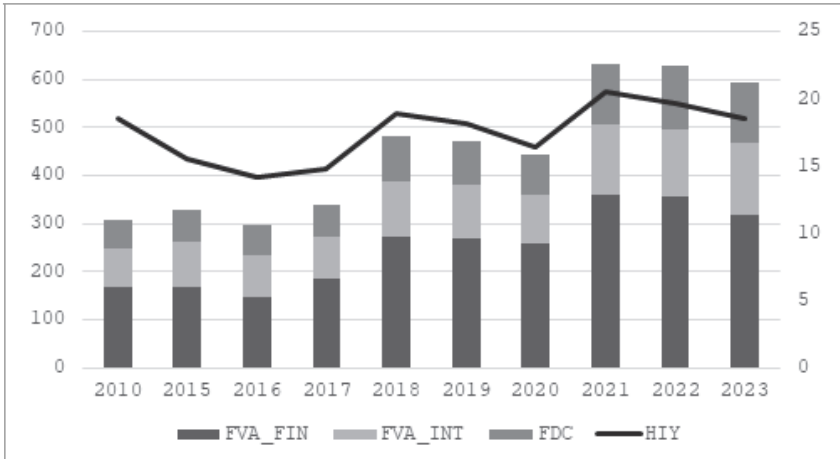
먼저 한·중·일 3개국과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살펴보자. 우선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살펴보면, 중국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사용되는 해외 부가가치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W형 추이가 발생한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675억 달러 규모였던 최종재 수출에 따른 해외 부가가치는 2023년 3,169억 달러로, 중간재 수출에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 역시 2015년 960억 달러에서 2023년 1,511억 달러로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중복계산 부가가치 역시 2015년 638억 달러에서 2023년 1,273억 달러로 두 배 정도 증가하여, 전반적인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특화구조는 2015년의 15.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0년 각각 16.5까지 하락한 후 재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이라는 시기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주도한 미중 무역갈등의 결과가 가시화된 시기임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은 하락하였으나, 2021년 바이든 정부 이후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직특화지수(HIY)는 Hummels, Ishii, and Yi(2001)에서 제안한 방식을 바탕으로 Wang, Wei, and Zhu(2013)의 방식에 기초한다.

그림 3-2.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단위: 십억 달러, %)



주: 1) FVA\_FIN과 FVA\_INT는 각각 국내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중간재와 최종재 부가가치를, FDC는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 HIY는 수직특화 구조를 각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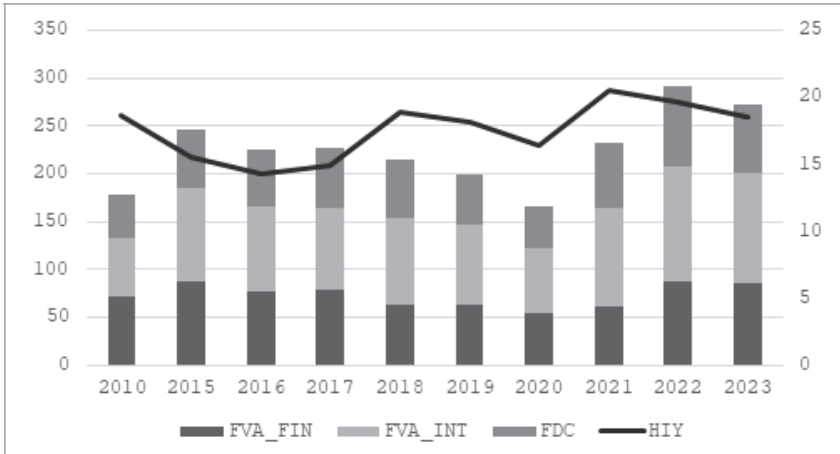
2) 우측 보조축은 HIY에 대응하는 %를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한국의 추이를 수직특화구조에 기반을 두어 살펴보면, 한국의 참여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W형 추이가 발생한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2016년 14.2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하여 2018년 18.9에 달하였고,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0년 16.5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재상승하여 2021년 20.5에 달한 후 다시 하락하여 2023년 18.5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21년 이후 국내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와 중복계산 부가가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직접 및 간접방식을 포괄하는 중간재 수출의 경우 2020년 685억 달러에서 2023년 1,210억 달러로 매우 증가하였다. 중복계산 부가가치 역시 2020년 434억 달러에서 2023년 83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해외부가가치 및 중복계산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수직특화구조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3-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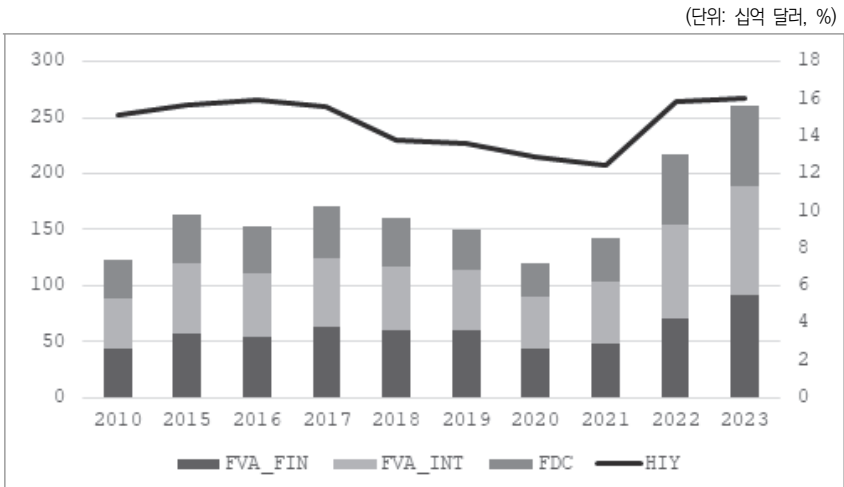
주: 1) FVA\_FIN과 FVA\_INT는 각각 국내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중간재와 최종재 부가가치를, FDC는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 HIY는 수직특화 구조를 각각 의미.

2) 우측 보조축은 HIY에 대응하는 %를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일본은 2015~21년까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 또는 수직특화 구조와 관련된 부가가치의 절대적 규모 등은 큰 변화가 없거나 또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상승하여 2023년 기준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로 인한 해외부가가치는 1,808억 달러로, 중복계산의 규모도 71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여 최근 들어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 수직특화구조 역시 2021년 12.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3년 16.0%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3-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주: 1) FVA\_FIN과 FVA\_INT는 각각 국내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중간재와 최종재 부가가치, FDC는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 HIY는 수직특화 구조를 각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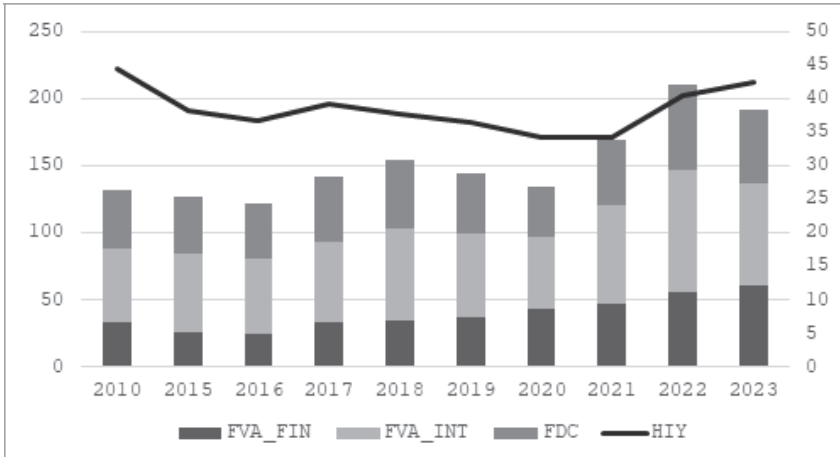
2) 우측 보조축은 HIY에 대응하는 %를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34~45%의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 38.2%였던 수직특화구조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 34.1%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3년 42.4%까지 상승하였다. 구성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중간재 수출에 사용된 해외부가가치로, 2015년 586억 달러에서 2023년 763억 달러를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최종재 수출에 사용되는 해외부가가치로, 2015년 263억 달러에서 2023년 60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3-5.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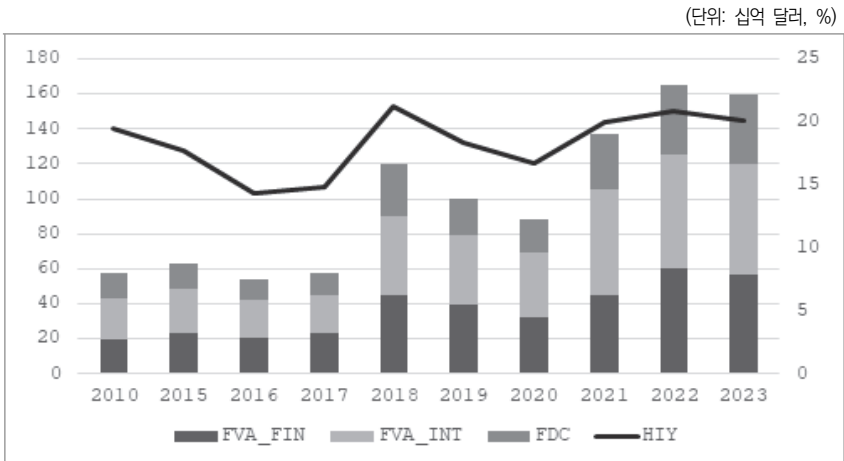
주: 1) FVA\_FIN과 FVA\_INT는 각각 국내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중간재와 최종재 부가가치, HIY는 수직특화 구조를 각각 의미.

2) 우측 보조축은 HIY에 대응하는 %를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다음으로 인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직특화구조는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해외와의 분업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2015년 17.7을 기록했던 수직특화구조는 2018년 21.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코로나19 당시 16.8까지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여 2023년 20.1을 기록하였다. 인도는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사용된 해외부가가치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234억 달러와 255억 달러에서 2023년 566억 달러와 636억 달러로 각각 상승하였다. 중복계산 부가가치 역시 동 기간 141억 달러에서 395억 달러로 상승하여,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3-6.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주: 1) FVA\_FIN과 FVA\_INT는 각각 국내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중간재와 최종재 부가가치를, FDC는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 HIY는 수직특화 구조를 각각 의미.

2) 우측 보조축은 HIY에 대응하는 %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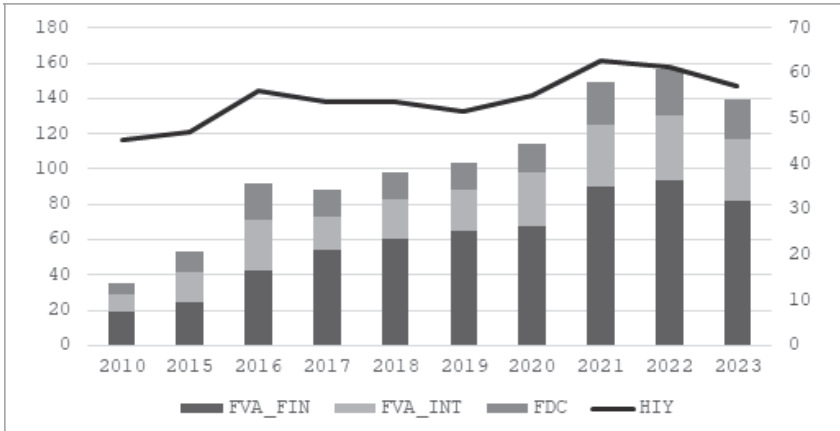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한국의 제3위 교역 국가인 베트남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규모나 수직특화구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수출에 차지하는 해외부가가치가 총 414억 달러에서 2023년 1,168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수직특화구조 역시 동 기간 47.0에서 57.2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최종재 수출로 인한 해외부가가치의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15년 248억 달러에서 2023년 817억 달러로 3.5배가량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본 연구에서 비교하는 7개 국가 중 수직특화구조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둘째로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수직특화구조가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타 국가들에 비하여 축소 폭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그림 3-7.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단위: 십억 달러, %)



주: 1) FVA\_FIN과 FVA\_INT는 각각 국내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중간재와 최종재 부가가치를, FDC는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 HIY는 수직특화 구조를 각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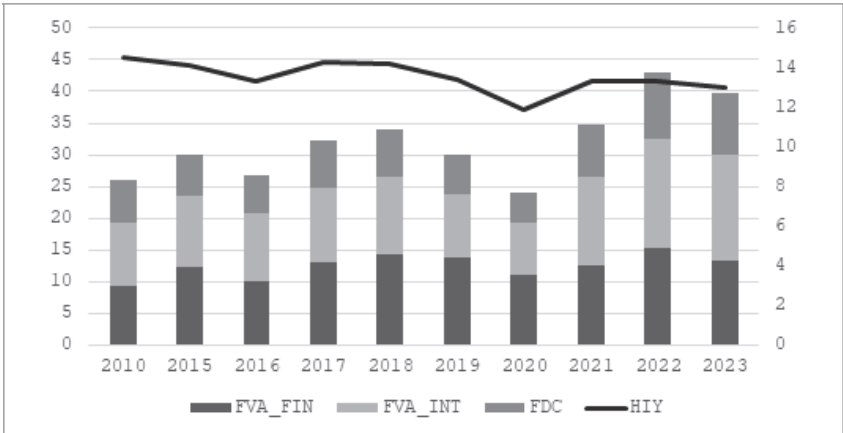
2) 우측 보조축은 HIY에 대응하는 %를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직특화구조는 코로나19 이후 잠시 반등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로 인한 해외부가가치 규모가 베트남과 대만과 비교하여 작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5년 기준 14.2였던 수직특화구조는 2020년 11.9에서 반등하여 2023년 13.0을 기록하였으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의 합계는 2015년 234억 달러에서 2023년 30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던 베트남과 대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보였다.

그림 3-8.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단위: 십억 달러, %)



주: 1) FVA\_FIN과 FVA\_INT는 각각 국내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중간재와 최종재 부가가치를, FDC는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 HIY는 수직특화 구조를 각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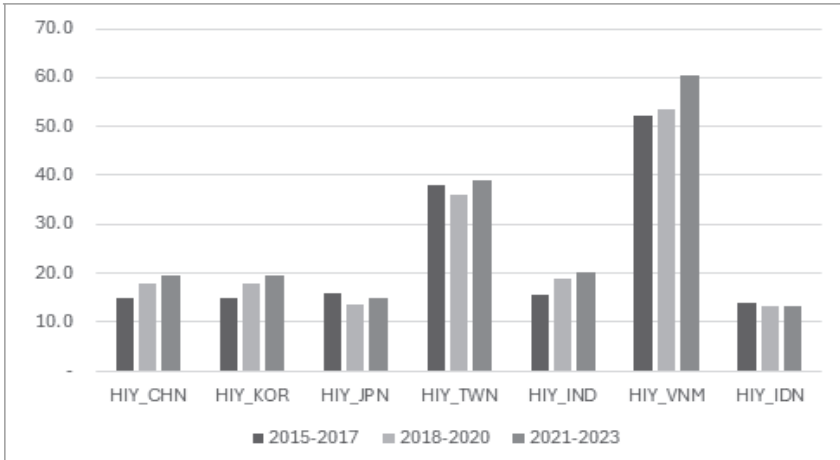
2) 우측 보조축은 HIY에 대응하는 %를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지금까지 국가별로 분석한 7개 국가의 수직특화구조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그림 3-9]와 같다. 먼저 국가별 수직특화구조 수준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직특화구조를 가지는 국가는 베트남과 대만으로, 베트남은 2021~23년 기간 동안 60.4로 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대만은 동 기간 39.0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직특화구조를 가지는 국가였다. 그다음은 인도,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순위를 보였다. 두 번째로 국가들의 기간별 추이를 비교해보면 중국, 한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갈등 시기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수직특화구조 수준이 상승한 반면, 일본과 대만은 미중 무역갈등 당시 수직특화구조 수준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반등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이전에 가장 높은 수직특화구조를 기록한 후 이후 하향세를 보였다.

그림 3-9. 국가별 수직특화구조 비교

(단위: %)



주: HIY\_CHN, HIY\_KOR, HIY\_JPN, HIY\_TWN, HIY\_IND, HIY\_VNM, HIY\_IDN은 각각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수직특화구조를 나타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표 3-8]은 수직특화구조를 구성하는 항목들인 최종재 수출에 사용되는 해외 부가가치(FVA\_FIN), 중간재 수출에 사용되는 해외부가가치(FVA\_INT), 중복계산 부가가치(FDC)의 기간별 평균치가 나타나 있는데, [표 3-8]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2015~17년에 비해 2021~23년 동안에 세 가지 항목의 규모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간재 수출에 포함되는 해외 부가가치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최종재 수출에 포함되는 해외 부가가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2015~17년에 비해 해외 부가가치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인도로, 특히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해외 중복계산의 규모가 2.7배 증가하여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수직특화구조 항목별 국가 비교

(단위: 십억 달러, 비율)

국가	항목	2015~2017 (a)	2018~2020 (b)	2021~2023 (c)	증가비율 (c/a)
중국	FVA_FIN	166.7	266.7	344.6	2.07
	FVA_INT	90.6	110.1	145.5	1.61
	FDC	64.4	88.6	128.9	2.00
한국	FVA_FIN	80.5	59.7	77.6	0.96
	FVA_INT	91.1	81.2	113.0	1.24
	FDC	61.1	52.4	74.7	1.22
일본	FVA_FIN	57.9	54.2	70.3	1.21
	FVA_INT	60.9	52.7	78.3	1.28
	FDC	43.9	36.5	57.9	1.32
대만	FVA_FIN	27.9	38.5	54.8	1.96
	FVA_INT	58.4	61.6	79.7	1.37
	FDC	43.9	44.1	55.8	1.27
인도	FVA_FIN	22.5	39.1	54.0	2.40
	FVA_INT	22.7	40.5	63.0	2.78
	FDC	13.2	23.1	36.8	2.79
베트남	FVA_FIN	40.4	64.2	88.4	2.19
	FVA_INT	21.6	25.7	35.9	1.66
	FDC	15.8	15.5	24.2	1.53
인도네시아	FVA_FIN	11.9	13.0	13.7	1.16
	FVA_INT	11.2	10.1	16.0	1.43
	FDC	6.7	6.1	9.5	1.4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나.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 변화

본 절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Global Value Chain Position)를 살펴봄으로써, 앞의 절에서 살펴본 7개 국가의 전후방 참여도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 추이를 가늠해보기로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우선 살펴보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전방참여(GVC Forward Participation)과 후방참여(GVC Backward Particip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방참여는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해외 부가가치 투입으로 정의되며, 자국에서 생산한 중간재가 다른 국가의 수출에 사용된 것을 뜻하며 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스마일 커브상에서 업스트림(upstream)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방참여의 경우 해외 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으로의 투입으로 정의되며, 자국의 수출 중 외국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및 조립에 주력하기에 다운스트림(downstream)에 위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Koopman *et al.*(2012)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은행(2018)은 다음과 같이 GVC 포지션 지수를 정의하였다.

$$GVC\ Position\ Index = \ln\left(1 + \frac{DVX}{EXP}\right) - \ln\left(1 + \frac{FVA}{EXP}\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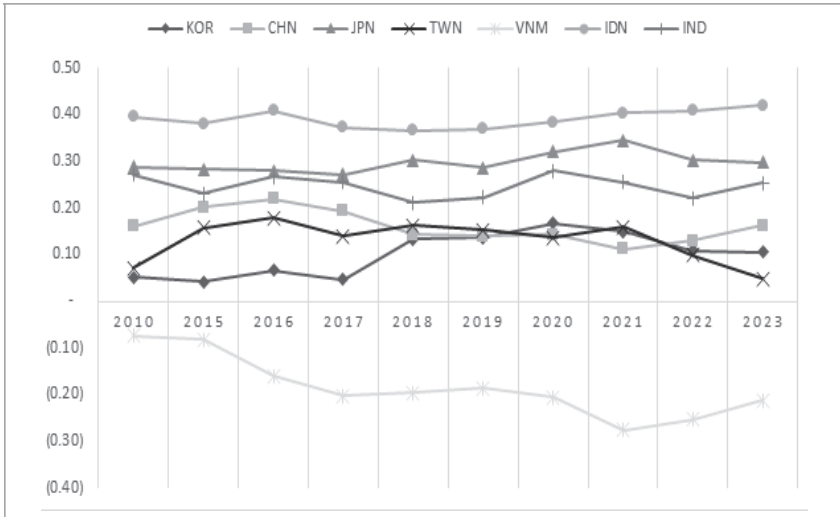
DVX는 전방 GVC, FVA는 후방 GVC, EXP는 총수출액을 의미한다.<sup>20)</sup>

이 정의에 의하면, 전방참여도가 상승하면 GVC 포지션지수가 상승하게 되어 업스트림 산업으로의 생산 전문화로 이동하는 것으로, 반면 후방참여도가 상승하면 GVC 포지션지수가 하락하게 되고 이를 다운스트림 산업으로의 생산 전문화로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 본 연구에서 DVX는 국내중간재 수출(DVA\_INT)과 제3국 재수출 중간재(DVA\_INTrex)의 합으로, FVA는 최종재 해외부가가치(FVA\_FIN)와 중간재 해외부가가치(FVA\_INT)로 정의한다.

그림 3-10. 국가별 GVC 포지션 지수 추이

(단위: %)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림 3-10]에는 7개 국가의 2010년과 2015~23년 기간의 GVC 포지션 지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7개 국가는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GVC 포지션지수가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업스트림 산업으로의 전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GVC 포지션지수가 0~20%로 일정 부분 업스트림 산업에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중국, 대만, 한국 등이었으며, 마지막으로 GVC 포지션지수가 음의 값을 보여 전방참여보다 후방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는 베트남이 이에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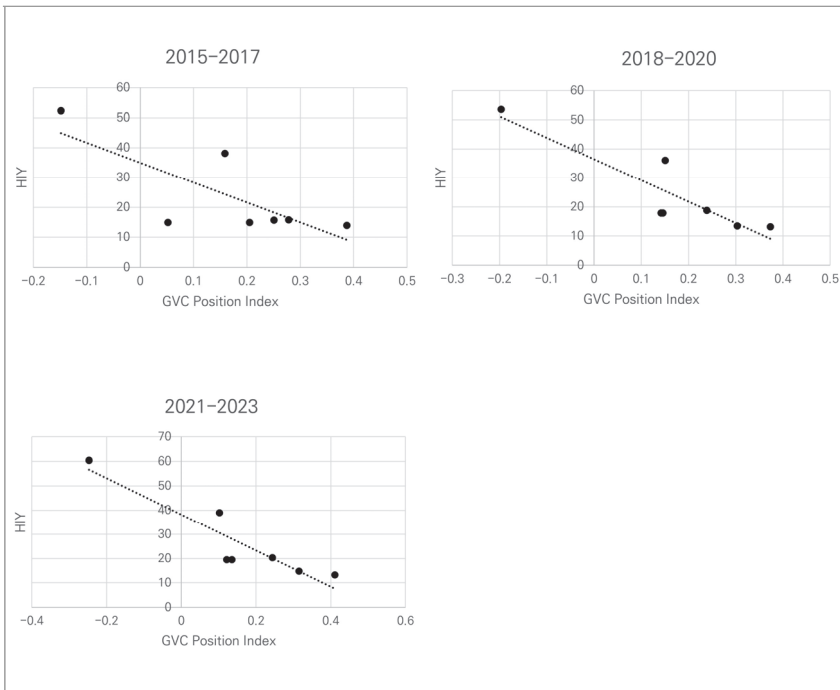
둘째, 2015~23년간 GVC 포지션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 국가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GVC의 전방참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 베트남과 대만, 그리고 중국은 GVC 포지션 지수가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후방참여의 비중

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1]에는 7개 국가에 대한 GVC 참여도와 위치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을 1기(2015~17), 2기(2018~20), 3기(2021~23) 등 3가지로 구분한 후, 7개 국가의 GVC 참여도와 GVC 포지션지수의 기간별 평균을 대응시켰을 때, 모두 음의 추세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후방참여 비중으로 인해 낮은 GVC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직적 분업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 여기서는 본 분석이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3-11. 국가별 GVC 참여도와 위치 간의 관계

(단위: %)



주: 횡축은 GVC 포지션지수이며, 종축은 수직특화지수(HIY)임.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3. 소결

본 장에서는 수직특화구조에 기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7개 국가의 2015~23년 기간 동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부가가치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5년에 비해 모든 분석 대상 국가들의 절대적인 부가가치 수출액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규모의 성장 속에서, 특히 최종재 수출로 사용된 해외부가가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국가로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중간재 수출로 사용된 해외부가가치가 확대된 국가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국가들이었다.

둘째, 코로나19는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의 부가가치 수출 규모를 위축시켰다. 2020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로, 약 19%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한국은 16.9%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오히려 동 기간 전체 부가가치 수출규모는 11% 상승하여, 전체적인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는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수직특화지수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살펴볼 때 국가들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2017년과 2020년 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반등한 후, 2021년 이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그룹으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그룹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 후 2021년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룹으로, 일본과 대만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은 있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베트남과 같은 국가를 들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생산분업 의존도의 변화는 국가들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미중

무역갈등 이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 그리고 미국의 의존도는 하락하였으나 중국으로의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이 높아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상승한 일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살펴본 7개 국가들의 분석대상 국가에 대한 총수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 또는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과 2023년을 비교할 때 중국은 54.6%에서 68%로, 한국은 64.4%에서 78.2%, 일본은 64.3%에서 83.4%, 대만은 70.6%에서 89.9%, 인도는 39.4%에서 56.2%로, 베트남은 69.5%에서 83.2%로, 인도네시아는 71.6%에서 79.3%로 분석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7개 국가들의 무역이 24개의 분석대상국가에 집중된, 제한적 다변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북미지역의 멕시코, BRICS 중 인도, 그리고 아세안의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본 고에서 분석한 7개 국가들과의 수출 비중이 모두 확대되어 이들과의 생산 분업 관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4장

K

#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1. 수출변화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3. 소결



# 1. 수출변화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그 수출품이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각 경로에 따라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수출구조가 미중 무역전쟁 전후에 있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핵심적 수식은 2장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식 4-1]과 같다.

$$\begin{aligned}
 E^{sr} = & (V^s B^{ss})' \odot Y^{sr} + (V^s L^{ss})' \odot (A^{sr} B^{rr} Y^{rr}) \\
 & + (V^s L^{ss})' \odot \left[ A^{sr} \sum_{t \neq s,r}^G B^{rt} Y^{tt} + A^{sr} B^{rr} \sum_{t \neq s,r}^G Y^{rt} + A^{sr} \sum_{t \neq s,r}^G B^{rt} \sum_{t \neq s,t}^G Y^{tu} \right] \\
 & + (V^s L^{ss})' \odot [A^{sr} B^{rr} Y^{rs}] + (V^s L^{ss})' \odot \left[ A^{sr} \sum_{t \neq s,r}^G B^{rt} Y^{ts} + A^{sr} B^{rs} Y^{ss} \right] \\
 & + \left[ (V^s L^{ss})' \odot (A^{sr} B^{rs} \sum_{t \neq s}^G Y^{st}) + (V^s L^{ss} \sum_{t \neq s}^G A^{st} B^{ts})' \odot + (A^{sr} X^r) \right] \\
 & + \left[ (V^r B^{rs})' \odot Y^{sr} + \left( \sum_{t \neq s,r}^G V^t B^{ts} \right)' \odot Y^{sr} \right]
 \end{aligned}$$

[식 4-1]

[식 4-1]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의 변화는 국가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 구조 변화(부가가치계수 변화에 반영), 각국의 생산기술 변화(투입계수 변화에 반영), 각국의 산업별 및 국가별 최종재 수요 크기 및 수요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본 절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다.

Dietzenbacher and Los(2000)에 따르면 최종수요(자체 수요 및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 $\Delta VA$ )는 다음 [식 4-2]와 같이 세 가지로 분해할 수 있다. [식 4-2]에서 좌측( $\Delta VA$ )은 특정국가의 기준시점(본 연구에서 2010년) 부가가치( $VA_0$ )과 비교시점(2015~23년) 부가가치( $VA_1$ ) 차이(즉 특정 국가의 부가가치 변화액), 우측의 첫 번째 항은 부가가치계수 변화( $\Delta V$ )에 따른 부가가치액 변화(21)을, 두 번째 항은 기술계수 변화( $\Delta B$ , 레온티에프 역행렬 변

화)에 따른 부가가치액 변화를, 세 번째 항은 최종수요변화( $\Delta Y$ )에 따른 부가가치액 변화이다.

$$\Delta VA = (\Delta V)B_1 Y_1 + V_0(\Delta B) Y_1 + V_0 B_0 (\Delta Y) \quad [\text{식 4-2}]$$

Dietzenbacher and Los(2000)는 [식 4-2]에서 부가가치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식 4-2]에 따른 구조분해(decomposition analysis)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sup>22)</sup>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조 분해 방법으로 [식 4-3a]를 제시했다. [식 4-3a]에서  $A$ 는 투입계수행렬,  $e' = (1, \dots, 1)$ 은 합 벡터(summation vector),  $\hat{s}_i$ 은 벡터  $s_i$  계수들로 구성된 대각 행렬(diagonal matrix)을 나타낸다. [식 4-3a]에서 첫 번째 항은 부가가치계수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액 변화를 나타내는 조작용효과(fabrication effect)를 나타낸다. [식 4-3a]와 같은 구조분해는 유일하지 않으며 [식 4-3b]~[식 4-3d]와 같이 여러 형태로 분해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각 식의 세 항목(첫 번째 항목: 부가가치 변화, 두 번째 항목: 기술계수 변화, 세 번째 항목: 최종수요 변화)의 평균값을 통해 각 요인이 부가가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식 4-1]은 수출품이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여러 경로별로 최종수요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할 때 [식 4-3a]~[식 4-3d]를 이용하면 한 국가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액의 흡수 경로별 변화를 부가가치계수 변화, 기술 변화, 최종재 수요 변화로 구분하여 변화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21) 첫 번째 항은 중간재와 부가가치 항목(노동, 자본 등) 사이의 대체 관계를 보여주는 조작용효과(fabrication effect)를 반영한다. Dietzenbacher and Los(2000), p. 6.

22) Dietzenbacher and Los(2000)은 각 산업에서 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의 합이 '1'인 상태에서 한 계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계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두 계수는 상호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Delta VA = [V_1 B_1 - V_0 \widetilde{B}_1] Y_1 + V_0 [\widetilde{B}_1 - B_0] Y_1 + V_0 B_0 (\Delta Y) \quad [\text{식 4-3a}]$$

$$\Delta VA = [V_1 B_1 - V_0 \widetilde{B}_1] Y_0 + V_0 [\widetilde{B}_1 - B_0] Y_0 + V_1 B_1 (\Delta Y) \quad [\text{식 4-3b}]$$

$$\Delta VA = [V_1 \widetilde{B}_0 - V_0 \widetilde{B}_0] Y_0 + V_1 [B_1 - \widetilde{B}_0] Y_0 + V_1 B_1 (\Delta Y) \quad [\text{식 4-3c}]$$

$$\Delta VA = [V_1 \widetilde{B}_0 - V_0 \widetilde{B}_0] Y_1 + V_1 [B_1 - \widetilde{B}_0] Y_1 + V_0 B_0 (\Delta Y) \quad [\text{식 4-3d}]$$

$$\widetilde{B}_1 = (I - \widetilde{A}_1)^{-1},$$

$$\widetilde{A}_1 = A_1 \widehat{s}_1^{-1} \widehat{s}_0, \quad \widetilde{A}_0 = A_0 \widehat{s}_0^{-1} \widehat{s}_1, \quad s_i = e' A_i \quad (i = 0, 1),$$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식 4-1]의 부가가치기준 수출분해 중 첫 번째 항(최종재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 두 번째 항(중간재 직접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 세 번째 항(중간재 간접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 각각에 대해 기준연도(2010년)와 비교연도(2015~23년) 사이 변화 규모를 [식 4-3a]~[식 4-3d]를 이용하여 요인별로 분석하고,<sup>23)</sup> 이들 세 유형의 각 수출변화요인을 요인별로 합산하여 부가가치 수출(VAX)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 부가가치기준 수출변화요인 분석의 경우, 한국과 62개 수출대상국(ADB-MRIO는 63개 국가로 구성)과의 부가가치기준 양자 간 수출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였는바, 이들 62개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변화요인 분석 결과를 요인별로 모두 합산하면 한국의 특정 두 기간에 있어 수출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 수출의 변화요인 중 첫 번째 항목인 부가가치계수 변화( $\Delta V$ )에 의한 수출액 변화는 기술계수 변화( $B$ )와 최종재수요( $Y$ )가 일정할 때 부가가치계수 변화에 의해 야기된 수출 변화액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계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같은 크기의 수출액 생산과정에서

23) 참고로 두 번째 항목 변화에 대한 요인분석은  $L^{SS} A^{SF} B^{TF} = B^{SF}$  관계(Dietzenbacher and Los 2000, p. 42 참고)를 고려하여 [식 4-3]에서  $B^{SF}$ 에 대한 변화 및 조정은  $L^{SS} A^{SF} B^{TF}$ 에 대한 변화 및 조정으로 대체하였다. 세 번째 항목 변화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음을 밝힌다.

창출되는 단위당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번째 항목인 기술계수 변화( $\Delta B$ )에 의한 수출액 변화는 부가가치계수( $V$ )와 최종재수요( $Y$ )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술계수 변화( $B$ )에 의해 야기된 수출변화액(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변화)을 나타낸다. 기술계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투입물의 구성이 국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국내 투입물이 고부가가치 투입물 중심으로 변화했거나, 투입물 구성이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수출액 변화 중 기술계수 변화가 수출을 증가시켰다면, 이는 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수출국 입장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 번째 항목인 최종수요 변화( $\Delta Y$ )에 의한 수출액 변화는 부가가치계수( $V$ )와 기술계수( $B$ )가 일정한 상태에서 최종재 수출변화( $Y$ )에 의해 야기된 수출변화액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액 변화 중 최종재수요 변화에 의한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 소득증가 등으로 한국 최종재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에 의한 국내부가가치 창출액(DVA\_G)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VAX을 대상으로 Dietzenbacher and Los(2000)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수출액의 경로별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다.

## 2.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7개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016~23년 기간 동안의 7개국의 연간 부가가치수출액의 증감액<sup>24)</sup>을 ① 수출 1단위당 부가가치 계수 변화, ② 생산기술적 요인을 나타내는 기술계수의 변화, ③ 교역상대국의 최종수요 규모 변화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간을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 이전(2016~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 기간(2018~20년), 1기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 이후(2021~23년)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부가가치수출 변화의 주요 요인들을 비교·분석한다. 우선 시기별 세 요인의 변화에 대한 권역별 추이를 알아본 후 세부 국가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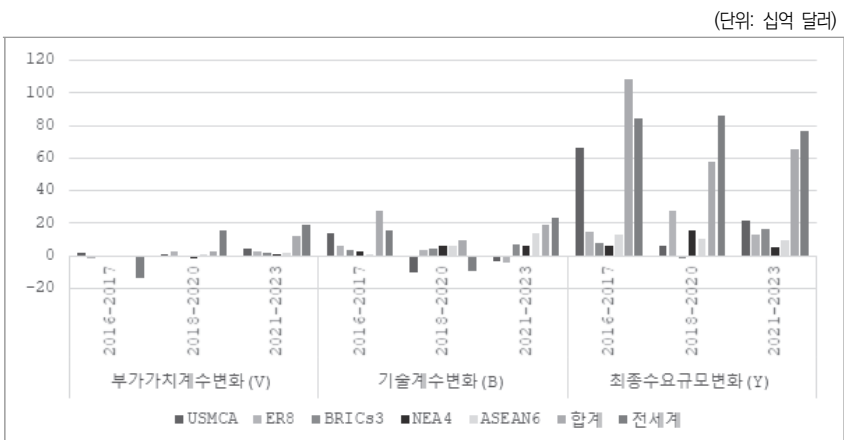
[그림 4-1]에는 부가가치계수 변화요인, 기술계수 변화요인,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으로 인해 변화된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분에 대한 추이가 2016~17년, 2018~20년, 2021~23년 등 세 기간별로 나타나 있다. 세 시기는 각각 미중 무역전쟁 이전,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 시기, 무역갈등 이후의 바이든 정부 시기 등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을 하는 주요 권역들로 북미 3개국으로 구성된 USMCA, 유럽의 주요 국가인 ER8, 중국을 제외한 BRICS3, 한중일과 대만을 포함한 NEA4, 아세안의 주요 국가인 ASEAN6 등이 있으며, 본 분석에서 사용한 총 23개 국가에 대한 중국 수출액 변동분의 추이를 나타내는 합계, 그리고 전 세계 수출액 변동분을 나타내는 전

24)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5~23년이며,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부가가치수출액 증감액을 추계하였기에 분석기간이 2016~23년이 된다.

세계 등에 대한 추이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

세 요인 중 가장 크게 부가가치 수출액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최종수요 변화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요인의 영향은 미중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으며, 기술계수 변화의 영향은 미중 무역 갈등 당시 다소 약화된 이후 다시 확대되어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인 중국의 글로벌 생산분업구조가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 중국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주: 1)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한다.  
 2)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R8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를, BRICs3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NEA4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ASEAN6는 아세안 6개 국가, 합계는 24개 분석대상 국가를,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국가를 각각 의미한다.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표 4-1]에서와 같이 중국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액의 변동요인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무역전쟁 이전에는 기술계수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이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부가가치 계수 변화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무역전쟁 시기에는 여전히 높은 최종수요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요인

표 4-1.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단위: 십억 달러)

	2016~17			2018~20			2021~23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USMCA	1.83	14.12	66.66	0.27	-10.02	5.84	4.47	-3.72	21.28
캐나다	0.13	0.12	0.68	-0.20	0.20	5.54	0.21	-1.12	-1.24
멕시코	0.04	3.64	3.36	0.25	1.25	6.20	1.28	1.24	9.47
미국	1.66	10.36	62.62	0.22	-11.46	-5.90	2.98	-3.83	13.05
ER8	-1.45	6.17	15.17	2.93	3.49	27.93	0.00	-4.35	13.23
스페인	-0.13	0.26	0.77	0.26	1.59	3.05	0.32	-0.64	0.88
프랑스	-0.05	1.12	1.89	0.22	0.50	2.47	0.45	-1.78	-0.01
영국	-0.36	-0.50	0.08	0.25	1.29	4.74	0.19	-0.62	5.32
이탈리아	-0.54	0.90	1.40	0.69	0.80	2.43	0.08	-0.12	0.36
네덜란드	-0.07	2.42	4.05	0.37	-3.52	1.08	0.59	0.76	1.54
폴란드	-0.09	0.09	0.70	0.20	2.00	4.50	0.31	-0.80	-0.21
벨기에	0.08	-0.35	0.08	0.04	0.05	0.99	0.25	0.38	0.98
독일	-0.29	2.23	6.20	0.90	0.78	8.68	0.88	-1.52	4.37
BRICS3	-0.24	3.93	8.22	-0.08	4.06	-1.69	1.46	7.15	16.06
브라질	0.27	-0.04	-1.03	0.01	1.94	1.56	0.83	0.80	1.75
러시아	-0.07	0.25	7.47	-0.01	1.09	-5.22	0.36	2.71	7.95
인도	-0.45	3.72	1.78	-0.08	1.03	1.97	0.27	3.64	6.36
NEA4	-0.30	2.63	5.82	-1.62	5.92	15.69	1.03	6.05	5.70
한국	0.47	0.93	2.02	-0.36	0.68	3.97	0.41	4.70	4.55
일본	-0.50	0.65	2.90	-0.94	1.93	5.98	-0.06	2.69	0.94
대만	-0.26	1.06	0.90	-0.32	3.31	5.75	0.68	-1.34	0.20
중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SEAN6	-0.37	1.21	13.01	1.31	5.93	10.35	1.98	14.14	9.41
인도네시아	0.04	-1.72	1.01	0.12	1.06	2.42	-0.12	2.80	1.69
말레이시아	-0.30	1.09	1.51	0.15	-0.65	0.42	0.13	0.28	1.18
태국	0.04	0.45	1.13	0.26	2.36	3.65	0.17	4.12	1.89
필리핀	-0.05	0.44	1.02	0.09	1.30	0.38	0.42	2.63	4.19
싱가포르	0.04	0.07	1.12	0.19	-0.05	0.03	0.92	2.70	1.37
베트남	-0.14	0.87	7.21	0.51	1.93	3.45	0.47	1.61	-0.91
합계	-0.53	28.06	108.87	2.81	9.38	58.12	12.02	19.27	65.68
전 세계	-13.70	15.76	84.59	15.70	-9.31	85.82	19.13	23.31	76.99

주: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확대된 반면, 기술 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감소하였다. 무역전쟁 이후에는 세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 변동요인으로 우선 북미지역을 살펴보면, 무역전쟁 이전 시기에 높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이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무역전쟁 시기에 급감한 후 이후 시기에는 다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향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는데, 무역전쟁 이전 시기에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인한 평균 부가가치 수출 변화액이 각각 103.5억 달러와 626.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무역전쟁 기간 중 -114.6억 달러와 -58.9억 달러로 급감한 후, 무역전쟁 이후 각각 -38.2억 달러와 130.4억 달러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 기술이 상호 경쟁적인 구도가 강화되어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에 따른 영향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무역전쟁은 그 시기에는 부가가치 계수 변화와 특히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을 통해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에는 해당 요인들이 다시 회복되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개선되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 기간 중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등 모든 요인에서 중국의 대유럽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EU 간 교역이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전쟁 이후에는 특히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수출액의 영향이 감소하였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3 국가들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들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

향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도와 러시아의 경우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 변화액이 미중 무역전쟁 당시 각각 19.7억 달러와 -52.2억 달러에서 무역전쟁 이후 63.6억 달러와 79.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술계수 변화요인으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 변화액 역시 무역전쟁 당시 러시아 10.8억 달러, 인도 10.3억 달러에서 무역전쟁 이후 27.1억 달러와 36.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북아 지역은 미중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기술계수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반면,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경우 일본은 39.6억 달러에서 45.5억 달러로 부가가치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59.1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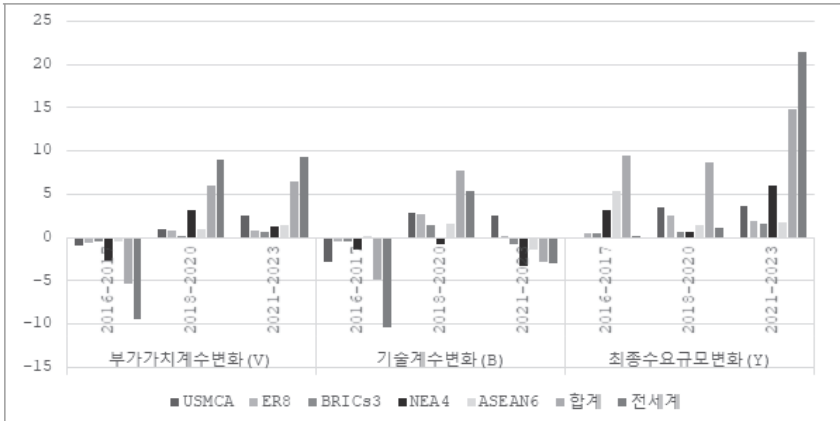
아세안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은 부가가치 계수 변화와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은 감소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주도한 것으로 또한 볼 수 있다.

## 나. 한국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요인별 추이를 각 대상권역에 대해 시기별로 살펴본 자료가 [그림 4-2]에 제시되어 있다. 부가가치계수 변화요인, 기술계수 변화요인,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 등 3가지 중 가장 크게 수출액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이었으며, 해당 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북미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점차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시기 이후 특히 동북아를 중심으로 음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를 유발하였다.

그림 4-2. 한국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1)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2)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R8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를, BRICS3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NEA4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ASEAN6는 아세안 6개 국가, 합계는 24개 분석대상국가를,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국가를 각각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요인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한국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 변화의 요인별 추이를 보면, 무역전쟁 이전에는 수출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었으나, 최종수요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기간에는 부가가치 및 기술계수 요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북미 국가들의 경우 전 세계적인 추이와 유사하나, 무역전쟁 이후 기간에 기술계수 변화요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북미지역의 이전의 추이를 주도한 것은 미국으로, 무역전쟁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 계수의 변화로 20억 달러, 기술계수 변화는 30억 달러, 최종수요 변화로 인해 33억 달러만큼의 한국의 대미 수출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술계수의 변화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역전쟁 전후

로 2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기술이 상호 보완적인 성향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최종수요 변화로 인한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지역의 경우 무역전쟁 이전에는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로 인한 영향이 미비하다가 이후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추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무역전쟁 이후 모든 항목의 부가가치 수출액 규모 변화가 양의 값을 가지나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기술계수 변화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액 증가가 26.2억 달러에서 0.25억 달러로, 최종수요의 변화로 인한 수출 증가 폭이 25.1억 달러에서 18.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특히 독일과 스페인 등의 국가에 의해 야기된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로 구성된 BRICS3 지역의 경우, 무역전쟁 이후의 기술계수 변화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 변화는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히 인도의 경우 수출 부가가치 계수의 변화와 인도의 최종수요 변화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 변화액은 각각 무역전쟁 당시 0.287억 달러와 1.9억 달러에서 무역전쟁 이후 2.8억 달러와 10.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계수 변화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 변화액은 6.4억 달러에서 0.803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기술적 보완관계가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동북아 지역은 미중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부가가치 계수와 기술계수 변화요인들에 의한 부가가치 수출액의 변화는 감소하고,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는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부가가치, 기술계수, 최종수요의 변화로 인한 수출 변화액이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각각 29.6억 달러, -2.6억 달러, 6.8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33.9억 달러, 20.7억 달러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은 주로 중국의 최종수요 변화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반면 기술적 관계가 경쟁적으로 전환되는 부정적 요인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과의 교역의 경우 무역전쟁 이후 세 항목 변화로 인

표 4-2.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단위: 십억 달러)

	2016~17			2018~20			2021~23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USMCA	-0.98	-2.87	-0.05	0.96	2.86	3.49	2.51	2.56	3.68
캐나다	-0.06	-0.17	-0.17	0.00	0.12	0.84	0.13	0.18	-0.36
멕시코	-0.20	0.58	0.66	0.25	-0.10	0.16	0.37	-0.65	0.73
미국	-0.72	-3.27	-0.54	0.71	2.83	2.48	2.00	3.03	3.31
ER8	-0.64	-0.41	0.43	0.72	2.62	2.52	0.77	0.03	1.85
스페인	-0.04	-0.06	0.01	0.03	0.14	0.14	0.06	0.04	0.03
프랑스	-0.05	-0.02	0.03	0.04	0.24	0.25	0.10	0.16	0.44
영국	-0.13	-0.27	-0.16	0.08	0.12	0.18	0.07	0.13	0.26
이탈리아	-0.11	0.04	0.09	0.11	0.03	-0.08	0.05	0.11	0.33
네덜란드	-0.03	0.12	0.12	0.06	0.00	0.38	0.12	0.05	-0.01
폴란드	-0.13	-0.07	0.12	0.15	0.59	0.14	0.14	-0.31	0.48
벨기에	-0.01	-0.06	-0.02	0.01	0.04	0.13	0.06	0.19	0.16
독일	-0.16	-0.09	0.24	0.23	1.45	1.38	0.19	-0.34	0.16
BRICS3	-0.48	-0.47	0.45	0.13	1.46	0.57	0.57	-0.78	1.58
브라질	-0.02	-0.27	-0.25	0.07	-0.28	-0.13	0.16	-0.16	0.08
러시아	-0.22	-0.48	0.37	0.04	1.10	0.50	0.12	-0.71	0.43
인도	-0.25	0.29	0.33	0.03	0.64	0.19	0.29	0.08	1.08
NEA4	-2.68	-1.34	3.23	3.22	-0.83	0.69	1.23	-3.25	5.99
한국	-0.15	-0.83	-0.16	0.13	0.04	-0.53	0.65	1.01	2.64
일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만	-0.33	0.12	0.44	0.13	-0.60	0.52	0.39	-0.87	1.27
중국	-2.19	-0.63	2.96	2.96	-0.27	0.69	0.20	-3.40	2.07
ASEAN6	-0.52	0.19	5.40	1.00	1.58	1.35	1.38	-1.45	1.66
인도네시아	-0.04	-0.57	0.10	0.11	-0.14	-0.04	0.14	0.13	0.48
말레이시아	-0.17	-0.06	0.53	0.12	0.12	0.17	0.16	-0.41	-0.14
태국	-0.04	-0.22	0.18	0.07	0.46	0.27	0.11	-0.17	0.15
필리핀	-0.07	0.02	0.29	0.09	0.71	-0.24	0.19	-0.18	0.46
싱가포르	-0.09	-0.21	0.33	0.13	-0.10	0.19	0.43	-0.19	0.50
베트남	-0.11	1.24	3.97	0.47	0.53	0.99	0.34	-0.62	0.20
합계	-5.30	-4.89	9.46	6.03	7.69	8.60	6.46	-2.90	14.76
전 세계	-9.37	-10.36	0.22	8.91	5.41	1.03	9.25	-2.95	21.41

주: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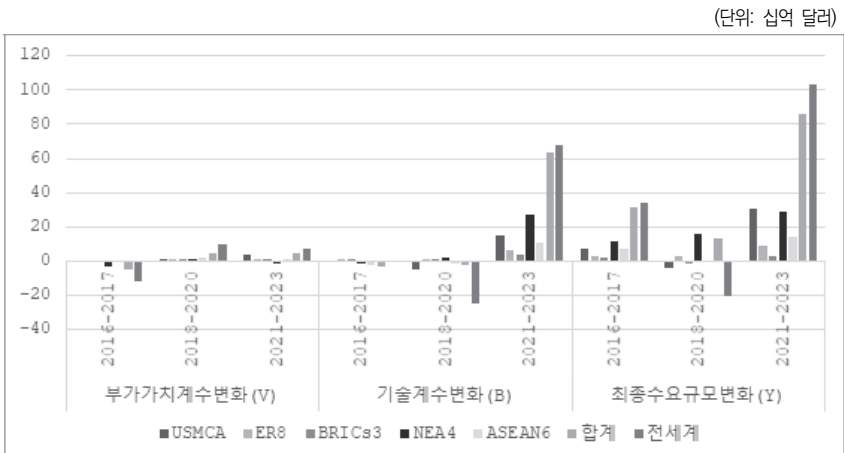
한 수출액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는 전 세계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데, 무역전쟁 이후 부가가치 계수 상승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의해, 기술계수의 하락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에 의해, 최종수요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액 증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 다. 일본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인에 대한 시기별 추이가 [그림 4-3]에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인데,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는 부

그림 4-3. 일본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주: 1)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2)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R8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를, BRICs3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NEA4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ASEAN6는 아세안 6개 국가, 합계는 24개 분석대상국가를,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국가를 각각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크게 부가가치 수출액을 증가시켰다. 반면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확대된 후 감소하고,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해당 시기에 감소한 후에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특히 북미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수출액을 크게 증대시켰다.

일본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액의 기간별 변동상황을 [표 4-3]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1기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무역전쟁 이후 기간인 2021~23년 기간에 특히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역전쟁 이전의 기간에는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과 기술계수 변화요인이, 무역전쟁 기간에는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이 모두 음(-)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모두 양(+의 부가가치 수출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세계 무역 추이가 북미지역에 정확히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 이전에 미미했던 각 요인들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향은 무역전쟁 이후 크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최종수요 규모로 인한 수출액 변화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추이를 주도한 미국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각각 4.6억 달러, -25.8억 달러, -41.6억 달러였던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들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 변화액이 무역전쟁 이후 각각 27.3억 달러, 135.9억 달러, 231.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지역의 경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 당시부터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세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미중 무역갈등 이후로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으로 인한 수출액 변화가 가장 크게 늘어난 국가는 프랑스로 0.8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상승하였고, 기술계수 변화요인이 확대된 국가는 네덜란드로 -10.5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최종수요 변화요인이 확대된 국가인 독일에서 12.1억 달러에서 31.5억 달

러로 각각 상승하였다.

BRICS3 지역에서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세 요인들의 영향이 모두 확대되었는데,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추이가 발생하였다. 인도는 미중 무역갈등 당시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들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액의 증감이 -0.339억 달러, 1.3억 달러에서 무역갈등 이후 각각 39.1억 달러와 34.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오히려 미중 무역갈등 이후에 세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동북아 국가에서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들의 영향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갈등 이후 크게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가장 큰 무역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미중 무역갈등 시기 각각 27.1억 달러, 9.8억 달러, 136.6억 달러를 기록했던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요인들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향이 그 이후 -11.3억 달러, 154.5억 달러, 172.2억 달러로 각각 변동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역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세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었다.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9.7억 달러에서 -4.9억 달러로,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48.6억 달러에서 95.7억 달러로,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은 -59.9억 달러에서 65.7억 달러로 변화하여, 세 요인 모두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술계수 변화의 추이에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과 상호 보완적인 기술적 특징이 최근 들어 강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추이는 동일하게 관찰되었는데, 미중 무역갈등 이후 가장 크게 세 요인이 개선된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술계수 변화요인과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당시 각각 -8.1억 달러와 0.172억 달러에서 그 이후 22.7억 달러와 27.3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표 4-3.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단위: 십억 달러)

	2016~17			2018~20			2021~23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USMCA	-0.35	-0.89	7.42	0.48	-4.91	-3.71	3.51	15.34	30.76
캐나다	0.00	-0.24	0.12	-0.03	-0.42	0.65	0.11	1.13	1.68
멕시코	0.01	1.58	1.65	0.04	-1.90	-0.20	0.66	0.61	5.95
미국	-0.37	-2.22	5.64	0.46	-2.59	-4.16	2.73	13.59	23.12
ER8	-0.74	0.28	3.06	1.11	1.33	2.99	1.12	6.75	9.28
스페인	-0.03	-0.02	0.11	0.06	0.03	0.24	0.06	0.36	0.11
프랑스	-0.06	0.13	0.34	0.08	-0.16	-0.13	0.18	1.24	1.01
영국	-0.25	-0.49	0.04	0.17	0.47	0.31	0.02	1.65	1.93
이탈리아	-0.12	0.14	0.17	0.15	-0.07	0.09	0.04	1.02	0.99
네덜란드	-0.06	0.50	0.94	0.15	-1.06	-0.17	0.21	0.87	1.18
폴란드	-0.03	-0.03	0.10	0.06	0.29	0.30	0.08	0.25	0.78
벨기에	0.02	-0.23	0.03	0.07	0.47	1.14	0.11	0.18	0.11
독일	-0.22	0.28	1.31	0.37	1.35	1.22	0.43	1.17	3.15
BRICS3	-0.15	0.94	2.34	0.01	0.46	-1.68	0.10	4.11	2.63
브라질	0.05	-0.14	-0.20	0.00	-0.08	0.34	0.21	0.85	0.17
러시아	-0.03	-0.11	2.02	-0.01	0.58	-2.15	-0.05	-0.65	-0.98
인도	-0.18	1.19	0.52	0.02	-0.03	0.13	-0.07	3.91	3.44
NEA4	-3.04	-1.13	11.24	1.62	2.43	16.18	-1.33	26.95	29.18
한국	-0.91	-1.01	2.30	-0.98	-4.86	-0.06	-0.49	9.58	6.58
일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만	-0.66	0.36	1.90	-0.12	-2.59	2.57	0.28	1.93	5.48
중국	-1.47	-0.49	7.04	2.71	9.89	13.67	-1.13	15.45	17.13
ASEAN6	-0.78	-2.30	7.34	1.77	-1.67	-0.74	1.05	10.74	14.45
인도네시아	-0.09	-1.97	0.20	0.13	-0.82	0.02	-0.15	2.28	2.74
말레이시아	-0.34	-0.04	0.30	0.29	-0.50	-0.74	0.01	0.01	1.57
태국	-0.06	-0.03	1.38	0.59	1.10	1.25	-0.07	3.32	3.16
필리핀	-0.08	0.25	0.94	0.08	0.25	-0.67	0.19	1.52	1.80
싱가포르	-0.09	0.17	1.41	0.41	-1.78	-0.72	0.92	3.00	2.67
베트남	-0.12	-0.68	3.10	0.26	0.08	0.12	0.15	0.61	2.52
합계	-5.06	-3.10	31.40	4.98	-2.35	13.05	4.44	63.89	86.30
전 세계	-12.12	-0.92	34.09	10.07	-24.74	-20.21	6.87	67.75	1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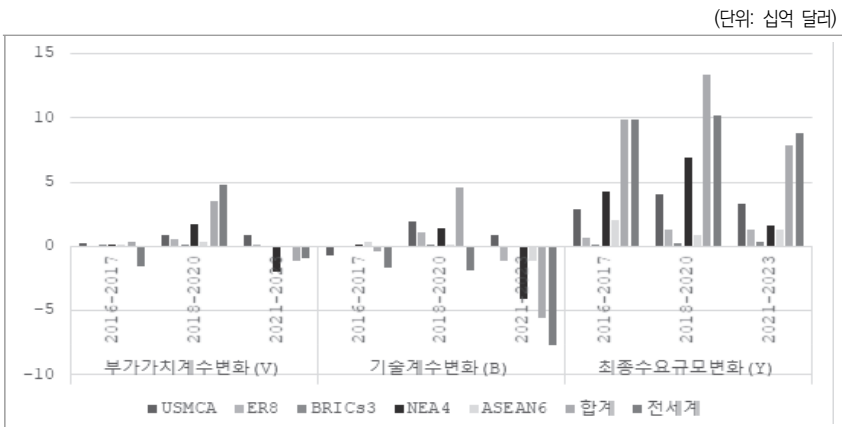
주: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라. 대만

[그림 4-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이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대만의 경우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세 요인으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가 가장 긍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세 요인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기술계수 변화요인인데, 미중 무역갈등 이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만 약 -40억 달러의 부가가치 수출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림 4-4. 대만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주: 1)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2)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R8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를, BRICS3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NEA4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ASEAN6는 아세안 6개 국가, 합계는 24개 분석대상국가를,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국가를 각각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대만의 전 세계 대상의 부가가치 수출액의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높은 최종수요 규모 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수출이 전기간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적 경쟁관계는 격화되어 기술계수 변화계수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을 기점으로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은 모두 개선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6~17년 세 요인으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의 변동액이 각각 1.5억 달러, -10.8억 달러, 25.7억 달러에서 무역전쟁 이후 6.5억 달러, 9.2억 달러, 24.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멕시코 역시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동 시기 기준 0.287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은 3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럽지역의 경우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부가가치 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이전에 비해 그 영향이 확대된 반면,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감소하였다. 부가가치 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 확대는 주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그리고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 감소는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BRICS3 국가에서는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전에 비해 세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2021~23년 주로 러시아와 인도의 주도하에 부가가치 계수 변화와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감소하였다. 반면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확대되었는데, 브라질과 인도에서 이러한 추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21~23년 기간 동안 대만의 러시아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의 세 요인의 모든 영향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중 무역갈등 당시 세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2021~23년 시기에 모두 감소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중국에 기인하였는데, 미중 무역갈등 당시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 변동액은 각각 19.3억 달러, -0.266억 달러, 62.5억 달러였으나, 2021~23년에는

표 4-4.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단위: 십억 달러)

	2016~17			2018~20			2021~23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USMCA	0.20	-0.72	2.92	0.85	1.96	4.09	0.83	0.84	3.28
캐나다	0.02	-0.08	0.05	0.02	-0.06	0.16	0.00	0.02	0.05
멕시코	0.03	0.45	0.30	0.15	0.26	0.35	0.17	-0.10	0.80
미국	0.16	-1.08	2.57	0.69	1.76	3.58	0.65	0.92	2.44
ER8	-0.09	-0.01	0.64	0.53	1.06	1.33	0.06	-1.12	1.30
스페인	-0.01	-0.01	0.03	0.03	0.06	0.02	0.01	-0.04	0.04
프랑스	0.00	0.02	0.07	0.03	-0.05	0.07	0.03	0.05	0.12
영국	-0.04	-0.11	0.02	0.05	0.05	0.12	-0.02	-0.10	0.09
이탈리아	-0.04	0.05	0.07	0.06	-0.02	-0.03	-0.01	-0.06	0.12
네덜란드	0.01	0.06	0.12	0.07	0.11	0.51	0.09	0.07	0.56
폴란드	-0.02	-0.02	0.05	0.04	-0.02	0.08	0.01	-0.08	0.04
벨기에	0.01	-0.03	0.01	0.01	0.08	0.01	0.00	0.01	0.04
독일	-0.01	0.04	0.27	0.24	0.86	0.54	-0.05	-0.97	0.29
BRICS3	0.01	-0.11	0.12	0.04	0.08	0.23	-0.01	-0.08	0.34
브라질	0.04	-0.07	-0.05	-0.01	-0.20	-0.03	0.04	-0.06	0.08
러시아	-0.01	-0.02	0.08	0.02	0.10	0.07	-0.01	-0.05	0.03
인도	-0.03	-0.01	0.09	0.03	0.18	0.18	-0.04	0.03	0.23
NEA4	0.09	0.06	4.24	1.73	1.41	6.92	-2.01	-4.09	1.61
한국	0.12	-0.30	0.19	-0.12	-0.34	0.31	0.03	0.23	1.55
일본	-0.05	-0.23	0.34	-0.08	1.78	0.36	-0.15	-2.27	0.59
대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국	0.03	0.59	3.71	1.93	-0.03	6.25	-1.89	-2.05	-0.53
ASEAN6	0.16	0.38	1.99	0.36	0.06	0.83	-0.04	-1.15	1.35
인도네시아	0.00	-0.22	0.04	0.05	0.18	0.22	-0.09	-0.19	-0.04
말레이시아	-0.02	0.34	0.26	0.13	0.35	0.22	-0.13	-0.82	-0.09
태국	0.01	0.00	0.20	0.09	0.23	0.25	0.03	0.44	0.41
필리핀	0.00	0.04	0.26	0.02	0.03	-0.19	-0.04	-0.18	0.03
싱가포르	0.07	0.21	0.34	-0.04	-0.66	0.09	0.28	-0.07	0.71
베트남	0.10	0.03	0.90	0.11	-0.07	0.23	-0.09	-0.32	0.33
합계	0.38	-0.39	9.91	3.52	4.57	13.40	-1.17	-5.60	7.88
전 세계	-1.53	-1.65	9.91	4.84	-1.88	10.24	-0.88	-7.74	8.79

주: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각각 -18.9억 달러, -20.5억 달러, -5.3억 달러로 그 영향이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대만의 대일본 수출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시기보다 그 이후에 세 요인의 영향도가 소폭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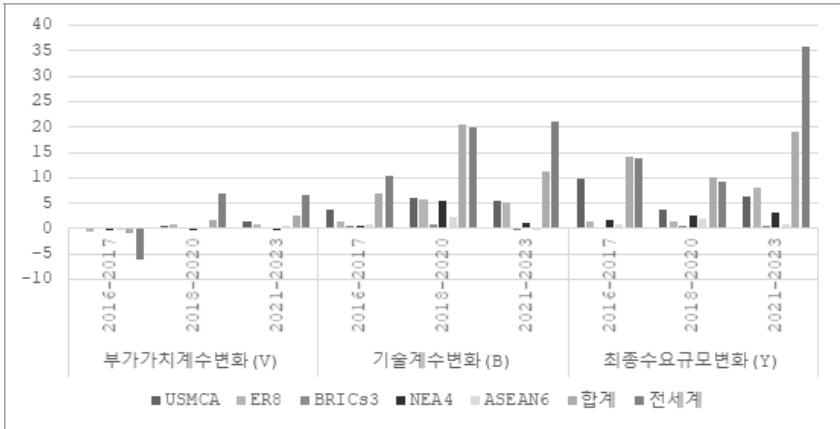
아세안 지역에서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향도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는데, 미중 무역갈등 이전과 이후 말레이시아의 경우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0.211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기술계수 변화 변화요인은 3.3억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2.5억 달러에서 -0.851억 달러로 하락하였다. 또한 동 기간 베트남 역시 세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도가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 마. 인도

[그림 4-5]에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세 요인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미중 무역갈등 시기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술계수 변화요인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시기 그 영향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이후 특히 동북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수출액 증가가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4-5. 인도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1)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2)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R8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를, BRICS3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NEA4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ASEAN6는 아세안 6개 국가, 합계는 24개 분석대상국가를,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국가를 각각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인도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액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미중 무역갈등 이전, 미중 무역갈등 시기, 그리고 미중 무역갈등 이후의 시기 동안 세 요인의 영향도가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무역갈등 이전 -60.3억 달러에서 무역갈등 이후에 67.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 역시 각각 103.1억 달러와 139.7억 달러에서 211.2억 달러와 357.8억 달러로 크게 상승하였다.

북미지역에서도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을 제외한 다른 두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무역갈등 이전과 이후 시기에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이 야기한 수출 변동액은 1.8억 달러에서 11.44억 달러로,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34.2억 달러에서 47.4억 달러로 각각 확대되었으나,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93.5억 달러에서 65.6억 달러로 하락하였다.

반면 유럽지역에서는 세 가지 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특히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관한 영향이 2016~17년 14.9억 달러에서 2021~23년 81.5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 국가 중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영국으로, 동 기간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1.3억 달러에서 -0.349억 달러로,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0.222억 달러에서 24.8억 달러로,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0.261억 달러에서 41.2억 달러로 상승하며 유럽 지역의 추이를 이끌었다.

BRICS 지역에서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브라질은 해당 요인이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0.562억 달러에서 2021~23년 기간에 2.3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반면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대한 영향은 감소하였는데, 러시아의 경우 동 기간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이 5.4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부가가치 계수와 기술계수 변화요인이 부가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는 확대되었으나 2021~23년 기간에 다시 감소하였고,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경우 꾸준히 그 영향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데, 부가가치 계수 변화는 미중 무역갈등 전후 기간에 -2.6억 달러에서 -0.295억 달러로 영향이 확대된 후 다시 -5.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경우 동 기간 -1.8억 달러에서 미중 무역갈등 중 38.8억 달러까지 상승한 후 -0.009억 달러로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에서는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꾸준히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된 반면, 기술계수 변화요인과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는 그 영향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이를 이끈 것은 싱가포르로,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표 4-5.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단위: 십억 달러)

	2016~17			2018~20			2021~23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USMCA	0.19	3.71	9.71	0.55	6.09	3.77	1.32	5.47	6.50
캐나다	0.00	0.00	0.04	-0.01	0.79	0.40	0.05	0.31	0.34
멕시코	0.01	0.28	0.32	0.09	-0.08	0.99	0.13	0.41	-0.41
미국	0.18	3.42	9.35	0.47	5.38	2.38	1.15	4.75	6.57
ER8	-0.44	1.50	1.50	0.75	5.92	1.37	0.96	5.08	8.16
스페인	-0.03	0.09	0.09	0.07	0.42	0.07	0.11	0.43	0.39
프랑스	-0.03	0.39	0.30	0.06	0.44	0.07	0.19	-0.10	0.44
영국	-0.13	-0.02	-0.03	0.09	2.52	-0.38	-0.03	2.49	4.13
이탈리아	-0.14	0.33	0.19	0.20	0.36	-0.03	0.10	1.21	0.78
네덜란드	-0.04	0.37	0.32	0.11	0.25	0.37	0.23	0.60	1.07
폴란드	0.00	0.02	0.05	0.02	0.16	0.12	0.05	0.12	0.21
벨기에	0.02	-0.04	0.02	0.02	0.14	0.14	0.14	0.71	0.33
독일	-0.09	0.36	0.56	0.19	1.64	1.01	0.16	-0.37	0.81
BRICS3	0.05	0.45	0.18	0.06	0.88	0.47	0.26	-0.09	0.45
브라질	0.07	0.46	-0.01	0.03	0.34	0.17	0.24	0.28	0.27
러시아	-0.02	-0.01	0.19	0.03	0.54	0.30	0.02	-0.37	0.19
인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EA4	-0.35	0.47	1.79	-0.03	5.40	2.48	-0.38	1.18	3.13
한국	0.00	0.22	0.08	-0.02	0.43	0.30	0.08	1.39	1.03
일본	-0.05	0.24	0.24	0.00	0.94	0.63	0.05	-0.38	0.07
대만	-0.04	0.20	0.12	0.03	0.14	0.11	0.07	0.17	0.25
중국	-0.26	-0.19	1.36	-0.03	3.89	1.44	-0.59	0.00	1.78
ASEAN6	-0.20	0.85	0.99	0.35	2.34	2.09	0.44	-0.24	0.93
인도네시아	-0.02	-0.15	0.13	0.05	0.13	0.44	-0.01	0.95	0.53
말레이시아	-0.12	0.55	0.26	0.00	0.22	-0.02	0.07	-0.48	0.14
태국	-0.01	0.06	0.10	0.03	0.38	0.45	0.05	0.00	0.08
필리핀	-0.01	0.00	0.08	0.02	0.12	0.07	0.03	0.22	0.20
싱가포르	-0.01	0.14	0.03	0.19	1.50	0.85	0.25	-1.06	-0.26
베트남	-0.05	0.25	0.38	0.07	-0.02	0.30	0.05	0.14	0.24
합계	-0.75	6.97	14.17	1.68	20.64	10.19	2.60	11.40	19.18
전 세계	-6.04	10.31	13.97	7.05	19.96	9.32	6.75	21.13	35.78

주: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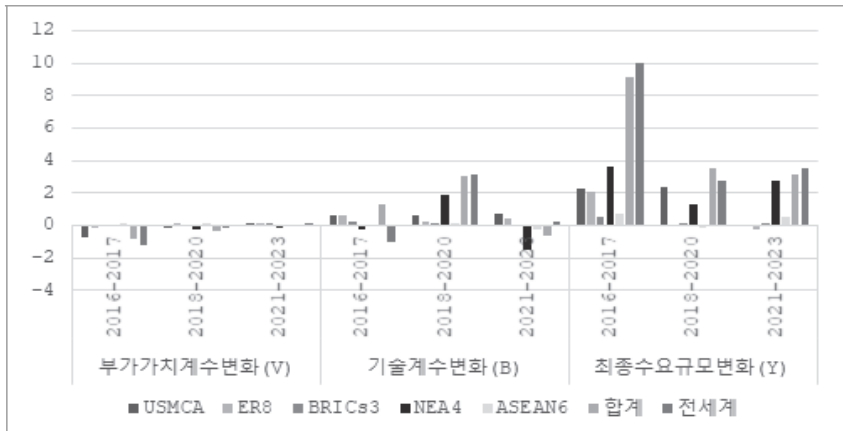
2016~17년 기간에 -0.055억 달러에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미중 무역갈등 기간에 1.8억 달러, 그리고 그 이후 2.5억 달러로 그 영향이 꾸준하게 확대되었다. 반면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 변동에 대한 영향은 동 기간 각각 1.3억 달러, 0.318억 달러에서 미중 무역갈등 기간에 15억 달러, 8.4억 달러로 그 영향이 증가한 후, 2021~23년 기간에 -10.6억 달러와 -2.5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 바. 베트남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동에 대한 요인들의 추이를 [그림 4-6]에서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으로, 미중무역갈등 이후 개선되었으나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부가가치계수

그림 4-6. 베트남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1)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2)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R8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를, BRICS3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NEA4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ASEAN6는 아세안 6개 국가, 합계는 24개 분석대상국가를,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국가를 각각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변화의 경우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추이를 보여 미중 무역갈등 이후에는 전 세계 대상으로 양의 수출액 변화를 기록하였다. 반면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이후 그 영향이 특히 동북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여 26개 분석대상 국가로 제한할 때 음의 수출액 변화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그 영향이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확대되었다가 다시 감소하였고,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오히려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감소한 후 다시 확대되는, 즉 세 가지 요인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혼재된 추이를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의 경우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은 확대된 반면,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감소하였다. 미국의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세 시기 동안 -6.4억 달러에서 -1억 달러와 0.897억 달러로 그 영향이 증가하였으나,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인해 부가가치 수출 변화액은 동 기간 19억 달러에서 22.7억 달러로 높아진 후 2021~23년 기간에는 -1.7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꾸준히 양(+)의 값을 보여, 베트남과 미국 간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부가가치 수출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부가가치 계수 변화와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국가별로 상호 혼재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가가치 수출액 증감 규모가 큰 독일의 경우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으로 인한 부가가치 수출 변화가 미중 무역갈등 시기를 전후하여 7.5억 달러에서 0.118억 달러와 -2.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BRICS 3개국의 경우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관한 영향은 높아졌으나,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3개국 모두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

표 4-6. 베트남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단위: 십억 달러)

	2016~17			2018~20			2021~23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USMCA	-0.70	0.62	2.24	-0.13	0.63	2.32	0.10	0.73	-0.09
캐나다	-0.02	-0.01	0.11	-0.02	0.04	0.11	0.00	0.09	-0.01
멕시코	-0.03	0.02	0.22	-0.01	0.08	-0.06	0.01	-0.01	0.10
미국	-0.65	0.62	1.90	-0.10	0.51	2.27	0.09	0.65	-0.18
ER8	-0.13	0.66	2.04	0.05	0.27	-0.02	0.02	0.44	-0.21
스페인	-0.04	0.03	0.08	0.01	0.00	-0.05	0.00	0.06	0.03
프랑스	0.03	0.24	0.27	-0.01	0.05	0.06	0.00	-0.01	-0.17
영국	-0.05	0.09	0.28	0.00	0.04	-0.07	-0.01	0.12	-0.07
이탈리아	-0.04	0.02	0.13	0.01	-0.02	-0.01	-0.01	0.04	0.05
네덜란드	-0.04	0.14	0.50	-0.01	-0.07	-0.05	0.01	0.07	0.09
폴란드	0.00	0.00	0.03	-0.01	0.02	0.06	0.01	0.04	0.03
벨기에	-0.02	-0.06	0.00	0.00	0.00	0.01	0.00	0.04	0.04
독일	0.02	0.19	0.75	0.05	0.26	0.01	0.01	0.10	-0.21
BRICS3	-0.03	0.22	0.56	-0.03	0.11	0.10	0.02	-0.11	0.13
브라질	-0.02	-0.02	0.05	0.00	0.01	-0.03	0.01	-0.03	0.07
러시아	0.00	0.09	0.31	-0.01	0.02	-0.01	0.01	-0.01	-0.14
인도	-0.01	0.15	0.19	-0.02	0.08	0.13	-0.01	-0.06	0.20
NEA4	-0.09	-0.23	3.60	-0.26	1.91	1.27	-0.19	-1.47	2.74
한국	0.13	-0.80	0.46	-0.13	0.14	0.05	0.02	0.12	0.70
일본	-0.14	0.11	0.69	-0.06	0.04	0.38	-0.03	0.05	0.33
대만	-0.01	-0.04	0.15	0.00	0.08	0.04	-0.01	-0.05	0.12
중국	-0.06	0.50	2.29	-0.06	1.65	0.79	-0.16	-1.58	1.59
ASEAN6	0.10	-0.02	0.71	0.00	0.12	-0.13	-0.01	-0.27	0.55
인도네시아	0.03	0.01	0.02	-0.01	0.01	0.03	-0.02	-0.03	0.20
말레이시아	0.02	-0.37	-0.01	-0.01	-0.01	-0.04	0.00	-0.09	0.16
태국	0.00	0.18	0.17	-0.01	0.03	-0.02	0.00	-0.05	0.17
필리핀	0.00	0.00	0.28	0.00	-0.03	-0.10	0.00	0.03	0.11
싱가포르	0.04	0.17	0.24	0.03	0.12	0.00	0.00	-0.12	-0.09
베트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0.84	1.26	9.14	-0.37	3.05	3.53	-0.07	-0.67	3.12
전 세계	-1.25	-1.06	10.02	-0.18	3.12	2.73	0.12	0.23	3.50

주: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으며, 러시아의 경우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이 3.1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최종수요 규모 변화의 영향을 유지하면서, 특히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미중 무역갈등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2016~17년 5억 달러에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는 16.5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나 2021~23년 -15.8억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최종수요 규모 변화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으로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23년에 15.8억 달러 수준의 베트남의 대중국 부가가치 수출을 기록하였다. 기술계수 변화요인에 있어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과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관계를 가지나, 대만과 중국과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우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이 상호 혼재된 추이를 보이면서, 부가가치 계수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기술계수 변화로 인해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들과는 전반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의 하락 추이는 주로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이를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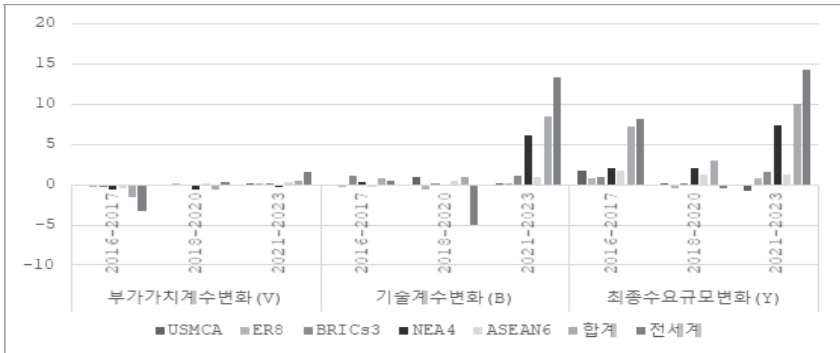
## 사. 인도네시아

[그림 4-7]에 제시된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인의 추이를 보면, 부가가치계수 변화의 부가가치 수출액 변동에 대한 영향은 꾸준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기술계수 변화요인과 최종수요규모 변화요인은 모두 미중 무역갈등 시기에 그 영향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확대되었다. 가장 크게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수요규모 변화요

인이나, 가장 크게 영향이 확대된 요인은 기술계수 변화요인으로 특히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전 세계 대상으로 133.8억 달러의 수출액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림 4-7. 인도네시아의 변화유형별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1)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2)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R8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를, BRICS3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NEA4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ASEAN6는 아세안 6개 국가, 합계는 24개 분석대상국가를,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국가를 각각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인도네시아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갈등을 겪은 이후 2021~23년 기간에 세 요인의 영향이 모두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을 전후하여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33.5억 달러에서 15.9억 달러로,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5.2억 달러에서 133.8억 달러로,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82.1억 달러에서 142억 달러로 모두 크게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북미지역에서는 최종수요 규모 변화가 지역 중 유일하게 미중 무역갈등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도한 것은 미국으로, 2016~17년 15.6억 달러였던 최종수요 규모 변화는 2021~23년 -10억 달러

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동 기간 -0.781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북미지역에서의 부가가치 계수 변화의 상승을 이끌었다.

유럽 지역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당시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영향이 크게 감소한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와 유사한 국가로 네덜란드와 독일을 들 수 있다.

BRICS 3개국은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미중 무역갈등을 겪는 시기에 크게 감소한 후 다시 회복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를 주도한 국가는 인도인데,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은 2016~17년 -2.1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하락한 이후 -0.355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당시 각각 -1.4억 달러와 -0.669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021~23년 13.9억 달러와 13.9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동북아 국가의 경우 기술계수 변화와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이 2021~23년 기준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 증가분 중 약 50% 수준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이전에 비해 크게 그 영향이 확대되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이러한 추이를 주도하였는데, 2021~23년 기준 일본과 중국의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21.1억 달러와 39.5억 달러를,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은 28.9억 달러와 26.6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부가가치 계수와 기술계수 변화요인의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부가가치 계수 변화의 경우 싱가포르가 미중 무역갈등 시기 전후에 -0.572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기술계수 변화요인은 필리핀이 2.6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각각 상승하였다.

표 4-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액(VAX) 변화요인

(단위: 십억 달러)

	2016~17			2018~20			2021~23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USMCA	-0.08	-0.08	1.68	-0.06	0.96	0.01	0.20	0.13	-0.83
캐나다	0.00	0.01	0.00	-0.02	0.02	-0.01	0.01	0.02	0.07
멕시코	0.01	0.13	0.11	-0.01	-0.06	0.12	0.03	0.08	0.11
미국	-0.08	-0.21	1.57	-0.03	0.99	-0.09	0.16	0.02	-1.01
ER8	-0.25	-0.32	0.72	0.15	-0.54	-0.39	0.16	0.01	0.83
스페인	-0.04	-0.20	0.05	0.03	-0.06	-0.08	0.03	-0.11	0.12
프랑스	-0.01	0.05	0.08	-0.01	0.02	-0.09	0.02	0.07	0.08
영국	-0.03	-0.05	-0.04	0.00	0.12	-0.09	0.00	-0.01	0.13
이탈리아	-0.07	-0.10	0.06	0.07	-0.20	-0.08	-0.01	0.00	0.12
네덜란드	-0.07	-0.06	0.26	0.06	-0.47	-0.05	0.07	-0.13	0.16
폴란드	-0.01	0.02	0.03	0.00	0.01	0.02	0.01	0.09	0.02
벨기에	0.00	-0.02	-0.02	0.00	0.04	0.01	0.02	0.09	0.05
독일	-0.03	0.05	0.30	0.00	0.00	-0.03	0.03	0.02	0.15
BRICS3	-0.23	1.11	0.98	-0.16	0.11	0.06	0.02	1.17	1.52
브라질	0.02	-0.28	-0.04	-0.03	-0.06	0.02	0.04	-0.03	0.07
러시아	-0.03	-0.14	0.07	-0.01	0.31	0.11	0.01	-0.21	0.04
인도	-0.22	1.53	0.96	-0.12	-0.14	-0.07	-0.04	1.40	1.40
NEA4	-0.57	0.40	2.06	-0.69	-0.02	2.09	-0.29	6.12	7.34
한국	0.06	0.89	0.34	-0.39	-1.83	-0.91	0.18	2.12	2.90
일본	-0.13	0.29	0.68	-0.34	-0.50	-0.27	-0.23	0.23	1.03
대만	-0.12	0.15	0.38	-0.04	-0.50	0.16	0.36	-0.18	0.75
중국	-0.37	-0.93	0.66	0.08	2.80	3.11	-0.59	3.96	2.67
ASEAN6	-0.41	-0.34	1.79	0.10	0.44	1.20	0.40	0.98	1.20
인도네시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말레이시아	-0.27	-0.66	0.17	-0.05	0.07	0.04	0.08	-0.58	0.52
태국	0.00	0.31	0.24	0.05	-0.31	0.90	0.01	0.32	-0.42
필리핀	-0.04	0.26	0.37	0.00	0.21	0.39	0.05	0.76	0.51
싱가포르	-0.06	-0.58	0.46	0.07	0.31	-0.30	0.22	0.03	0.14
베트남	-0.04	0.34	0.55	0.02	0.15	0.18	0.04	0.45	0.44
합계	-1.54	0.76	7.23	-0.66	0.95	2.97	0.49	8.40	10.05
전 세계	-3.35	0.53	8.22	0.34	-4.94	-0.45	1.59	13.39	14.21

주: 각 수치는 전년도 대비 항목별 증감분의 기간별 평균을 의미.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3. 소결

본 장에서는 Dietzenbacher and Los(2000)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2015~23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액의 변동 요인을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국가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결과를 [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8]의 좌측 열에서는 각 국가들의 부가가치 수출을 변화시킨 주요 요인을 1기 트럼프 행정부 이전,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1기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세 기간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그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선별한 것이다.

먼저 한국은 2016~17년에는 최종수요 규모의 변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으나, 미중 무역전쟁을 경험하면서 부가가치 계수 변화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중국과 대만은 모든 기간 중에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인한 요인이 부가가치 수출을 변화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 외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미중 무역전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최종수요 규모 변화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미중 무역전쟁 당시 부가가치 계수 변화요인이, 인도와 베트남의 경우 기술계수 변화요인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개 국가가 3기 중 가장 많은 부가가치 수출을 창출한 교역 국가들을 [표 4-8]의 우측 열에 기간별로 제시되어 있다. 중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 시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권 이후 시기인 2021~23년 기간에는 러시아와 인도로부터도 100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한국은 미중 무역갈등이 발생한 시기부터 모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데, 1기

표 4-8. 7개국 부가가치 수출액 변화의 주요 요인 및 국가별 유발규모

(단위: 십억 달러)

	주요 변화요인			주요 부가가치 변화 유발 국가		
	2016~17	2018~20	2021~23	2016~17	2018~20	2021~23
중국	최종수요 규모 변화 (84.59)	최종수요 규모 변화 (85.52)	최종수요 규모 변화 (76.99)	미국(74.64) 독일(8.14) 베트남(7.95) 러시아(7.65)	대만(8.74) 멕시코(7.70) 한국(6.66)	미국(12.20) 러시아(11.03) 인도(10.27)
한국	최종수요 규모변화 (0.22)	부가가치 계수 변화 (8.91)	최종수요 규모 변화 (21.41)	베트남(5.10) 멕시코(1.04)	미국(6.03) 중국(3.38) 독일(3.07)	미국(8.35) 일본(4.30)
일본	최종수요 규모 변화 (34.10)	부가가치 계수 변화 (10.07)	최종수요 규모 변화 (103.12)	중국(5.08) 멕시코(3.24) 미국(3.05)	중국(26.27) 독일(2.94)	미국(39.45) 중국(31.45) 대만(7.69) 인도(7.29)
대만	최종수요 규모 변화 (9.01)	최종수요 규모 변화 (10.24)	최종수요 규모 변화 (8.79)	중국(4.33) 미국(1.65) 베트남(1.02)	중국(8.16) 미국(6.03) 한국(2.06)	미국(4.01) 일본(1.81)
인도	최종수요 규모 변화 (13.91)	기술계수 변화 (19.96)	최종수요 규모 변화 (35.78)	미국(12.96) 독일(0.84)	미국(8.23) 독일(2.84) 영국(2.23)	미국(12.46) 영국(6.58) 일본(2.51)
베트남	최종수요 규모 변화 (10.02)	기술계수 변화 (3.12)	최종수요 규모 변화 (3.50)	중국(2.73) 미국(1.87) 독일(0.96)	미국(2.67) 중국(2.38)	일본(0.84) 미국(0.56) 한국(0.35)
인도네시아	최종수요 규모 변화 (8.22)	부가가치 계수 변화 (0.34)	최종수요 규모 변화 (14.21)	인도(2.26) 일본(1.28) 미국(1.28)	중국(5,995) 미국(867) 태국(640)	중국(6.03) 일본(5.19) 인도(2.76)

주: 1) 주요 변화요인은 부가가치 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 등 세 가지 요인 중 전 세계 대상의 부가가치 증가분이 가장 높은 요인과 부가가치 수출액을 의미.

2) 주요 부가가치 유발 국가는 국가별 부가가치 증가분의 세 요인의 총합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 창출국가와 부가가치 수출액을 의미.

자료: 저자 정리.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갈등 이후인 2021~23년 시기에는 중국이 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모든 시기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 이후인 2021~23년에는 미국, 대만, 인도 등 보다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에 주목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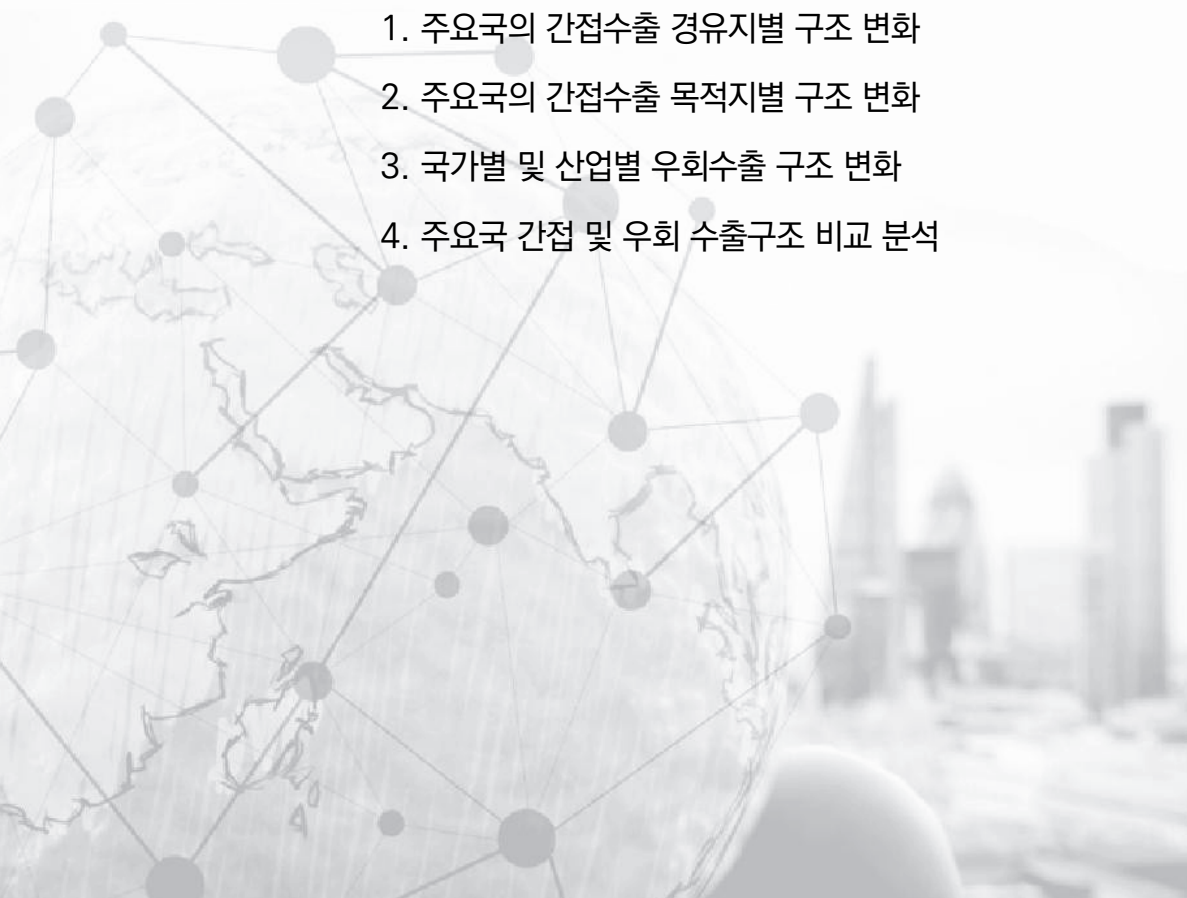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부가가치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 영국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는데, 2021~23년 시기에는 일본과 한국 등으로부터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로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등의 국가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주요국 간 비교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과 기술력의 중요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산업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가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며,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수출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최종수요 확대가 여전히 부가가치 수출 증가의 주요 동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외국인투자 유입과 글로벌 생산망 후방 참여를 통해 수요기반을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제5장

K

# 주요국의 간접 및 우회수출 구조 변화

1. 주요국의 간접수출 경유지별 구조 변화
  2. 주요국의 간접수출 목적지별 구조 변화
  3. 국가별 및 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
  4. 주요국 간접 및 우회 수출구조 비교 분석
- 

# 1. 주요국의 간접수출 경유지별 구조 변화

## 가. 분석 방법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WWW(2018)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분해 방법론에 따르면, 한 국가(s국)가 중간재를 다른 국가(r국)으로 수출하고, r국이 s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에 부가가치를 더한 후 또 다른 국가인 t국으로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면 t국이 이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수출구조([식 2-1]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항), s국이 r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r국은 수입한 중간재를 투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한 후 t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식 2-1]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항), 그리고 s국이 r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r국이 부가가치를 더하여 변형된 중간재 형태로 t국에 다시 수출하고 t국은 수입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한 최종재를 u국에 수출하는 구조([식 2-1] 세 번째 줄의 세 번째 항)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 대상 특정국가(예: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간 중간재 간접수출을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국가(예: 중국) 중간재 수출의 1차 수출대상국(가령 베트남)을 중간재 간접수출에 있어 ‘경유국’으로 파악하였으며, 그렇게 수출된 중간재를 경유국이 수입하여 최종적으로 최종재 형태로 생산하여 또 다른 국가(예: 미국)로 수출하여 해당 국가(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경우 그 국가(미국)를 중간재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나. 중국

2023년 기준으로 제3국을 경유한 중국의 중간재 간접수출 규모는 약 4,27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분석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

기를 제외하면, 중국의 제3국 경유 중간재 간접수출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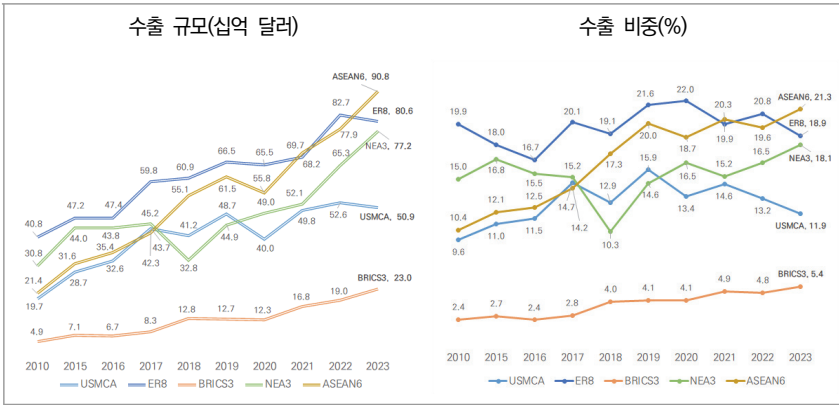
[그림 5-1]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ASEAN 국가를 경유하여 중간재를 간접 수출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유럽과 동북아 지역을 통한 경유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북미 및 BRICS 국가를 경유한 간접수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ASEAN, 유럽, 동북아를 통한 경유 간접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북미 및 BRICS 지역을 통한 경유는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통계는 [부록 표 5-1]과 [부록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중 측면에서 보면, 2020년까지는 유럽을 통한 중국의 간접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ASEAN 국가를 경유한 수출 비중이 이를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ASEAN 경유 간접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高)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여 우회수출 경로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북아(NEA3: 한국, 일본, 대만)를 통한 경유 간접수출도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역내 가치사슬을 재편하여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북미를 경유한 간접수출은 2019년 이후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정책이 북미 경유 간접수출의 비용 상승을 유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BRICS 국가를 통한 경유 수출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이 다변화된 우회수출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트럼프 집권 이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간접수출을 해왔으나, 이후 ASEAN, 동북아, BRICS 등으로 경유지를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1. 중국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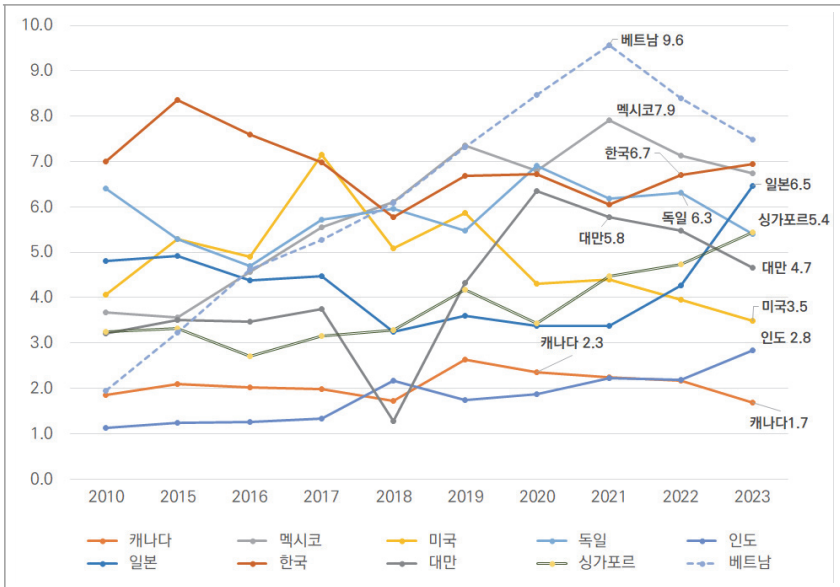


주: NEA3은 동북아 3개국, ASEAN6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 ER8은 유럽 8개국, BRICS3은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3개국,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의미함.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림 5-2]를 통해 중국의 중간재 간접수출에 대한 주요 경유국을 살펴보면, 중국은 다양한 국가를 간접수출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ASEAN 지역에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이 주요 경유국으로 부상하였고, 동북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핵심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경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RICS 국가 중에서는 인도를 통한 경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역내 및 주요 신흥국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우회경로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5-2. 중국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 참고.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시기별 경유지 변화를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도입 이후 중국은 중간재 간접수출에서 베트남을 가장 적극적으로 경유지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경유의 확대는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2018년 이후 그 증가세가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미중 간 무역마찰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체 경로로 부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9.6%의 비중을 기록하면서 경유지 중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에도 2023년 기준으로 여전히 7.5%로, 중국의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유지로서의 한국은 베트남과는 상이한 경로를 보였다. 2018년 까지는 경유 비중이 하락세에 있었으나, 같은 해 5.8%를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6.9%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베트남 다음으로 높

은 수준이며, 중국이 고관세정책 이후 경유지를 다변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멕시코 경유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경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6.1%를 기록하며 기존 대비 현저한 상승을 보였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근에는 경유지로서의 활용도가 감소한 양상을 띤다. 일본 경유의 경우, 트럼프 1기 집권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유지로의 활용이 미미했으나, 2022년부터 빠르게 비중이 확대되어 2023년에는 일본은 중국의 네 번째 주요 경유지로 부상하였다. 반면, 독일은 트럼프 1기 기간까지는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그 중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경유지로서의 활용도가 감소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국에 대한 경유 비중은 바이든 시기 이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태국의 경유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 다시 크게 상승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유 비중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인도의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경유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인도는 주요 경유지로 부상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유 비중은 트럼프 집권 시기부터 확대되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은 다양한 국가를 제3국 간접수출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고관세정책 시기에는 베트남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의 주요 경유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를 가장 많이 활용한 반면, 캐나다의 경유 비중은 최근 들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럽에서는 중국은 독일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국가를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최근 인도의 활용이 특히 두드러지며, 러시아는 그 뒤를 잇고 있다. ASEAN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선호되는 경유지이며,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활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멕시코, 독일, 태국 등 다수 국가를 경유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인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반면, 싱가포르, 멕시코, 대만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 한국

한국의 중간재 간접수출, 즉 제3국을 통한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은 주로 동북아(NEA)와 ASEAN 지역을 경유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유럽(ER8), 브릭스(BIRCS3), 북미(USMCA) 순으로 분포되고 있다. 간접수출 규모는 2010년 689억 달러에서 2023년 1,1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중간에 다소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부록 표 5-3]과 [부록 표 5-4]를 참조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분류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로 트럼프의 고관세정책 시기부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바이든 집권시기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하락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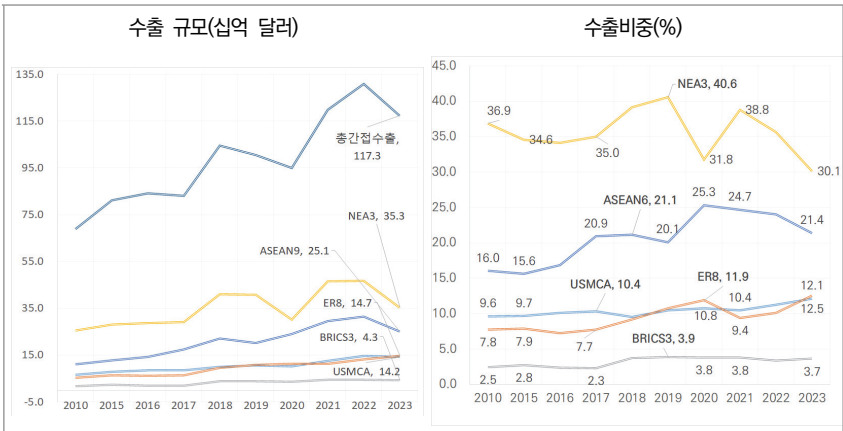
[그림 5-3]은 한국의 중간재 간접수출 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변화를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출 규모에 비해서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중간재 간접수출 규모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걸치면서 하향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중간재 간접수출 중 동북아를 경유한 수출 비중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트럼프시기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는 추세로 이미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한국은 동북아에 대한 간접수출의 규모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증가하였지만, 트럼프 집권이 끝나기도 전에 그 비중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그림 5-3. 한국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NEA3은 동북아 3개국, ASEAN6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 ER8은 유럽 8개국, BRICS3은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3개국,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의미함.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북아를 경유한 한국의 중간재 간접수출 비중은 2019년 40.6%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ASEAN 지역에 대한 중간재 간접수출 비중은 2020년에 25.3%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고관세정책에 따른 일시적 효과가 팬데믹 이후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북미지역에 대한 간접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23년에는 12.1%에 도달하였다. 유럽(European Region, EBR)의 경우, 전반적인 증가세 속에 바이든 행정부 초기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회복되어 2023년에는 북미와 동일한 수준

인 12.1%를 기록하였다. 한편 BRICS 국가에 대한 간접수출은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며 2023년 기준 3.7%에 머물렀다.

[그림 5-4]는 한국의 간접수출(DVA\_INTrex)이 경유하는 주요 국가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간접수출은 동북아와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경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 경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중국 경유 간접수출은 분석기간 중 최고 30%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일본, 미국, 멕시코, 독일 등이 주요 경유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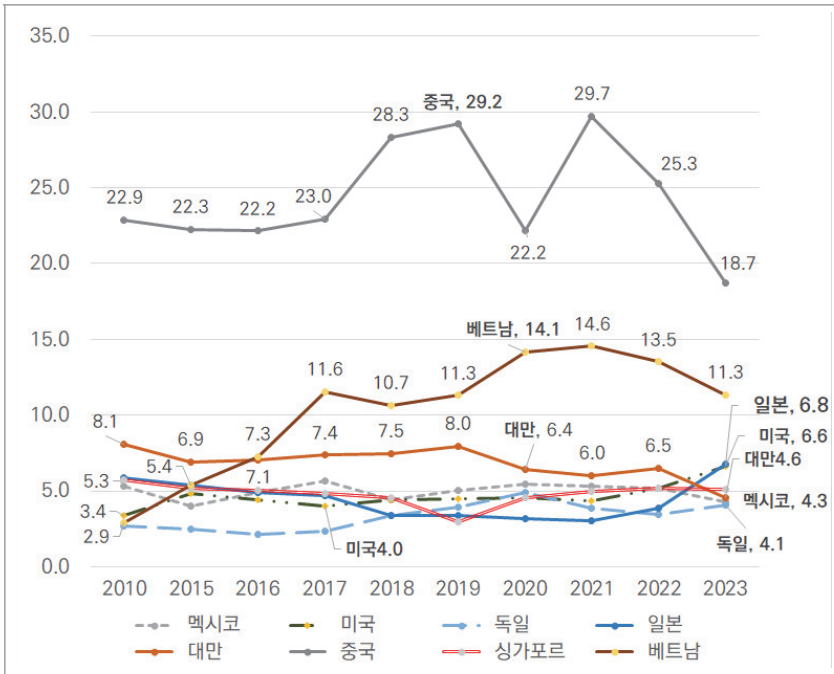
중국 경유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오하려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7년 23%에서 2018년 28.3%, 2019년에는 29.2%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기업이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간접수출하는 전략을 확대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급감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18.7%로 분석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을 경유하는 경우, 2017년에 그 비중이 급등한 이후 2018~19년에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1년에 14.6%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국과 유사한 하락세를 보여 2023년에는 11.3%에 그쳤다. 대만 경유는 트럼프 집권기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시기부터 급감하여 2023년에는 4.6%로 하락하였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유 간접수출 비중이 상승하였다. 특히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간접수출 경유지로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미국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감소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일본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멕시코 경유는 바이든 초기에 그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4.3%로 감소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 상승했다가 팬데믹 시기 하락세를 겪은 후 2023년에는 4.1%로 소폭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4. 한국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4] 참고.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간접수출 경로는 주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경유지를 통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최종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sup>25)</sup> 특히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을 통한 간접 또는 재수출 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일본이 한국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경유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와 미국이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으

25) 중간재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는 다음 절에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나, 캐나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중간재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지로 나타났으며, BRICS 국가 중에서는 인도의 경우 비중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반면, 러시아는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ASEAN 지역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중요한 중간재 간접수출의 경유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 라. 일본

일본의 간접수출은 2010년에 1,584억 달러, 2015년 1,896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 3,3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트럼프 고관세정책 시행시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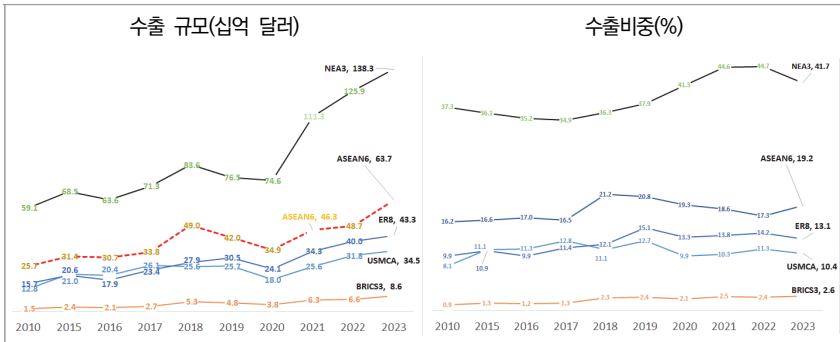
[그림 5-5]에 의하면, 일본이 중간재를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수출할 때, 선택한 주요 경유 지역은 동북아로 나타났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간접수출 규모를 줄였으나, 바이든 시기인 2021년부터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비중 측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은 중간재의 간접수출 비중을 트럼프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 202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41.7%에 머물렀다. 일본은 바이든 시기에 동북아로의 간접수출 규모를 확대했지만, 이 지역의 비중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증가세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지역은 ASEAN이다. ASEAN을 통한 간접수출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축소되었다가, 바이든 시기 들어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637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비중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북미 및 BRICS 국가를 경유한 간접수

출 규모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감소하고,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이들 지역에 대한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줄어들고 있다.

그림 5-5. 일본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NEA3은 동북아 3개국, ASEAN6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 ER8은 유럽 8개국, BRICS3은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3개국,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의미함.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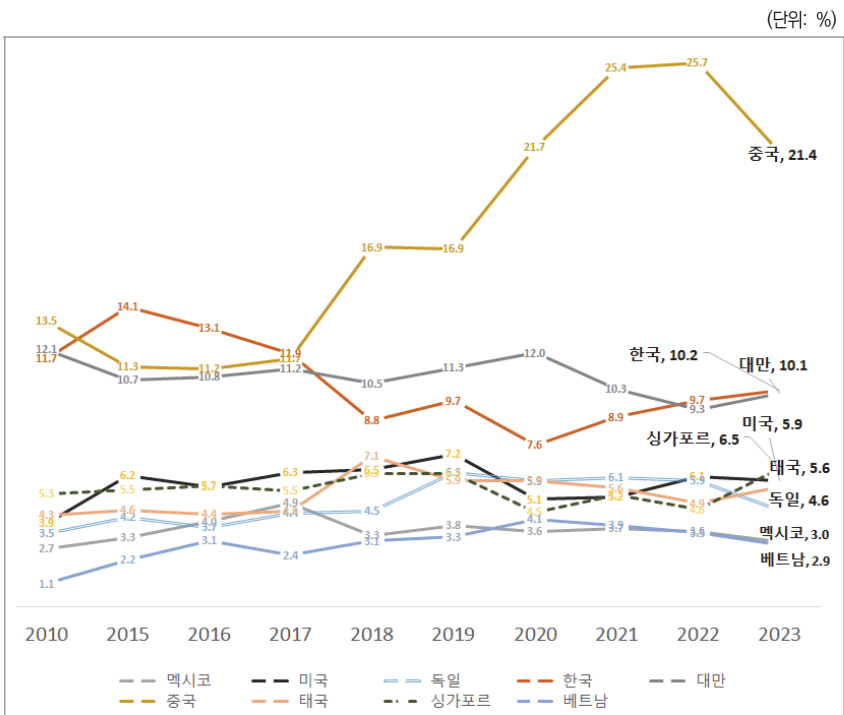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일본은 중간재 간접수출에서 동북아를 핵심 경유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바이든 시기에는 규모 측면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경유 비중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동북아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었으며, 기타 지역들은 규모는 늘었지만, 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간접수출 구조는 동북아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국가별 경유지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림 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중간재 간접수출 경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2023년 기준 그 비중이 21.4%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한국과 대만이 주요 경유지로 나타나며, 이 3개 국가를 합친 비중은 전체의 40%를 초과한다. 일본이 중간재 간접수출을 위해 동북아 지역을 중심

으로 경유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데에서 기인한다.

한편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는 일본 간접수출의 경유지로서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며 대만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반대로 대만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일본의 경유지 역할을 유지해왔으나, 바이든 시기부터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태국, 싱가포르, 독일이 일본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은 이들 국가 다음으로 주요 경유지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5-6. 일본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6] 참고.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유럽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를 일본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국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한국, 대만, 아세안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주요 경유지로 나타난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최근 인도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을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지로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과 대만이 주요 경유지로 나타난다. 특히 대만의 경유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한국이 일본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물류 및 산업 인프라가 발달한 주요 국가들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표 5-5]와 [부록 표 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 대만

대만의 제3국 중간재 재수출 규모는 지속 증가해 왔다. 2010년 493.4억 달러에서 2015년 621.4억 달러, 2023년에는 696.7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대만의 중간재 생산 및 공급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5-7]에 따르면, 대만의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은 주로 동북아 및 ASEAN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의 간접수출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비중 측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세가 관찰된다.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간접수출의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해당 지역으로의 간접수출 비중이 전체 규모에 비해 빠르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만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동북아를 전략적 경유지로 적극 이용하였으나, 바이든 시기 이후에는 경유 지역의 다변화

를 시도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내의 상대적 위치 조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관련된 세부 통계는 [부록 표 5-7]과 [부록 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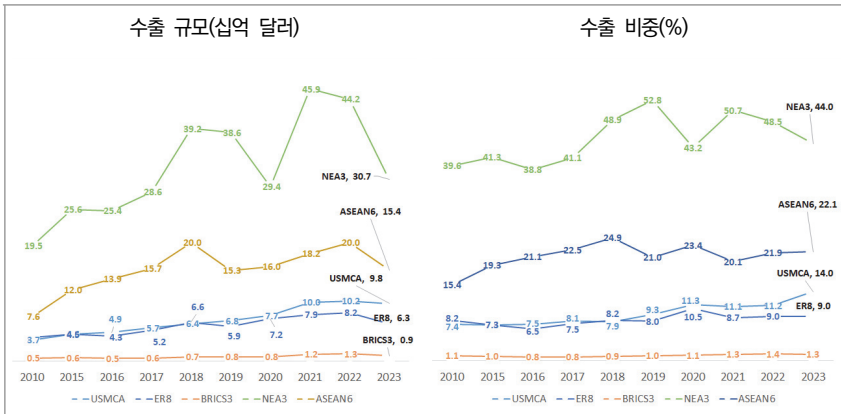
대만은 동북아 지역에 이어 북미를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와는 상반되게, 북미를 경유한 간접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초반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비중 변화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22.1%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북미, 유럽 및 브릭스 지역을 경유한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수출 비중 또한 동반 상승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2020년 이후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미와 유럽 간 경유 비중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림 5-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만은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 경유지로서 중국을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양자 간 정치적 긴장과는 별개로

그림 5-7. 대만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NEA3은 동북아 3개국, ASEAN6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 ER8은 유럽 8개국, BRICS3은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3개국,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의미함.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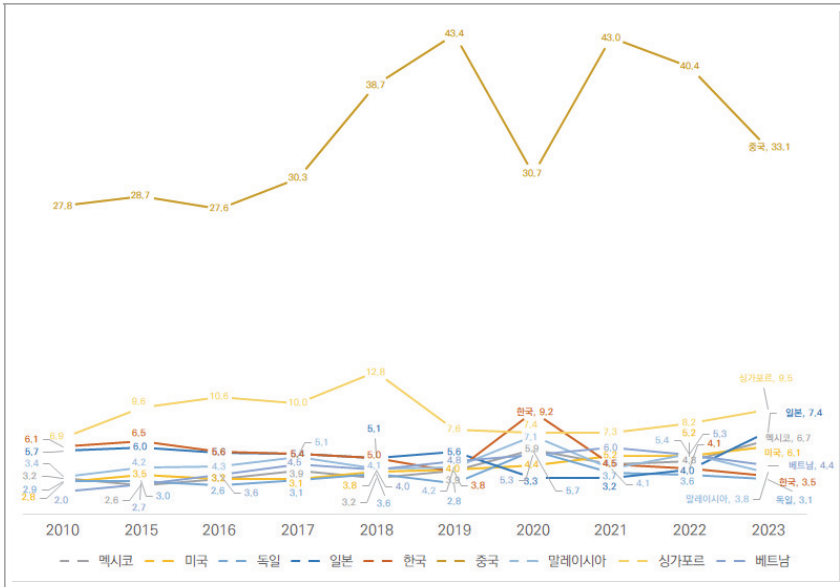
경제적 연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대만은 대중국 경유 비중을 20%대에서 40%대까지 크게 확대하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다소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 기준 33.1%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대만의 경유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이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 경유지로 가장 많이 이용한 국가는 중국이며, 그다음으로는 싱가포르로 나타났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경유 비중이 급격히 축소된 반면, 일본, 멕시코, 한국 등의 국가에 대한 경유 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을 통한 경유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점이 주목된다.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의 경유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지역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주요 경유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두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경유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동북아에서는 2019년 이후 한국에 대한 경유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고, 아세안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대체 경유지로 부상하며 일정 기간 동안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경유 비중 또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대만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8] 참고.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바.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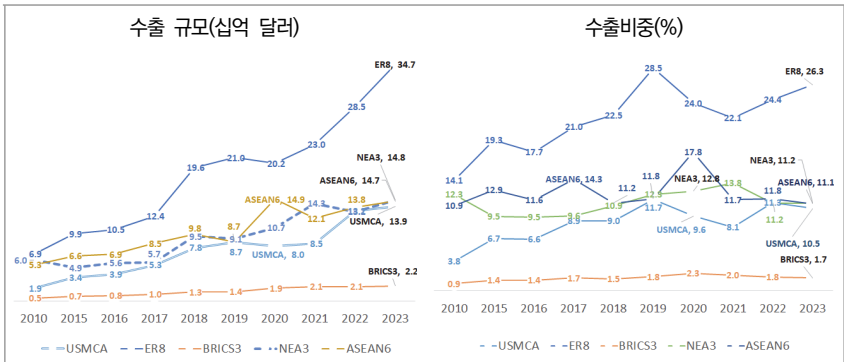
인도의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DVA\_INTrex)은 2010년 488억 달러, 2015년 513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318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제3국을 경유한 간접수출은 지역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였다. 유럽을 경유지로 한 간접수출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 비중 측면에서는 상이한 추세가 나타난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는 유럽 경유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바이

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비중이 점차 하락하였다. 이는 인도의 전체 간접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관련된 세부 통계는 [부록 표 5-9]와 [부록 표 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인도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NEA3은 동북아 3개국, ASEAN6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 ER8은 유럽 8개국, BRICS3은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3개국,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의미함.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다음으로 주요 경유지로 나타나는 지역은 ASEAN으로, 규모 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중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동북아를 경유한 인도의 간접수출은 전체 규모에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비중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2023년에는 동북아 경유 비중이 11.2%로 다소 축소된 양상을 나타냈다.

북미지역의 경우,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경유 규모를 빠르게 확대 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아세안 및 동북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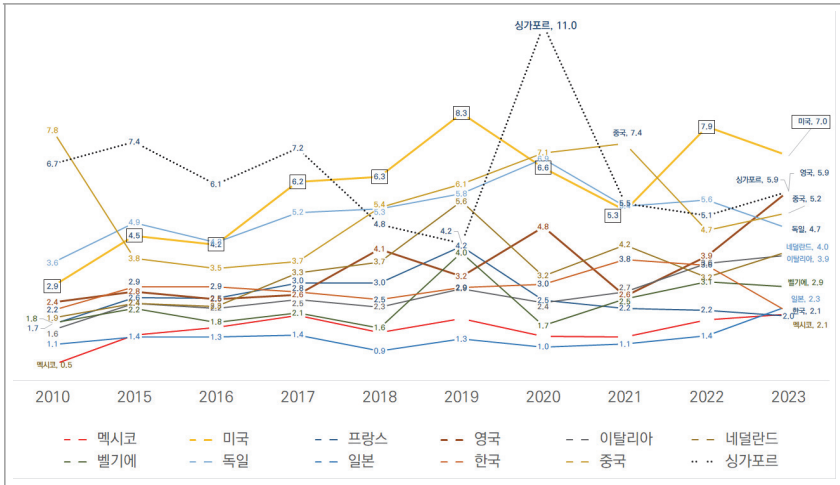
측면에서도 2019년까지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BRICS 국가를 경유하는 간접수출은 전체의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5-10]을 통해 국가별 경유지 변화를 살펴보면, 인도는 미국을 가장 주요한 간접수출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싱가포르, 영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를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미국을 경유하는 간접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경유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급증하였으나, 2022년 이후 급감하였다. 싱가포르 경유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급감하였다가 코로나19 시기에 급등한 이후 2023년에는 5.9%로 다시 하락하였다. 영국 경유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상승한 뒤 팬데믹 시기에는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북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경유 비중도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럽의 경우, 주요 경유국으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의 경유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는 경유 비중이 감소하였다. 동북아에서는 중국 외에도 일본, 한국, 대만을 비교적 고르게 이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말레이시아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싱가포르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경유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림 5-10. 인도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0] 참고.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사.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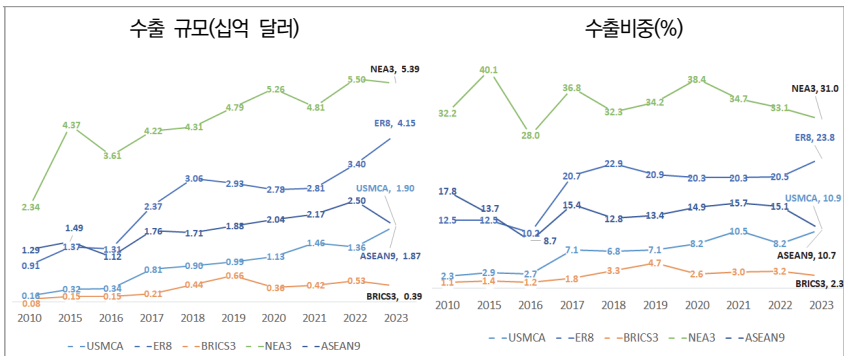
베트남은 중간재의 제3국 간접수출을 2010년에 72.8억 달러, 2015년 109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 1,740억 달러를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간접수출은 대부분 동북아 지역으로 집중되었으며, 특히 2016년 36.1억 달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행 이후 급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중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축소되었다.

동북아 다음으로 유럽지역이 베트남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지로 나타났으며,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21년에는 약 30억 달러, 2023년에는 41.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유럽에 대한 비중은 트럼프 집권 이후 명확

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북미에 대한 간접수출 규모도 트럼프 집권과 연계하여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비중이 감소하여 유럽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간접수출은 유럽과 유사한 비중 변화 패턴을 보였으며, BRICS 국가에 대한 경유는 트럼프 집권기 이후 증가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표 5-11]과 [부록 표 5-12]를 참조하면 된다.

그림 5-11.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NEA3은 동북아 3개국, ASEAN6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 ER8은 유럽 8개국, BRICS3은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3개국,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의미함.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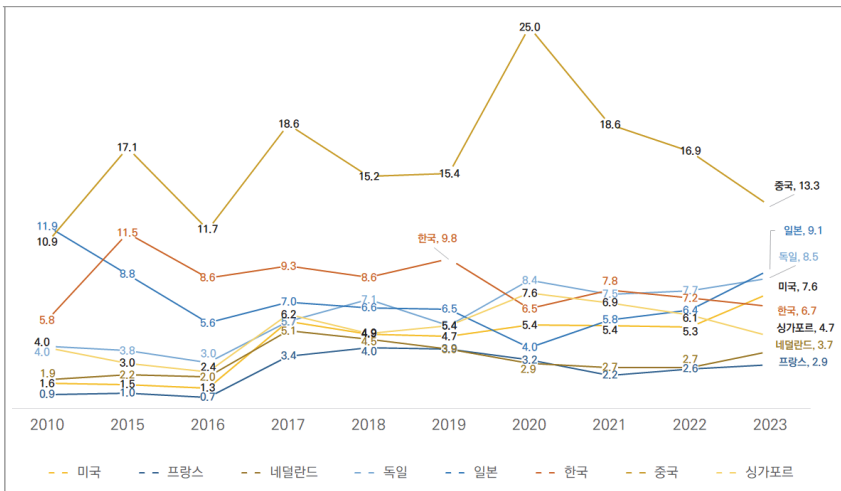
[그림 5-12]에 따르면, 베트남의 중간재 간접수출은 동북아 지역에서 주로 중국을 경유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중국 경유의 비중은 시기별로 변동성이 존재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25%까지 증가한 뒤 바이든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13.3%로 마감되었다.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지는 한국이다. 한국 경유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8~9%의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바이든 시기에는 6%대로

축소되었다. 반면 일본 경유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감소하였으나, 바이든 시기에는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9.1%에 도달하였다. 독일 경유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유지로 부상하였고, 미국 경유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바이든 시기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5-12. 베트남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2] 참고.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서는 미국 경유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에 크게 늘었으며, 멕시코 및 캐나다 경유 비중도 증가하였는데, 시기별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더 증가하였다. 유럽의 경유는 독일을 주요 경유지로 삼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비중이 트럼프 집권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유 비중 역시 유사한 추세로

증가하였다. 벨기에 경유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비중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인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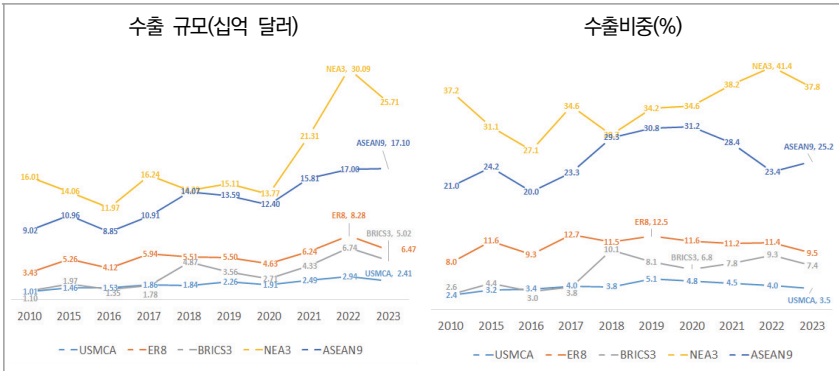
##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제3국으로 중간재를 2010년 430.3억 달러, 2015년 452.7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679.5억 달러를 간접수출하였다. 이 간접수출은 대부분 동북아 및 아세안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2018년 이후 간접수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 이후 동북아 지역으로의 간접수출이 급증하였다. 비중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경유 비중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빠르게 증가한 반면, 아세안 경유 비중은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상승하였다가 바이든 시기에 급감하였다.

유럽, BRICS, 북미지역을 경유한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경유 간접수출 규모는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증가하였다. 특히 BRICS 경유는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 경유의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상승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9.5%로 하락하였다. BRICS 경유 비중은 2018년 급증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9%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미 경유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소폭 증가하여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5-13]과 [부록 표 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3.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지역별 경유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NEA3은 동북아 3개국, ASEAN6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 ER8은 유럽 8개국, BRICS3은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3개국,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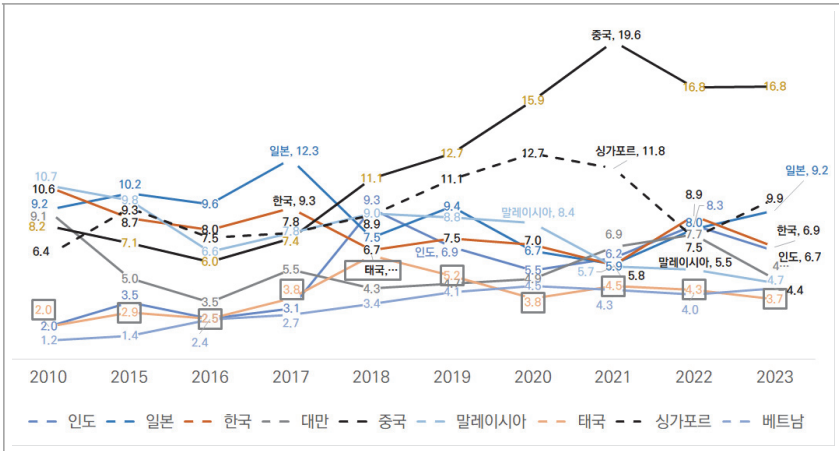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국가별 경유지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중간재 간접수출 경유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경유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유 비중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에 상승하였으나, 202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장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낸 국가는 일본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경유 비중이 계속 감소하다가 2021년 이후 반등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주요 경유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경유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6.9%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핵심 경유국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인도 경유 비중은 트럼프 집권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도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유국으로 부상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소폭의 비중 상승을 보였으나, 바이든 시기에 접어들면서 경유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정 수준의 비중 확대가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4. 인도네시아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 국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4] 참고.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2. 주요국의 간접수출 목적지별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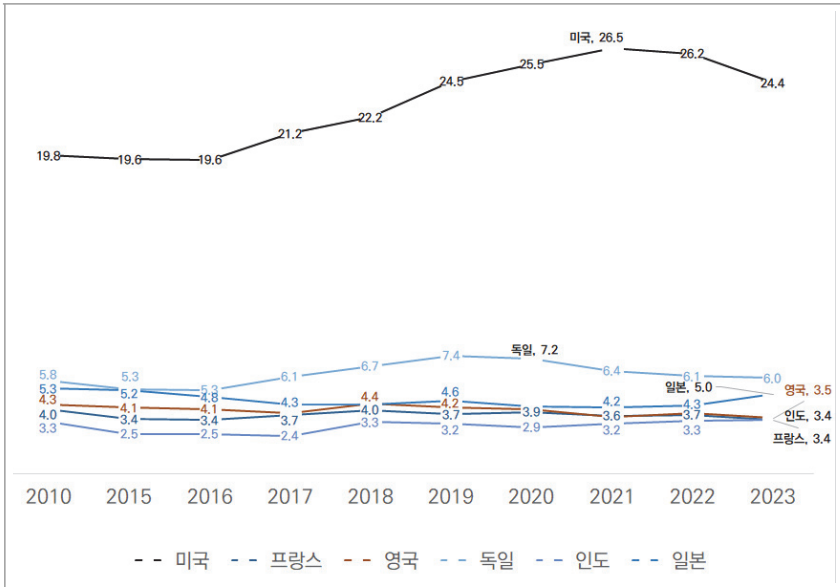
### 가. 중국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베트남, 멕시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등 다양한 국가를 중간재의 제3국 중간재 간접수출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를 판별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그림 5-15]에서 확인되듯이 중국 중간재 간접수출의 주요 최종 목적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향한 간접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체의 26.5%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다소 감소하여 2023년에는 24.4%를 나타냈다.

그림 5-15. 중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5]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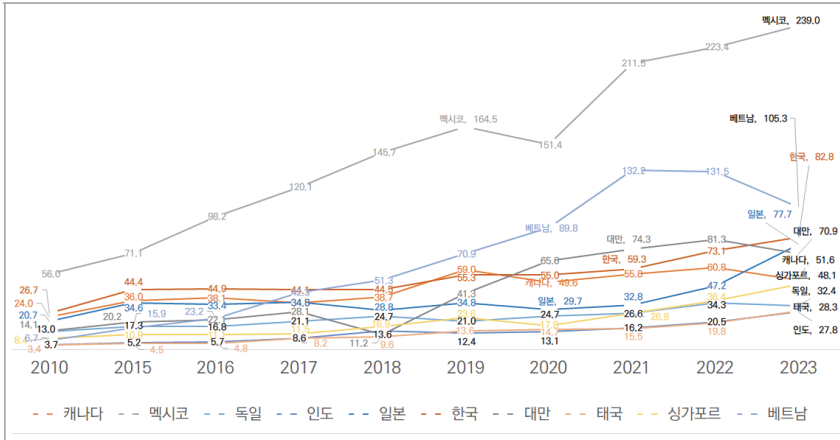
두 번째 주요 목적지는 독일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을 최종 목적지로 한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하락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바이든 시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 비중이 지속해서 확대되며, 현재는 중국의 네 번째 주요 간접수출 최 목적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다양한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중간재를 간접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5-16]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의 대미 간접수출 중 멕시코를 경유한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0년 56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23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

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5-16. 중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6]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중국은 트럼프 집권 이전부터 베트남으로 간접수출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트럼프 집권기와 2021~22년에 정점을 찍었다. 다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멕시코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대미 간접수출 경로 중 세 번째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201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2023년에는 8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만의 경우 트럼프 집권기에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81.3억 달러에 도달했으나, 2023년에는 77.7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일본 경유는 2021년까지는 다소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급증하여 2023년에는 7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싱가포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외에도 독일, 태국, 인도 등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간접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국가로 나타났다.

[표 5-1]은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간접수출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각 수치는 해당 국가를 통해 최종 목적지인 미국으로 최종 간접수출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캐나다의 경우 63.4%는 중국의 대(對)캐나다 간접수출액 37.83억 달러 중 23.97억 달러가 미국으로 향했음을 의미한다.

이 표에 따르면, 중국의 간접수출 중 북미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도달하는 비중은 2015년 40.4%에서 2023년 59.3%로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비중 변화는 북미지역 내에서도 캐나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캐나다를 통한 미국 수출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50%대에서 70%대로 급상승하였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간접수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로 수출하는 중간재의 약 70~80%는 현지 가공 또는 경유 등의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유럽 국가를 경유한 중국의 간접수출 중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간접수출 중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10~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순으로 나타난다.

표 5-1. 중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43.2	40.4	44.8	38.6	47.4	48.5	52.2	55.7	56.1	59.3
캐나다	63.4	65.7	66.3	58.5	70.3	73.1	71.0	72.7	70.9	71.8
멕시코	74.2	76.2	75.8	72.7	74.8	72.8	74.9	78.1	79.0	83.0
미국	6.1	6.3	7.0	6.6	6.7	7.0	6.2	6.9	6.9	7.3
ER8	8.8	10.6	10.7	11.8	12.3	11.9	11.3	12.3	12.8	11.7
스페인	5.5	7.0	7.2	8.5	8.3	8.0	8.2	8.7	9.8	7.8
프랑스	7.9	9.4	9.5	12.8	14.4	13.2	12.9	17.0	15.2	11.9
영국	14.1	16.5	16.7	20.9	19.7	20.4	17.9	18.7	19.2	17.9
이탈리아	8.1	11.6	11.8	13.4	14.1	13.8	13.6	13.9	14.1	13.3
네덜란드	7.5	8.3	8.6	9.1	9.2	8.7	7.7	9.8	9.9	8.6
폴란드	4.1	5.4	5.5	7.5	7.6	7.6	7.6	8.3	9.0	7.9
벨기에	7.9	9.2	9.4	9.5	8.5	9.0	9.0	9.5	10.4	9.9
독일	9.9	12.5	12.7	12.4	13.0	12.4	12.0	12.6	13.7	14.1
BRICS3	13.5	14.5	14.8	18.9	17.9	19.3	19.6	19.3	19.6	18.5
브라질	14.5	19.3	19.1	25.4	24.0	28.1	21.6	25.9	26.0	23.3
러시아	8.9	8.2	8.0	8.7	10.4	10.4	11.3	10.3	7.8	6.2
인도	15.8	16.1	15.9	21.9	19.7	23.1	23.6	21.3	23.7	23.0
NEA3	19.9	22.6	22.9	23.7	25.7	29.3	30.7	31.9	30.9	30.0
한국	21.0	26.9	26.9	26.2	27.9	31.4	29.6	28.3	27.8	28.1
일본	18.6	20.3	20.9	21.2	24.2	27.0	27.4	28.6	27.5	27.9
대만	21.4	22.0	22.4	25.2	27.5	31.1	34.7	37.6	37.4	35.6
ASEAN6	14.7	16.5	17.0	20.4	20.6	25.4	28.4	30.3	29.0	25.0
인도네시아	20.4	21.3	23.5	20.1	25.8	29.7	33.1	30.6	28.0	19.6
말레이시아	14.6	18.8	18.8	18.9	19.5	26.2	27.2	25.9	21.5	24.5
태국	11.2	11.3	11.5	17.1	11.3	15.7	18.6	18.3	19.3	17.4
필리핀	23.9	21.6	22.8	23.4	22.7	28.5	27.1	27.1	24.1	26.4
싱가포르	12.6	12.6	14.5	12.2	16.1	18.4	17.4	17.5	19.4	20.7
베트남	16.8	18.9	17.7	26.9	26.4	31.6	35.6	40.4	39.5	33.0
합계	18.8	20.7	22.2	22.5	24.2	26.8	27.6	30.1	29.1	27.8
간접수출총액	19.8	19.6	19.6	21.2	22.2	24.5	25.5	26.5	26.2	24.4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러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상승세를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BRICS 국가를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으로의 최종 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증가하여 18~19% 수준을 기록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대부분의 BRICS 국가에서 비중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브라질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도의 경우 최근 들어 미국 경유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비중이 상승했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동북아 국가를 경유한 중국의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크게 증가하여 약 30% 수준에 도달하였다. 특히 대만은 중국의 대미국 간접수출에서 핵심 경유지로 이용되며,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대만의 경유 비중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과 한국·일본 간의 경유 비중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세안 국가 경유 간접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을 경유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 약 18% 수준에서 시작하여, 이후 급증하여 최고 40%에 달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이들 국가 역시 2020년까지 빠르게 비중이 상승한 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약 20% 초반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태국과 싱가포르의 일관되게 2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유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간접수출 전략은 지역별·국가별로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한 중간재는 일정 수준의 가공과 조립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고 있으며, 그 비중과 안정성 면에서 핵심 경유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의 전략적 이용도가 가장 높으며, 대만,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

가들 역시 주요 경유지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중국의 간접수출 네트워크 내에서 유럽의 중요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 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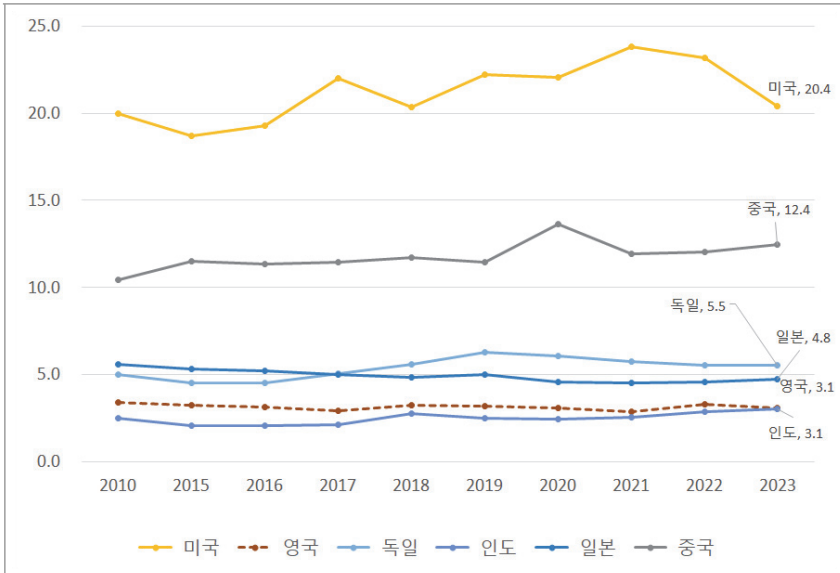
한국의 중간재가 제3국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중간재는 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멕시코 등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전체 간접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지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시행 이후 미국행 간접수출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20.4%로 하락하였다.

미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며, 전체 간접수출의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행 간접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독일과 일본이 주요 목적지로 확인되었는데,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독일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중간재는 독일, 베트남, 일본 등의 국가를 경유하여 주로 미국과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간접수출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역시 중요한 목적지로 기능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대만과 러시아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일본이 주요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5-17. 한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7]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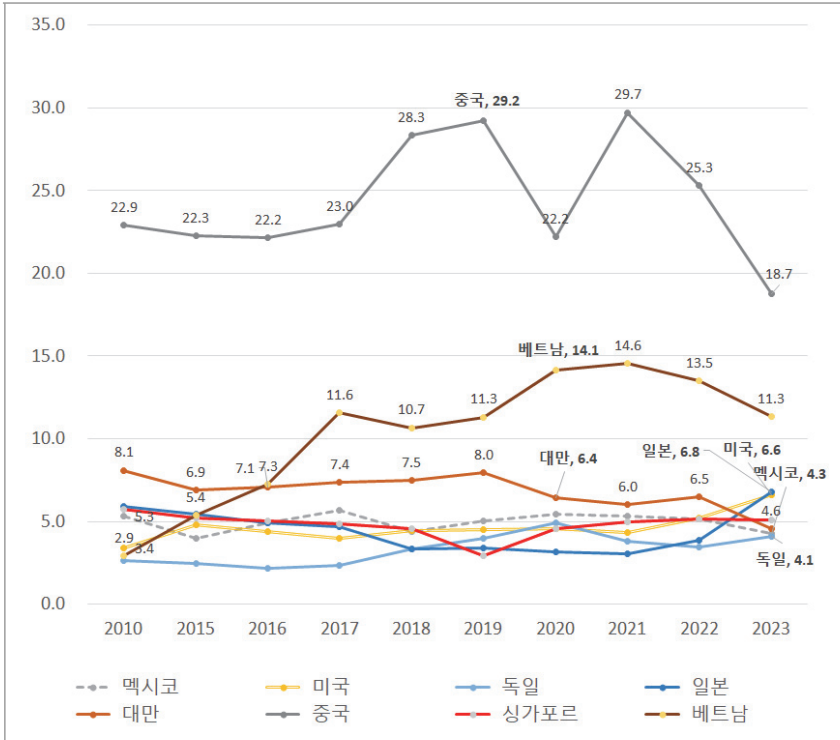
한국의 중간재는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간접수출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8]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2015년 37.2억 달러에서 2019년 70.9억 달러, 2021년에는 84.9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47.3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한편, 멕시코를 경유한 대미 수출은 동 기간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베트남을 통한 경유 간접수출이 2020년 이후 멕시코를 추월하며 그 비중에서 앞서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을 경유한 중간재 간접수출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1년 61.2억 달러에 도달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36.3억 달러로 하락하며 경유 순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대만을 통한 간접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싱가포르 경유 간접수출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외에

도 캐나다를 이용한 간접수출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5-18. 한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8]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간접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경유국 중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5-2]에 따르면,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의 중간재 중 약 70~80%가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이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베트남을 통한 한국의 중간재 간접수출 역시 두드러지는데,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이 20~3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과

표 5-2. 한국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48.3	39.6	44.2	45.0	41.2	42.7	43.0	44.7	41.8	38.7
캐나다	65.4	66.5	67.0	58.6	65.9	67.7	66.7	67.7	64.2	67.1
멕시코	72.5	74.3	74.0	70.6	72.0	70.2	71.0	72.4	73.4	79.7
미국	6.0	5.9	6.6	6.3	6.7	6.6	5.8	6.4	6.4	7.0
ER8	8.2	10.1	10.2	11.4	11.9	11.5	10.8	11.3	12.1	11.4
스페인	5.4	7.1	7.3	8.4	8.0	7.7	8.3	8.7	10.2	7.9
프랑스	7.6	9.0	9.1	12.5	13.3	12.6	12.1	15.2	14.1	11.5
영국	13.5	15.7	16.0	20.0	20.2	20.3	17.6	17.7	18.6	17.6
이탈리아	7.9	11.2	11.5	12.9	13.8	13.9	13.1	13.0	13.3	13.0
네덜란드	7.7	8.2	8.5	9.5	9.6	9.2	8.4	10.0	10.5	8.9
폴란드	3.9	5.1	5.3	7.7	7.8	7.8	7.8	8.1	8.5	7.4
벨기에	7.2	9.5	9.7	9.4	9.3	9.6	10.6	10.0	10.7	10.1
독일	9.4	11.7	11.8	11.7	12.5	11.8	11.5	11.7	12.7	13.1
BRICS3	11.6	12.2	12.7	16.2	14.9	15.1	15.3	14.4	16.4	15.9
브라질	13.2	17.2	17.0	21.5	23.1	21.3	17.2	20.3	21.7	18.2
러시아	8.2	7.0	6.9	7.8	9.1	9.1	10.0	9.3	7.2	5.8
인도	13.5	14.2	14.5	19.7	16.8	20.6	20.8	18.4	21.5	20.4
NEA3	19.3	19.7	20.6	25.1	21.7	23.3	21.8	23.3	22.7	22.2
일본	17.7	22.0	21.9	21.2	22.3	24.8	21.5	20.6	21.0	22.4
대만	16.0	15.1	15.0	17.3	18.3	19.6	21.6	22.4	23.2	25.1
중국	21.0	20.6	22.1	28.4	22.5	24.2	21.9	23.8	22.8	21.5
ASEAN6	15.6	16.7	17.1	17.5	17.6	23.6	24.8	28.0	26.9	22.9
인도네시아	26.9	26.0	26.8	23.4	25.9	31.4	32.4	27.7	24.2	17.1
말레이시아	14.0	16.0	16.2	16.5	15.7	21.6	22.7	19.4	17.3	18.8
태국	10.1	10.4	10.8	17.5	10.2	14.3	16.1	15.4	16.9	15.1
필리핀	21.1	19.1	19.7	20.3	19.8	23.6	21.8	20.8	19.0	21.8
싱가포르	12.1	11.8	13.3	11.3	14.1	15.6	14.1	14.8	16.3	17.9
베트남	21.7	21.1	19.7	19.6	20.0	26.6	29.6	35.4	34.1	27.3
합계	20.9	20.4	21.9	24.1	21.5	23.9	23.6	25.5	24.9	22.9
간접수출총액	20.0	18.7	19.3	22.0	20.4	22.2	22.0	23.8	23.2	20.4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2022년에는 60%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멕시코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약 30% 수준에 머물던 대미 간접수출 비중이 바이든 시기에는 약 50%까지 증가하였다. 즉 중국, 베트남, 멕시코를 통한 한국 중간재 간접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21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된 점이 주목된다.

대만을 통한 간접수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는 대미 간접수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일부를 경유한 중간재의 미국 최종 도달 비중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급증하여 2023년에는 17.8%에 도달하였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및 캐나다를 경유한 대미 재수출은 1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특히 바이든 시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을 주요 경유국으로 경유하여 중간재를 간접수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이들 경유국을 통한 간접수출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대만을 경유한 간접수출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멕시코의 활용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종 목적지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의 간접수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이 약 12%, 독일과 일본은 각각 약 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멕시코를 경유한 중간재 간접수출 중 50~80%가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고 있어, 이들 경유국이 대미 수출의 핵심 경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중간재 간접수출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국, 베트남, 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 경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 아래 형성된 전략적 경로로 해석될 수 있다.

## 다. 일본

[그림 5-19]는 일본의 중간재 간접수출이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등 다양한 경유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국가로 수출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을 중간재 간접수출의 주요 최종 목적지로 지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간접수출 비중은 2018년 19.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1.4%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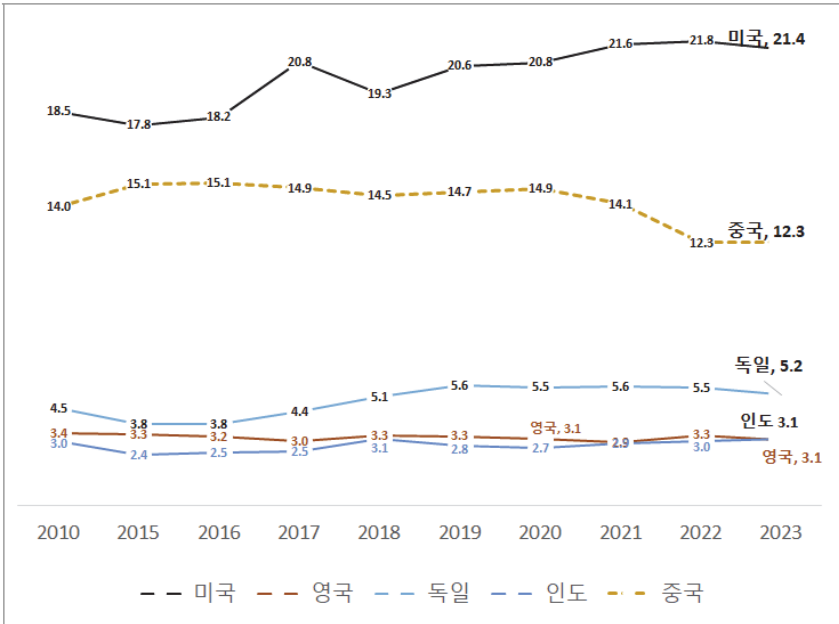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간접수출 비중은 분석 기간 내내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그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간접수출 최종 목적지로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세 번째 주요 최종 목적지는 독일로 확인되었다. 독일에 대한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5.2%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을 중간재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지역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 및 멕시코로의 간접수출 비중이 각각 2~3%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9. 일본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19]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유럽지역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비중은 시기별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외에 한국이 트럼프 집권기 동안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대만에 대한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 비중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일본 중간재의 주요 최종 목적지로 확인되었다. 반면 베트남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간접수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인도가 일본 중간재 간접수출의 주요 수요지로 부상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인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간접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본산 중간재가 제3국 경유를 통해 인도로 유입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인도가 일본과의 CEPA 협정 체결 시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여 제3국을 경유한 중간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인도 간접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이 간접수출의 경유지로 중국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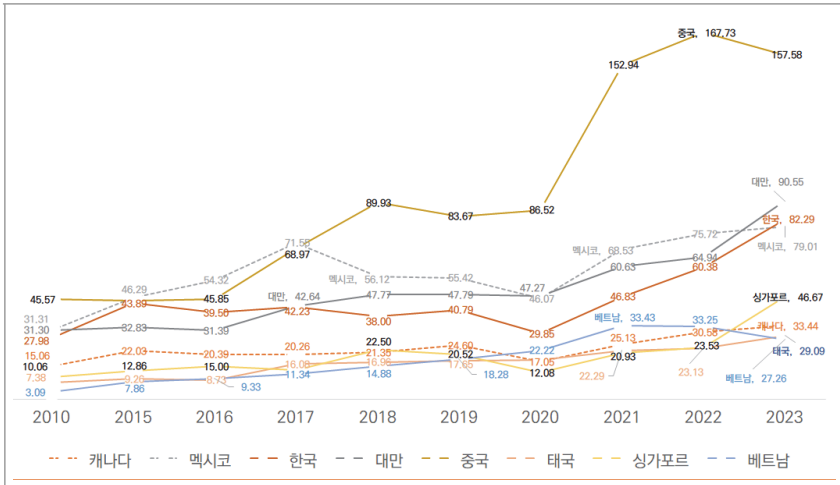
일본이 다양한 경유국을 통해 미국으로 중간재를 간접수출하는 양상을 [그림 5-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0]에 따르면, 중국을 통한 간접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 규모가 급증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다시 한 차례 도약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트럼프 집권기에는 이전 시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바이든 시기에는 다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167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경유국은 대만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간접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바이든 시기에는 최고치를 경신하여 2023년에는 90억 달러에 이르렀다. 멕시코를 통한 간접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으나, 바이든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을 경유하는 간접수출 규모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바이든 시기에 급성장하였으며, 전체 수출액이 약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주요 경유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간접수출 규모가 최근 들어 뚜렷하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5-20. 일본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0]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일본의 중간재가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최종 간접수출되는 비중은 [표 5-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수출된 일본산 중간재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두 국가를 경유한 대미국 수출 비중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지역에서는 영국을 경유한 미국행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는데, 그 비율은 전체의 20% 이내 수준이다. 영국 경유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프랑스의 경유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10.9%를 기록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통한 간접수출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후 최근 들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3. 일본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39.2	35.9	40.1	38.5	34.3	35.0	38.1	39.8	37.0	36.7
캐나다	66.8	69.6	70.1	65.2	71.0	71.8	70.7	70.7	68.9	71.2
멕시코	72.6	75.0	75.0	71.5	72.9	71.3	71.7	74.5	75.5	78.4
미국	6.2	6.2	6.9	6.6	6.9	6.8	5.8	6.5	6.6	7.2
ER8	9.1	10.8	10.8	11.7	12.8	11.8	11.1	11.4	11.9	11.9
스페인	4.7	7.1	7.3	8.4	7.4	7.0	7.4	8.0	9.3	7.5
프랑스	7.6	9.0	9.0	12.1	14.2	12.5	12.2	15.6	14.0	10.9
영국	14.1	16.3	16.3	20.7	20.3	20.3	17.6	17.8	18.4	16.9
이탈리아	8.1	11.5	11.7	12.9	13.5	13.5	13.2	12.5	12.8	13.6
네덜란드	7.1	7.8	8.0	9.3	9.5	8.7	8.0	9.9	9.5	8.4
폴란드	4.3	5.7	5.8	7.2	7.5	7.1	6.7	7.1	8.0	7.5
벨기에	7.0	8.1	8.1	8.3	8.0	8.1	8.3	8.7	9.2	9.7
독일	9.5	12.2	12.2	11.7	12.5	11.3	11.5	11.3	12.2	13.3
BRICS3	11.5	12.3	12.8	16.4	14.9	15.4	16.0	15.8	18.7	19.1
브라질	11.9	17.5	17.1	22.4	25.0	22.0	18.1	23.8	24.7	19.8
러시아	8.1	6.8	6.7	7.7	8.6	8.3	9.0	8.2	6.6	5.3
인도	13.1	13.2	13.6	18.3	16.7	20.3	20.8	18.5	21.6	20.9
NEA3	17.7	17.8	18.4	21.6	21.0	22.5	21.9	23.4	23.3	23.9
한국	15.1	16.4	16.7	17.3	18.8	20.8	21.6	21.0	22.0	24.3
대만	16.3	16.2	16.0	18.6	19.7	21.0	21.8	23.6	24.7	27.1
중국	21.4	21.1	22.6	28.8	23.0	24.5	22.1	24.1	23.2	22.2
ASEAN6	13.2	14.0	14.8	16.5	15.2	19.4	20.5	20.7	21.1	20.6
인도네시아	15.2	16.7	18.5	16.0	17.5	21.3	23.0	19.5	18.8	14.6
말레이시아	14.2	16.9	17.2	17.5	17.7	23.7	22.6	19.8	17.8	21.6
태국	10.8	10.7	11.1	17.5	10.4	14.7	16.6	16.0	16.9	15.5
필리핀	23.3	21.0	21.8	22.2	20.9	24.5	22.7	21.6	19.2	24.9
싱가포르	11.9	12.3	14.6	11.9	15.5	16.2	15.0	15.9	18.2	21.6
베트남	18.0	18.9	16.6	22.9	20.9	27.5	29.7	34.8	33.9	28.1
합계	17.9	18.5	19.8	21.7	19.9	21.6	21.7	22.7	22.7	22.7
간접수출총액	18.5	17.8	18.2	20.8	19.3	20.6	20.8	21.6	21.8	21.4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BRICS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과 인도를 경유한 간접수출 비중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한때 미국행 간접수출 비중이 25%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19.8%로 감소하였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18~20% 수준으로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일시적인 비중 증가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중국을 경유한 일본의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며 2023년에는 22%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과 대만을 경유한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이들 두 국가를 경유한 일본의 중간재 중 약 25%가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을 통한 미국행 간접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경유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급격히 확대되어 2016년 16.6%에서 2022년 34.8%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28.1%로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경유 비중이 증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일관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아세안 국가를 경유한 일본 중간재의 대미 간접수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라. 대만

[그림 5-21]은 대만의 중간재 간접수출이 최종 목적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대만은 제3국 경유 간접수출에서 중국을 가장 빈번하게 경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간접수출의 약 1/4이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대만의 미국행 간접수출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반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간접수출은 트럼프 집권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며 감소 추세가 확고해졌다.

미국과 중국 외에 독일, 일본, 인도가 주요 최종 목적지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독일에 대한 최종 간접수출 비중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계속 증가하였다. 일본에 대한 간접수출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 외 영국, 인도, 한국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지만 주요 최종 목적지로서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최종 목적지 비중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멕시코와 캐나다가 잇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비중은 2018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2021년부터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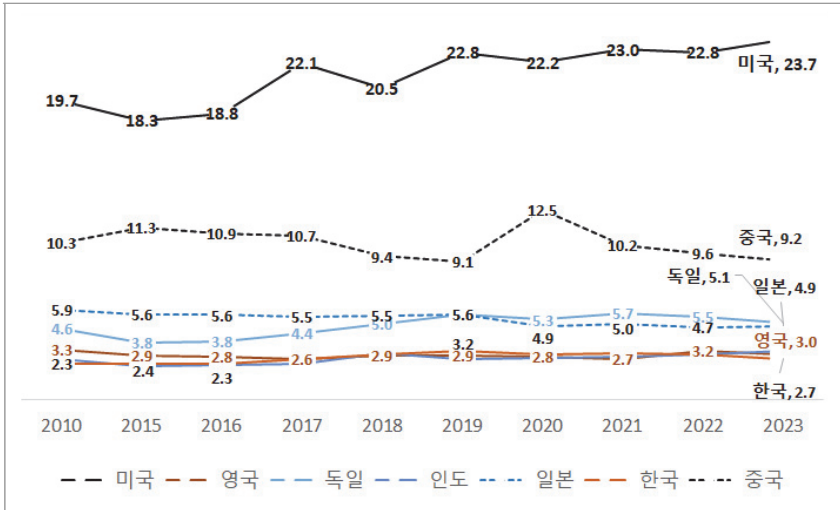
유럽지역에서는 독일이 최종 목적지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주요 최종 수출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최종

수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5-21. 대만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1]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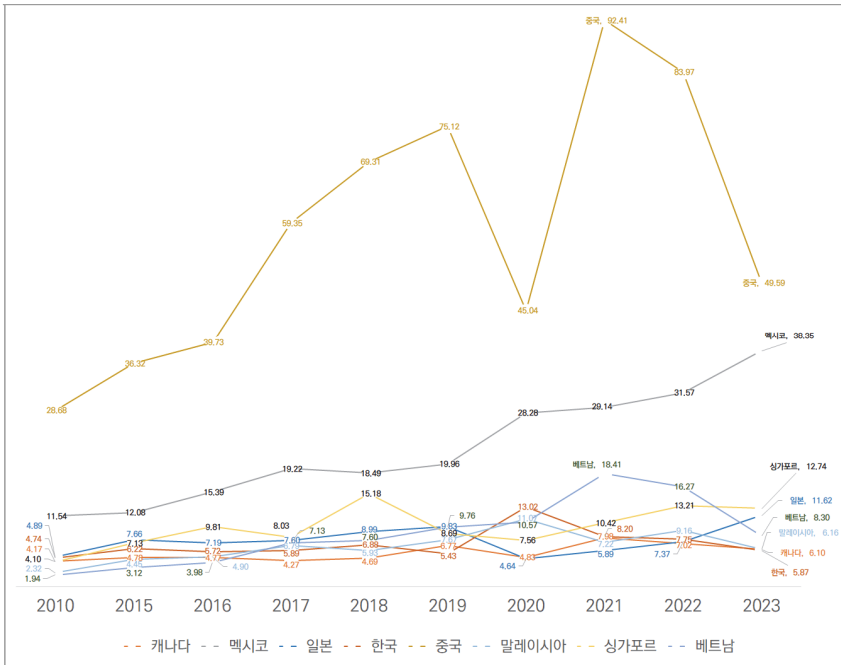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요한 대만의 중간재 간접수출의 최종 목적지로 나타났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증가세를 보이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최종 목적지로서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태국은 2022년을 기점으로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대만이 각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간접수출한 중간재의 규모는 총 164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유국은 중국으로, 같은 해 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을 경유한 대만의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92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23년에는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5-22. 대만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2]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다음으로 대만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국은 멕시코로, 2023년 기준 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각각 한 차례씩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베트남을 경유한 수출 역시 한동안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 들어 중국과 유사하게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 외에 싱가포르와 일본을 경유한 미국행 수출은 각각 11억~12억

달리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는 대만의 중간재가 각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비중을, 경유국별 총수출액 대비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는 캐나다 경유 수출의 약 60%, 멕시코 경유 수출의 약 70% 초반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두 국가에서는 집권 시기별로 비중 변화가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전체 재수출의 미국 유입 비중이 12%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현재는 11%대에 머물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영국 경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11~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RICS 국가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중이 상승한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인도를 경유한 수출의 미국 유입 비중은 20%에 달하며, 브라질은 1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를 경유한 미국행 수출은 최근 들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을 통한 경유 수출이 중심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증가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비중이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내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대만 중간재의 미국행 간접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싱가포르와 태국도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은 편이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국행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4. 대만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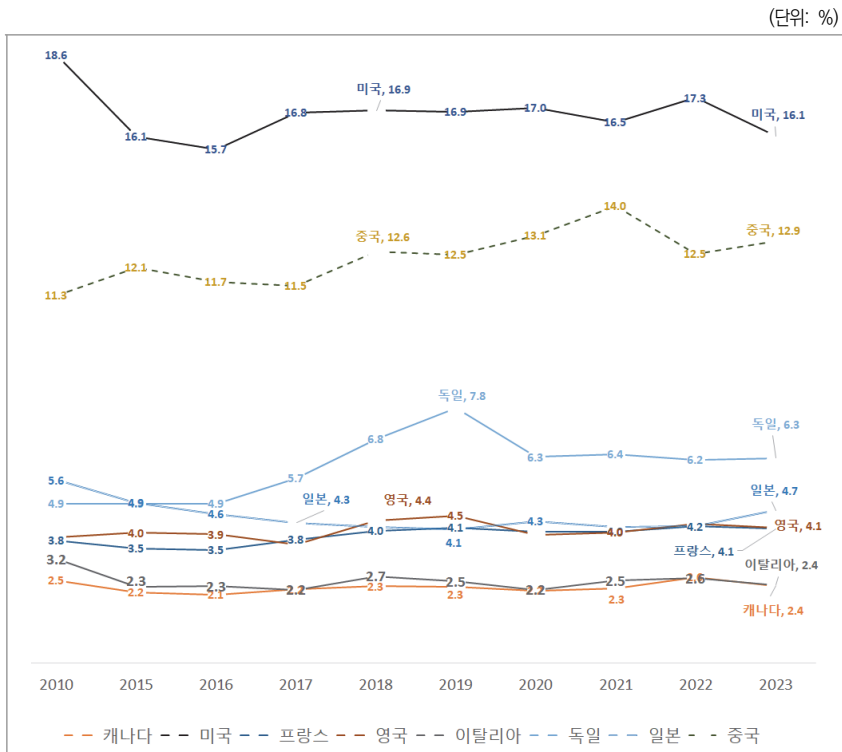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45.4	39.8	44.1	44.0	39.6	42.0	45.1	40.2	40.8	48.5
캐나다	63.2	64.7	65.1	57.8	65.3	67.2	66.6	67.3	63.9	67.7
멕시코	72.4	74.1	73.8	70.4	71.7	69.4	70.9	71.6	72.6	82.4
미국	6.1	6.0	6.7	6.3	6.7	6.6	5.8	6.5	6.5	7.0
ER8	8.5	10.6	10.6	11.7	12.2	11.4	10.8	11.5	12.2	11.4
스페인	5.6	7.2	7.4	8.5	8.0	7.5	7.5	7.9	9.4	7.8
프랑스	7.3	8.7	8.7	12.0	13.8	12.3	11.9	15.3	13.8	11.0
영국	13.4	15.5	15.5	19.8	19.3	19.5	17.0	17.6	18.3	17.3
이탈리아	7.8	11.6	11.7	13.1	13.1	12.9	12.6	12.2	12.6	13.3
네덜란드	6.4	7.6	7.9	8.8	9.2	8.3	7.5	9.5	9.7	8.5
폴란드	4.0	5.3	5.4	7.7	7.8	7.7	7.8	8.0	9.0	8.0
벨기에	7.0	8.6	8.7	8.9	8.1	8.5	8.3	9.6	10.2	9.6
독일	9.4	11.7	11.7	11.5	12.5	11.5	11.3	11.4	12.6	13.1
BRICS3	13.7	16.2	16.4	20.9	17.1	18.2	18.0	17.7	19.9	18.5
브라질	14.0	17.0	17.4	22.4	20.6	20.1	17.1	18.5	19.9	17.6
러시아	8.2	7.9	7.7	8.3	9.8	10.3	10.4	9.9	7.6	5.9
인도	15.1	16.9	16.7	21.8	18.4	21.6	21.1	20.0	22.5	20.9
NEA3	19.6	19.6	20.7	25.5	21.7	23.4	21.3	23.2	22.4	21.9
일본	17.5	20.4	19.7	20.2	22.0	24.1	20.8	20.3	20.3	22.5
한국	15.8	15.3	15.6	15.7	17.0	19.3	20.8	20.1	20.8	24.3
중국	20.9	20.4	22.0	28.1	22.3	23.7	21.5	23.7	22.8	21.5
ASEAN6	14.4	14.5	15.5	16.3	16.6	20.9	21.3	22.3	21.8	21.1
인도네시아	22.6	20.7	21.7	18.6	23.1	27.2	24.1	21.7	22.6	17.5
말레이시아	13.9	17.1	17.6	19.0	18.2	25.0	23.0	19.5	18.5	23.6
태국	10.3	9.9	10.1	15.0	10.6	14.7	16.4	16.0	17.4	15.4
필리핀	21.5	19.3	20.0	20.5	19.8	23.0	21.2	20.3	18.1	23.1
싱가포르	12.0	12.0	14.2	11.5	14.8	15.6	15.1	15.7	17.7	19.4
베트남	19.8	18.6	17.0	22.9	23.7	27.9	29.3	34.1	33.4	27.3
합계	19.8	19.3	20.6	23.4	21.0	23.6	23.0	23.9	23.5	24.7
간접수출총액	19.7	18.3	18.8	22.1	20.5	22.8	22.2	23.0	22.8	23.7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마. 인도

[그림 5-23]은 인도의 간접수출 중 제3국을 경유한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를 추이를 보여준다. 앞 절의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도는 미국, 영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를 경유지로 이용하여 제3국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동한 인도산 중간재는 대부분 미국과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지로 최종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3. 인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3]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특히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이후,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간접수출 비중은 2018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2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및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독일에 대한 간접수출 비중은 201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9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에는 약 6%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안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영국에 대한 간접수출 비중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이러한 간접수출의 지역별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미국 외에도 캐나다가 중요한 최종 목적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중간재는 멕시코로도 수출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주요한 최종 목적지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유의미한 목적지로 부상하였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로의 간접수출 비중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브라질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외에도 일본에 대한 간접수출 비중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초기 시기에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으며, 한국은 약 2%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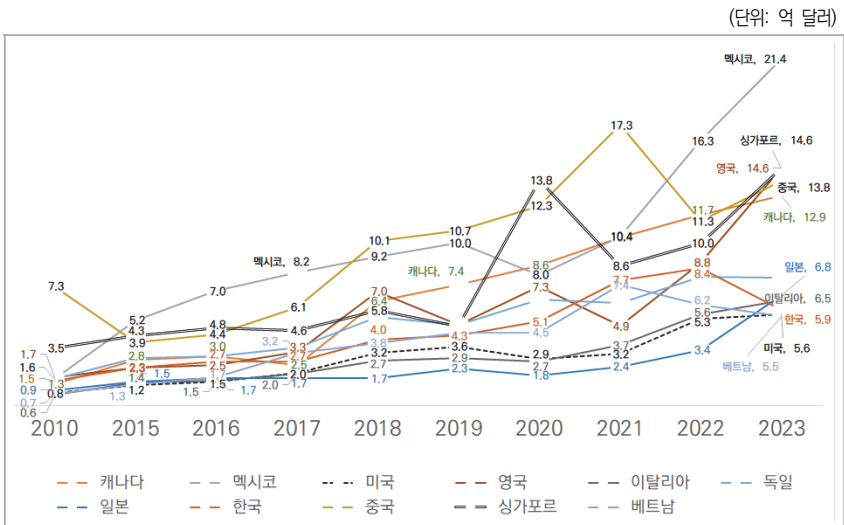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간접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태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중간재가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간접수출되는 추이는 [그림 5-2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유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대미 간접수출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중국을

경유한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멕시코가 급속하게 부상하면서, 2023년에는 21.4억 달러로 인도의 최대 대미 간접수출 경유국이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4.6억 달러를 기록하며 2위로 부상하였고, 캐나다도 트럼프 집권기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같은 해 12.9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역시 인도의 대미 간접수출 경로로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24. 인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4]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표 5-5]는 인도의 중간재가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비중을, 각국의 총경유 간접수출액 대비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멕시코를 경유한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비중이 70% 증반대로 상승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시기별 큰 변화 없이, 대체로 6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경유한 대미 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평균적으로는 약 12% 수준이 미국으로 간접수출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영국이 18~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잇고 있다. 그 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미 재수출 비중은 대부분 10% 이내에 그친다.

브릭스 국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이후 대미 간접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통한 경유 간접수출 비중이 높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국과 대만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속도 측면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더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대부분 국가에서 대미 간접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후 비중이 크게 하락하며, 대미 간접수출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태국은 절대적인 비중은 작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태국은 2023년에 하락세로 전환된 점에서 싱가포르와 차이를 보인다.

표 5-5. 인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9.8	26.8	29.5	23.9	24.0	24.3	24.3	28.3	25.2	28.8
캐나다	65.0	65.7	66.2	56.6	63.2	67.1	65.0	66.0	64.1	65.7
멕시코	70.6	72.9	73.1	68.3	70.4	70.5	69.7	74.3	74.5	78.9
미국	5.3	5.4	5.9	5.4	5.9	5.9	5.2	5.7	5.8	6.1
ER8	9.4	10.8	11.0	12.0	12.5	12.0	12.1	11.8	12.7	12.4
스페인	6.0	7.3	7.8	8.6	8.4	8.2	8.4	8.8	9.9	8.0
프랑스	8.3	9.4	9.7	12.5	12.8	12.8	12.5	14.8	14.0	11.9
영국	14.6	16.4	16.7	21.1	19.7	20.7	18.2	18.0	19.5	18.8
이탈리아	8.2	11.4	11.6	13.2	13.8	13.9	13.3	13.0	13.2	12.6
네덜란드	7.8	8.1	8.5	9.0	9.6	9.8	8.8	9.6	10.0	8.9
폴란드	4.4	5.3	5.5	6.5	6.5	6.4	6.1	6.5	7.1	6.7
벨기에	8.5	9.3	9.7	9.1	8.6	9.7	9.3	9.9	10.4	9.1
독일	9.2	11.7	11.9	11.5	11.7	11.5	11.2	11.2	12.1	12.7
BRICS2	13.0	15.0	16.2	20.6	14.5	14.6	14.1	14.7	16.9	14.5
브라질	14.0	17.3	18.0	23.7	18.1	19.5	16.5	17.5	20.1	16.4
러시아	8.5	7.5	7.2	7.7	9.7	9.3	10.0	9.5	7.6	6.1
NEA4	17.7	18.2	18.6	21.4	20.3	22.4	20.5	21.6	20.8	21.2
일본	16.5	21.4	21.1	20.1	20.9	24.0	21.2	20.5	21.1	22.2
한국	14.2	15.6	15.8	16.4	18.4	20.2	20.5	19.7	20.2	21.0
대만	14.9	16.3	16.1	17.4	19.1	20.2	19.4	22.7	21.9	23.4
중국	19.4	19.9	21.3	27.6	21.6	23.8	20.6	22.6	20.8	20.2
ASEAN6	12.2	13.0	14.3	14.3	16.0	18.9	17.7	19.3	19.1	18.9
인도네시아	15.9	17.5	18.9	16.1	23.5	26.8	26.8	20.7	19.9	14.3
말레이시아	13.3	14.7	15.1	14.3	14.5	18.0	20.5	18.7	16.3	16.2
태국	11.4	10.6	10.6	13.9	10.8	13.2	14.5	14.3	15.8	15.0
필리핀	17.9	16.1	16.5	18.7	17.2	22.6	20.7	21.6	21.4	20.3
싱가포르	10.8	11.2	13.3	10.8	13.8	15.5	14.9	15.1	16.7	18.9
베트남	17.7	17.7	16.3	24.6	25.3	27.9	28.5	31.6	30.7	26.4
합계	13.6	15.1	16.1	16.4	16.7	17.4	17.0	18.1	17.9	18.1
간접수출총액	18.6	16.1	15.7	16.8	16.9	16.9	17.0	16.5	17.3	16.1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바. 베트남

베트남은 중간재의 간접수출 과정에서 주로 중국을 경유지로 활용해 왔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주요 경유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아세안 내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최근 인도를 경유지로 삼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앞선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로를 거친 베트남의 중간재는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간접수출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5]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중간재의 미국 최종 간접수출 비중은 15.7%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18.9%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의 간접수출 비중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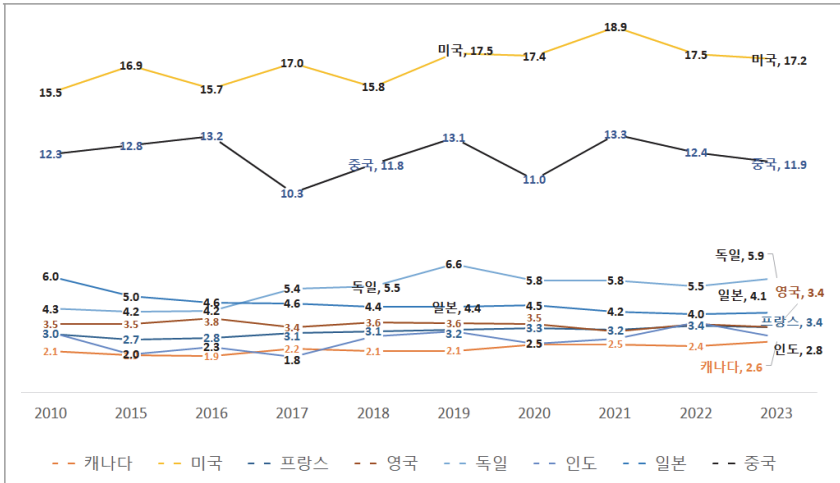
반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간접수출 비중은 2017년에 급락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소폭 반등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는 다시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 베트남의 중간재 최종 수출구조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베트남 중간재의 최종 수출목적지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2018년부터 꾸준히 비중이 상승하며 새로운 주요 목적지로 부상하였다. 2018년 5% 수준이던 비중은 2019년에 6.6%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후 일시적 하락세를 거친 후 2023년에는 다시 5.9%로 회복되었다.

그다음의 주요 최종 수출지로는 일본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프랑스와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요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5-25.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5]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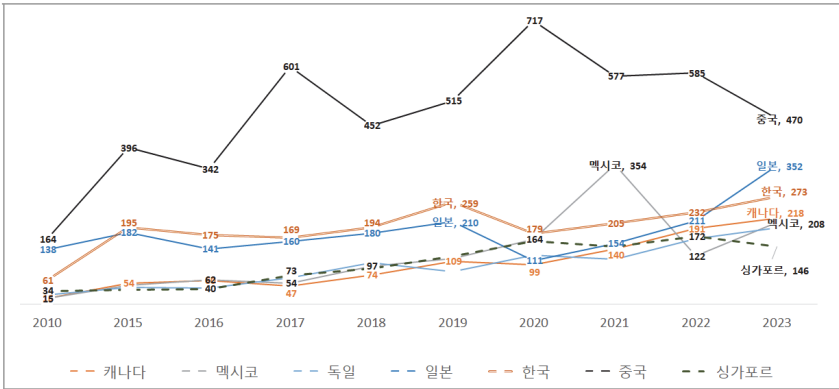
베트남의 중간재가 경유국을 거쳐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흐름은 [그림 5-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6]에 따르면, 중국은 베트남 중간재의 대미 수출 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규모가 증가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을 경유한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3.5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경유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수출 규모가 증가한 후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2.7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 번째 경유국이 되었다.

이 외에도 캐나다와 독일을 경유한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멕시코를 경유한 대미 수출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1년에 3.5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6. 베트남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6]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표 5-6]은 베트남 중간재가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비중을 경유국별로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를 경유한 수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며 70%대의 높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를 경유한 대미 수출 비중은 트럼프 집권기에 오히려 상승하여, 2023년에는 베트남의 대캐나다 수출 중 68.6%가 미국으로 최종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를 경유한 베트남 중간재의 대미 수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11% 수준이다. 이 중 영국을 통한 간접수출의 비중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경유한 간접수출은 각각 12~1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4% 수준의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과 인도가 각각 약 20%의 비중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두 국가를 경유하는 간접수출의 대미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러시아에 대한 비중은 바이든 행

표 5-6. 베트남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1.8	35.0	38.0	18.3	23.2	26.7	26.9	37.2	27.3	27.7
캐나다	60.3	62.8	63.6	55.5	63.5	66.2	65.9	65.0	62.5	68.6
멕시코	75.4	77.2	77.0	69.8	70.8	69.5	70.6	72.1	73.4	79.6
미국	4.3	5.0	5.4	7.3	6.0	6.1	5.3	6.4	6.5	7.5
ER8	7.6	9.0	8.9	10.9	10.5	11.4	10.6	11.1	12.0	11.5
스페인	4.9	6.5	6.7	7.9	7.4	7.8	8.4	8.5	9.2	7.7
프랑스	7.9	9.2	9.3	13.2	11.8	13.2	11.9	14.5	13.0	11.8
영국	12.9	15.4	15.5	20.2	16.5	18.5	16.6	17.5	17.7	17.2
이탈리아	8.6	11.4	11.7	13.3	12.4	13.2	13.4	12.6	12.6	12.3
네덜란드	5.7	6.5	6.6	8.2	8.2	8.1	6.9	8.0	8.7	8.0
폴란드	3.8	4.4	4.5	7.2	7.5	7.6	7.1	8.3	7.9	7.2
벨기에	6.1	6.3	6.3	7.4	6.4	6.9	6.4	7.8	7.6	7.5
독일	8.0	10.6	10.6	10.4	11.0	10.8	10.7	11.0	12.9	13.0
BRICS3	14.5	16.9	16.7	16.4	15.5	17.9	18.3	16.7	19.8	18.1
브라질	9.2	16.8	15.9	20.0	24.0	21.3	21.0	22.3	21.5	20.2
러시아	8.0	7.3	6.5	7.4	9.3	9.6	10.6	9.8	7.6	5.3
인도	17.1	18.3	18.0	20.9	17.0	21.3	20.8	17.2	21.9	21.2
NEA4	17.4	18.7	19.5	23.0	20.3	22.0	20.5	21.1	20.5	21.8
일본	15.9	19.0	19.6	20.0	20.5	23.0	20.3	19.2	19.8	22.2
한국	14.5	15.5	15.9	15.8	17.0	18.8	20.0	19.1	19.4	23.5
대만	16.4	15.4	16.2	17.5	18.5	20.1	18.1	22.9	22.2	23.7
중국	20.8	21.2	22.7	28.2	22.3	23.8	20.9	22.4	20.9	20.4
ASEAN5	12.6	15.2	14.9	13.8	14.6	17.6	17.4	17.2	17.7	17.3
인도네시아	12.5	17.3	18.5	23.2	20.4	23.3	24.8	23.5	23.8	16.7
말레이시아	12.7	16.9	16.5	15.8	14.8	17.5	19.2	17.8	15.7	16.4
태국	9.8	9.1	8.5	11.3	11.4	16.1	17.2	16.3	17.0	14.7
필리핀	21.1	18.1	17.1	20.0	18.7	23.0	20.3	20.8	20.4	22.7
싱가포르	11.8	11.3	13.0	10.3	13.8	16.1	15.5	15.2	16.9	17.8
합계	14.3	16.9	17.5	17.6	16.5	18.7	18.1	19.8	18.5	18.8
간접수출총액	15.5	16.9	15.7	17.0	15.8	17.5	17.4	18.9	17.5	17.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정부 시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경유한 베트남 중간재의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20.4%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대만을 경유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3.7%로 상승하며 중국을 앞질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트럼프 집권기 이후 비중이 증가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U자형 경로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국가 대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대미 경유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때 아세안 내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비중이 급락하여 16.7%에 머무르게 되었다. 반면 필리핀은 W자형 추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한 끝에 2023년 기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기타 아세안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으로 대체로 16% 수준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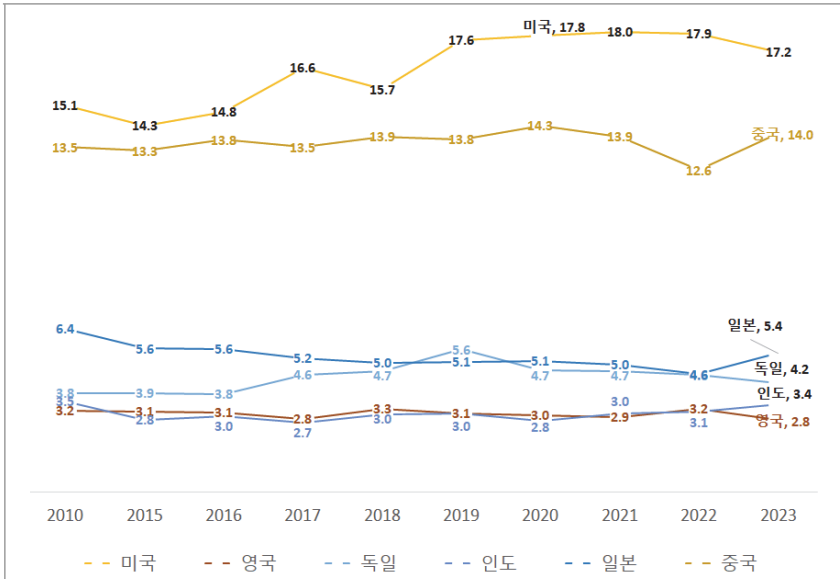
## 사. 인도네시아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간재 간접수출의 주요 경유지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등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유를 거친 인도네시아산 중간재는 주로 미국과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수출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14%로 일부 회복되었다.

그림 5-27.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7]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 외에도 일본, 독일, 인도, 한국 등이 인도네시아 중간재의 주요 최종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관련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독일과 인도에 대한 비중은 각각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비중은 한동안 감소하다가, 2021년 이후에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인도네시아의 중간재가 다양한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0년 65억 달러에서 2015년 64.8억 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2023년에는 116억 달러로 약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국가별 경유 수출 추이는 [그림 5-28]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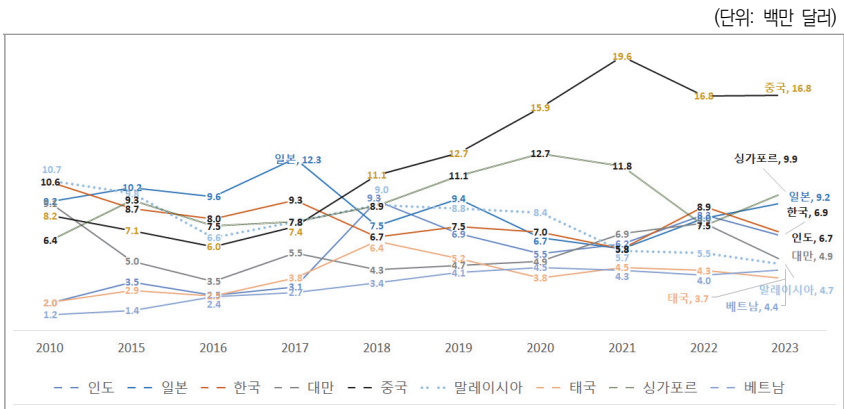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중간재의 미국행 수출 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을 경유한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17년 8.9억 달러에서 2020년 12.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4.2억 달러로 급증

하였다.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23년에도 여전히 23.2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중요한 경유지로 부상하였다. 반면, 일본을 경유한 수출은 트럼프 집권기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반등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경유국이 되었다. 한국과 인도에 대한 비중은 분석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다가, 2022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 외 베트남, 대만,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도 인도네시아 중간재의 미국행 수출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수출 규모가 증가한 이후, 2023년에는 다소 하락세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28. 인도네시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액



주: 지역 및 국가별 상세 자료는 [부록 표 5-28] 참고할 것.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이러한 수출 규모의 변화는 인도네시아 중간재가 각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비중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5-7기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간재가 북미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매우 높다. 동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캐나다는 60%대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2018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를 경유할 경우, 전체적으로 미국행 수출 비중은 약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중 영국은 16~19%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트럼프 집권기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이탈리아는 이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한 반면, 프랑스는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W자형의 변동성을 보였다. 독일과 스페인은 초기 하락세를 보인 후 최근에는 다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비중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간접수출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특징이다.

브릭스 국가의 경우, 인도와 브라질을 통한 대미 수출 비중은 모두 17~2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브라질은 상승세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소폭 상승한 이후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유국들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대미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21년부터 그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대미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며 예외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7. 인도네시아의 각국 경유 간접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

(단위: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6.5	29.6	33.6	31.8	21.2	23.4	25.6	23.1	24.3	34.1
캐나다	61.6	65.3	66.5	53.0	60.2	64.6	63.8	65.7	64.0	65.6
멕시코	71.7	74.6	74.7	71.4	70.1	69.7	69.7	73.6	74.1	80.4
미국	4.9	4.9	5.7	5.2	5.1	4.9	4.7	4.7	4.8	5.6
ER8	7.5	8.2	9.0	9.9	10.2	10.2	9.9	10.2	10.9	9.7
스페인	8.7	7.2	8.1	8.6	7.8	7.8	8.0	8.5	10.6	8.2
프랑스	7.7	8.9	9.1	12.5	12.9	12.5	12.2	14.7	13.8	11.6
영국	13.4	15.1	15.5	19.4	17.5	18.4	16.1	16.3	17.5	17.2
이탈리아	8.5	10.6	11.1	13.7	13.2	13.5	13.4	13.0	13.0	12.6
네덜란드	5.9	6.3	7.2	8.0	8.4	8.6	8.2	8.9	9.6	7.3
폴란드	3.8	4.7	5.0	6.9	6.9	6.4	6.0	6.1	6.5	5.7
벨기에	6.6	6.8	7.3	7.6	7.1	7.3	6.8	6.4	6.6	7.0
독일	8.1	10.2	11.0	10.4	10.8	10.4	10.4	10.1	11.1	11.6
BRICS3	12.5	13.5	13.4	19.2	15.1	17.7	17.9	16.3	19.3	17.3
브라질	10.6	10.3	11.9	19.7	15.8	16.3	13.4	14.6	14.6	13.7
러시아	7.2	6.5	7.2	6.9	8.5	7.9	8.9	8.5	7.7	4.5
인도	13.1	14.4	13.8	19.5	15.4	18.7	19.5	17.4	20.1	18.0
NEA4	16.0	17.8	18.4	19.4	20.1	21.5	20.0	21.7	19.8	19.7
일본	16.8	21.4	21.4	19.9	19.6	22.2	20.0	20.0	20.2	20.3
한국	14.8	14.5	14.8	15.5	19.0	19.3	19.6	18.9	18.1	17.5
대만	13.9	14.6	15.2	16.6	19.3	20.0	20.0	24.1	19.5	19.6
중국	19.0	19.0	20.3	25.6	21.3	23.0	20.1	22.1	20.7	20.3
ASEAN5	11.9	11.5	12.9	13.5	13.5	16.8	18.0	17.6	18.0	17.9
말레이시아	11.9	11.9	13.4	12.8	13.1	15.8	19.0	16.2	14.5	14.1
태국	10.7	9.8	9.6	12.0	8.3	12.1	14.4	12.9	14.2	13.5
필리핀	19.2	16.6	17.7	19.5	14.8	19.5	18.3	18.7	18.1	17.4
싱가포르	10.5	10.3	12.2	11.2	14.3	16.3	15.4	15.5	17.4	18.4
베트남	18.3	17.5	15.6	21.6	21.5	25.3	26.0	29.5	28.3	24.7
합계	14.1	14.5	15.9	16.7	15.9	18.1	18.1	18.6	18.4	18.4
간접수출총액	15.1	14.3	14.8	16.6	15.7	17.6	17.8	18.0	17.9	17.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3. 국가별 및 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

#### 가. 연구 방법

본 절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한 우회수출(re-routing)의 규모를 국가별·산업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우회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추정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제품의 흐름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yoha et al.*(2024)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흐름을 분석한다.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수출(Re-routing) 경로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① 기존 현지 내국기업을 통한 경우, ② 외국인 소유의 기존 현지기업 이용, ③ 신규 설립된 내국기업을 통한 재수출, ④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경우 등이다.

둘째는 부가가치(Value-added) 창출형 간접수출 경로로, 이 역시 위와 동일한 네 가지 유형의 기업(기존 내국기업, 기존 외국기업, 신규 내국기업, 신규 외국기업)을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이 두 경로의 핵심적인 차이는 경제적 이득의 귀속 범위에 있다. 첫 번째 형태인 우회수출은 단순히 관세를 회피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수출이 제3국의 실질적 생산활동과는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져 수출에 따른 이득이 제3국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경우 제품은 실제 생산활동 없이 단순히 라벨 재부착이나 물류상 재포장을 통해 최종 목적지(미국)로 이동하며, 중간재나 부품의 추가 투입 없이 이루어진다.

반면 두 번째 형태는 실제로 중간재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을 수반하며, 이로 인한 이득이 해당 경유국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우회수출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공급된 중간재가 경유국의 생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단순한 관세 회피를 넘어 부가가치형 간접수출(앞 장의 중간재 간접수출)로 간주된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 간 구분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식별되기 어렵고, 거래 주체 간의 비대칭 정보로 인해 실측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yoha *et al.*(2024)이 제시한 추계 방식을 적용하여 우회수출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 방법론은 우회수출 규모를 과대추정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제품(HS 6단위 기준)이 중국에서 특정 제3국으로 수출되고, 동일한 제품이 해당 제3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정도를 기반으로 우회수출 가능성을 추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 제품을 기준으로 이러한 흐름을 다음과 같이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L_{pct} = \frac{\min(X_{pt}^{US}, M_{pct})}{X_{pt}^{US}}$$

여기에서  $p$ 는 HS6 단위 제품이며,  $t$ 는 시간,  $c$ 는 수입대상국,  $X_{pt}^{US}$ 는 수출대상국(가령, 베트남)의 대미 수출,  $M_{pct}$ 는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L_{pct}$ 는  $t$ 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량과 대미 수출량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 제품의 우회 수출 정도를 해당 국가의 대미 총수출의 비중으로 추계하여 일반화(normalize)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추정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우회수출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수반한다. 우선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흐름

에는 단순한 관세 회피 목적의 거래뿐 아니라, HS 6단위 내에서의 합법적인 가공 및 생산 공정을 수반하는 공급망 활동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상품분류가 HS 6단위인 점을 고려할 때 제3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일부가 우회수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따른 우회수출(re-routing) 규모는 실제보다 과대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 제3국에서 일정 수준의 가공을 거친 후 수출되는 경우와, 단순히 라벨 변경 혹은 포장만을 수반하여 수출되는 경우를 통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경유국 내에서 해당 제품이 실제로 국내 소비되었는지, 아니면 다시 해외로 반출되었는지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통계적 비식별성은 특히 본 연구가 HS 8단위 또는 HS 10단위와 같이 최종수출 분류단위가 아닌 HS 6단위에서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HS 6단위 분류는 제품군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품 세부 차이를 구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우회수출 추정치가 과대 계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인지한 가운데, 분석 범위를 중국산 제품이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흐름에 한정하여 추정을 수행한다. 예컨대 중국-한국-미국으로 이어지는 공급 경로를 중심으로, 동일 HS 6단위 제품의 흐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유국에서 발생하는 우회수출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 기간은 미중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시기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기로 구분하였다.

1기(2015~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전쟁 이전의 안정기

2기(2018~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고관세정책 본격화 시기

3기(2021~24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조정기

분석 통계자료는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TradeMap(<https://www.trademap.org/>)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산업 분류는 김박수 외(2005)의 산업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총 11개 산업군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산업별로 우회수출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한다.

표 5-8. 산업분류표

산업	농업	식료품	광물	섬유/의류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HS 코드	1~14	15~24	25~27	50~63	28~49	72, 73
산업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일반기계	전자	기타
HS 코드	74~83	8701~8708	86, 8709~8715, 88, 89	84 (8415, 8418, 8471, 8373 제외)	85 (8415, 8418, 8471, 8373 포함)	그 외

자료: 김박수 외(2005), p. 41.

## 나. 우회수출 연계성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식을 이용하여 국가별 및 산업별 우회수출 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본 추정 방식은 과대 추정의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HS 6단위 제품이 중국에서 예컨대 한국으로 수출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는 한국 내에서 단순한 가공절차(예: 라벨 재부착, 포장 변경 등)를 거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가공 및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추정 식은 이 두 가지 경우를 통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수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보다는, 경유국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 활동 또는 가공을 포함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연계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그림 5-29]는 중국산 HS 6단위 제품이 분석 대상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대만과 한국은 동일한 품목 내에서 대미수출의 30~40%가 우회수출로 추정됨에 따라, 두 나라가 중국의 제품들을 미국으로 우회하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두 나라가 중국산 중간재의 재가공 및 재수출 경유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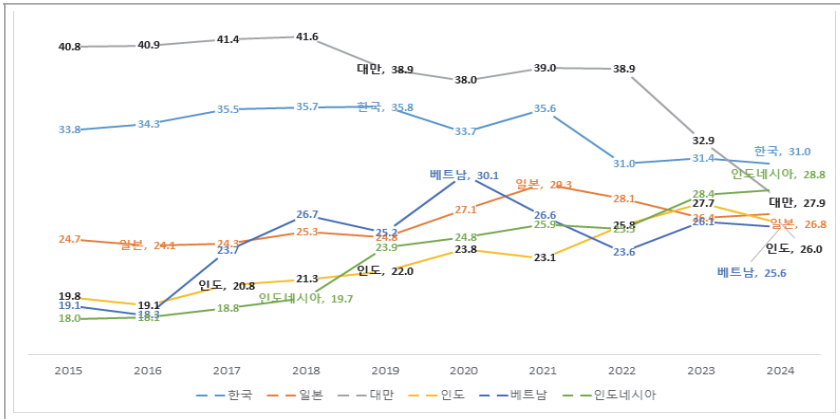
그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일본이 중간 수준의 우회수출 비중을 보였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제1기(2015~17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초기에는 경유국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음을 나타낸다.

2기에 들어서면서 대만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비중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 추세는 3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2기(2018~20년)에 비중이 급증하였으나, 3기(2021~24년)에는 다시 크게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일본은 2기부터 점진적 증가를 보이다가 3기에는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2기와 3기 모두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인도는 2024년에 이르러 비중이 감소하며 인도네시아와 상이한 궤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우회수출 비중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추정치에 일정 수준의 과대 추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분석이 HS 6단위에서 이루어진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HS 6단위로 분류된다는 점은 단순 통관 및 경유 수출과 실질적 가공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여 지표를 상향 왜곡할 수 있다.

그림 5-29. 중국의 주요국 우회 대미 수출 연계성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ITC 자료 기반 저자 추계.

둘째, 동일한 HS 6단위 범주 내에서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해당 수출이 실질적 가공이 아닌 상대적으로 단순한 가공 처리 절차(예: 라벨 변경, 포장 등)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에서 HS2 또는 HS 4단위의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HS 6단위 제품이 고비중으로 미국으로 수입된다는 점은 원산지 규정을 우회하거나 최소한의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재수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우회수출 구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기술력이 높은 한국과 대만을 경유국으로 가장 빈번히 이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일본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유를 넘어 일정 수준의 품질 보완, 라벨 정비, 재포장 등의 역할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넷째, 시기별 추이의 이질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한국과 대만을 통한 우회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더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반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

은 신흥 제조국가를 경유한 우회수출 비중은 동 기간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공급망의 저비용 국가로의 전환 또는 ‘친미적 중립국’ 이용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국가의 우회수출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관측된다. 기술 선진국(한국, 대만, 일본)을 경유한 우회수출은 감소하고, 비교적 기술력이 낮은 개발도상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을 이용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우회수출 구조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보다 분산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별 산업 수준에서의 우회수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30]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산업별 우회수출 비중을 추계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국의 한국 경유 대미 우회수출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전자, 섬유 및 의류, 철강, 비철금속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집약적 산업과 자본재·원자재 중심 산업이 동시에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기(2018~20년)에 들어서면서 비중이 증가한 산업군으로는 농업, 광물, 화학, 섬유 및 의류,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기계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3기(2021~24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산업은 화학, 섬유 및 의류,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기타 산업군이었다.

반면 3기 들어 비중이 축소된 산업으로는 농업, 식료품, 광물, 전자, 기계 등이 포함되며, 특히 광물과 전자 부문의 감소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0. 중국의 한국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단위: %)



자료: ITC 자료 기반 저자 추계.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산 제품의 우회 활용이 두드러진 산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예: 섬유 및 의류) 또는 원자재 중심 산업(예: 철강, 비철금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집약적 산업인 전자와 기계 부문에서도 일정 수준의 우회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들 산업에서의 우회 비중은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

셋째, 자동차 및 수송장비 부문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이나 중간재를 이용한 대미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에서의 생산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고부가가치 요소가 많아, 단순한 우회수출 구조로 편입되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및 수송장비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중국산 우회수출 비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그리고 기타 산업 부문은 2기(2018~20년) 및 3기

(2021~24년)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농업, 식료품, 화학 산업은 동 기간 동안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섬유 및 의류, 철강, 비철금속, 전자, 기계 등 주요 산업군은 2기 이후에도 우회수출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자동차 및 수송장비 부문의 경우 전체적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2기와 3기 모두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점진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고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산 중간재를 이용한 대미 우회수출 구조를 광범위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동차 및 수송장비 부문에서는 여전히 일본 내 부품 및 공급망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5-31. 중국의 일본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단위: %)



자료: ITC 자료 기반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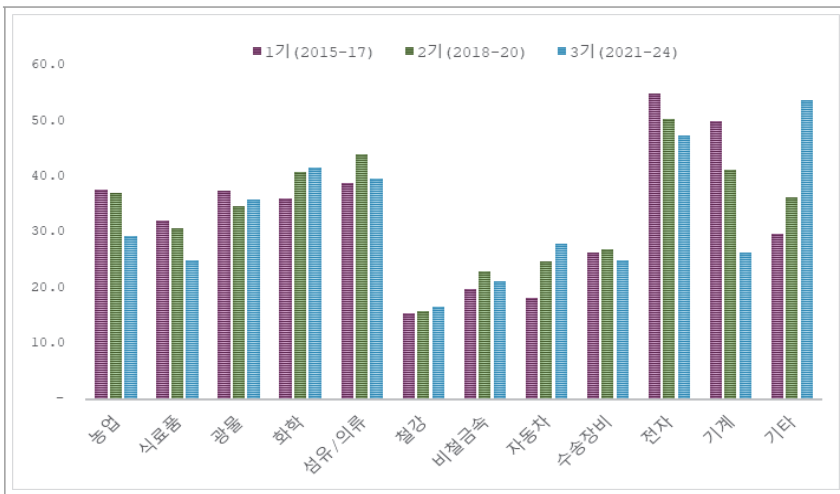
대만의 경우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및 수송장비와 같은 장치산업 부문에서는 우회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자 및 기계 등 첨단기술 산업군에서 높은 우회수출 비중이 관찰되었다. 특히 전자 산업은 대만의 기술 경쟁력이

집중된 분야로, 중국산 중간재를 이용한 미국행 간접수출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식료품, 광물, 섬유 및 의류에서도 우회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 산업 역시 전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만 내에서 기초 화학물의 중간 가공 후 대미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5-32. 중국의 대만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단위: %)



자료: ITC 자료 기반 저자 추계.

산업별 시기적 추이를 살펴보면, 화학, 섬유 및 의류,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 산업 부문은 2기(트럼프 집권기) 및 3기(바이든 시기) 모두에서 우회수출 비중이 상승하였다. 반면 농업, 식료품, 전자, 기계 산업은 동일 기간 동안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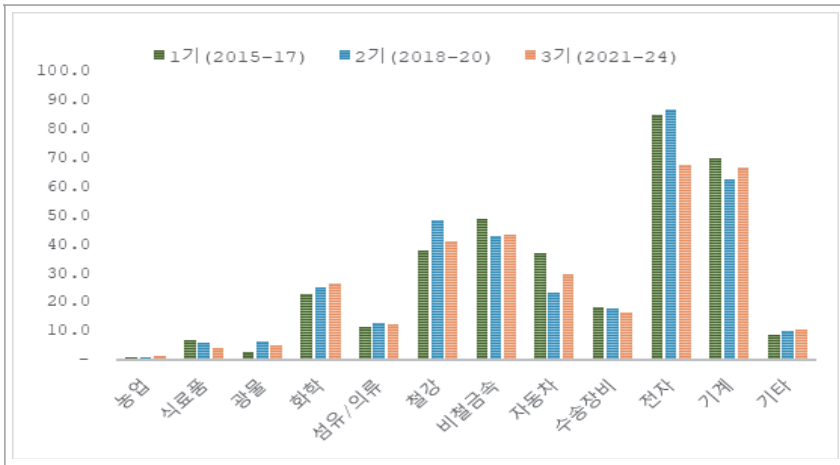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대만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중국산 중간재를 이용한 우회적 대미 수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 및 화학 산업을 통한 간접수출의 비중이 산업 내 수출 역동성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3]은 인도의 산업별 중국발 대미 우회수출 연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전자 및 기계 부문에서 우회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도 내 해당 산업군이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의 간접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33. 중국의 인도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단위: %)



자료: ITC 자료 기반 저자 추계.

화학,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등의 중간재 중심 산업군에서는 중간 수준의 우회수출 비중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해당 부문에서도 일정 부분 중국산 투입재를 이용한 가공·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농업, 식료품, 광물, 섬유 및 의류, 기타 산업의 경우 우회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산업구조 내에서 이들

부문의 국제 연계성이 낮거나 내수 중심의 산업 특성이 강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화학 부문은 2기(2018~20년) 및 3기(2021~24년) 모두에서 우회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유일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전자 산업은 2기에 비중이 상승한 반면, 비철금속, 자동차, 기계 산업은 2기에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인 후 3기에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의 중국 의존도 및 대미 수출 전략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전자와 기계 부문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인도가 중요한 우회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림 5-34]는 베트남의 산업별 중국발 대미 우회수출 연계 구조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화학,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부문에서 우회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베트남이 해당 산업군에서 중국산 중간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동차 및 수송장비 산업의 높은 비중은 베트남이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도 중간재 가공 및 조립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자, 기계, 기타 산업군은 중간 수준의 우회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부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농업, 식료품, 광물, 섬유 및 의류 부문은 우회수출 비중이 낮은 산업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내수 중심이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산업 특성과 연관된다.

시기별 추세를 살펴보면, 식료품, 자동차, 수송장비, 기타 산업군은 2기(2018~20년)와 3기(2021~24년)에 걸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전략적 산업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광물, 철강, 전자, 기계 산업은 2기에 우회수출 비중이 상승한 후, 3기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일시적 수출 집중 이후 공급망 조정 또는 미

중 무역갈등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이 특정 산업에서는 중국산 중간재를 이용한 대미 우회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수송장비 산업의 부상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그림 5-34.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단위: %)



자료: ITC 자료 기반 저자 추계.

[그림 5-35]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중국발 대미 우회수출 구조의 시기별 변화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부문, 특히 광물과 철강에서 우회수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 부문은 2기(2018~20년)와 3기(2021~2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3기에 그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물 수출 통제 정책(예: 니켈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중국 중간재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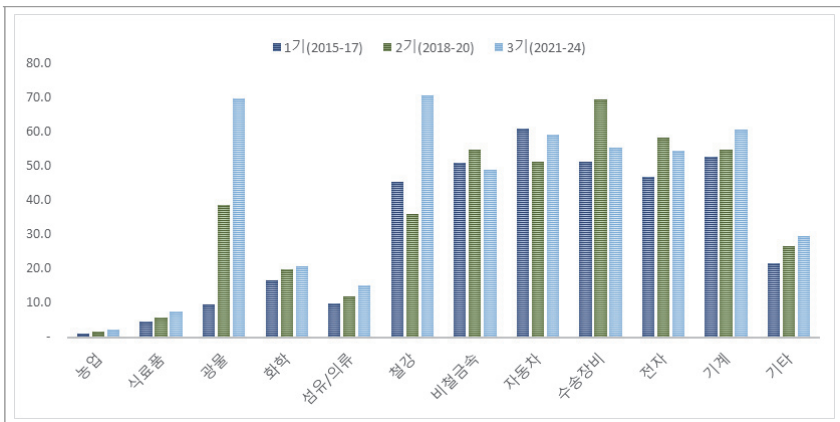
철강 산업 또한 3기에 들어 급격한 비중 상승을 보였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 제철 관련 대중 투자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철금속 부문은

2기에 상승 후 3기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우회수출이 유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송장비, 전자, 기계, 기타 부문은 2기부터 3기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인도네시아가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2기에는 비중이 하락했으나, 3기에 들어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5-35. 중국의 인도네시아 경유 대미국 산업별 우회수출 현황

(단위: %)



자료: ITC 자료 기반 저자 추계

한편 화학, 섬유 및 의류, 식품품 부문도 2기와 3기에 걸쳐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우회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분야 역시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광물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기반 산업에서의 중국발 대미 우회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전자, 기계, 수송장비 등에서의 공급망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자일 중심 국가에서 중간재 가공·조립 거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4. 주요국 간접 및 우회 수출구조 비교 분석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GVC의 재편 속에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및 글로벌 분업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간접(re-export) 및 우회수출(transshipment export) 기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역할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대상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벤치마킹의 근거로 삼았으며,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부가가치 수출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수출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고기술 국가들은 미국 수출을 위한 경유 경로를 점차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부록 그림 5-1), (부록 그림 5-2), (부록 그림 5-3) 참고). 이들 국가는 경유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정교한 간접수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복수 경유지 이용 능력이 두드러진다.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을 주요 경유지로 삼아 미국 및 중국을 주요 최종 목적지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비중이 크지만, 수출 경유지로는 중국과 대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을 위한 전략적 다층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대만은 싱가포르와 멕시코를 포함한 다변화된 경유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멕시코를 통한 대미 재수출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경유국과 최종 수출목적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분석된다. 중국은 베트남, 한국, 일본 등 동북아 및 아세안 국가를 경유 수출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을 주요 최종 수출지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가 중국의 주요 최종 수출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구조가 서서히 다양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은 대미 간접수출에서 멕시코와 베트남을 전략적 경유국으로 이용하며, 고관세 회피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그림 5-36).

이와 달리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은 새로운 경유 및 간접 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전략적으로 경유지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지를 북미 및 유럽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제조 및 수출 거점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경유지로 포함시키며, 최종 수출목적지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그림 5-37). 베트남은 동북아 및 유럽 국가를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간접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대미 수출전략 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그림 5-38).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주요 경유국 외에도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경유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에 있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중요한 경유국으로 이용하고 있다(부록 그림 5-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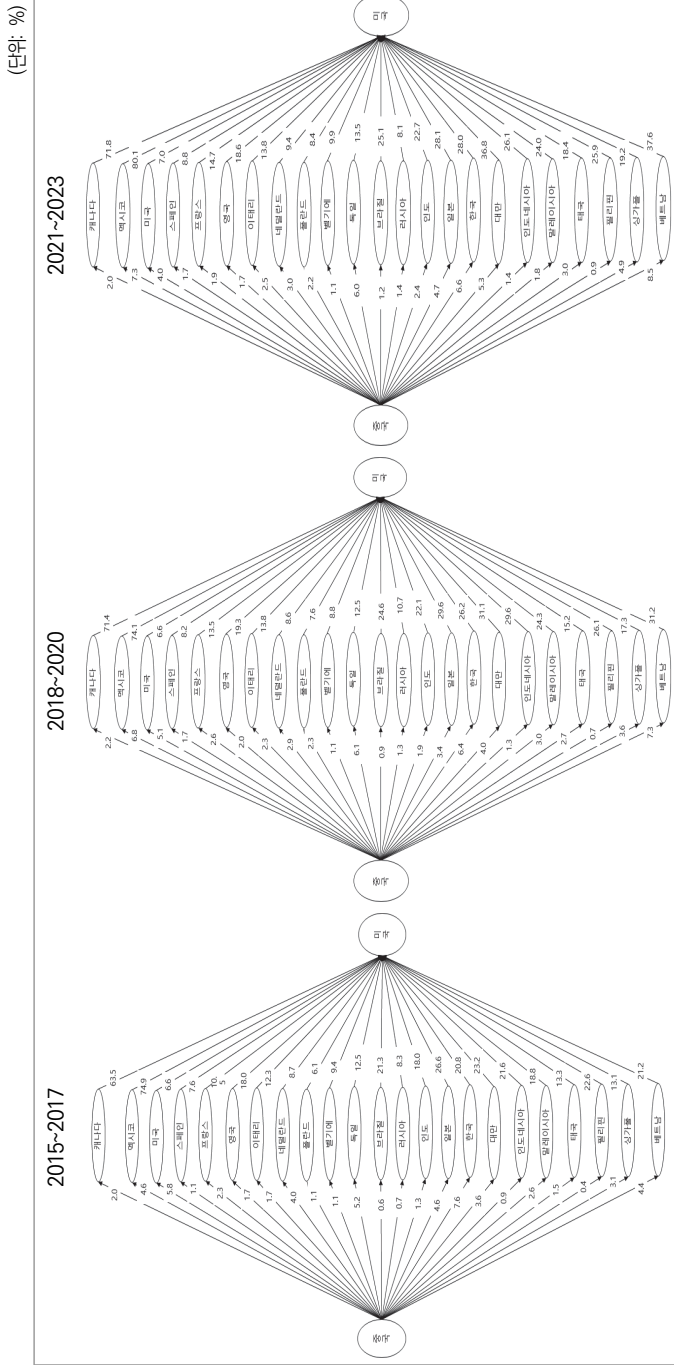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여전히 핵심적인 경유 대상국 및 최종 간접수출 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표 5-9. 분석대상 국가들의 간접수출 경유, 최종 목적지 및 대미국 수출 경유국 요약

구분	간접수출 경유 국가	간접수출 최종 목적지	대미수출 경유국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미국, 멕시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중국	베트남, 한국, 멕시코, 일본, 독일, 싱가포르, 대만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일본, 한국, 대만,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중국, 독일	중국, 대만, 멕시코,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일본, 멕시코	미국, 중국, 독일	중국,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인도	미국, 영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독일
베트남	중국, 일본, 독일, 미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인도,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인도, 베트남,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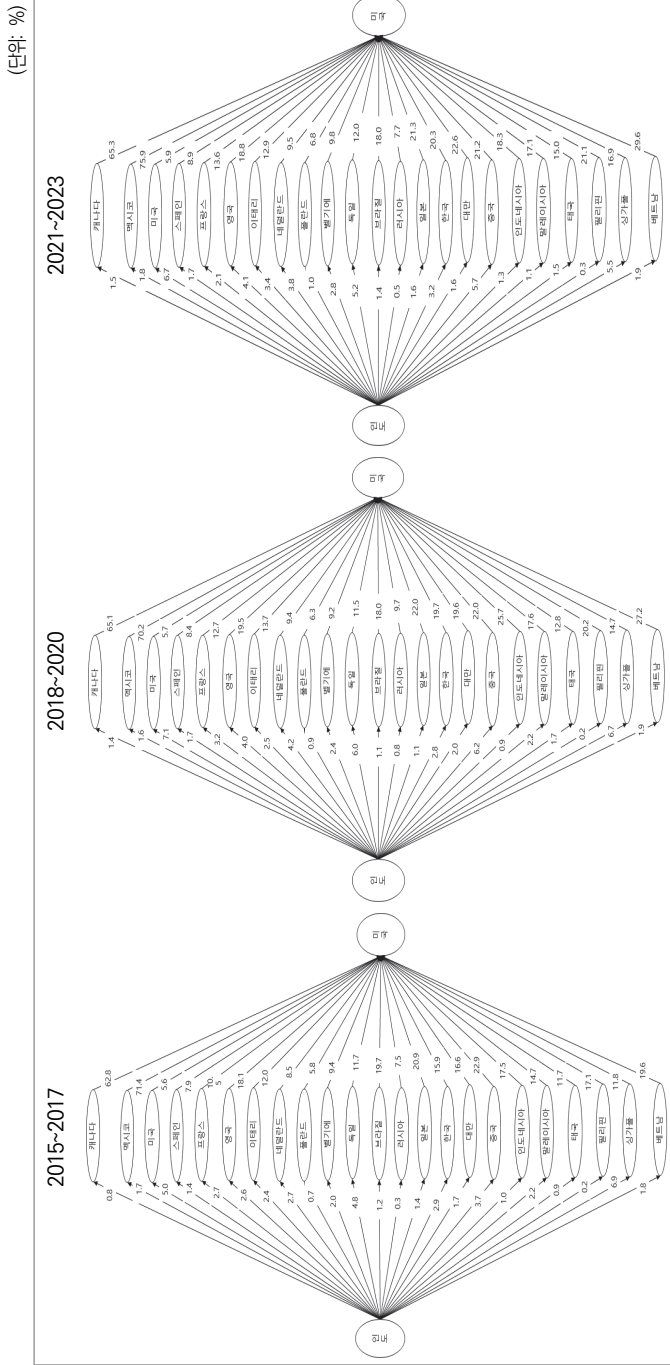
자료: 분석에 기반하여 저자 정리.

그림 5-36. 중국의 간접수출 경우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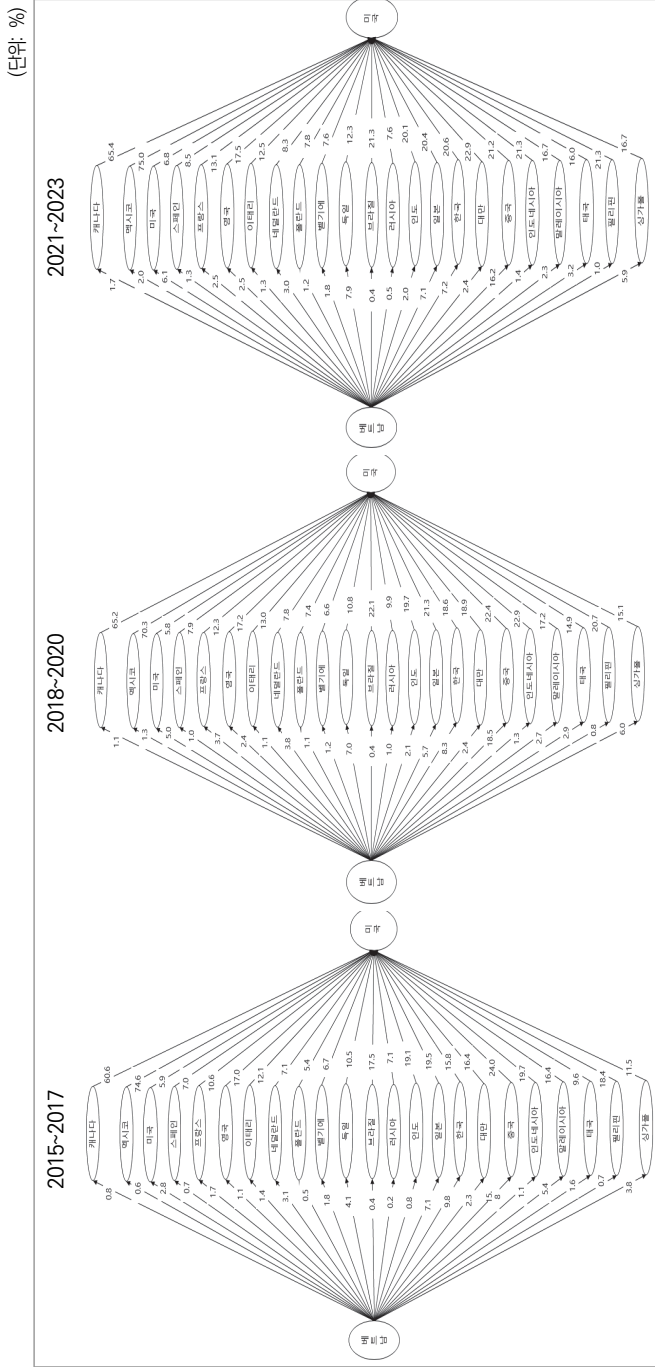
주: [그림 5-2]과 [표 5-1]을 이용하여 재구성.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림 5-37. 인도의 간접수출 경우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주: 그림 5-10과 [표 5-4]를 이용하여 재구성.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그림 5-38. 베트남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주: 그림 5-12와 [표 5-6]을 이용하여 재구성.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 이후 일부 비중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일본, 대만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와 높은 GVC 참여도를 바탕으로 경유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정교한 복수 경로 전략을 통해 대미 수출 경로를 최적화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경유지이자 생산기지로써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경유 및 우회 수출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중간재가 경유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별·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산 제품의 한국 경유 대미 우회수출 비중은 31~35%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회수출이 집중되는 산업군은 자동차 및 수송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화학, 섬유·의류,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우회수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전자, 기계, 광물 부문에서 감소세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우회수출 구조가 고기술 및 중간재 중심이라는 점에서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우회수출 비중은 24~29%로 분석되었으며, 한때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우회수출 산업은 자동차, 수송장비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광물,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등에서 우회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든 시기에는 농업, 식료품, 화학 등의 부문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비록 자동차 및 수송장비의 비중은 여전히 낮으나, 점진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만의 우회수출 비중은 27~41%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들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우회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를 제

외한 분야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화학, 섬유 및 의류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바이든 시기에는 전자, 기계, 섬유·의류, 수송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감소가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만은 첨단산업 및 원자재 중심의 우회수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비중이 크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우회수출 비중은 19~27%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 기계, 화학, 철강, 비철금속이 주요 산업군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화학 및 철강 부문에서 우회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기계 부문은 일시적 감소를 겪었다. 그러나 바이든 시기에는 기계, 자동차, 비철금속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산업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자와 기계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며, 인도는 구조적 산업 전환을 통한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회수출 비중이 19~30%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주요 산업으로는 화학, 철강, 비철금속, 수송장비가 중심을 이루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식료품, 자동차, 전자,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회수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시기에는 광물, 화학, 철강, 전자, 기계 등에서 다소 감소가 나타나, 수출구조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우회수출 비중은 18~28%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광물,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우회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대부분 산업에서 점진적인 증가세가 나타났다. 바이든 시기에는 철강 및 광물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자동차 부문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원자재 중심 수출구조에서 점차 장치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5-10. 중국 제품의 분석대상국 경유 대미국 수출 현황 및 주요 수출 산업

국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우회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	2기 변화(트럼프 행정부 시기)	3기 변화(바이든 행정부 시기)	비고
한국	31~35%, 하락	화학, 자동차, 수송장비 제외 전체 산업	전반적 증가: 화학, 섬유·의류,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일부 감소: 전자, 기계, 광물 등 감소	고기술·중간재 중심,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감소
일본	24~29%, 상승 후 하락	화학, 자동차, 수송장비 제외 전체 산업	전반적 증가: 광물,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감소: 농업, 식료품, 화학, 철강	자동차·수송장비는 비중 작지만 증가 추세
대만	27~41%, 대폭 하락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제외	증가: 화학, 섬유 및 의류,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	감소: 농업, 식료품, 광물, 섬유/의류, 비철금속, 수송장비, 전자, 기계	첨단산업 및 원자재 중심
인도	19~27%, 상승	전자, 기계, 화학, 철강, 비철금속	화학·철강 증가, 비철금속·기계 감소	기계, 자동차, 비철금속 회복	전자 비중 큼, 화학·기계 분야 확대 추세
베트남	19~30%, 상승 후 하락	화학, 철강, 비철금속, 수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수송장비, 전자, 기계 증가	광물, 화학, 철강, 전자, 기계는 감소	중간재 및 장치산업 비중 확대 추세
인도네시아	18~28%, 지속 상승	광물,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수송장비, 전자, 기계	광물, 비철금속, 전자, 기계 증가	철강·광물 중심 증가, 자동차 회복	원자재 중심, 최근 장치산업도 확대

주: \* 각국의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 대미국 우회수출 비중.  
 자료: 분석기반 저자 정리.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분석 대상국들은 간접 및 우회수출 구조의 증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일본, 대만 등 고도 기술 기반 국가들은 부가가치 창출 중심의 간접수출을 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원산지 규제 강화와 공급망 투명성 확보 요구에 따라 단순 라벨 변경 방식의 우회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기술국 중심의 정교한 분업체제는 점차 제한된 운신의 폭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고도화된 생산 구조 속에서 규제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공급기지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비용과 제도적 유연성, 그리고 단순 가공 공정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관세 회피형 우회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유인을 증대시키며, 해당 국가들의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국가별 대응력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도기술국의 경우, 높은 수출비용으로 인하여 간접 및 우회수출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신흥공급기지국은 낮은 임금과 유연한 제도 환경 덕분에 여전히 간접 및 우회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우회수출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도 관찰된다.

셋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의 제조기지로서의 전략적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는 점차 중간재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단순한 우회수출 기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간생산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은 고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공급망 내에서 정교한 분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우회수출 거점을 넘어 GVC 재편의 주요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신흥국의 전략적 중요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일본, 대만을 경유하는 간접 및 우회수출도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를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 모두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을 이용한 간접 및 우회수출과 GVC 전략은 물론 고기술 산업국들의 경로 이용 및 대응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GVC 변화에 따른 수출다각화는 관세변화로 나타나는 가격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Mania and Rieber(2019), WTO(2021) 등의 기존 연구는 경기 및 공급망 충격 발생

시 수출 다각화가 가격 변동의 완화와 무역의 안정적 복원에 기여함을 보여주며, 그 효과는 가격탄력성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출 다각화가 가격 변동성 및 탄력성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는지가 무역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 제6장



# GVC 대응 전략 및 제언

1. 정책적 제언
2. 기업의 대응 전략
3. 향후 연구 방향



# 1. 정책적 제언

## 가. 기술협력 기반 무역다각화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 확대가 분석대상 7개 국가와 이들 국가의 24개 주요 무역대상국을 중심으로 총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분해 추정하고 간접수출의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개 국가 모두가 간접수출을 여러 국가로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예컨대 중국은 기존에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중심이던 간접수출 구조에서 베트남과 멕시코의 비중을 더욱 늘렸고, 동시에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주요 국가뿐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으로 대상국을 확대하였다. 한국 역시 프랑스, 폴란드, 독일, 러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나머지 분석국가들 또한 다양한 국가로 간접수출을 증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역전쟁이 심화될수록 분석대상 7개 국가는 24개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한 무역집중도를 강화하였다. 중국의 경우 1기(2015~17년)에 62%였던 비중이 2기(2018~20년)와 3기(2021~23년)에는 각각 71.5%와 75.1%로 상승했다. 한국도 같은 기간 72.5%에서 84.1%와 83.8%로 확대되었고, 일본은 75.8%에서 85.9%와 88.8%, 대만은 77%에서 90.9%와 91.5%로 증가하였다. 이는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정국가(예: 미국)에 대한 공급망이 약화되더라도, 간접수출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정책이 추진되는 초기에는 각국은 간접수출 범위를 넓혀 충격을 완화하는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분석 2기에 광범위한 다각화가 관찰되는 것과는 달리, 분석 3기(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제조업 강국 및 경유 수출국에 좀 더 집중하는 추세가 나타났  
다. 중국은 멕시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에 더욱 집중하였고, 일  
본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만,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태  
국, 독일로 집중도를 높였다. 한국은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에, 대만은  
멕시코, 중국, 베트남에, 인도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에, 베트남은 캐나  
다, 멕시코 및 독일에, 인도네시아는 대만, 중국, 베트남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충격이 극심할 때는 공급망 다각화를 추구하지만, 시  
간 이 지나 안정화되면 오히려 기술 기반의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갈등 심화시기에는  
무역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화 국면에서는 선택된 국가들과의  
집중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특히 안정화 시기에 무역이 집중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분석에 따르면,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수출은 부가가치 요인  
과 기술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 평시에는 국민소득  
증가 등 최종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이 이루어지지만, 관세 충격이 발생하면 기  
업들은 최종수요 기반의 직접수출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기술적 협력이 가능  
한 국가로 간접수출하고, 해당 국가에서 가공 및 재수출하는 전략으로 바뀐다.

실제로 베트남은 대표적인 GVC 후방참여 국가로서 초기 충격 시 주요 간접  
수출 경유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 경유 수출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한국, 일본, 대만,  
독일과 같은 선진 공업국을 새로운 경유지로 택하여 재가공 또는 환적을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이어간다. 결과적으로 분석 국가들은 제품 업그레이드와 가  
공 능력이 뛰어난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종합하면 무역갈등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다각화를 통해 충격을 분산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기술적 협력이 가능한 제3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한다. 한국 역시 심화되는 관세전쟁의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해 초기에는 폭넓은 무역 다각화를 추진하되, 이후에는 기술적 요인을 고려한 선택적·집중적 다각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나. 한국의 GVC 포지셔닝 전략 수립 필요성

본 연구에서 살펴본 GVC 참여도의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높은 GVC 참여도는 해외 분업 생산체계에 참여하여 더 많은 수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높은 GVC 참여도 증대는 수출이 발생하면, 국내보다는 해외로 더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수출은 국제 분업에 참여하며, 이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국제 분업에 참여할 때, 각국은 이 중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외 무역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로서, 대외 무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고성장을 유지해 온 국가이므로 GVC의 적극적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어떻게 전방참여의 비중을 높여서 GVC 포지션 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방 참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연계 R&D 전략 수립, 디지털 기술의 적용 확대를 통한 주력 산업 고도화,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전방 참여 확대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다. 정부는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의 상용화 및 시장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술 기반 한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다만 일부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으므로, 독자적인 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여 신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문 인력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 전문가 초청과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첨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기술 역량을 빠르게 제고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사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 경제의 내부 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소비시장을 강화하고 수급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신흥 소비 분야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시장 지원을 통해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여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 순환의 강화는 국내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확대된 내수시장은 관세전쟁 등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더욱 견고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다. 관세 및 탄력성 기반 GVC 대응 방안 마련

미국은 외교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국가별 상호관세, 품목별 차등관세, 안보 관련 품목에 대한 벌칙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직접적으로 관세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세정책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제품의 가격을 변동시켜, GVC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동은 가격탄력성에 따라 회복 및 안정화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ania & Rieber 2019, WTO 2021).

현지 조사 결과,<sup>26)</sup> 실제로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GVC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

26) 현지연구조사에 대한 연구방법론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에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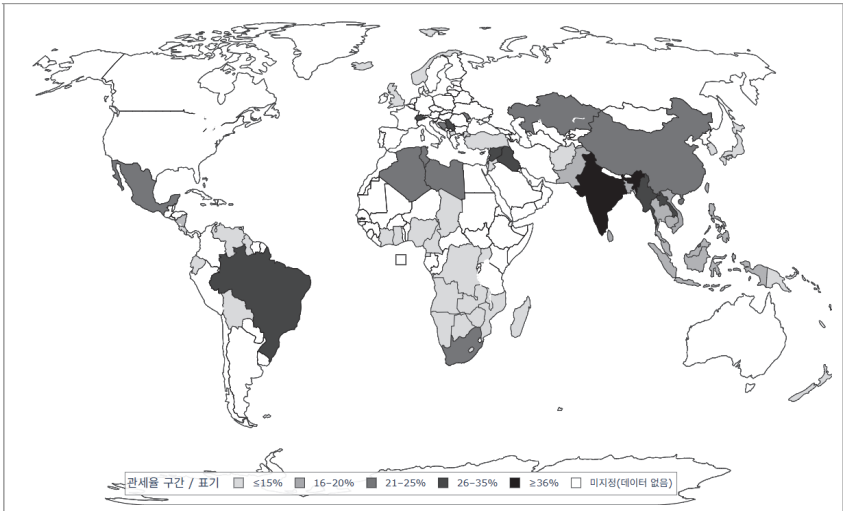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가격 탄력적인 제품과 비탄력적인 제품 간 관세 인상의 영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면서 저가 의류는 베트남에서도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업들의 응답도 있었다. 섬유 및 봉제 관련 제품은 관세 1%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1%의 관세 차이만 있어도 생산 거점 이전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국가로 단순 공업 이전을 추진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중남미 국가는 베트남보다 낮은 대미(對美) 관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 해상운송 대신 육상운송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도체, IT, 금융 등 가격 비탄력적인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관세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만 하고 있으며, 관세가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 변화가 GVC 재편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국가별 관세 부과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 수립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10%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국가별·품목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그림 6-1 참고), 환적 또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40%의 환적 벌칙 관세를 설정하였으며, 필요시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결정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sup>27)</sup> 미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

27) 여기에 기술된 미국관세 현황은 2025년 9월 9일 기준으로 미국 백악관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검색일: 2025. 9. 9.).

그림 6-1. 미국의 국가별 관세 부과 현황



자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검색일: 2025. 9. 9.)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아울러 미국은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적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제품에는 100% 관세, 그리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는 25~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 제품은 영국산은 25%, 러시아산은 200%, 기타 국가 50%, 자동차는 25%(단 일본산은 15% 또는 그 이하 적용), 구리 50%, 집적회로 100%, 아이폰 25%, 해상 화물 취급 장비 20~100%, 제약 100%, 철강 25~50% 등 매우 다양하게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국가별 경쟁력을 고려한 제품별·산업별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베트남 현지 조사 결과(부록 1)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이 높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로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적 관세율 차이가 가격탄력도와 결합하여 기업의 입지 전략을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해외 제품 수요를 미국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하는지도 역시 대미 수출에 중요한 변수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로 인한 상대가격 변화를 반영한 무역의 대체탄력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입품과 미국 내 생산품 간의 대체탄력성이다. 새로운 관세 부과로 상대가격이 변동될 경우,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국내 생산품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를 측정한다. 관세 부과 후 미국 내 생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직·간접적인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외국 공급자 간의 대체탄력성이다. 국가별 차별적 관세로 상대가격이 달라지면, 미국 소비자들은 특정 국가의 상품을 다른 국가의 유사 상품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대체탄력성이 높은 국가의 기업은 생산기지 이전,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효과는 단순히 관세율 수준뿐 아니라 제품 유형, 소비자 수요 구조, 투자 여건, 미국 소비자 선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특히 대체성이 낮은 제품은 국내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에 큰 차질이 없지만, 대체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수출 및 생산기지 입지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효과는 단순히 관세율 수준뿐만 아니라 상품 유형, 소비 및 투자 구조, 그리고 미국 소비자 선호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성이 낮은 제품은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대체성이 높은 제품은 수출 및 생산기지 입지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출 제품의 대체탄력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수출 제품을 대체탄력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관세 인상과 같은 무역 충격이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국가의 대외 통상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수출 기업의 가격 책정 전략에도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즉, 기업은 가격 및 대체 탄력도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춘 가격 정책과 진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탄력도 분석은 개별 기업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별·지역별·산업별로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

## 라. 특혜무역협정 지속 활용 및 확대 추진

[Jiang and Xing(2025)]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환적 수출, 즉 우회 수출 전략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핵심 요인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의 적극적 활용에 지목하였다. 2023년까지 베트남, 멕시코, 태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위한 주요 대체 환적 허브로 부상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이 중요한 지원 효과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더해 RCEP과 CPTPP 회원국으로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중-ASEAN FTA하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역내 중간재 이동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 환적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해상 운송 대비 상당한 시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를 경유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마킬라도라 프로그램<sup>28)</sup>은 외국 기업이 국경 산업지대에서 상품을 가공한 뒤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며 재수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의 중간재 환적 무역을 크게 촉진하였다.

---

28) 멕시코 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 원자재, 부품 및 장비 수입에 대해서 면세 및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최근 관세 협정에서 추가적인 상호 관세 부과를 논의했으나, 한·미 FTA의 실효 관세 체계가 여전히 기본 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FTA는 여전히 관세 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엇보다 다자간 경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산업 공급망의 공간 배치 최적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특히 RCEP, APEC 등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도화된 지역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협력/협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대외 시장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을 겨냥한 고립주의, 그리고 'GVC 재편' 흐름은 한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자간 경제 협력 참여의 범위와 깊이를 한층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내의 산업 공급망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며, 세계 산업 사슬 내 상호의존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공급망의 다각화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마.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제언

### 1) 실리주의 중심의 대외교역 전략 수립 필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미중 무역갈등 이후, 한국의 대미 교역 비중은 확대된 반면 대중 교역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일본의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현재 2기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까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 일본, 중국, 한국 등 개별국가와의 차별적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 정부가 정당에 관계 없

이 일관되게 중국을 견제해 왔던 관례를 고려할 때, 향후 새로운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이념적 제약을 벗어나 제1·2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교역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이 요구된다.

## 2) CBP와 비특혜원산지 규정 협력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은 1차적으로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을 줄이고, 다른 나라 또는 미국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를 경유한 간접 및 우회 수출을 확대해 나갔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적 벌칙금을 확대하고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현지 조사(부록 1 참고)에서도 나타났다듯이,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FTA와 지역무역협정(RTA) 등 특혜 원산지 제도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부과는 전적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규칙(ruling)에 의존하고 있으며, CBP는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자체적으로 조사·감사하여 관세율을 결정한다. 아직까지 미국은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있다. 즉, CBP가 명확한 기준이나 표준을 제시하지 않아 현지 기업들은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지만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대미 수출 제품에 대해 원산지 기준 불확실성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극히 제한적인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기업들은 앞으로 CBP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 관세청은 대미 수출에 있어 비특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비특혜 원산지 기준’과 그 판정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다.<sup>29)</sup>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FTA에 기반한 특혜 원산지 기준에는 익숙해 관련 대응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와 달리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미국 CBP의 자체 판정에 의거해 이루어지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 CBP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철강제품」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즉, 미국이 실행하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미국 CBP가 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에 배포하고 지도해야 한다.

둘째, 세계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코트라(KOTRA) 및 무역협회를 통해 지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합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맞는 전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정통한 전문가를 확보해 기업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국내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지점 및 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는 관세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문 인력 파견이 시급하다.

---

29) 관세청(2025. 4. 30.), 「“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색일: 2025. 9. 9.).

## 바. 인도 및 아세안 수출 및 생산기지 역할 변화

### 1) 인도의 생산 기지화와 무역 다각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미중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초기에는 최종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수직적 특화 구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해외와의 분업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업스트림(중간재) 산업에 대한 전문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며, 북미를 제외하면 아시아보다는 유럽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를 보인다. 또한 인도의 부가가치 수출 변동 요인은 과거의 기술계수 변화 중심에서 최근에는 최종 수요 규모 변화로 전환되었고, 그 영향 역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아울러 인도는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 독일 등을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로 이용하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으로 최종 수출한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인도는 간접수출 중 상대적으로 미국으로의 최종 수출 비중이 낮고,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은 높다. 즉, 인도의 수출 네트워크와 구조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도가 여전히 베트남이나 선진 산업국에 비해 수출기 지로서의 위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도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 유럽, 중남미 등과의 무역 연계성이 높아 무역 구조가 보다 다변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는 향후 제2의 무역 허브 국가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후방참여 확대를 통해 중국과 미국으로 절대적인 규모의

수출을 집중하는 일방향적 무역 구조를 보인다. 즉, 베트남은 다른 나라로부터 중간재와 최종재를 수입하여 가공·조립 후 미국 및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는 반면, 인도는 해외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뒤 이를 다양한 국가로 분산 수출하는 허브형 무역 구조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과 베트남이 생산기지 또는 수출 공장으로서 미국 등으로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면, 인도는 향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로 수출하는 기지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은 인도를 유럽 중심의 수출 허브이자 내수 기반의 수요 국가로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도를 다양한 국가와의 수출을 연계하는 허브 국가,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한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IMEC(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sup>30)</sup>와 같은 이니셔티브 참여를 검토하여, 유럽으로의 공급망 확대 전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도는 내수 중심의 시장 잠재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 영향을 적게 받는 만큼, 내수 중심의 진출 전략을 마련한다. 한편 인도는 내수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낮은 것으로 현지조사(부록 1 참조)에서 나타났다. 인도 현지 기업들은 주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관세전쟁의 여파는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인도는 7% 성장률을 기록하는 시장으로, 애플 등 외국 기업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인도 시장의 성장성과 이에 따른 진출 전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30) IMEC는 인도-중동-유럽경제회랑으로 3개 대륙에 걸쳐 글로벌 무역, 연결성, 그리고 협력을 재편하는 이니셔티브로 인프라 개발, 지속가능성, 혁신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검색일: 2025. 9. 30.).

셋째, 내수 중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인도 정부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내수시장 이용을 우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 인도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한국의 대인도 투자 협력, 조세 면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부록 1 참조)에서, 현지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이용하고 동시에 자국 중간재 이용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현지 기업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생산연계지원제도(PRI)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전자제품 등 관련 업종에서 이러한 지원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인도가 관심이 있는 반도체, 선박,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자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현지조사(부록 1 참고)에서, 인도 정부는 한국의 조선,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어 해당 부문에서의 생산 시설 및 기술 이전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동 분야에서 생산 분업 관계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 진출에 관심이 높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지조사에서도 현지 기업들은 인도 진출 시 직면하는 애로 요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분명히 기회의 시장이지만,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복잡한 규제와 관련 규제의 상이한 해석, 불투명한 경영 환경(통관 절차, BIS 표준 인증, 수입 제한, 노동생산성 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세관 통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베트남의 간접 및 우회수출기지화

베트남은 고관세 회피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혜택을 받으면서 해외부가가치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해외부가가치가 국내부가가치 수출을 초과하면서 해외부가가치 중심의 수출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분석 대상 7개국 가운데 베트남이 수직특화 수준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GVC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후방참여에서 절대적 특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으로, 주요 산업국과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최종수요 규모 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높은 부가가치 수출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의 부가가치 요인에 의한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베트남은 중국, 일본, 독일, 미국, 한국, 싱가포르를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로 이용하며, 미국과 중국을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베트남을 핵심 생산허브 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대(對)베트남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첫째, 비록 미국은 베트남을 우회수출 및 환적 국가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관세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후방참여에 전문화된 국가로서 앞으로도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을 생산기지화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봉제에서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으며, 그중에는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높은 산업도 있고 가격비탄력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도 존재한다. 따라서 업종별·품목별로 관세에 따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업종별 맞춤형 정책 제안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각 기업들의 생산 및 업종 특성에 맞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비특혜 관세 혜택 및 규정에 관한 정보와 지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효율성 추구형 기업들로, 이들은 가격탄력성에 민감하지만 관세 및 통관 관련 역량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등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미국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의 제품 유입에 대해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설정하면서, 중국 기업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 진출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 (1)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 확대이다.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베트남을 통해 생산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넓어진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B2B 전시회, 포럼, 상호 방문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 (2) 이러한 기회와 동시에 경쟁 심화의 위험도 존재한다. 미국의 고관세정책 이후에 외국인들에 의한 베트남으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투자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조사에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회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베트남 현지에 직접 생산시설을 구축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는 다소 미지수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베트남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미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진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의 업종과 품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인도네시아의 보완적 생산 기지화

인도네시아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을 통한 해외부가가치 규모가 베트남과 대만에 비해 작지만, GVC 내에서는 최종재보다 중간재 조달과 연계된 간접수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GVC 포지션에서도 업스트림 산업의 전문화를 통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간접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원자재 공급국에서 중간재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요 간접수출 최종 목적지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일본, 독일, 인도, 한국 등도 인도네시아 중간재의 중요한 수요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생산기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나, 베트남과의 협력 구조에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진출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대부분일 정도로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곽성일 2024).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을 대체할 수 있는 협력 대상을 모색하며 공급망 다각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보완적 생산기지로서 가능성이 크며, 중간재 생산 및 조립·가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 2. 기업의 대응 전략

### 가. 글로벌 생산 및 수출 기지 전략 구축

본 연구에서는 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를 요인별로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의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지를 국가별 수출 비중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한 수출의 경유 및 우회 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무역전쟁 및 갈등으로 인해 국가별 부가가치 수출 구조는 해외 중심에서 국내 중심으로, 다시 해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GVC이 '감소-안정-반등-개선'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참여 전략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부 공급망 변화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대미 공급을 크게 줄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국내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높이고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줄였으나, 다시 회복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대중국 봉쇄정책에 일방적으로 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을 줄였지만, 일본은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확대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과 거리를 둔 반면, 일본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인해 상당한 무역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을 통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베트남은 후방참여를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

적인 수출 및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동남아에서 생산분업 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는 인도의 부상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아직은 인도가 세계의 주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인도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인도는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 국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인도를 핵심 협력 시장으로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무역갈등이 심화될수록 기업들은 최종수요 요인보다는 기술적 요인에 기반한 무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과 같은 거대 시장의 수요 증가보다는 기술적 연계성을 통한 무역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간접 및 우회 수출을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 제품을 고도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공급망과의 연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곱째,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 일본, 대만 등 공업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기존 문헌들은 중국이 베트남 등 우회 국가들을 활용한 점을 강조했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우회 수출도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공업 선진국들을 통한 가공 및 연계 수출을 더욱 강화하여 관세장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무역갈등이 심화될수록 기술 선진국들의 경유 및 우회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사의 업종과 제품에 적합한 GVC 기술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공급망 재편에 따라 기존 물류 허브 국가들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상 물류 허브의 활용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는 경유 및 우회 수출 과정에서 단순 물류 통과보다는 가공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물동량 변화와 허브 국가 선택에 신중해야 하며, 불필요한 물류 허브를 경유해 우회 수출 의심을 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적합한 공급망 및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시장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GVC의 전방참여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도는 내수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나. 기업의 품목별 대응 전략 수립

연구 결과, 분석 대상 국가들은 미중 무역관세 갈등이 심화할수록 무역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기술적 요인에 기반한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또한 기존의 물류 허브 국가보다는 기술적 협력이 가능한 공급 기지를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국산 제품과의 대체 관계, 그리고 기타 해외 제품들과의 경쟁 및 대체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연구소(부록 1 참고)에서도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실질적으로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품목별 영향이 달라, 이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고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가격 및 대체탄력성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적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미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을 추정해야 한다. 이러한 탄력성 분석을 바탕으로, 각 기업은 △미국 내 투자 및 현지 생산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 △간접 및 우회 수출로 전략을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직접수출을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

다. 특히 관련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무역갈등이 심화될수록 미국 최종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출 전략은 적절하지 않게 된다. 이보다는 기술적 협력이 가능한 부문을 찾아 이에 기반한 전략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중간재를 미국의 현지 생산업체나 자회사에 공급 하거나, 베트남은 물론 일본, 대만 등 주요 산업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수출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특히 무역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현지 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현지 무역협회나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추진 하거나, 자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GVC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전후로 GVC가 국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ADB MRIO가 제공하는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수출을 분해하고 GVC 참여를 측정함으로써, 중국과 주요국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각국은 제한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다각화와 기술적 요인을 활용해 무역갈등에 대응해 왔음을 본 연구는 밝혀냈다. 또한 중국은 대미 무역을 여러 방식으로 줄이지 않고 유지해 왔으며, 한국이 대중국 무역을 줄이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대중 무역을 확대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나아가 최종 수요보다는 중간재 중심의 기술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베트남은 생산기

지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부각되고, 인도는 주요한 GVC 국가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각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및 부문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를 확인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전인했는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간접 및 우회 수출 국가와 지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국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품목의 경쟁적 우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별 경쟁 우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우위가 공급망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민감한 반도체, 배터리, 기계, 소비재 등에 대한 GVC 변화 및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간접수출 및 우회수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GVC 변화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제시된다면 좀 더 실용적 전략 제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들에 실질적인 관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세 변화에 따른 가격탄력성 및 대체탄력성을 명확히 추정하고 이를 무역 및 투자 전략에 연계해야 한다. 물론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을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한계기업들은 이러한 추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은 현지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을 도출해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무역 및 투자 가이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면 국제 통상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무역이 축소되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나타난다. 따라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역시 시급하다.

다섯째, 무역 및 관세 관련 정책 연구와 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FTA 기반의 특혜원산지 기준에 관한 정책과 인력 육성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특혜원산지 기준, 특히 미국 CBP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이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GVC에 관한 지역 확장 분석도 중요하다. 지역적으로 확장된 MRIO 표를 활용해 국가 가치사슬(NVC)과 GVC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다양한 소유 구조, 산업 부문, 지역에 걸친 탈동조화의 동인과 패턴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지역 간 가치사슬의 역학, 구조조정 과정, 잠재적 취약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경제적 연계성을 재편하는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급 데이터 자원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면, 다양한 규모와 차원에서 GVC 분리 현상을 포착하는 데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산업 고도화, 경제 회복력 강화, 균형 잡힌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보완적 생산 기지화에 관한 추가 연구와 함께,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다양한 지역에서의 GVC 참여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곽성일. 2024. 「베트남과 한국기업: 현지화와 역내 가치사슬 강화」.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26호. 동아시아재단.
- 김박수, 이창재, 박복영, 이홍배, 이호식, 임재준, 이동한, 김혁황, 방호경. 20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2.
- 김부용. 2024. 「미·중 무역분쟁 이후 GVC 재편과 중국의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현대중국연구』, 25(4), pp. 215~249.
- 김완중. 2024. 「미중 간 경제적 갈등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 변화: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영향력 및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 8(2), pp. 34~86.
- 박찬현. 2024. 「러·우 전쟁과 러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 변화: 무역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9(2), pp. 27~60.
- 유진만, 광지훈. 2023. 「GVC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26(1), pp. 131~150.
- 유진만, 성봉석. 2023. 「GVC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전문경영인연구』, 26(3), pp. 117~137.
- 윤문연. 2018.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에 대한 접근법 통합에 관한 소고」. 『국제·지역연구』, 27(2), pp. 37~54.
- 이상훈, 박누리. 2020.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한계, 해결대안은?」. 『이슈&진단』, NO. 420. 경기연구원.
- 이으뜸. 2017. 「한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R&D: 기업 수준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보완관계 분석」. 통계청.
- 정영식, 김정근, 한형민, 정재완, 이정미, 김제국, 윤지현. 2019.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연구보고서 19-14.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최용재. 2023. 「글로벌 가치사슬(GVC)참여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아시아연구』, 26(4), pp. 163~182.
- 한국은행.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 2018-11호.
- 한형민, 예상준, 이선형, 정재완, 윤지현, 김미림. 202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 21-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해양수산부. 2024.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부산항 경쟁력 강화」. 관계부처합동.
- 허정, 김동현. 2021.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이후 새로운 GVC체제에 대한 전망」. 『미래성장연구』, 7(2), pp. 153~185.

#### [영문자료]

- Dietzenbacher, E. and Bart Los. 2000.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es with Dependent Determinants."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 12, issue 4, pp. 497-514.
- Hummels, David, Jun Ishii, and Kei-Mu Yi. 2001.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4(1): pp. 75-96.
- Iyoha, E., E. Malesky, J. Wen, S-J. Wu, and B. Feng. 2024. "Exports in Disguise?: Trade Rerouting during the US-China Trade War." Working Paper 24-072. Harvard Business School.
- Johnson, Robert C. and Guillermo Noguera. 2012.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6(2): pp. 224-236.
-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 2012. "Estimating domestic content in exports when processing trade is pervasiv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9(1): pp. 178-189.
- Los, B. and M. P. Timmer. 2018. "Measuring Bilateral Exports of Value Added: A Unified Framework." NBER Working Paper Series 2489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ania, E. and Arsène Rieber. 2019. "Product export diversifica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51, pp. 138-151

- Park, ChangDon. 2023.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ization and the changes that occur in Global Value Chains(GVCs)."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24(6), pp. 97-109. <https://doi.org/10.22875/jiti.2023.24.6.007>.
- Wang, Z., S-J Wei, and K. Zhu. 2018.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NBER Working Paper #19677.
- Wang, Z., S-J Wei, and K. Zh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NBER Working Papers 1967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World Trade Organization. 2021. "Economic Resilience and Trade." *World Trade Report 2021*, pp. 107-115.

#### [온라인 자료]

- 관세청. 2025. 「"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4월 30일).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bsId=1362&nttSn=10137874&nttSnUrl=698bd658ab77c882589e98f17026c182>(검색일: 2025. 9. 9.).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age/3/?s=tariff>(검색일: 2025. 9. 9.).
- ADB. Key Indicators Database, Economic Globalization. <https://kidb.adb.org/globalization>(검색일: 2025. 8. 12.).
- ADB-MRIO, DB.
- 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 <https://www.imec.international/>(검색일: 2025. 9. 30.).
- OECD.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inter-country-input-output-tables.html>(검색일: 2025. 8. 12.).
- "President Biden Adds, Increases, and Maintains Tariffs on Chinese Goods Levied by President Trump." 2024.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8(4): pp. 727-733. doi:10.1017/ajil.2024.57(검색일: 2025.

9. 30.).

The 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 <https://worldmrio.com>(검색일: 2025. 8. 12.).

University of Groningen. World Input-Output Database. <https://www.rug.nl/ggdc/valuechain/wiod/?lang=en>(검색일: 2025. 9. 9.).

K

RE

목록



## [부록1] 현지연구조사: 현지 기업들의 간접 및 우회수출 전략

### □ 현지연구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 • 현지연구조사 개요

-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인도와 베트남의 새로운 우회 수출 기지 및 생산 허브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현지 연구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 및 우회 수출 기지로서는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게 나타났으며, 인도 역시 새로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반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간접 및 우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무역전쟁 이후 베트남 및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참여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GVC 역할 변화 및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현지연구조사를 실시함.

#### • 현지연구조사 방법 및 일정

- 호치민 한국현지 기관 및 기업 대상 발표 및 간담회

일시: 2025. 8. 5.~ 8. 6.

장소: 호치민 코참 및 코트라

- 인도 뉴델리 현지 한국기관 방문 및 현지 인터뷰

일시: 2025. 8. 7.~ 8. 8.

장소: 뉴델리 무역협회 지부, Invest Korea, KIEP, 중진공 GBC

### □ 베트남 연구조사 내용

-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일부 생산기지 이전 및 투자 유입 확대]  
미중 무역전쟁 이후 베트남으로 중국계 자동차·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입

이 확대되며 관련 업종이 호황을 보이고 있음.

- [가격 탄력적 vs. 비탄력적 제품의 차별적 영향]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봉제 원료 비사용 서약과 관세 여파로 저가 의류 생산이 어려워지며, 중남미로의 단순공업 이전 또는 관망 기조가 확산됨. 중남미의 강점은 낮은 관세와 해상 대비 유리한 육상 운송임.
- [품목·산업별 대응]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IT·금융을 집중 육성하고, 섬유 산업은 업종 전환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은 인도 이전을 검토하는 분위기임.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및 관련 파생상품은 품목 관세로 별도 관리 중임.
- [비특혜원산지제도의 중요성] 비특혜원산지제도 활용 방안 강화가 필요함. 트럼프 행정부 이후 도입·강화된 제도이나 규정 정비가 아직 미흡하며, CBP(미 관세국경보호청)의 결정(ruling)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됨.
- [전망]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내 생산 확대와 함께 세관 절차 정비 및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함.

## □ 인도 현지조사 내용

- [내수시장 중심으로 관세 영향 인지 낮음] 관세전쟁의 여파는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대체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에 관심이 높음. GVC 변화의 체감도는 낮고, 연 7%대 성장을 보이는 인도 내수시장 공략에 초점. 애플 등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시화되었으나, 국내 기업의 진출 양상에는 특별한 변화 없음.
- [자국 중간재 이용 압박] 인도는 자국산 중간재의 사용을 요구·압박하는 경향이 뚜렷함.
- [인도정부의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 Make in India, PRI 등 인센티브 정책(자동차·전자제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도로의 제조업 이전 지

원을 추진 중. 최근 인도 정부는 한국의 조선·반도체·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AI 등 첨단산업의 성장 기대는 낮음.

- [대중국 관계를 감안한 기회 확대] 인도는 한국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중소기업 증가를 체감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한국 중소기업 상담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인도 진출 애로 요인에 집중 필요] 인도는 기회의 시장이지만,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복잡한 규제, 해석상의 다툼, 투명성이 낮은 환경(통관, BIS 표준 인증, 수입 제한, 노동생산성 등)의 개선이 더욱 중요해짐. 특히 세관 통관에서의 어려움이 크게 지적됨.

부록 표 5-1. 중국의 간접수출 중 주요 경유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96.5	286.8	325.9	437.1	412.1	487.1	400.2	498.3	525.7	509.0
캐나다	37.8	54.9	57.5	59.1	55.0	80.8	69.9	76.7	85.8	71.9
멕시코	75.5	93.4	129.5	165.3	194.9	226.0	202.3	270.8	282.7	287.9
미국	83.2	138.5	138.9	212.8	162.1	180.3	128.1	150.8	157.1	149.2
ER8	408.2	472.5	473.5	597.7	609.2	665.1	654.9	681.8	826.7	806.2
스페인	22.4	28.9	31.1	33.7	47.9	54.7	53.1	56.3	77.6	67.6
프랑스	53.8	59.0	62.8	75.3	75.5	87.8	75.0	67.5	78.5	71.1
영국	42.5	46.7	46.9	50.3	60.9	66.6	57.8	59.5	68.9	63.7
이탈리아	44.1	45.3	46.3	52.5	62.0	78.5	70.0	70.6	113.7	104.6
네덜란드	63.8	95.1	96.4	150.1	85.8	97.9	82.0	99.4	116.0	133.4
폴란드	20.2	28.1	30.4	33.9	56.3	72.4	81.2	83.0	85.2	80.5
벨기에	30.0	31.1	26.5	31.9	30.7	38.5	30.3	34.1	36.4	54.5
독일	131.4	138.3	133.1	170.0	190.0	168.5	205.6	211.4	250.4	230.8
BRICS3	49.2	71.4	67.5	83.4	128.0	126.7	123.3	168.3	190.0	229.9
브라질	11.9	17.3	16.0	19.7	22.9	25.6	32.0	42.8	48.1	47.2
러시아	14.0	21.8	15.7	24.3	36.0	47.4	35.7	49.5	55.4	61.5
인도	23.3	32.3	35.8	39.4	69.1	53.7	55.6	75.9	86.5	121.2
NEA3	307.9	439.6	438.1	452.2	328.2	449.0	490.0	521.0	653.3	771.8
일본	98.6	128.8	124.4	132.9	103.3	110.8	100.4	115.9	169.5	276.1
한국	143.6	218.9	215.1	207.7	184.3	205.2	200.4	207.4	266.2	296.5
대만	65.7	92.0	98.6	111.5	40.6	133.0	189.2	197.7	217.6	199.3
ASEAN6	214.2	315.7	354.1	422.9	550.8	614.6	558.1	696.6	779.0	907.8
인도네시아	23.5	30.5	20.0	28.1	41.8	44.4	36.9	48.2	55.7	65.2
말레이시아	48.6	65.7	74.0	83.0	101.6	107.3	66.2	60.0	70.9	79.3
태국	30.6	39.2	41.8	47.9	85.1	86.7	79.0	85.0	102.2	162.8
필리핀	4.8	9.1	11.0	12.9	23.1	23.2	21.4	23.0	29.5	48.6
싱가포르	66.8	86.9	76.5	94.0	105.0	128.2	102.3	153.0	187.5	232.5
베트남	39.9	84.3	130.8	157.0	194.3	224.8	252.2	327.5	333.2	319.4
부분합계	1,176.1	1,586.0	1,659.1	1,993.2	2,028.3	2,342.5	2,226.4	2,566.1	2,974.7	3,224.7
우회수출총액	2,050.7	2,618.0	2,834.9	2,973.8	3,191.2	3,072.8	2,977.3	3,424.4	3,968.0	4,271.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 중국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9.6	11.0	11.5	14.7	12.9	15.9	13.4	14.6	13.2	11.9
캐나다	1.8	2.1	2.0	2.0	1.7	2.6	2.3	2.2	2.2	1.7
멕시코	3.7	3.6	4.6	5.6	6.1	7.4	6.8	7.9	7.1	6.7
미국	4.1	5.3	4.9	7.2	5.1	5.9	4.3	4.4	4.0	3.5
ER8	19.9	18.0	16.7	20.1	19.1	21.6	22.0	19.9	20.8	18.9
스페인	1.1	1.1	1.1	1.1	1.5	1.8	1.8	1.6	2.0	1.6
프랑스	2.6	2.3	2.2	2.5	2.4	2.9	2.5	2.0	2.0	1.7
영국	2.1	1.8	1.7	1.7	1.9	2.2	1.9	1.7	1.7	1.5
이탈리아	2.2	1.7	1.6	1.8	1.9	2.6	2.4	2.1	2.9	2.4
네덜란드	3.1	3.6	3.4	5.0	2.7	3.2	2.8	2.9	2.9	3.1
폴란드	1.0	1.1	1.1	1.1	1.8	2.4	2.7	2.4	2.1	1.9
벨기에	1.5	1.2	0.9	1.1	1.0	1.3	1.0	1.0	0.9	1.3
독일	6.4	5.3	4.7	5.7	6.0	5.5	6.9	6.2	6.3	5.4
BRICS3	2.4	2.7	2.4	2.8	4.0	4.1	4.1	4.9	4.8	5.4
브라질	0.6	0.7	0.6	0.7	0.7	0.8	1.1	1.3	1.2	1.1
러시아	0.7	0.8	0.6	0.8	1.1	1.5	1.2	1.4	1.4	1.4
인도	1.1	1.2	1.3	1.3	2.2	1.7	1.9	2.2	2.2	2.8
NEA4	15.0	16.8	15.5	15.2	10.3	14.6	16.5	15.2	16.5	18.1
일본	4.8	4.9	4.4	4.5	3.2	3.6	3.4	3.4	4.3	6.5
한국	7.0	8.4	7.6	7.0	5.8	6.7	6.7	6.1	6.7	6.9
대만	3.2	3.5	3.5	3.8	1.3	4.3	6.4	5.8	5.5	4.7
중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SEAN6	10.4	12.1	12.5	14.2	17.3	20.0	18.7	20.3	19.6	21.3
인도네시아	1.1	1.2	0.7	0.9	1.3	1.4	1.2	1.4	1.4	1.5
말레이시아	2.4	2.5	2.6	2.8	3.2	3.5	2.2	1.8	1.8	1.9
태국	1.5	1.5	1.5	1.6	2.7	2.8	2.7	2.5	2.6	3.8
필리핀	0.2	0.3	0.4	0.4	0.7	0.8	0.7	0.7	0.7	1.1
싱가포르	3.3	3.3	2.7	3.2	3.3	4.2	3.4	4.5	4.7	5.4
베트남	1.9	3.2	4.6	5.3	6.1	7.3	8.5	9.6	8.4	7.5
합계	57.3	60.6	58.5	67.0	63.6	76.2	74.8	74.9	75.0	75.5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3. 한국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66.2	78.4	85.5	86.1	99.5	105.3	102.4	125.3	147.5	142.3
캐나다	6.1	7.1	7.0	5.8	7.3	9.3	7.3	9.7	12.2	14.1
멕시코	36.6	32.4	41.4	47.1	46.0	50.8	51.6	63.7	67.4	50.3
미국	23.4	39.0	37.0	33.1	46.3	45.2	43.4	52.0	68.0	77.9
ER8	53.5	63.8	60.9	64.4	96.4	108.4	113.1	112.7	132.7	146.9
스페인	2.5	3.7	3.8	3.2	5.9	6.4	4.9	4.7	7.8	8.5
프랑스	3.4	5.3	5.3	5.4	10.0	10.2	7.6	8.8	10.9	13.0
영국	6.6	7.4	7.0	6.1	8.0	8.7	7.3	6.3	9.8	11.6
이탈리아	5.3	6.3	6.1	6.3	8.5	9.8	7.6	8.9	13.8	14.2
네덜란드	4.4	8.0	7.8	11.2	11.6	12.2	11.5	11.8	14.8	16.8
폴란드	10.2	9.5	9.6	9.5	13.8	17.1	24.2	21.1	24.2	24.4
벨기에	2.8	3.7	3.2	3.2	3.5	4.3	3.6	5.1	6.2	10.6
독일	18.3	19.9	18.2	19.6	35.2	39.8	46.5	46.0	45.3	47.9
BRICS3	17.0	22.5	19.9	19.1	39.2	39.0	36.2	45.5	43.8	42.9
브라질	3.0	5.1	4.4	4.6	4.6	4.8	4.6	5.8	6.2	5.6
러시아	6.1	8.3	6.0	6.2	13.8	19.0	16.8	20.9	15.6	12.4
인도	7.8	9.0	9.5	8.3	20.8	15.2	14.9	18.7	22.0	24.9
NEA3	254.2	280.4	287.5	291.0	409.9	407.6	301.8	465.0	466.8	353.0
일본	40.5	43.9	41.3	38.8	35.2	34.1	29.8	36.4	50.4	79.4
대만	55.8	56.1	59.5	61.2	78.1	80.0	61.2	72.2	85.0	53.6
중국	157.8	180.5	186.6	190.9	296.6	293.5	210.8	356.4	331.3	219.9
ASEAN6	110.5	126.6	141.9	173.9	221.1	202.1	240.4	296.2	314.7	250.8
인도네시아	9.8	10.0	7.5	7.7	10.0	9.9	8.3	9.8	12.4	10.6
말레이시아	22.1	15.6	15.5	15.3	19.8	21.6	21.4	17.5	19.2	16.0
태국	14.7	11.2	10.7	9.7	22.4	15.3	16.4	18.7	20.3	18.8
필리핀	4.5	4.0	4.5	4.9	9.7	12.0	16.7	15.9	18.2	12.5
싱가포르	39.4	42.2	42.5	40.3	47.7	29.6	43.4	59.6	67.6	60.0
베트남	20.0	43.5	61.1	96.0	111.5	113.6	134.3	174.6	177.0	132.8
합계	501.3	571.7	595.7	634.5	866.2	862.4	793.9	1,044.6	1,105.6	935.8
우회수출총액	689.1	811.0	842.1	831.3	1,046.3	1,005.0	949.6	1,199.3	1,309.5	1,173.0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4. 한국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9.6	9.7	10.2	10.4	9.5	10.5	10.8	10.4	11.3	12.1
캐나다	0.9	0.9	0.8	0.7	0.7	0.9	0.8	0.8	0.9	1.2
멕시코	5.3	4.0	4.9	5.7	4.4	5.1	5.4	5.3	5.1	4.3
미국	3.4	4.8	4.4	4.0	4.4	4.5	4.6	4.3	5.2	6.6
ER8	7.8	7.9	7.2	7.7	9.2	10.8	11.9	9.4	10.1	12.5
스페인	0.4	0.5	0.5	0.4	0.6	0.6	0.5	0.4	0.6	0.7
프랑스	0.5	0.6	0.6	0.6	1.0	1.0	0.8	0.7	0.8	1.1
영국	1.0	0.9	0.8	0.7	0.8	0.9	0.8	0.5	0.7	1.0
이탈리아	0.8	0.8	0.7	0.8	0.8	1.0	0.8	0.7	1.1	1.2
네덜란드	0.6	1.0	0.9	1.3	1.1	1.2	1.2	1.0	1.1	1.4
폴란드	1.5	1.2	1.1	1.1	1.3	1.7	2.5	1.8	1.8	2.1
벨기에	0.4	0.5	0.4	0.4	0.3	0.4	0.4	0.4	0.5	0.9
독일	2.7	2.5	2.2	2.4	3.4	4.0	4.9	3.8	3.5	4.1
BRICS3	2.5	2.8	2.4	2.3	3.7	3.9	3.8	3.8	3.3	3.7
브라질	0.4	0.6	0.5	0.5	0.4	0.5	0.5	0.5	0.5	0.5
러시아	0.9	1.0	0.7	0.7	1.3	1.9	1.8	1.7	1.2	1.1
인도	1.1	1.1	1.1	1.0	2.0	1.5	1.6	1.6	1.7	2.1
NEA3	36.9	34.6	34.1	35.0	39.2	40.6	31.8	38.8	35.6	30.1
일본	5.9	5.4	4.9	4.7	3.4	3.4	3.1	3.0	3.9	6.8
대만	8.1	6.9	7.1	7.4	7.5	8.0	6.4	6.0	6.5	4.6
중국	22.9	22.3	22.2	23.0	28.3	29.2	22.2	29.7	25.3	18.7
ASEAN6	16.0	15.6	16.8	20.9	21.1	20.1	25.3	24.7	24.0	21.4
인도네시아	1.4	1.2	0.9	0.9	1.0	1.0	0.9	0.8	0.9	0.9
말레이시아	3.2	1.9	1.8	1.8	1.9	2.2	2.3	1.5	1.5	1.4
태국	2.1	1.4	1.3	1.2	2.1	1.5	1.7	1.6	1.6	1.6
필리핀	0.7	0.5	0.5	0.6	0.9	1.2	1.8	1.3	1.4	1.1
싱가포르	5.7	5.2	5.1	4.8	4.6	2.9	4.6	5.0	5.2	5.1
베트남	2.9	5.4	7.3	11.6	10.7	11.3	14.1	14.6	13.5	11.3
합계	72.7	70.5	70.7	76.3	82.8	85.8	83.6	87.1	84.4	79.8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5. 일본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28.2	210.5	203.8	261.0	255.9	256.9	179.8	256.3	317.6	345.0
캐나다	22.5	31.6	29.1	31.1	30.1	34.3	24.1	35.5	44.4	47.0
멕시코	43.1	61.7	72.4	100.1	77.0	77.7	64.3	91.9	100.3	100.8
미국	62.5	117.1	102.3	129.8	148.8	145.0	91.4	128.9	172.9	197.2
ER8	156.7	206.1	178.9	234.1	279.3	305.2	241.1	343.2	399.8	433.1
스페인	5.4	5.7	5.2	5.9	12.9	13.6	6.6	10.2	16.7	17.7
프랑스	13.9	21.1	19.6	24.5	38.9	38.0	18.9	26.1	29.3	44.4
영국	27.3	25.3	21.7	24.6	41.0	40.1	25.9	26.1	37.7	52.9
이탈리아	8.6	10.0	8.8	11.1	15.8	13.9	11.1	17.7	26.8	37.8
네덜란드	25.9	38.0	34.4	52.4	33.0	33.6	29.5	55.9	62.6	65.2
폴란드	5.8	5.8	5.5	6.3	10.8	12.4	13.5	15.4	19.1	24.5
벨기에	14.9	20.2	15.9	19.4	23.2	26.1	28.6	40.0	40.6	39.1
독일	54.8	80.2	67.7	89.8	103.6	127.7	107.0	151.8	167.0	151.3
BRICS3	14.8	24.4	21.0	26.9	53.1	47.7	37.6	62.9	66.5	86.1
브라질	4.6	6.1	4.8	6.3	6.9	8.1	6.1	11.3	13.8	15.5
러시아	3.5	7.4	4.9	7.4	19.0	20.7	14.0	22.4	15.7	8.9
인도	6.7	10.9	11.2	13.2	27.2	18.9	17.5	29.1	37.0	61.8
NEA3	590.7	685.0	636.0	713.2	836.4	765.0	746.1	1,113.4	1,259.3	1,383.2
일본	185.5	268.0	237.2	244.3	202.6	196.1	138.1	223.2	274.3	338.8
대만	191.9	202.6	196.1	229.2	242.8	227.7	216.4	256.4	262.5	333.6
중국	213.3	214.4	202.7	239.7	391.1	341.2	391.6	633.7	722.6	710.8
ASEAN6	257.4	314.2	306.9	337.8	490.1	420.3	349.1	463.3	487.2	636.7
인도네시아	17.5	21.4	13.6	18.9	24.1	21.7	15.3	26.4	35.5	37.8
말레이시아	61.2	50.6	45.1	52.7	71.4	69.2	52.7	50.6	60.9	61.2
태국	68.1	86.4	78.8	91.9	163.6	119.8	107.3	139.4	137.0	187.3
필리핀	9.1	9.7	10.2	12.9	14.8	16.6	18.1	19.6	26.8	37.1
싱가포르	84.4	104.5	103.0	111.8	145.0	126.7	80.7	131.3	129.0	216.1
베트남	17.1	41.6	56.2	49.5	71.2	66.4	74.8	96.1	98.0	97.1
합계	1,147.8	1,440.2	1,346.5	1,573.1	1,914.8	1,795.3	1,553.6	2,239.2	2,530.3	2,884.1
우회수출총액	1,584.3	1,896.5	1,807.8	2,046.0	2,307.4	2,020.5	1,808.3	2,495.6	2,816.3	3,316.9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6. 일본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8.1	11.1	11.3	12.8	11.1	12.7	9.9	10.3	11.3	10.4
캐나다	1.4	1.7	1.6	1.5	1.3	1.7	1.3	1.4	1.6	1.4
멕시코	2.7	3.3	4.0	4.9	3.3	3.8	3.6	3.7	3.6	3.0
미국	3.9	6.2	5.7	6.3	6.5	7.2	5.1	5.2	6.1	5.9
ER8	9.9	10.9	9.9	11.4	12.1	15.1	13.3	13.8	14.2	13.1
스페인	0.3	0.3	0.3	0.3	0.6	0.7	0.4	0.4	0.6	0.5
프랑스	0.9	1.1	1.1	1.2	1.7	1.9	1.0	1.0	1.0	1.3
영국	1.7	1.3	1.2	1.2	1.8	2.0	1.4	1.0	1.3	1.6
이탈리아	0.5	0.5	0.5	0.5	0.7	0.7	0.6	0.7	1.0	1.1
네덜란드	1.6	2.0	1.9	2.6	1.4	1.7	1.6	2.2	2.2	2.0
폴란드	0.4	0.3	0.3	0.3	0.5	0.6	0.7	0.6	0.7	0.7
벨기에	0.9	1.1	0.9	0.9	1.0	1.3	1.6	1.6	1.4	1.2
독일	3.5	4.2	3.7	4.4	4.5	6.3	5.9	6.1	5.9	4.6
BRICS3	0.9	1.3	1.2	1.3	2.3	2.4	2.1	2.5	2.4	2.6
브라질	0.3	0.3	0.3	0.3	0.3	0.4	0.3	0.5	0.5	0.5
러시아	0.2	0.4	0.3	0.4	0.8	1.0	0.8	0.9	0.6	0.3
인도	0.4	0.6	0.6	0.6	1.2	0.9	1.0	1.2	1.3	1.9
NEA4	37.3	36.1	35.2	34.9	36.3	37.9	41.3	44.6	44.7	41.7
일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국	11.7	14.1	13.1	11.9	8.8	9.7	7.6	8.9	9.7	10.2
대만	12.1	10.7	10.8	11.2	10.5	11.3	12.0	10.3	9.3	10.1
중국	13.5	11.3	11.2	11.7	16.9	16.9	21.7	25.4	25.7	21.4
ASEAN6	16.2	16.6	17.0	16.5	21.2	20.8	19.3	18.6	17.3	19.2
인도네시아	1.1	1.1	0.8	0.9	1.0	1.1	0.8	1.1	1.3	1.1
말레이시아	3.9	2.7	2.5	2.6	3.1	3.4	2.9	2.0	2.2	1.8
태국	4.3	4.6	4.4	4.5	7.1	5.9	5.9	5.6	4.9	5.6
필리핀	0.6	0.5	0.6	0.6	0.6	0.8	1.0	0.8	0.9	1.1
싱가포르	5.3	5.5	5.7	5.5	6.3	6.3	4.5	5.3	4.6	6.5
베트남	1.1	2.2	3.1	2.4	3.1	3.3	4.1	3.9	3.5	2.9
합계	72.4	75.9	74.5	76.9	83.0	88.9	85.9	89.7	89.8	86.9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7. 대만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36.5	45.7	48.9	56.5	63.7	68.4	77.3	100.0	102.2	97.8
캐나다	6.6	7.4	7.3	7.4	7.2	10.1	7.3	11.8	11.0	9.0
멕시코	15.9	16.3	20.9	27.3	25.8	28.8	39.9	40.7	43.5	46.6
미국	14.0	22.0	20.7	21.8	30.8	29.5	30.1	47.5	47.7	42.2
ER8	40.2	45.5	42.9	52.1	65.8	58.8	71.8	78.8	82.2	63.0
스페인	2.4	1.9	1.9	2.0	2.8	3.0	2.9	4.5	5.9	3.3
프랑스	5.8	5.2	5.1	6.2	9.2	7.5	4.1	6.7	7.0	6.4
영국	5.6	5.4	5.1	5.4	5.3	5.6	4.7	5.9	7.1	4.6
이탈리아	4.1	4.2	4.0	4.6	5.2	5.2	4.5	6.3	8.3	5.4
네덜란드	3.3	4.5	4.4	6.8	8.2	8.6	9.3	12.6	12.5	14.0
폴란드	2.9	3.1	3.2	3.5	3.3	4.0	3.3	4.3	4.4	2.7
벨기에	1.6	2.6	2.2	2.5	3.1	4.4	3.8	4.9	4.4	4.8
독일	14.5	18.6	16.9	21.2	28.8	20.5	39.1	33.7	32.6	21.7
BRICS3	5.4	5.9	5.0	5.7	7.3	7.5	7.6	12.0	12.6	9.3
브라질	2.7	2.6	2.1	2.7	1.6	1.7	1.6	2.7	2.2	1.9
러시아	0.7	0.5	0.4	0.5	1.5	2.1	1.6	2.4	1.9	1.1
인도	2.0	2.8	2.5	2.5	4.2	3.8	4.5	6.9	8.6	6.3
NEA3	195.2	256.5	254.2	286.1	392.4	386.0	294.4	459.2	441.8	306.5
일본	28.0	37.6	36.5	37.6	40.9	40.8	22.3	29.1	36.4	51.7
한국	30.1	40.7	36.7	37.5	40.4	28.1	62.7	40.9	37.3	24.2
중국	137.2	178.3	181.0	211.0	311.0	317.1	209.3	389.3	368.1	230.7
ASEAN6	75.8	120.1	138.6	156.5	200.3	153.3	159.7	182.0	199.9	154.2
인도네시아	3.0	3.2	2.4	2.9	3.8	4.1	4.7	6.5	6.1	3.3
말레이시아	16.7	26.1	27.9	35.7	32.6	30.7	48.0	36.9	49.5	26.1
태국	6.7	8.3	9.3	9.2	22.0	18.3	13.6	12.1	14.8	24.1
필리핀	5.5	6.0	6.4	7.8	7.0	9.4	7.1	6.3	6.1	4.5
싱가포르	34.0	59.6	69.3	69.7	102.9	55.9	50.2	66.3	74.8	65.9
베트남	9.8	16.8	23.4	31.2	32.0	34.9	36.1	53.9	48.7	30.4
합계	353.1	473.7	489.6	556.9	729.5	674.0	610.8	832.1	838.7	630.9
우회수출총액	493.4	621.4	655.7	696.0	803.0	731.3	681.3	904.8	911.3	696.7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8. 대만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7.4	7.3	7.5	8.1	7.9	9.3	11.3	11.1	11.2	14.0
캐나다	1.3	1.2	1.1	1.1	0.9	1.4	1.1	1.3	1.2	1.3
멕시코	3.2	2.6	3.2	3.9	3.2	3.9	5.9	4.5	4.8	6.7
미국	2.8	3.5	3.2	3.1	3.8	4.0	4.4	5.2	5.2	6.1
ER8	8.2	7.3	6.5	7.5	8.2	8.0	10.5	8.7	9.0	9.0
스페인	0.5	0.3	0.3	0.3	0.3	0.4	0.4	0.5	0.6	0.5
프랑스	1.2	0.8	0.8	0.9	1.1	1.0	0.6	0.7	0.8	0.9
영국	1.1	0.9	0.8	0.8	0.7	0.8	0.7	0.6	0.8	0.7
이탈리아	0.8	0.7	0.6	0.7	0.6	0.7	0.7	0.7	0.9	0.8
네덜란드	0.7	0.7	0.7	1.0	1.0	1.2	1.4	1.4	1.4	2.0
폴란드	0.6	0.5	0.5	0.5	0.4	0.6	0.5	0.5	0.5	0.4
벨기에	0.3	0.4	0.3	0.4	0.4	0.6	0.6	0.5	0.5	0.7
독일	2.9	3.0	2.6	3.1	3.6	2.8	5.7	3.7	3.6	3.1
BRICS3	1.1	1.0	0.8	0.8	0.9	1.0	1.1	1.3	1.4	1.3
브라질	0.5	0.4	0.3	0.4	0.2	0.2	0.2	0.3	0.2	0.3
러시아	0.1	0.1	0.1	0.1	0.2	0.3	0.2	0.3	0.2	0.2
인도	0.4	0.4	0.4	0.4	0.5	0.5	0.7	0.8	0.9	0.9
NEA4	39.6	41.3	38.8	41.1	48.9	52.8	43.2	50.7	48.5	44.0
일본	5.7	6.0	5.6	5.4	5.1	5.6	3.3	3.2	4.0	7.4
한국	6.1	6.5	5.6	5.4	5.0	3.8	9.2	4.5	4.1	3.5
대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27.8	28.7	27.6	30.3	38.7	43.4	30.7	43.0	40.4	33.1
ASEAN6	15.4	19.3	21.1	22.5	24.9	21.0	23.4	20.1	21.9	22.1
인도네시아	0.6	0.5	0.4	0.4	0.5	0.6	0.7	0.7	0.7	0.5
말레이시아	3.4	4.2	4.3	5.1	4.1	4.2	7.1	4.1	5.4	3.8
태국	1.4	1.3	1.4	1.3	2.7	2.5	2.0	1.3	1.6	3.5
필리핀	1.1	1.0	1.0	1.1	0.9	1.3	1.0	0.7	0.7	0.6
싱가포르	6.9	9.6	10.6	10.0	12.8	7.6	7.4	7.3	8.2	9.5
베트남	2.0	2.7	3.6	4.5	4.0	4.8	5.3	6.0	5.3	4.4
합계	71.6	76.2	74.7	80.0	90.9	92.2	89.7	92.0	92.0	90.5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9. 인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8.6	34.5	39.0	52.9	78.3	86.6	80.4	84.5	132.2	138.6
캐나다	2.0	4.2	4.5	4.4	10.1	11.1	13.3	15.7	18.3	19.6
멕시코	2.3	7.2	9.6	12.0	13.0	14.2	11.5	14.0	21.9	27.1
미국	14.3	23.1	24.9	36.5	55.2	61.4	55.6	54.9	92.0	91.9
ER8	68.8	98.8	104.7	124.3	196.1	210.4	201.8	229.7	285.0	347.0
스페인	3.5	7.1	8.4	8.6	15.0	14.0	12.9	15.0	19.8	26.2
프랑스	8.5	13.1	15.0	17.9	26.4	30.8	20.9	23.2	25.5	26.2
영국	11.8	14.2	14.8	15.7	35.6	23.9	40.2	27.1	45.0	77.7
이탈리아	7.7	12.3	13.2	14.8	19.9	21.1	20.3	28.6	42.5	51.2
네덜란드	9.4	12.2	13.5	19.8	32.1	41.1	27.3	43.7	37.3	52.9
폴란드	1.5	3.4	3.9	4.1	6.3	7.3	8.0	9.6	13.8	12.5
벨기에	8.7	11.4	10.7	12.4	14.2	29.3	14.3	26.3	35.7	38.3
독일	17.8	25.1	25.3	30.9	46.5	42.9	57.9	56.2	65.5	62.1
BRICS3	4.6	7.2	8.1	9.8	13.2	13.5	18.9	21.3	21.0	22.1
브라질	3.7	5.5	6.7	7.9	7.6	7.0	12.0	13.9	15.7	18.1
러시아	0.9	1.7	1.4	1.9	5.6	6.5	6.9	7.4	5.3	4.0
NEA3	60.1	48.9	55.8	57.0	95.0	91.2	107.4	143.0	130.9	148.0
일본	5.4	6.9	7.9	8.3	7.9	9.5	8.7	11.6	16.1	30.5
한국	10.6	14.9	17.1	16.3	21.8	21.3	25.1	39.0	41.7	28.0
대만	6.1	7.7	10.2	10.5	18.4	15.3	14.1	15.8	18.6	20.9
중국	37.9	19.4	20.5	21.9	46.8	45.1	59.4	76.5	54.5	68.6
ASEAN6	53.1	66.2	68.6	84.6	98.0	87.2	149.5	121.1	137.8	146.7
인도네시아	3.8	6.0	4.8	6.0	7.9	7.0	7.1	13.1	16.3	15.1
말레이시아	8.8	9.7	11.5	16.2	17.2	16.5	19.6	9.5	15.8	13.6
태국	3.3	4.5	4.9	5.5	14.5	14.8	12.5	14.2	21.7	15.3
필리핀	0.3	0.8	0.8	0.9	0.9	1.5	1.8	3.7	4.1	4.4
싱가포르	32.8	38.0	35.9	42.7	42.3	31.4	92.8	57.0	59.8	77.5
베트남	4.1	7.2	10.7	13.1	15.2	16.1	15.7	23.5	20.1	20.8
합계	205.2	255.5	276.2	328.6	480.7	489.0	558.0	599.7	706.9	802.5
우회수출총액	488.2	512.6	589.9	592.9	873.0	739.6	841.4	1,038.6	1,167.8	1,317.6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0. 인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3.8	6.7	6.6	8.9	9.0	11.7	9.6	8.1	11.3	10.5
캐나다	0.4	0.8	0.8	0.7	1.2	1.5	1.6	1.5	1.6	1.5
멕시코	0.5	1.4	1.6	2.0	1.5	1.9	1.4	1.3	1.9	2.1
미국	2.9	4.5	4.2	6.2	6.3	8.3	6.6	5.3	7.9	7.0
ER8	14.1	19.3	17.7	21.0	22.5	28.5	24.0	22.1	24.4	26.3
스페인	0.7	1.4	1.4	1.5	1.7	1.9	1.5	1.4	1.7	2.0
프랑스	1.7	2.6	2.5	3.0	3.0	4.2	2.5	2.2	2.2	2.0
영국	2.4	2.8	2.5	2.6	4.1	3.2	4.8	2.6	3.9	5.9
이탈리아	1.6	2.4	2.2	2.5	2.3	2.9	2.4	2.7	3.6	3.9
네덜란드	1.9	2.4	2.3	3.3	3.7	5.6	3.2	4.2	3.2	4.0
폴란드	0.3	0.7	0.7	0.7	0.7	1.0	1.0	0.9	1.2	0.9
벨기에	1.8	2.2	1.8	2.1	1.6	4.0	1.7	2.5	3.1	2.9
독일	3.6	4.9	4.3	5.2	5.3	5.8	6.9	5.4	5.6	4.7
BRICS3	0.9	1.4	1.4	1.7	1.5	1.8	2.3	2.0	1.8	1.7
브라질	0.8	1.1	1.1	1.3	0.9	1.0	1.4	1.3	1.3	1.4
러시아	0.2	0.3	0.2	0.3	0.6	0.9	0.8	0.7	0.5	0.3
인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NEA4	12.3	9.5	9.5	9.6	10.9	12.3	12.8	13.8	11.2	11.2
일본	1.1	1.4	1.3	1.4	0.9	1.3	1.0	1.1	1.4	2.3
한국	2.2	2.9	2.9	2.8	2.5	2.9	3.0	3.8	3.6	2.1
대만	1.3	1.5	1.7	1.8	2.1	2.1	1.7	1.5	1.6	1.6
중국	7.8	3.8	3.5	3.7	5.4	6.1	7.1	7.4	4.7	5.2
ASEAN6	10.9	12.9	11.6	14.3	11.2	11.8	17.8	11.7	11.8	11.1
인도네시아	0.8	1.2	0.8	1.0	0.9	0.9	0.8	1.3	1.4	1.1
말레이시아	1.8	1.9	1.9	2.7	2.0	2.2	2.3	0.9	1.4	1.0
태국	0.7	0.9	0.8	0.9	1.7	2.0	1.5	1.4	1.9	1.2
필리핀	0.1	0.2	0.1	0.2	0.1	0.2	0.2	0.4	0.4	0.3
싱가포르	6.7	7.4	6.1	7.2	4.8	4.2	11.0	5.5	5.1	5.9
베트남	0.8	1.4	1.8	2.2	1.7	2.2	1.9	2.3	1.7	1.6
합계	42.0	49.8	46.8	55.4	55.1	66.1	66.3	57.7	60.5	60.9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1.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6	3.2	3.4	8.1	9.0	9.9	11.3	14.6	13.6	19.0
캐나다	0.3	0.9	0.9	0.8	1.2	1.7	1.5	2.2	3.1	3.2
멕시코	0.2	0.6	0.8	0.8	1.4	1.7	2.3	4.9	1.7	2.6
미국	1.2	1.7	1.7	6.5	6.5	6.6	7.5	7.5	8.9	13.2
ER8	9.1	13.7	13.1	23.7	30.6	29.3	27.8	28.1	34.0	41.5
스페인	0.5	0.6	0.7	1.2	1.5	1.5	1.3	1.5	2.1	2.6
프랑스	0.7	1.1	0.9	3.9	5.3	5.5	4.4	3.0	4.3	5.0
영국	0.7	0.8	0.7	2.2	3.1	4.1	2.8	3.0	3.8	5.2
이탈리아	1.3	1.7	1.5	1.5	1.5	1.9	1.3	1.7	2.3	2.3
네덜란드	1.4	2.4	2.6	5.8	6.0	5.4	4.0	3.7	4.4	6.5
폴란드	0.3	0.5	0.6	0.8	1.7	1.7	1.1	1.9	1.7	2.2
벨기에	1.4	2.4	2.3	1.7	2.0	1.6	1.4	2.9	2.7	2.8
독일	2.9	4.1	3.8	6.5	9.5	7.6	11.5	10.4	12.8	14.9
BRICS3	0.8	1.5	1.5	2.1	4.4	6.6	3.6	4.2	5.3	3.9
브라질	0.2	0.6	0.5	0.4	0.5	0.6	0.5	0.6	0.6	0.5
러시아	0.1	0.1	0.1	0.7	1.3	1.9	0.9	0.7	0.8	0.7
인도	0.6	0.8	0.9	1.0	2.6	4.1	2.2	2.9	3.9	2.7
NEA3	23.4	43.7	36.1	42.2	43.1	47.9	52.6	48.1	55.0	53.9
일본	8.7	9.6	7.2	8.0	8.8	9.1	5.5	8.0	10.7	15.9
한국	4.2	12.5	11.0	10.7	11.5	13.8	8.9	10.8	12.0	11.6
대만	2.6	2.9	2.8	2.2	2.6	3.5	3.9	3.5	4.3	3.4
중국	7.9	18.6	15.1	21.3	20.3	21.6	34.3	25.8	28.0	23.1
ASEAN6	12.9	14.9	11.2	17.6	17.1	18.8	20.4	21.7	25.0	18.7
인도네시아	1.6	1.2	0.8	1.8	1.8	2.0	1.7	2.3	2.7	1.7
말레이시아	7.2	8.8	5.3	4.5	3.8	3.8	3.5	3.5	4.4	2.9
태국	0.9	1.1	1.2	3.2	3.7	4.2	4.2	4.8	6.1	4.1
필리핀	0.4	0.6	0.8	1.1	1.3	1.2	0.7	1.5	1.6	1.7
싱가포르	2.9	3.2	3.0	7.1	6.6	7.6	10.4	9.6	10.1	8.2
합계	47.9	76.9	65.3	93.7	104.2	112.6	115.7	116.7	132.8	136.9
우회수출총액	72.8	109.0	128.6	114.5	133.4	140.3	137.0	138.4	166.0	174.0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2.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3	2.9	2.7	7.1	6.8	7.1	8.2	10.5	8.2	10.9
캐나다	0.4	0.8	0.7	0.7	0.9	1.2	1.1	1.6	1.8	1.8
멕시코	0.3	0.6	0.6	0.7	1.0	1.2	1.7	3.5	1.0	1.5
미국	1.6	1.5	1.3	5.7	4.9	4.7	5.4	5.4	5.3	7.6
ER8	12.5	12.5	10.2	20.7	22.9	20.9	20.3	20.3	20.5	23.8
스페인	0.7	0.6	0.5	1.0	1.1	1.1	0.9	1.1	1.3	1.5
프랑스	0.9	1.0	0.7	3.4	4.0	3.9	3.2	2.2	2.6	2.9
영국	1.0	0.7	0.5	1.9	2.3	2.9	2.1	2.2	2.3	3.0
이탈리아	1.8	1.6	1.2	1.3	1.1	1.4	1.0	1.3	1.4	1.3
네덜란드	1.9	2.2	2.0	5.1	4.5	3.9	2.9	2.7	2.7	3.7
폴란드	0.3	0.5	0.4	0.7	1.3	1.2	0.8	1.4	1.0	1.3
벨기에	1.9	2.2	1.8	1.5	1.5	1.1	1.0	2.1	1.6	1.6
독일	4.0	3.8	3.0	5.7	7.1	5.4	8.4	7.5	7.7	8.5
BRICS3	1.1	1.4	1.2	1.8	3.3	4.7	2.6	3.0	3.2	2.3
브라질	0.3	0.5	0.4	0.4	0.4	0.4	0.4	0.4	0.4	0.3
러시아	0.1	0.1	0.1	0.6	1.0	1.4	0.7	0.5	0.5	0.4
인도	0.8	0.8	0.7	0.9	1.9	2.9	1.6	2.1	2.4	1.6
NEA4	32.2	40.1	28.0	36.8	32.3	34.2	38.4	34.7	33.1	31.0
일본	11.9	8.8	5.6	7.0	6.6	6.5	4.0	5.8	6.4	9.1
한국	5.8	11.5	8.6	9.3	8.6	9.8	6.5	7.8	7.2	6.7
대만	3.6	2.7	2.2	1.9	2.0	2.5	2.9	2.6	2.6	1.9
중국	10.9	17.1	11.7	18.6	15.2	15.4	25.0	18.6	16.9	13.3
ASEAN6	17.8	13.7	8.7	15.4	12.8	13.4	14.9	15.7	15.1	10.7
인도네시아	2.2	1.1	0.6	1.5	1.4	1.4	1.2	1.7	1.6	1.0
말레이시아	9.9	8.1	4.1	3.9	2.8	2.7	2.6	2.5	2.7	1.7
태국	1.2	1.0	1.0	2.8	2.8	3.0	3.1	3.5	3.7	2.3
필리핀	0.6	0.5	0.6	0.9	0.9	0.9	0.5	1.1	1.0	1.0
싱가포르	4.0	3.0	2.4	6.2	4.9	5.4	7.6	6.9	6.1	4.7
베트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65.9	70.6	50.8	81.8	78.1	80.2	84.4	84.3	80.0	78.7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3.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0.1	14.6	15.3	18.6	18.4	22.6	19.1	24.9	29.4	24.1
캐나다	1.7	2.4	2.4	2.6	2.4	3.8	2.7	3.8	4.4	3.7
멕시코	1.8	3.1	4.0	5.6	2.5	2.9	3.7	3.3	4.5	6.2
미국	6.6	9.1	8.8	10.4	13.5	15.8	12.7	17.8	20.5	14.2
ER8	34.3	52.6	41.2	59.4	55.1	55.0	46.3	62.4	82.8	64.7
스페인	4.6	7.6	5.8	7.4	7.9	7.3	5.7	7.5	9.5	7.2
프랑스	1.7	2.4	2.5	3.2	4.0	4.4	2.6	4.3	5.7	4.4
영국	2.1	2.2	2.1	2.3	3.6	4.0	2.9	3.4	5.4	3.2
이탈리아	3.4	7.4	4.8	7.3	7.0	7.2	6.5	8.8	12.7	9.5
네덜란드	13.7	20.6	14.3	24.0	18.8	16.9	13.7	17.6	20.5	17.7
폴란드	0.5	1.2	1.4	1.6	1.7	2.2	1.8	2.4	5.4	4.1
벨기에	1.9	2.1	1.7	2.1	2.6	4.8	2.8	5.6	7.6	6.3
독일	6.5	9.2	8.5	11.5	9.5	8.2	10.4	12.7	16.0	12.3
BRICS3	11.0	19.7	13.5	17.8	48.7	35.6	27.1	43.3	67.4	50.2
브라질	2.1	3.3	2.1	2.7	2.3	2.5	2.7	5.0	5.3	3.2
러시아	0.3	0.6	0.3	0.5	1.8	2.6	2.6	3.6	2.0	1.4
인도	8.6	15.8	11.1	14.6	44.6	30.5	21.8	34.7	60.1	45.5
NEA3	160.1	140.6	119.7	162.4	142.9	151.1	137.7	213.1	300.9	257.1
일본	39.7	46.3	42.4	57.8	36.1	41.6	26.5	32.7	58.4	62.3
한국	45.7	39.5	35.3	43.7	32.3	32.9	28.1	32.5	64.4	46.9
대만	39.2	22.5	15.5	26.0	20.9	20.5	19.7	38.6	55.9	33.5
중국	35.4	32.3	26.5	34.9	53.6	56.0	63.5	109.3	122.2	114.4
ASEAN6	90.2	109.6	88.5	109.1	140.7	135.9	124.0	158.1	170.0	171.0
말레이시아	46.2	44.4	29.3	36.6	43.2	38.6	33.5	31.9	40.2	32.1
태국	8.6	13.0	11.0	17.6	30.8	22.7	14.9	25.1	31.2	25.2
필리핀	2.7	3.7	4.4	5.7	7.6	7.3	7.1	11.7	15.0	16.6
싱가포르	27.7	42.2	33.1	36.4	42.8	48.9	50.5	65.5	54.6	67.5
베트남	5.0	6.4	10.7	12.8	16.3	18.3	18.0	23.9	29.0	29.7
합계	305.8	337.2	278.1	367.3	405.7	400.1	354.3	501.8	650.5	567.0
우회수출총액	430.3	452.7	442.2	468.8	480.8	441.3	398.0	557.3	727.5	679.5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4.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경유 국가별 비중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4	3.2	3.4	4.0	3.8	5.1	4.8	4.5	4.0	3.5
캐나다	0.4	0.5	0.6	0.5	0.5	0.9	0.7	0.7	0.6	0.5
멕시코	0.4	0.7	0.9	1.2	0.5	0.7	0.9	0.6	0.6	0.9
미국	1.5	2.0	2.0	2.2	2.8	3.6	3.2	3.2	2.8	2.1
ER8	8.0	11.6	9.3	12.7	11.5	12.5	11.6	11.2	11.4	9.5
스페인	1.1	1.7	1.3	1.6	1.6	1.7	1.4	1.3	1.3	1.1
프랑스	0.4	0.5	0.6	0.7	0.8	1.0	0.7	0.8	0.8	0.6
영국	0.5	0.5	0.5	0.5	0.7	0.9	0.7	0.6	0.7	0.5
이탈리아	0.8	1.6	1.1	1.6	1.4	1.6	1.6	1.6	1.7	1.4
네덜란드	3.2	4.5	3.2	5.1	3.9	3.8	3.5	3.2	2.8	2.6
폴란드	0.1	0.3	0.3	0.3	0.4	0.5	0.5	0.4	0.7	0.6
벨기에	0.4	0.5	0.4	0.4	0.5	1.1	0.7	1.0	1.0	0.9
독일	1.5	2.0	1.9	2.4	2.0	1.9	2.6	2.3	2.2	1.8
BRICS3	2.6	4.4	3.0	3.8	10.1	8.1	6.8	7.8	9.3	7.4
브라질	0.5	0.7	0.5	0.6	0.5	0.6	0.7	0.9	0.7	0.5
러시아	0.1	0.1	0.1	0.1	0.4	0.6	0.7	0.6	0.3	0.2
인도	2.0	3.5	2.5	3.1	9.3	6.9	5.5	6.2	8.3	6.7
NEA4	37.2	31.1	27.1	34.6	29.7	34.2	34.6	38.2	41.4	37.8
일본	9.2	10.2	9.6	12.3	7.5	9.4	6.7	5.9	8.0	9.2
한국	10.6	8.7	8.0	9.3	6.7	7.5	7.0	5.8	8.9	6.9
대만	9.1	5.0	3.5	5.5	4.3	4.7	4.9	6.9	7.7	4.9
중국	8.2	7.1	6.0	7.4	11.1	12.7	15.9	19.6	16.8	16.8
ASEAN6	21.0	24.2	20.0	23.3	29.3	30.8	31.2	28.4	23.4	25.2
인도네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말레이시아	10.7	9.8	6.6	7.8	9.0	8.8	8.4	5.7	5.5	4.7
태국	2.0	2.9	2.5	3.8	6.4	5.2	3.8	4.5	4.3	3.7
필리핀	0.6	0.8	1.0	1.2	1.6	1.7	1.8	2.1	2.1	2.4
싱가포르	6.4	9.3	7.5	7.8	8.9	11.1	12.7	11.8	7.5	9.9
베트남	1.2	1.4	2.4	2.7	3.4	4.1	4.5	4.3	4.0	4.4
합계	71.1	74.5	62.9	78.4	84.4	90.7	89.0	90.0	89.4	83.5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5. 중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4.2	24.9	23.7	25.9	26.6	29.2	29.8	31.5	31.1	29.2
캐나다	2.9	2.7	2.6	2.8	2.7	2.8	2.7	2.9	2.8	2.5
멕시코	1.4	2.7	1.6	1.9	1.7	1.9	1.5	2.1	2.1	2.3
미국	19.8	19.6	19.6	21.2	22.2	24.5	25.5	26.5	26.2	24.4
ER8	23.3	20.4	20.5	21.7	24.8	24.4	24.3	23.0	23.0	21.5
스페인	2.2	1.7	1.7	1.6	2.0	1.9	1.8	2.0	1.9	1.7
프랑스	4.0	3.4	3.4	3.7	4.0	3.7	3.9	3.6	3.7	3.4
영국	4.3	4.1	4.1	3.8	4.4	4.2	4.0	3.6	3.8	3.5
이탈리아	3.2	2.3	2.2	2.2	2.5	2.3	2.3	2.4	2.3	2.2
네덜란드	1.5	1.4	1.5	1.9	2.3	2.3	2.5	2.4	2.5	2.2
폴란드	1.1	1.1	1.0	1.1	1.3	1.2	1.2	1.3	1.4	1.3
벨기에	1.1	1.2	1.4	1.3	1.5	1.5	1.5	1.3	1.3	1.3
독일	5.8	5.3	5.3	6.1	6.7	7.4	7.2	6.4	6.1	6.0
BRICS3	7.9	6.0	5.7	6.0	6.6	6.4	6.2	6.6	6.1	6.1
브라질	2.3	1.8	1.6	1.6	1.4	1.2	1.2	1.3	1.2	1.3
러시아	2.3	1.7	1.6	2.0	2.0	2.0	2.1	2.2	1.5	1.5
인도	3.3	2.5	2.5	2.4	3.3	3.2	2.9	3.2	3.3	3.4
NEA4	9.0	8.5	8.2	7.9	8.3	8.2	8.1	8.1	8.1	9.1
일본	5.3	5.2	4.8	4.3	4.4	4.6	4.2	4.2	4.3	5.0
한국	2.3	2.2	2.2	2.4	2.5	2.5	2.9	2.7	2.6	2.8
대만	1.4	1.1	1.2	1.2	1.4	1.1	1.0	1.2	1.2	1.3
중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SEAN6	5.9	6.0	8.6	6.0	6.0	6.4	5.7	5.7	5.9	6.4
인도네시아	1.6	1.4	1.5	1.4	1.4	1.4	1.1	1.2	1.3	1.5
말레이시아	1.1	1.1	3.2	1.0	0.9	1.0	0.9	0.9	1.0	0.9
태국	1.1	1.0	0.9	1.0	1.3	1.2	1.2	1.1	1.1	1.3
필리핀	0.6	0.7	0.8	0.8	0.7	0.9	0.7	0.9	0.9	0.9
싱가포르	0.9	0.8	0.8	0.9	0.9	0.9	0.7	0.6	0.6	0.7
베트남	0.6	0.9	1.3	1.0	0.9	1.1	1.1	1.0	1.0	1.0
합계	70.2	65.9	66.7	67.5	72.3	74.5	74.1	74.9	74.2	72.3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6. 중국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8,499	11,589	14,603	16,884	19,534	23,609	20,896	27,764	29,507	30,162
캐나다	2,397	3,604	3,813	3,455	3,868	5,901	4,958	5,581	6,083	5,163
멕시코	5,598	7,115	9,821	12,015	14,573	16,452	15,144	21,151	22,341	23,904
미국	504	869	969	1,415	1,093	1,256	794	1,033	1,082	1,094
ER8	3,603	5,016	5,080	7,046	7,511	7,881	7,378	8,382	10,605	9,465
스페인	122	201	224	287	398	438	434	488	763	528
프랑스	424	552	594	961	1,084	1,161	967	1,145	1,194	843
영국	598	772	782	1,054	1,202	1,357	1,033	1,110	1,323	1,139
이탈리아	356	526	547	702	875	1,082	954	980	1,605	1,389
네덜란드	480	790	830	1,371	793	852	634	976	1,146	1,146
폴란드	83	152	168	253	429	547	614	693	765	635
벨기에	236	287	250	303	260	346	272	325	377	540
독일	1,304	1,735	1,685	2,115	2,470	2,097	2,470	2,665	3,432	3,245
BRICS3	667	1,033	1,001	1,575	2,287	2,450	2,411	3,241	3,730	4,263
브라질	173	334	305	501	551	718	692	1,111	1,248	1,097
러시아	125	179	126	212	376	492	405	512	430	384
인도	368	519	570	862	1,360	1,240	1,314	1,618	2,051	2,782
NEA3	6,139	9,925	10,040	10,700	8,451	13,143	15,032	16,645	20,159	23,139
일본	2,067	3,460	3,342	3,485	2,882	3,478	2,972	3,283	4,717	7,769
한국	2,667	4,445	4,486	4,408	4,453	5,531	5,498	5,928	7,310	8,280
대만	1,406	2,021	2,212	2,808	1,117	4,135	6,562	7,434	8,131	7,090
중국	3,158	5,210	6,026	8,629	11,365	15,614	15,829	21,111	22,563	22,682
ASEAN6	481	649	470	564	1,078	1,321	1,223	1,474	1,560	1,276
말레이시아	709	1,234	1,395	1,571	1,979	2,815	1,800	1,558	1,523	1,947
태국	342	445	482	819	964	1,364	1,471	1,555	1,978	2,835
필리핀	116	197	250	300	525	661	580	623	711	1,285
싱가포르	841	1,095	1,110	1,147	1,692	2,357	1,778	2,680	3,640	4,810
베트남	671	1,591	2,319	4,228	5,127	7,095	8,977	13,220	13,151	10,529
합계	22,066	32,772	36,749	44,835	49,149	62,696	61,546	77,144	86,563	89,711
우회수출총액	40,703	51,319	55,530	63,082	70,895	75,181	75,979	90,724	103,877	104,083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7. 한국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4.0	23.0	23.0	25.8	24.7	26.7	26.2	28.8	28.4	25.6
캐나다	2.7	2.4	2.4	2.3	2.5	2.6	2.6	2.8	2.8	2.6
멕시코	1.2	1.9	1.4	1.5	1.9	1.9	1.6	2.2	2.4	2.6
미국	20.0	18.7	19.3	22.0	20.4	22.2	22.0	23.8	23.2	20.4
ER8	18.4	16.4	16.5	17.1	19.2	20.1	19.2	18.1	18.9	18.7
스페인	1.6	1.3	1.3	1.2	1.5	1.5	1.4	1.3	1.4	1.4
프랑스	3.0	2.6	2.6	2.7	3.1	3.1	2.8	2.4	2.5	2.6
영국	3.4	3.3	3.2	2.9	3.3	3.2	3.1	2.9	3.3	3.1
이탈리아	2.4	1.7	1.7	1.7	1.8	1.8	1.8	1.6	1.8	1.8
네덜란드	1.3	1.4	1.4	1.9	1.9	2.0	2.0	2.0	2.3	2.0
폴란드	0.8	0.9	0.9	0.9	1.1	1.2	1.1	1.3	1.2	1.1
벨기에	0.7	0.8	0.9	0.8	0.9	1.0	0.9	0.8	0.8	1.0
독일	5.0	4.5	4.5	5.1	5.6	6.3	6.1	5.8	5.5	5.5
BRICS3	6.2	5.0	4.7	5.1	5.6	5.5	5.2	5.5	5.4	5.8
브라질	1.8	1.5	1.2	1.3	1.1	1.2	1.1	1.3	1.3	1.3
러시아	1.9	1.4	1.3	1.7	1.7	1.8	1.7	1.6	1.2	1.5
인도	2.5	2.1	2.1	2.1	2.8	2.5	2.5	2.6	2.9	3.1
NEA3	17.2	17.8	17.6	17.5	17.6	17.7	19.5	17.9	18.0	18.4
일본	5.6	5.3	5.2	5.0	4.9	5.0	4.6	4.5	4.6	4.8
대만	1.2	1.0	1.0	1.1	1.0	1.1	1.2	1.4	1.3	1.2
중국	10.4	11.5	11.3	11.4	11.7	11.5	13.7	11.9	12.0	12.4
ASEAN6	5.7	5.4	6.8	5.7	6.3	6.0	5.2	5.4	5.8	5.7
인도네시아	1.6	1.4	1.4	1.4	1.5	1.4	1.2	1.3	1.5	1.4
말레이시아	1.1	1.1	2.2	1.0	1.1	1.0	0.8	0.9	1.0	0.9
태국	1.1	0.9	0.9	0.9	1.3	1.1	1.2	1.1	1.1	1.3
필리핀	0.5	0.6	0.7	0.7	0.7	0.7	0.6	0.7	0.8	0.8
싱가포르	0.9	0.7	0.7	0.8	0.8	0.7	0.6	0.5	0.5	0.5
베트남	0.6	0.7	0.9	0.9	0.9	1.0	0.9	0.9	1.0	0.8
합계	71.5	67.6	68.5	71.3	73.3	76.0	75.3	75.7	76.5	74.1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8. 한국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3,195	3,108	3,781	3,877	4,099	4,497	4,403	5,596	6,169	5,499
캐나다	401	470	472	339	480	632	486	654	781	949
멕시코	2,653	2,408	3,067	3,328	3,310	3,566	3,666	4,611	4,951	4,007
미국	141	230	243	210	309	299	251	332	437	542
ER8	436	644	621	735	1,150	1,245	1,219	1,278	1,600	1,669
스페인	13	26	28	27	47	49	40	41	79	67
프랑스	26	47	48	67	133	128	92	133	154	149
영국	90	116	111	122	161	176	128	111	183	204
이탈리아	42	70	70	81	117	137	99	116	184	185
네덜란드	33	66	66	106	112	112	97	118	156	149
폴란드	40	49	51	73	108	133	189	171	205	180
벨기에	20	35	31	30	32	41	38	51	66	107
독일	171	234	216	228	440	468	535	536	574	627
BRICS3	196	275	254	310	583	589	555	656	720	681
브라질	40	88	74	98	107	101	79	118	134	102
러시아	50	58	41	48	126	173	167	194	112	72
인도	106	129	139	163	350	315	310	344	474	507
NEA3	4,915	5,534	5,932	7,308	8,889	9,507	6,578	10,852	10,595	7,853
일본	717	967	906	823	784	846	639	751	1,057	1,777
대만	890	845	893	1,061	1,427	1,569	1,323	1,613	1,970	1,345
중국	3,308	3,722	4,133	5,424	6,677	7,091	4,616	8,488	7,568	4,731
ASEAN6	1,728	2,117	2,429	3,040	3,895	4,766	5,969	8,290	8,452	5,734
인도네시아	263	259	201	180	260	310	268	272	299	181
말레이시아	309	250	251	252	311	467	487	340	333	300
태국	148	116	116	170	229	220	265	289	344	284
필리핀	96	76	89	100	192	284	363	331	346	273
싱가포르	478	499	568	457	673	462	613	884	1,103	1,071
베트남	434	917	1,204	1,882	2,230	3,024	3,973	6,174	6,029	3,626
합계	10,470	11,678	13,018	15,270	18,616	20,603	18,725	26,671	27,536	21,436
우회수출총액	13,781	15,149	16,216	18,291	21,298	22,314	20,927	28,555	30,359	23,934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19. 일본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2.7	22.6	22.3	25.0	24.0	25.5	25.1	26.7	27.5	26.8
캐나다	2.8	2.7	2.6	2.5	2.6	2.8	2.6	2.7	3.0	2.7
멕시코	1.4	2.1	1.5	1.7	2.0	2.1	1.7	2.3	2.7	2.8
미국	18.5	17.8	18.2	20.8	19.3	20.6	20.8	21.6	21.8	21.4
ER8	17.6	15.2	15.3	16.2	18.4	19.2	18.7	18.6	19.6	18.1
스페인	1.6	1.2	1.2	1.2	1.4	1.4	1.4	1.4	1.5	1.3
프랑스	2.9	2.5	2.5	2.7	2.9	3.0	2.8	2.8	2.9	2.6
영국	3.4	3.3	3.2	3.0	3.3	3.3	3.1	2.9	3.3	3.1
이탈리아	2.3	1.6	1.6	1.5	1.8	1.8	1.7	1.7	1.8	1.7
네덜란드	1.3	1.2	1.3	1.6	1.9	2.0	2.1	2.0	2.2	2.0
폴란드	0.8	0.8	0.8	0.8	1.0	1.1	1.1	1.3	1.4	1.1
벨기에	0.8	0.8	0.9	0.9	1.0	1.0	0.9	0.9	0.9	1.0
독일	4.5	3.8	3.8	4.4	5.1	5.6	5.5	5.6	5.5	5.2
BRICS3	7.0	5.4	5.1	5.6	6.0	5.7	5.4	6.0	5.8	5.9
브라질	2.2	1.6	1.4	1.4	1.2	1.2	1.1	1.3	1.3	1.2
러시아	1.8	1.4	1.3	1.7	1.7	1.7	1.6	1.9	1.5	1.6
인도	3.0	2.4	2.5	2.5	3.1	2.8	2.7	2.9	3.0	3.1
NEA4	17.3	18.0	18.1	18.1	18.0	18.3	18.9	18.1	16.1	15.8
일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국	2.2	2.0	2.0	2.2	2.4	2.5	2.8	2.5	2.5	2.3
대만	1.2	0.9	1.0	1.0	1.0	1.1	1.2	1.4	1.4	1.2
중국	14.0	15.1	15.1	14.9	14.5	14.7	14.9	14.1	12.3	12.3
ASEAN6	6.5	6.0	7.7	6.7	6.9	7.0	6.4	6.2	6.5	6.7
인도네시아	1.8	1.5	1.6	1.6	1.7	1.6	1.4	1.5	1.6	1.6
말레이시아	1.2	1.2	2.5	1.1	1.1	1.2	1.0	1.0	1.1	1.0
태국	1.2	0.9	0.9	0.9	1.3	1.1	1.2	1.1	1.1	1.3
필리핀	0.6	0.7	0.8	0.8	0.8	0.9	0.7	0.9	0.9	1.0
싱가포르	1.0	0.8	0.7	0.8	0.8	0.8	0.6	0.5	0.5	0.6
베트남	0.8	0.9	1.2	1.4	1.2	1.4	1.5	1.2	1.3	1.2
합계	71.1	67.2	68.5	71.6	73.2	75.8	74.5	75.5	75.5	73.3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0. 일본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5,023	7,559	8,175	10,037	8,780	8,982	6,842	10,205	11,766	12,674
캐나다	1,506	2,203	2,039	2,026	2,135	2,460	1,705	2,513	3,058	3,344
멕시코	3,131	4,629	5,432	7,155	5,612	5,542	4,607	6,853	7,572	7,901
미국	387	727	704	856	1,033	979	530	840	1,136	1,428
ER8	1,421	2,228	1,936	2,743	3,567	3,598	2,673	3,897	4,760	5,146
스페인	26	40	38	50	96	95	49	82	156	133
프랑스	106	189	176	298	552	475	232	407	411	485
영국	385	411	354	508	835	814	456	463	694	895
이탈리아	70	115	103	143	213	187	147	221	344	513
네덜란드	184	298	276	486	314	291	236	552	592	546
폴란드	25	33	32	45	81	88	91	109	153	183
벨기에	104	163	129	161	186	212	236	348	374	381
독일	520	980	828	1,053	1,290	1,437	1,227	1,715	2,037	2,008
BRICS3	171	301	269	441	790	735	600	993	1,243	1,647
브라질	54	107	83	141	173	178	110	270	341	307
러시아	29	50	33	57	164	172	126	184	104	47
인도	88	144	153	243	453	385	364	538	798	1,292
NEA3	10,485	12,190	11,674	15,384	17,570	17,224	16,364	26,040	29,305	33,042
한국	2,798	4,389	3,950	4,223	3,800	4,079	2,985	4,683	6,038	8,229
대만	3,130	3,283	3,139	4,264	4,777	4,779	4,727	6,063	6,494	9,055
중국	4,557	4,518	4,585	6,897	8,993	8,367	8,652	15,294	16,773	15,758
ASEAN6	3,400	4,414	4,555	5,588	7,429	8,155	7,167	9,604	10,256	13,100
인도네시아	266	357	252	303	423	462	353	515	669	550
말레이시아	869	855	775	921	1,262	1,641	1,193	1,001	1,084	1,323
태국	738	926	873	1,608	1,696	1,765	1,780	2,229	2,313	2,909
필리핀	212	203	223	287	309	407	411	422	513	924
싱가포르	1,006	1,286	1,500	1,335	2,250	2,052	1,208	2,093	2,353	4,667
베트남	309	786	933	1,134	1,488	1,828	2,222	3,343	3,325	2,726
합계	20,499	26,693	26,609	34,193	38,136	38,695	33,646	50,738	57,330	65,608
우회수출총액	29,262	33,815	32,917	42,529	44,484	41,645	37,546	53,952	61,326	70,860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1. 대만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3.5	22.3	22.3	25.8	25.0	27.7	26.6	28.4	28.5	28.9
캐나다	2.5	2.2	2.2	2.2	2.5	2.8	2.8	3.0	2.9	2.6
멕시코	1.3	1.8	1.3	1.5	2.0	2.0	1.7	2.5	2.8	2.7
미국	19.7	18.3	18.8	22.1	20.5	22.8	22.2	23.0	22.8	23.7
ER8	17.4	14.3	14.5	15.4	17.0	18.0	17.2	17.3	18.2	16.7
스페인	1.5	1.1	1.1	1.1	1.3	1.3	1.2	1.2	1.3	1.2
프랑스	2.9	2.3	2.3	2.4	2.7	2.8	2.4	2.2	2.3	2.2
영국	3.3	2.9	2.8	2.6	2.9	2.9	2.8	2.7	3.2	3.0
이탈리아	2.3	1.4	1.4	1.4	1.5	1.5	1.5	1.4	1.5	1.5
네덜란드	1.3	1.4	1.4	1.9	1.9	1.9	2.0	2.0	2.3	2.0
폴란드	0.8	0.7	0.7	0.8	1.0	1.1	1.1	1.3	1.3	1.0
벨기에	0.7	0.7	0.8	0.8	0.9	0.9	0.9	0.8	0.7	0.9
독일	4.6	3.8	3.8	4.4	5.0	5.6	5.3	5.7	5.5	5.1
BRICS3	6.4	4.9	4.7	5.1	5.7	5.5	5.3	5.9	5.6	6.0
브라질	1.9	1.5	1.2	1.2	1.1	1.1	1.0	1.3	1.3	1.2
러시아	1.8	1.3	1.2	1.5	1.6	1.8	1.5	1.8	1.3	1.6
인도	2.7	2.2	2.3	2.3	3.0	2.7	2.7	2.8	3.0	3.2
NEA4	18.5	19.3	18.8	18.9	17.9	17.9	20.3	18.2	17.3	16.7
일본	5.9	5.6	5.6	5.5	5.5	5.6	4.9	5.0	4.7	4.9
한국	2.3	2.4	2.3	2.7	2.9	3.2	3.0	3.1	3.0	2.7
대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10.3	11.3	10.9	10.7	9.4	9.1	12.5	10.2	9.6	9.2
ASEAN6	5.7	5.8	7.5	6.5	7.5	7.0	6.3	6.3	7.1	6.7
인도네시아	1.6	1.5	1.6	1.6	2.1	1.8	1.5	1.6	1.9	1.7
말레이시아	1.1	1.2	2.4	1.1	1.2	1.1	0.9	1.0	1.2	1.0
태국	1.0	1.0	1.0	1.0	1.4	1.1	1.2	1.1	1.3	1.4
필리핀	0.5	0.6	0.7	0.8	0.8	0.9	0.8	0.9	0.9	0.9
싱가포르	0.9	0.7	0.7	0.8	0.8	0.7	0.6	0.5	0.5	0.5
베트남	0.6	0.8	1.0	1.2	1.2	1.3	1.3	1.1	1.2	1.0
합계	71.6	66.6	67.8	71.7	73.1	76.2	75.7	76.3	76.7	75.0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2. 대만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657	1,817	2,154	2,486	2,525	2,870	3,487	4,020	4,167	4,743
캐나다	417	478	477	427	469	677	483	798	702	610
멕시코	1,154	1,208	1,539	1,922	1,849	1,996	2,828	2,914	3,157	3,835
미국	86	131	138	137	206	196	175	308	308	297
ER8	343	482	454	610	806	668	777	904	1,004	721
스페인	13	13	14	17	22	23	22	35	55	26
프랑스	42	45	45	74	127	92	49	102	97	70
영국	75	84	80	107	103	110	80	103	130	80
이탈리아	32	48	47	60	68	67	57	77	105	72
네덜란드	21	34	35	59	76	71	70	120	121	120
폴란드	12	17	17	27	26	31	26	34	40	22
벨기에	11	22	19	22	25	37	32	47	44	46
독일	136	217	197	244	359	237	441	384	412	285
BRICs3	74	96	81	119	125	137	138	213	251	172
브라질	38	44	37	60	33	33	27	51	43	34
러시아	5	4	3	4	15	21	17	23	14	6
인도	31	47	42	54	78	83	94	138	193	132
NEA3	3,831	5,020	5,263	7,283	8,517	9,037	6,270	10,649	9,909	6,709
일본	489	766	719	760	899	983	464	589	737	1,162
한국	474	622	572	589	688	543	1,302	820	775	587
중국	2,868	3,632	3,973	5,935	6,931	7,512	4,504	9,241	8,397	4,959
ASEAN6	1,091	1,736	2,143	2,548	3,330	3,208	3,406	4,066	4,368	3,252
인도네시아	68	67	51	54	89	111	113	141	137	57
말레이시아	232	445	490	679	593	767	1,107	722	916	616
태국	69	83	94	138	232	269	224	194	257	371
필리핀	118	116	128	160	138	216	150	127	111	103
싱가포르	410	713	981	803	1,518	869	756	1,042	1,321	1,274
베트남	194	312	398	713	760	976	1,057	1,841	1,627	830
합계	6,996	9,151	10,096	13,046	15,303	15,920	14,078	19,852	19,699	15,596
우회수출총액	9,699	11,402	12,325	15,411	16,432	16,705	15,098	20,821	20,790	16,478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3. 인도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2.5	20.7	19.2	20.7	20.9	20.9	20.6	20.5	21.8	20.5
캐나다	2.5	2.2	2.1	2.2	2.3	2.3	2.2	2.3	2.6	2.4
멕시코	1.4	2.5	1.4	1.6	1.7	1.7	1.4	1.7	1.9	2.1
미국	18.6	16.1	15.7	16.8	16.9	16.9	17.0	16.5	17.3	16.1
ER8	21.1	19.9	20.2	21.2	25.1	26.1	23.2	24.1	24.4	23.7
스페인	2.1	1.8	1.8	1.7	2.1	2.0	1.8	2.2	2.1	1.9
프랑스	3.8	3.5	3.5	3.8	4.0	4.1	4.0	4.0	4.2	4.1
영국	3.8	4.0	3.9	3.6	4.4	4.5	3.9	4.0	4.3	4.1
이탈리아	3.2	2.3	2.3	2.2	2.7	2.5	2.2	2.5	2.6	2.4
네덜란드	1.5	1.4	1.4	1.9	2.4	2.4	2.4	2.3	2.3	2.2
폴란드	0.8	0.9	0.9	1.0	1.2	1.2	1.1	1.3	1.4	1.3
벨기에	1.0	1.1	1.5	1.4	1.5	1.5	1.4	1.4	1.3	1.4
독일	4.9	4.9	4.9	5.7	6.8	7.8	6.3	6.4	6.2	6.3
BRICs3	5.0	3.5	3.2	3.7	3.3	3.2	3.0	3.4	3.0	3.0
브라질	2.7	1.7	1.6	1.6	1.4	1.4	1.2	1.5	1.4	1.3
러시아	2.3	1.7	1.7	2.1	1.9	1.9	1.8	1.9	1.5	1.7
인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NEA4	20.6	20.0	19.3	19.1	19.9	19.4	20.4	21.3	19.8	20.6
일본	5.6	4.9	4.6	4.3	4.2	4.1	4.3	4.2	4.2	4.7
한국	2.5	2.0	2.0	2.2	2.2	2.0	2.1	2.2	2.1	2.1
대만	1.3	1.0	1.0	1.1	1.0	0.8	0.8	0.9	1.0	0.9
중국	11.3	12.1	11.7	11.5	12.6	12.5	13.1	14.0	12.5	12.9
ASEAN6	5.7	5.3	8.4	5.5	5.1	5.2	5.1	4.9	4.9	4.7
인도네시아	1.7	1.4	1.6	1.5	1.2	1.2	1.1	1.1	1.1	1.1
말레이시아	1.0	1.0	3.7	0.9	0.8	0.8	0.8	0.6	0.7	0.7
태국	1.1	1.0	0.8	0.9	1.1	1.0	1.1	1.1	1.0	1.0
필리핀	0.5	0.6	0.6	0.6	0.6	0.6	0.6	0.7	0.8	0.7
싱가포르	0.7	0.6	0.6	0.7	0.7	0.7	0.6	0.5	0.5	0.5
베트남	0.8	0.8	1.0	0.8	0.7	0.9	0.9	0.9	0.8	0.7
합계	75.1	69.5	70.2	70.2	74.2	74.8	72.4	74.1	73.8	72.6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4. 인도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368	924	1,150	1,265	1,880	2,106	1,953	2,389	3,335	3,987
캐나다	132	278	300	249	640	743	863	1,035	1,172	1,289
멕시코	161	523	703	818	916	1,001	802	1,039	1,630	2,138
미국	75	124	147	198	324	363	287	315	533	560
ER8	645	1,064	1,152	1,496	2,456	2,523	2,444	2,710	3,624	4,317
스페인	21	52	65	74	126	115	109	131	195	208
프랑스	70	124	146	224	339	394	262	343	358	310
영국	172	232	248	331	700	495	731	489	877	1,461
이탈리아	63	139	153	195	275	293	270	371	559	646
네덜란드	73	100	115	178	307	401	241	421	373	473
폴란드	6	18	21	27	41	47	49	63	98	83
벨기에	74	106	104	112	123	284	133	261	372	348
독일	164	293	301	354	544	494	649	630	791	787
BRICS3	60	107	131	202	192	198	267	313	355	321
브라질	52	95	121	188	138	137	199	243	314	297
러시아	8	13	10	14	54	60	69	70	41	25
NEA3	1,066	892	1,038	1,223	1,932	2,041	2,200	3,094	2,723	3,138
일본	90	148	167	168	166	228	184	239	341	677
한국	151	232	270	267	402	430	514	770	843	586
대만	91	126	164	182	351	310	274	358	406	489
중국	734	386	437	605	1,012	1,074	1,227	1,726	1,133	1,385
ASEAN6	648	863	980	1,209	1,573	1,647	2,641	2,335	2,631	2,766
인도네시아	61	106	91	97	184	187	189	272	324	217
말레이시아	117	143	173	233	249	296	401	177	257	220
태국	38	48	52	77	156	195	182	203	344	230
필리핀	6	13	14	17	15	34	37	81	88	90
싱가포르	354	426	476	463	583	488	1,384	860	1,000	1,463
베트남	73	127	175	323	385	448	448	742	618	548
합계	2,786	3,850	4,452	5,395	8,033	8,515	9,505	10,841	12,668	14,529
우회수출총액	9,082	8,253	9,267	9,977	14,758	12,473	14,296	17,179	20,191	21,234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5. 베트남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8.7	21.2	18.8	20.8	19.5	21.3	21.5	23.3	22.0	22.4
캐나다	2.1	1.9	1.9	2.2	2.1	2.1	2.5	2.5	2.4	2.6
멕시코	1.1	2.4	1.3	1.5	1.6	1.7	1.6	1.9	2.1	2.5
미국	15.5	16.9	15.7	17.0	15.8	17.5	17.4	18.9	17.5	17.2
ER8	17.8	16.7	17.9	19.1	21.3	21.9	21.1	20.3	21.0	21.2
스페인	1.5	1.2	1.4	1.3	1.6	1.6	1.6	1.5	1.6	1.6
프랑스	3.0	2.7	2.8	3.1	3.1	3.2	3.3	3.2	3.4	3.4
영국	3.5	3.5	3.8	3.4	3.6	3.6	3.5	3.1	3.5	3.4
이탈리아	2.4	1.8	2.0	2.0	2.3	2.1	2.1	2.0	2.0	2.1
네덜란드	1.4	1.4	1.4	1.9	2.6	2.3	2.3	2.2	2.6	2.2
폴란드	0.7	0.9	0.9	1.0	1.2	1.2	1.3	1.3	1.3	1.4
벨기에	0.8	0.9	1.4	1.0	1.4	1.3	1.3	1.2	1.2	1.3
독일	4.3	4.2	4.2	5.4	5.5	6.6	5.8	5.8	5.5	5.9
BRICS3	7.1	4.9	5.3	4.7	5.6	5.9	5.2	5.6	6.1	5.6
브라질	1.8	1.4	1.5	1.0	0.9	1.0	1.0	1.1	1.1	1.2
러시아	2.3	1.6	1.4	1.9	1.7	1.7	1.7	1.7	1.4	1.6
인도	3.1	2.0	2.3	1.8	2.9	3.1	2.5	2.8	3.6	2.8
NEA4	22.3	20.9	21.0	18.0	19.4	20.9	19.1	21.1	19.9	19.4
일본	6.0	5.0	4.6	4.6	4.4	4.4	4.5	4.2	4.0	4.1
한국	2.6	2.1	1.8	2.1	2.1	2.2	2.4	2.3	2.2	2.2
대만	1.4	1.2	1.3	1.1	1.1	1.2	1.2	1.3	1.2	1.2
중국	12.3	12.8	13.2	10.3	11.8	13.1	11.0	13.3	12.4	11.9
ASEAN6	6.0	4.8	9.0	5.2	6.2	5.5	5.1	4.8	5.4	4.7
인도네시아	1.8	1.4	1.6	1.4	1.5	1.5	1.3	1.4	1.5	1.3
말레이시아	1.0	0.9	5.0	1.2	1.7	1.1	0.9	0.9	1.0	0.8
태국	1.4	1.0	0.8	0.9	1.2	1.1	1.4	1.2	1.1	1.2
필리핀	0.7	0.7	0.7	0.8	0.8	0.9	0.7	0.9	1.1	0.8
싱가포르	1.1	0.8	0.8	0.9	1.0	0.8	0.7	0.5	0.6	0.6
베트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72.0	68.5	72.0	67.7	72.0	75.7	72.0	75.0	74.3	73.2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6. 베트남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36	111	131	149	210	265	303	542	371	524
캐나다	16	54	60	47	74	109	99	140	191	218
멕시코	15	48	62	54	97	116	164	354	122	208
미국	5	8	9	47	39	40	40	48	58	98
ER8	69	122	116	259	322	335	295	313	408	479
스페인	2	4	5	9	11	12	11	13	19	20
프랑스	5	10	9	52	62	72	52	44	56	59
영국	9	12	11	44	50	76	47	53	67	89
이탈리아	12	19	18	20	18	25	18	22	29	29
네덜란드	8	15	17	47	50	44	28	30	39	52
폴란드	1	2	2	6	13	13	8	16	14	16
벨기에	8	15	14	13	13	11	9	22	20	21
독일	24	43	40	67	105	82	124	114	165	193
BRICS3	12	25	25	35	68	118	66	70	104	71
브라질	2	9	8	8	12	12	11	14	13	10
러시아	1	1	0	5	12	19	10	7	6	4
인도	10	15	16	22	43	87	45	49	86	58
NEA3	407	818	704	968	875	1,053	1,077	1,016	1,124	1,175
일본	138	182	141	160	180	210	111	154	211	352
한국	61	195	175	169	194	259	179	205	232	273
대만	43	45	46	38	49	70	71	81	96	80
중국	164	396	342	601	452	515	717	577	585	470
ASEAN6	163	227	167	242	249	330	355	373	443	322
인도네시아	20	21	15	41	37	46	41	54	64	29
말레이시아	91	149	87	71	56	67	68	62	69	48
태국	9	10	11	36	42	67	72	79	104	60
필리핀	9	10	14	21	23	27	14	32	33	38
싱가포르	34	36	40	73	91	122	161	146	172	146
합계	686	1,303	1,143	1,653	1,724	2,102	2,097	2,314	2,451	2,571
우회수출총액	1,126	1,842	2,017	1,951	2,109	2,457	2,381	2,613	2,900	2,997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표 5-27.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중 최종 목적지별 비중 변화

(단위: %)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18.2	17.5	17.8	19.6	19.0	21.4	21.4	21.8	21.9	21.2
캐나다	1.9	1.7	1.7	1.7	1.8	1.9	2.0	2.1	2.0	1.8
멕시코	1.1	1.4	1.2	1.3	1.5	1.8	1.6	1.7	1.9	2.2
미국	15.1	14.3	14.8	16.6	15.7	17.6	17.8	18.0	17.9	17.2
ER8	16.1	15.1	15.6	16.1	17.3	17.8	16.9	16.9	17.3	15.8
스페인	1.5	1.2	1.3	1.1	1.3	1.3	1.2	1.3	1.3	1.2
프랑스	2.7	2.5	2.6	2.7	2.7	2.7	2.7	2.6	2.7	2.4
영국	3.2	3.1	3.1	2.8	3.3	3.1	3.0	2.9	3.2	2.8
이탈리아	2.3	1.6	1.7	1.6	1.7	1.6	1.6	1.6	1.7	1.5
네덜란드	1.2	1.1	1.2	1.5	1.7	1.7	1.8	1.8	1.8	1.7
폴란드	0.6	0.6	0.7	0.7	0.8	0.8	0.9	1.0	1.0	0.9
벨기에	0.8	1.0	1.2	1.0	1.1	1.1	1.0	1.0	0.9	0.9
독일	3.8	3.9	3.8	4.6	4.7	5.6	4.7	4.7	4.6	4.2
BRICS3	7.3	5.5	5.6	5.6	5.4	5.5	5.1	5.7	5.5	6.2
브라질	2.1	1.4	1.4	1.3	1.0	1.0	1.0	1.1	1.2	1.2
러시아	1.7	1.3	1.3	1.6	1.3	1.4	1.4	1.5	1.2	1.6
인도	3.5	2.8	3.0	2.7	3.0	3.0	2.8	3.0	3.1	3.4
NEA4	24.0	22.7	23.2	22.9	23.0	23.1	23.5	22.9	21.1	23.7
일본	6.4	5.6	5.6	5.2	5.0	5.1	5.1	5.0	4.6	5.4
한국	2.7	2.4	2.5	2.7	2.7	2.8	2.8	2.8	2.7	2.9
대만	1.5	1.4	1.4	1.5	1.4	1.5	1.3	1.3	1.3	1.3
중국	13.5	13.3	13.8	13.5	13.9	13.8	14.3	13.9	12.6	14.0
ASEAN6	6.3	6.1	7.8	6.4	7.1	6.8	6.4	6.2	6.4	6.2
인도네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말레이시아	1.4	1.5	3.4	1.3	1.3	1.4	1.2	1.1	1.2	1.3
태국	1.8	1.4	1.3	1.4	1.8	1.6	1.7	1.6	1.5	1.6
필리핀	0.8	1.0	1.0	1.1	1.0	1.2	1.1	1.3	1.6	1.4
싱가포르	1.2	1.0	0.9	1.0	1.2	1.0	0.8	0.6	0.7	0.7
베트남	1.2	1.3	1.3	1.6	1.7	1.6	1.7	1.5	1.5	1.3
합계	72.0	67.0	70.0	70.6	71.9	74.7	73.3	73.5	72.2	73.0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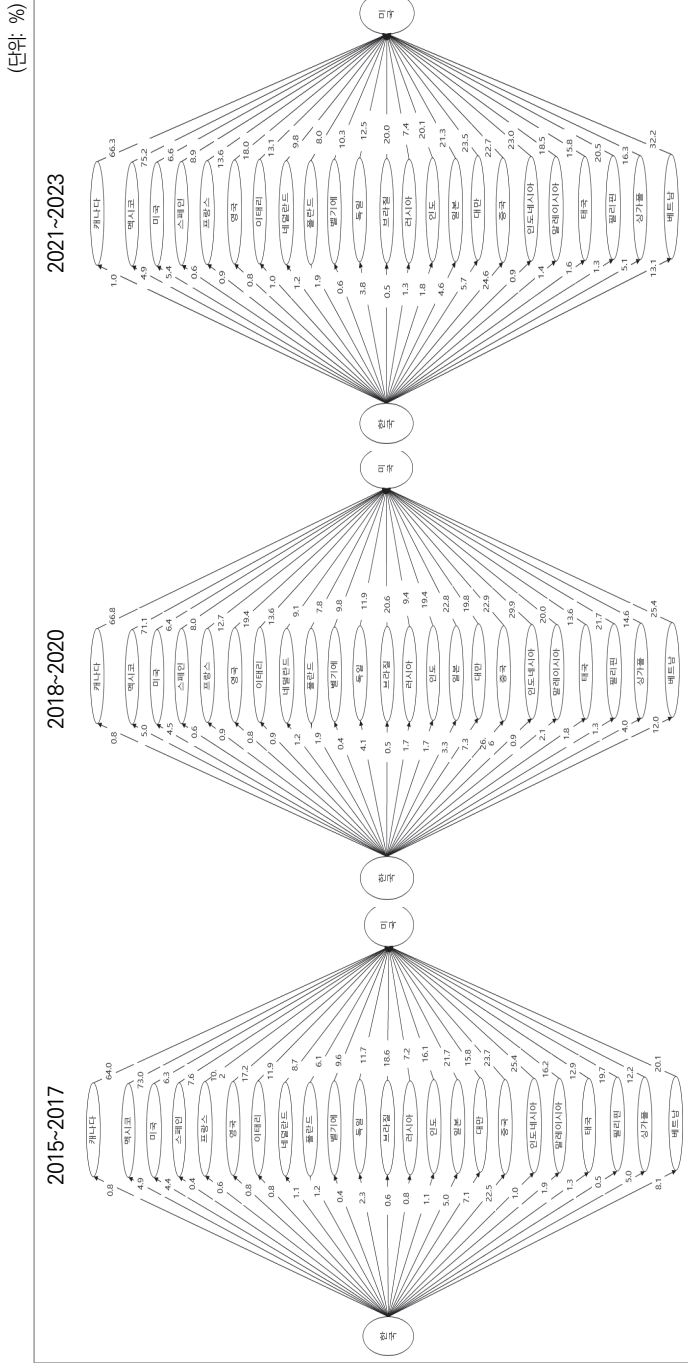
부록 표 5-28. 인도네시아의 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MCA	269	433	512	592	390	527	491	577	717	820
캐나다	104	158	163	136	144	249	171	252	282	241
멕시코	133	230	299	402	177	200	260	240	336	500
미국	32	45	50	54	69	78	60	84	99	79
ER8	257	431	371	589	559	562	460	633	898	625
스페인	40	55	47	64	62	57	45	64	101	59
프랑스	13	21	23	41	52	55	32	63	79	51
영국	27	33	32	45	63	73	46	56	94	55
이탈리아	29	78	53	100	91	97	87	115	165	120
네덜란드	80	130	103	193	159	145	112	157	197	130
폴란드	2	6	7	11	12	14	11	15	35	23
벨기에	13	14	12	16	19	35	19	36	50	44
독일	53	94	93	120	102	85	108	128	178	143
BRICS3	137	265	180	343	738	631	485	707	1,298	870
브라질	22	34	25	54	37	40	36	74	77	45
러시아	2	4	2	3	15	21	23	30	16	6
인도	113	227	154	286	686	570	426	603	1,205	819
NEA3	2,563	2,508	2,202	3,149	2,865	3,254	2,751	4,614	5,962	5,061
일본	668	993	906	1,149	706	924	531	654	1,177	1,263
한국	676	573	523	677	615	634	549	615	1,166	823
대만	546	328	236	430	404	410	393	929	1,089	658
중국	673	613	537	893	1,140	1,286	1,277	2,417	2,528	2,317
ASEAN6	1,078	1,262	1,145	1,476	1,895	2,288	2,226	2,778	3,067	3,058
말레이시아	551	527	392	467	565	610	638	516	583	453
태국	93	127	106	211	255	275	214	324	442	340
필리핀	52	61	77	112	112	143	129	220	271	289
싱가포르	292	435	402	409	612	797	777	1,014	952	1,243
베트남	91	113	168	276	351	463	468	704	820	734
합계	4,304	4,899	4,410	6,148	6,447	7,262	6,413	9,309	11,942	10,434
우회수출총액	6,501	6,486	6,565	7,769	7,565	7,787	7,091	10,015	13,029	11,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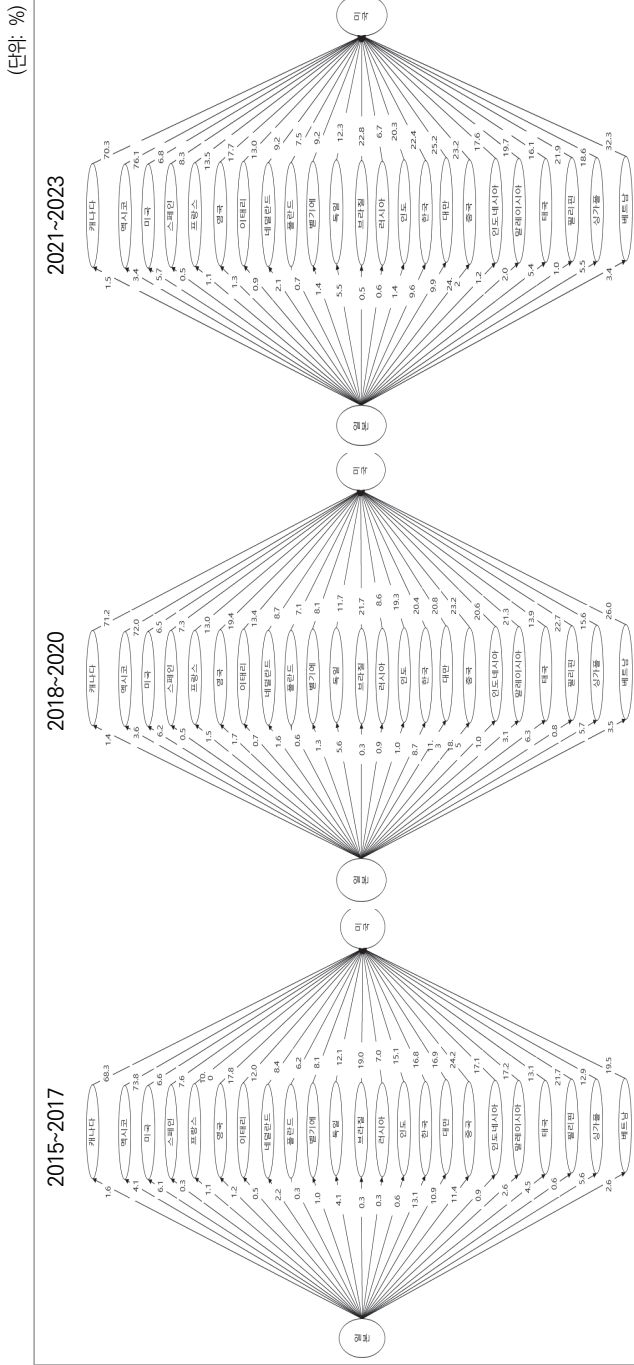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그림 5-1. 한국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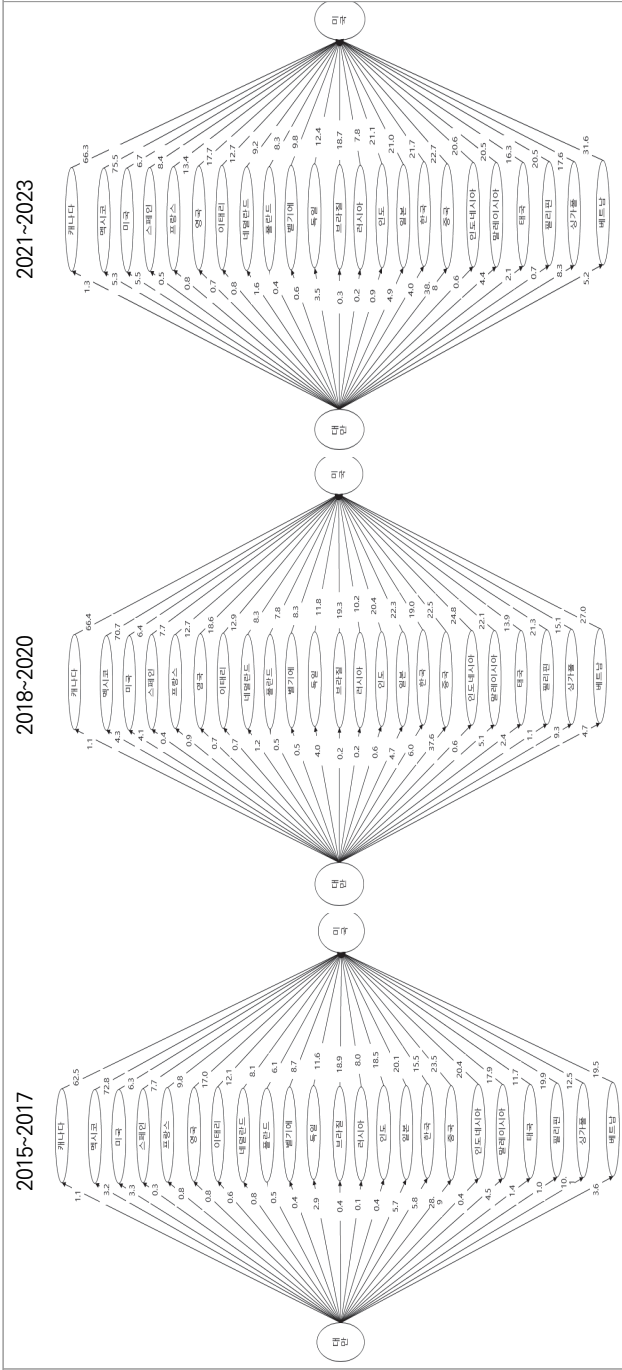
부록 그림 5-2. 일본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주: 그림 5-6과 표 5-3을 이용하여 재구성.  
 자료: ADB-W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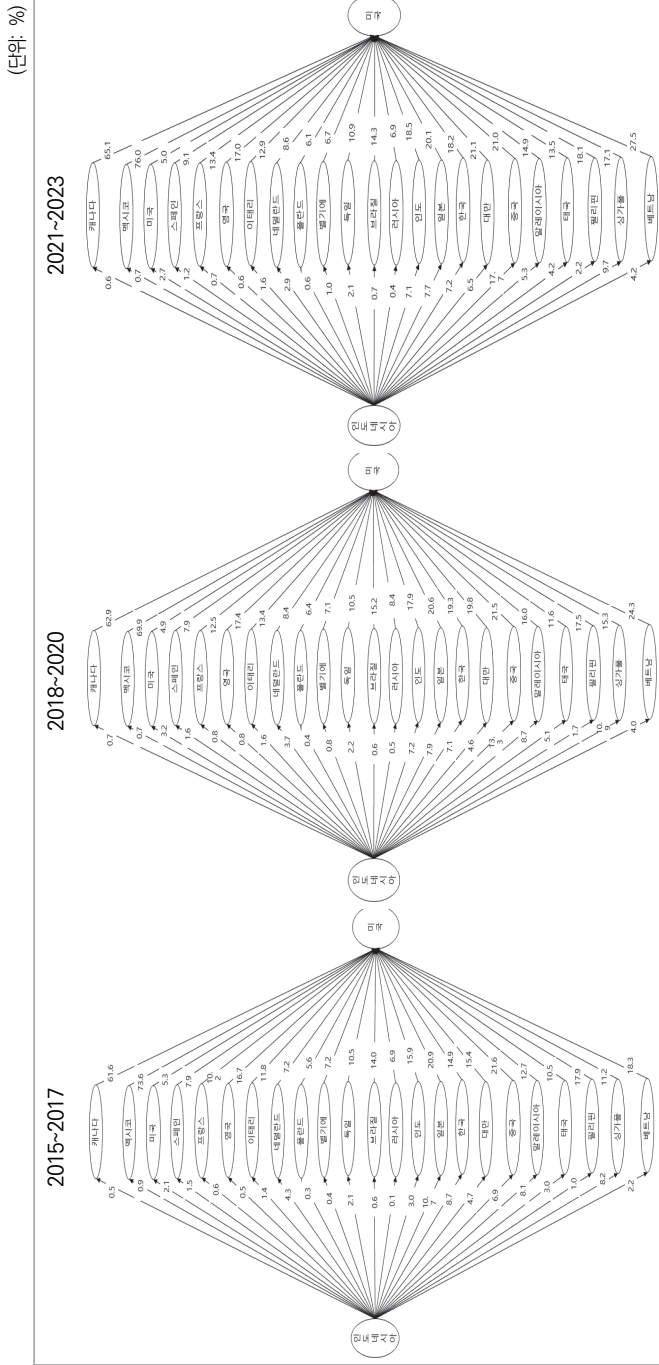
부록 그림 5-3. 대만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단위: %)



주: 그림 5-8과 표 5-4를 이용하여 재구성.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부록 그림 5-4. 인도네시아의 간접수출 경유 및 최종 미국 수출 비중 현황



주: 그림 5-14과 [표 5-1]을 이용하여 재구성.  
 자료: ADB-MRIO 자료 이용 저자 추계.

## Shifts in Global Value Chains among Major Asian Economies after the U.S.–China Trade War: Focusing on the Roles of India and ASEAN as Indirect–Export Hubs

Soon–Cheul Lee, Wanjoong Kim, and Young–jin Ro

This study analyzes how patterns of change in global value chains (GVCs) have evolved among seven major Asian countries 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GVCs has deepened after the U.S.–China trade war.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 whether India, Vietnam, and other key ASEAN countries are likely to play roles as indirect export and production hubs in response to GVC change. To this end, we use the 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 data for the 2015–2023 period and conduct an analysis that includes the latest information. To identify the flow of GVC change before and after the U.S.–China trade war, we divide the analysis period into three stages: the pre–trade–war period, Trump’s first term,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period.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hat enable Korea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rapidly changing GVC environment by cooperating with India

and major ASEAN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Indonesia, thereby coping effectively with the evolving global economic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Chapter 2 analyzes the changes in the value-added exports of major countries before and after the U.S.-China trade war. Chapter 3 examines mutual export dependence and production fragmentation on a value-added basis. Chapter 4 identifies the drivers of value-added change for major countries. Chapter 5 analyzes structural changes by indirect export hub, structural changes by final destination, and at the country and industry levels in roundabout (indirect) export structures. Chapter 6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rporate response strategies that focus on cooperating with India, Vietnam, and Indonesia in response to GVC changes. It also discusses direc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In Chapter 2, we fin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high tariff policy shocked GVC structures across the board. However, the relatively more industrialized economies of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showed resilient responses. In contrast, India, Vietnam, and Indonesia were more strongly affected, and structural change was observed. Korea, Japan, and Taiwan maintained intermediates-oriented export structures, while China, maintained an FVA structure with final goods and defended its position as a global production base despite receiving relatively strong shocks. India shifted to an intermediates-oriented export structure, while Vietnam moved toward an export structure with higher dependence on FVA. Indonesia recorded a somewhat larger share of intermediate goods and

re-exports. Overall, we interpret the high-tariff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s having had a substantial impact, exposing the external dependence of industrial structures in Asian countries and revealing limits of their domestic value-added export capacity.

In Chapter 3, we analyze changes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dex. Korea, China, Indonesia, and India experienced declines in participation during the Trump period, followed by a short-term rebound, and then showed a renewed downward trend from 2021. Japan and Taiwan underwent continuous declines from 2015, then turned to an upward trend from 2021. Vietnam, although showing some fluctuations, exhibited an overall steady upward trend.

In Chapter 4, we break down the export variation arising from the U.S. high-tariff policy into changes in value-added coefficients, changes in technical coefficients, and changes in the scale of final demand. Our analysis shows that the degree of industrial upgrading leads to different effects on value-added exports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For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China, Korea, and Japan, changes in value-added and technical coefficients are identified as important drivers.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interpreted as key factors behind export growth in these countries. By contrast, for emerging economies such as India, Vietnam, and Indonesia, expansion of final demand is analyzed as the most important driver of value-added exports. This reflects the fact advanced countries participate in GVCs based o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while emerging countries expand their demand base through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backward

participation in GVCs.

In Chapter 5, we empirically analyze whether major Asian countries are likely to perform strategic roles as indirect-export and roundabout-export hubs under GVC chang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Taiwan are analyzed as pursuing diversification of routes for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Due to their technology-intensive industrial structures and high GVC participation, these countries are upgrading their networks of indirect-export hubs and deploying sophisticated multi-route strategies. China plays a dual role as both a major indirect-export hub and a final-destination country of the indirect export. By contrast, emerging economies such as India, Vietnam, and Indonesia are emerging as new hubs for indirect and roundabout exports, and their strategic importance as platforms targeting the U.S. market is assessed to be expanding.

In addition, we analyzed the structure through which China's intermediate goods are indirectly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via other countries and observed relatively high re-routing-export shares of roughly 20-30%, with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articular, re-routing-export shares via Korea, Japan, and Taiwan are very high, suggesting that Chinese products use higher value-added economies as re-routing routes. India, Vietnam, and Indonesia are shown to be moving beyond simple roundabout hubs and elevating their status as major production hubs within the GVC.

In Chapter 6, based on the preceding findings, we propose cooperation measures for Korea with major ASEAN countries such as India and Vietnam in response to GVC change. As GVC response strategies, we

present the following implications: technically based trade diversification, establishing Korea's GVC positioning strategy, mapping tariff differentials and preparing GVC reconfiguration plans, and maximizing and expanding the use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FTAs). Along with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evolving roles of India and ASEAN as roundabout/indirect-export hubs, we propos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global production and export hubs, as well as product-level response strategies for firms. Finally, we discus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

<책임>

이순철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지역통상학과교수  
(現, E-mail: sclee@bufs.ac.kr)

저서 및 논문

「한-인도 수출다각화 및 집중과 수출입 간의 상관관계 분석」(『남아시아연구』, 2024)  
「FTA, 한류, 기업형태가 문화제품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무역통상학회지』, 2024) 외

---

<공동>

김완중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 박사  
(前)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교수  
(現, E-mail: wk7862@dau.ac.kr)

저서 및 논문

「미·중 간 경제적 갈등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 변화: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영향력 및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산업연구』, 2024)  
「아시아 주요국 농업농촌개발정책과 비교를 통해 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성과 평가 -생산 및 농가소득을 중심으로-」(『동북아경제연구』, 2025) 외

---

노영진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경제학 박사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부교수  
(現, E-mail: yjro@dau.ac.kr)

저서 및 논문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산업연구』, 공저, 2023)  
「경상수지의 중장기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국제통상연구』, 공저, 2025) 외

#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5년

  - 25-01 기업 자료를 활용한 한·아세안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 이충열 · 이종하 · 이선호 · 이종윤
  - 25-02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글로벌 분업관계 변화: 우회수출기지로서 인도 및 아세안 역할을 중심으로 / 이순철 · 김완중 · 노영진
- 2024년

  - 24-01 Strengthening Korea's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ocusing on Key Agendas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 이진상 · 박영호
  - 24-02 향후 미얀마 국내 상황 및 주요국 미얀마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대 미얀마 전략 / 김예경 · 문기홍 · 이기태 · 이재현 · 이진영 · 장준연 · 정구연
  - 24-03 중남미 국가의 그린 에너지 산업 기반과 협력 강화방안 연구 / 이창근 · 김영재 · 서민영 · 우혜영
  - 24-04 인도의 인프라 정책 및 수요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김정곤 · 김도연 · 윤지현 · 강반디 · 이순철
- 2023년

  - 23-01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향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 박재적 · 백우열 · 서정진 · 이재현 · 주재우 · 최윤정 · 최희식
  - 23-02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 김강석 · 한새롬 · 최두영
  - 23-03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 지원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전제성 · 김정현 · 김희숙 · 이상국 · 이진영 · 부경환
  - 23-0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 이성규 · 유학식 · 김수인
  - 23-05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 전형진 · 박용안 · 이순철 · 박원빈
- 2022년

  - 22-01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 강문수 · 유광호 · 이지은

- 22-02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  
김현재 · 정웅태 · 유학식 · 최영선 · 김용건 · 정태용
- 22-03 한-MENA 녹색전환 협력방안 /  
서정민 · 서상현 · 김경하 · 노다솔 · 최이슬
- 22-04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  
이순철 · 장용준 · 최윤정 · 박원빈
- 22-05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  
장용규 · 김계리 · 김수원 · 박지민
- 22-06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 /  
노용석 · 박윤주 · 서지현 · 손혜현 · 오인혜 · 이상현 · 정호윤
- 22-07 아세안 신항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오일석 · 김경숙 · 윤정현 · 김유철
- 22-08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  
김정곤 · 한형민 · 노윤재 · 김도연 · 백종훈 · 김민희 · 남유진
- 22-09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  
최인아 · 이재호 · 김소은 · 최경희
- 22-10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이승호 · 홍성우 · 김진오 · 박미숙
- 22-11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  
강문수 · 노윤재 · 윤정환 · 김예진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물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S 발간물일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A 계간지</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Shifts in Global Value Chains among Major Asian Economies after the U.S.-China Trade War: Focusing on the Roles of India and ASEAN as Indirect-Export Hubs

Soon-Cheul Lee, Wanjoong Kim, and Young-jin Ro

이 보고서는 2015~23년 ADB-MRIO를 바탕으로 미·중 무역전쟁 전후 GVC의 구조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아시아 7개국의 부가가치 수출, 수직특화, 간접·우회수출을 3기(무역전쟁 이전 2015~17년, 트럼프 1기 2018~20년, 바이든 시기 2021~23년)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GVC는 ‘충격-회복-재편’의 경로를 보였다. 특히 중국산 중간재의 대미 우회수출 비중이 높았고, 한국·일본·대만의 간접수출 비중은 확대되는 한편, 인도와 베트남은 생산 허브로의 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주요 아시아국의 GVC 재편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을 위한 시사점으로 무역 다각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 경유지 네트워크 전략, FTA 활용 확대, 품목별 기업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ISBN 978-89-322-9066-9  
978-89-322-9000-3 (세트)

정가 10,000원